

Military History

#### 2017.12. 제105호



- 미국의 전쟁이 한미군사동맹 관계변화에 주는 함의
- 백마고지 전투의 재조명
- 김일성의 6.25전쟁 전략 분석: 전략의 전술화
-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 초기 한국정부의 미국에 대한 대응전략
- "8월의 폭풍"에서 "사막의 폭풍"으로
- 제2차 세계대전기 소련의 대일전 참가를 둘러싼 미 · 소 군사협력
-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군의 군사전략과 전후 국제질서 구상
- 한국전쟁기 상해지역 '항미원조(抗美援朝)' 운동의 실상과 특수성
-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의 '船所' 연구
- 고려초기의 영토의식과 국경 분쟁

#### [서 평]

- 한러 군사관계의 체계적 이해
  - 심현용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1917~1948)』(국방부군사편찬 연구소, 2016) -
- 진화론적 관점에서 규명한 전쟁의 원인과 역사

Azar Cat, 『War in Human Civi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오숙은 이재만 옮김, 『문명과 전쟁 교육서간, 2017) —





第105號 2017.12.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 Contents | 2017. 12. 제105호

1	▶ 미국의 전쟁이 한미군사동맹 관계변화에 주는 함의	장광열
45	<ul><li>▶ 백마고지 전투의 재조명</li><li>국군 제9사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 분석을 중심으로 -</li></ul>	나종남
95	▶ 김일성의 6.25전쟁 전략 분석: 전략의 전술화	김태현
151	<ul> <li>▶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 초기 한국정부의 미국에 대한 대응전략</li> <li>- '방기의 두려움'을 중심으로 -</li> </ul>	양준석
189	▶ "8월의 폭풍"에서 "사막의 폭풍"으로: 냉전 시기 미육군의 소련군 작전술 이론의 연구와 수용 과정	류한수
227	<ul> <li>▶ 제2차 세계대전기 소련의 대일전 참가를 둘러싼 미·소 군사협력</li> <li>무기대여법과 '훌라 프로젝트(Project Hula)'의 역할을 중심으로 -</li> </ul>	심헌용
257	▶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군의 군사전략과 전후 국제질서 구상	윤영휘
287	<ul> <li>▶ 한국전쟁기 상해지역 '항미원조(抗美援朝)' 운동의 실상과 특수성</li> <li>- '항미'(抗美)와 '원조'(援朝) 사이에서 -</li> </ul>	김태윤









# Contents | 2017. 12. 제105호

31	817 ▶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의'船所'연구				
36	31	•	고려초기의 영토의식과 국경 분쟁	신안식	
38	39	▶ 3	평] 한러 군사관계의 체계적 이해 - 심헌용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1917~1948)』(국방부군사편찬 연구소, 2016) -	기광서	
40	)1		진화론적 관점에서 규명한 전쟁의 원인과 역사 - Azar Gat. 『War in Human Civilization』(Oxford University Press, 2006)   (오숙은 · 이재만 옮김, 「문명과 전쟁」, 교유서가, 2017) -	최영진	
	부 🤄	록	1. 연구소 동정 ···································	415 417 418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1-43 https://doi.org/10.29212/mh.2017..105.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미국의 전쟁이 한미군사동맹 관계변화에 주는 함의\*1)

장광열\*\*

- 1 머리말
- 2. 이론적 배경
- 3. 미국의 전쟁기, 한미군사동맹 변화 양상
- 4. 미국의 전쟁기가 한미동맹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 5. 맺음말

## 1. 머리말

19세기까지 유럽제국주의 국가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역국가로 머 물러 있던 미국은 20세기에 들어와 세계로 눈을 돌리면서 열강의 국제 체제로 진입을 시도하게 된다. 더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에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승전국의 주역으로서 이후 전개되는 냉전 체제를 소련과 함께 견인하는 최강대국의 면모를 보였고. 탈냉전 이후

<sup>\*</sup> 본 논문은 저자의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 및 보완하여 재구성한 내용임.

<sup>\*\*</sup> 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연구원

에는 단극체제의 정점에서 지구촌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단하나의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냉전시대, 미국은 세계를 주도하면서 그동안 다자간 혹은 양자간 동맹을 맺어 공산진영에 대항하고자 하였으며 이렇게 생성된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아직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동맹을 놓고 살펴보면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 맺은 동맹관계는 대부분 양자 간의 쌍무적 동맹이라는 것이다.1) 샌프란시스코조약을 통하여 일본과 1952년에 미-일동맹을, 1951년에는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을, 1954년에는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동맹관계를 수립하였고, 한국과는 1953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계기로 동맹의 틀 안에 들어갔다. 따라서 미국과 이들 국가가 맺은 동맹의 성격은 자연스럽게 비대칭동맹의 형태가 되었으며 미국의주도아래 각 동맹들이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강대국인 미국과 의소로이 맺은 비대칭 형태의 동맹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변화는 주로 총체적 국력이 강한 미국이 주도가 되고 약소국의 주장은 미국의 의향에 따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비대칭동맹은 양국가의 국력의 차이로 인하여 동맹에 기여하는 정도가매우 상이하며 강대국의 의한 영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2) 그리고 이러한 비대칭동맹의 태생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강대국은 안보를제공하는 대가를 약소국에게 요구하게 되며 이에 따라 비대칭적인 상황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자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국제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3)

<sup>1)</sup> 미국은 유럽성향의 국가들과는 NATO, ANZUS 등 다자동맹을 선호하는 편이며, 아시아 지역 등의 소국과는 양자동맹을 주로 체결하여 왔다.

<sup>2)</sup> 김대성, "동맹의 딜레마와 약소국의 대응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한국군사학논집』 제65집 2권(2009):4.

<sup>3)</sup> Daniel Thurer, "The Perception of Small State: Myth and Reality", Laurent Goetschel(ed.), Small State ans Outside The European Union: Interests

이렇게 갓대국에게 안보를 의지하게 되는 약소국은 대외정책을 결정 할 때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기 보다는 강대국의 의도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4) 이러한 약소국의 자율성 상실은 동맹의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소국은 강대국의 정치적 간섭에 시달릴 수밖에 없 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비대칭동맹의 역사를 살펴보면 강대국의 주장이 동맹협상에 있어 반드시 관철되고 약소국의 그것이 항시 외면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동맹에 있 어서도 그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한미동맹의 탄생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의해 동맹의 변화가 주도되어 왔지만 오히려 한국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는 시기가 존재하였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반전은 동맹의 형생과 첫에 주목하면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맹관계가 최초 형성되고 시간이 지난에 따라 동맹이 변화하는 것 은 협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동맹의 변화는 크게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내적인 요인은 동맹관계에 있 는 국가들의 역량과 각자가 추구하는 동맹이익 문제로 말할 수 있으며 외적인 요인은 국제사회의 본질과 구성단위 간에 존재하는 관계에 있 다고 말할 수 있다.5) 이러한 요인들은 동맹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협 상의 테이블에서 고스란히 반영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동맹 의 흐름이 반드시 강대국에게 유리하게 동맹이 변화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and Politics (1998):35.; 백성호. "강대국과 약소국가 안보돗맷의 특성 고찰." 『사 회과학연구』 9 (2003):219. 재인용.

<sup>4)</sup> Adrienne Amstrong,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Depend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5 No. 3(1981):401.

<sup>5)</sup> 백성호, "비대칭 안보동맹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0집(2003) :73-79.

역대 한미동맹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이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고 오히려 한국에 유리하게 동맹이 변화한 시기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종합해 보면 우리는 공통적인 시기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미국이 전쟁에 참가한 기간이다. 미국이 전쟁에 돌입하면 그 시기에는 한미동맹에 있어 한국의 주장이 평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고 심지어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이다. 이 보고 모에서는 미국이 그지저 기업에서 전쟁에 참기한 하고 전쟁에 보고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쟁에 참가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아프간-이라크전쟁 등 총 4개 전쟁기를 상정하고이 기간 중의 한미동맹의 변화를 동맹협상과 그 산물인 동맹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맹협상과 관련된 2가지의 이론, 즉 양면게임이론(Two Level Game), 비대칭협상이론(Asymmetric Negotiation)에 관거하여 논리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한미동맹과 같은 비대칭 동맹한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국가간의 힘의 논리로 설명할 수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설명하여만 동맹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양면게임이론"과 "비대칭협상이론" 등의 관련된 이론 2가지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비대칭동맹의 변화가 항상 강대국의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두 이론 모두가 국내 정치환경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통하여 동맹협상에 대해 영

<sup>6)</sup> 장광열, "비대칭동맹 변환과 약소국 요인: 미국의 전쟁기 한미동맹 변화요인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5-8.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도출한 것이다. 또한 이 두 이론은 객관적인 국 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약소국에게 유리한 동맹변화가 발생할 수 있 는가에 대한 좋은 답변자료를 제공한다.

우선 "양면게임이론"은 협상을 하는 두 국가의 국내정치면에 주목을 하되. 협상결과에 대한 비준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비대칭협상이론"은 비대칭적 상황에 특화되어 적용할 수 있는 이론으 로써 협상자의 인식과 능력에 주목한 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이 두 이론은 비대칭동맹변화의 원인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성격 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뒤이어 기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한 가지의 이론을 적용하여 논리를 전재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진 이론을 동시에 적용한 것은 본 논문이 주 장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쟁이 내대장등맹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더욱 정확히 해석하고 논리의 명확성을 더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 가. 양면게임이론

한 국가가 탄생되고 이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정권에 의한 국내 통치행위와 다른 국가와의 끊임없는 대외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위해 국가는 사전에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고자 노력 하는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간의 동맹도 이러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양면게임이론은 퍼트남(Putnam)에 의 해 소개된 이론으로써 한 국가가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협상에 임함에 있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적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국가의 외교정책과 협 상전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당구공이나 블랙박스와 같은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며 국제정치체계적 요소와 더불어 국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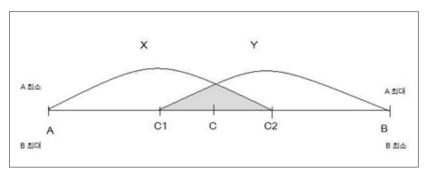
요 정치행위자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외교정책의 결정과 협상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7)

이러한 양면게임이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개략적으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상호 복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종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국제적 게임과 해당 국가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정치세력들을 고려한 국내적 게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국제정치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국내 정치세력을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며 이러한 만족을 위 해 '비준'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준'이란 개념은 단순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 승인했위 뿐 아니라. 비공식적 정 치적 표현이 가능한 모든 국민들이 포함된 다양한 국내 정치요소들을 일컫는 것이다.

양면게임이론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위셋(win-set)의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셋이란 "정책결정자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국내적 인 비준을 받는 모든 합의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8) 국가가 다른 국가 와 협상에 임하면서 협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합의 수가 많아지면 그만 큼 위셋이 커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협상에 대한 성공의 가 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윈셋이 작아지면 합의의 수가 줄기 때문에 결렬 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윈셋은 국내의 정치적 요구 가 많으면 그만큼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sup>7)</sup> 김관옥. "한국파병외교에 대한 양면게임 이론적 문석: 베트남과 이라크 파병의 사례 비교".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 1호(2005):359~360.

<sup>8)</sup> 최은미, "양면게임이론으로 분석해 본 한일 과거사 문제: 2005년 역사교과서 파동 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7권 1호(2011):150-151.



〈그림 2-1〉 윈셋의 모형

출처: 최은미. "양면게임으로 분석해 본 한일 과거사 문제: 2005년 역사교과서 파 동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7권 1호(2011):151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국가의 윈셋을 X라고 하고 B국가 의 위셋을 Y라고 할 때. X가 😘 🛣 X가 C1이면 C'과 C2사이의 합의 점이 생기지만 만약 X가 C!이고 YX C2이면 합의접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협상에 대한 위셋이 작 아지면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한 국가의 위 셋이 작아지면 다른 한 국가의 위셋이 커져야만 협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 국가의 위셋이 작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정치적 요 구가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협상 이외의 다른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 국가의 협상에 대한 위셋이 작아졌다는 사실을 상대국가가 인식할 경우에는 그 국가의 위셋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어서 위셋을 의도적으 로 조절할 수도 있다

#### 나. 비대칭협상이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환경 속에서 국가 간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 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 간의 협상 중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발생하는 협상을 소위 비대칭협상이라 칭한다. 이러한 비대칭협상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 그 관계가 주도되고 변화될 것 같지만, 역사적 사실을 들추어 보면 전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것이 비대칭협상이론이다.

하비브(Habeeb)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협상에 주목하고 약소국의 논리가 상황에 따라 강대국의 논리보다 협상결과에 더 많이 반영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약소국의 관점에서 협상에 임하는 힘을 분석하고이를 정리하였다. 그는 협상에 임하는 국가의 힘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는데, 그것들을 ① 총체적 구조적 힘, ② 이슈관련 구조적 힘, ③ 행위의 힘(협상전술) 등으로 요약하였으며 이러한 3가지의 힘이 협상이진행되는 동안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일과를 도출되게 한다는 것이다.9)

총체적 구조적 힘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 및 군사적 힘을 포함하는 총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힘에 있어서는 강대국이 협상에 있어 절대적 우위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는 이슈관련 구조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하비브는 이러한 이슈관련 구조적 힘에 주목하고 이를 다시 3가지의 요소로 나누었다. 협상국의 협상 '대안', '의지', '통제력'이 그것들이다. 그는 협상 당사국의 이러한 3가지의 요소가 상대국의 그것과 상호 조화 및 충돌을 반복하면서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대안'은 협상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데. 이는 곧 협상을 타결되지 않더라도 다른 수단

<sup>9)</sup> William Mark Habeeb, *Power and Tactic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How weak nations bargain with strong nations (Baltimore: The H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Chapter. 1.

과 방법을 통해 해당국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카드를 의미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대안을 많이 갖고 협상에 임하는 국가일수록 자신의 국 가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협상이라 는 방법을 통하여 국가의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국가는 협상에 얽 매여 자국에게 불리하게 이끌려간다는 것이다. '의지'는 협상에 임하는 각국의 대표들이 갖고 있는 협상에 대한 집중력, 열망, 그리고 자국에 게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자세 및 결의 등으로 함축할 수 있을 것이다.10) 만약 협상이 자신의 국가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리 고 상대 국가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도출된다면 협상을 위한 대표로서 의 불성실한 임무수행과 부족한 능력평가에 대한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지'라는 측면은 협상자들이 협상 에 임하는 집중력, 열망, 자세, 결의로 나타난다 할 수 있다. '통제력'은 협상자들이 협상에 임하면서 상태에게 유리한 부분을 일정정도 양보하 고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어른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심지어 협상에 결렬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애당초 목표로 했던 사항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 간의 협상 시에는 항상 상대 국의 압박으로 인하여 자칫 통제력을 잃고 협상목표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할 수 있는데. 자국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러 한 협상에 대한 통제력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통제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국제적인 사건 및 국제정세의 변화. 강제제재의 효용성. 국내정치적 환경, 협상담당부서의 응집력, 게임장소 등이 꼽을 수 있 다 11)

또한 하비브는 협상을 위하여 협상당사국들은 '행위의 힘' 즉 협상전 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다고 하였다. 특히,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관 계에서 존재하는 총체적 구조적 힘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협

<sup>10)</sup> 김용호·손혁상, "비대칭적 국가간 협상이론과 북미 핵협상: 북한의 협상행태 분 석." 『협상연구』 제1권 1호(1995):101.

<sup>11)</sup> William Mark Habeeb, op cit:21-23.

상전술을 더욱 더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상전술의 수단으로 는 위협경고, 약속, 이면보상, 응징, 양보, 동맹형성, 지연 등이 있는데, 이러한 수단들은 약소국의 입장에서 상대 강대국에게 알리는 일종의 의사소통의 도구일 수 있으며 이런 도구들을 통하여 강대국을 협상에서 설득할 뿐 아니라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

따라서 비대칭협상이론에 의하면 국력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강대 국과 약소국의 협상에서 반드시 강대국이 약소국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고 압박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약소국이 비대칭 동맹에 있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3. 미국의 전쟁기, 한미교사동맹 변화 양상

가. 한국전쟁기(1950~1953)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시대를 청산하고 해방정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쁨도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다시금 한반도는 냉전의 첨단지대로써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다. 미국이 세계대전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 소련을 동아시야 지역에 끌어들인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에 원폭을 투하함으로써 전쟁을 손쉽게 마무리하였고 소련군이 동아시아에 집결하면서 그 세력이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1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후 공산주의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던 미국은 동아시아의 공산화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게 된다. 사실 한반도에 대한 지리적 이점에서는

<sup>12)</sup> 장광열, 앞의 논문:49-50.

<sup>13)</sup> 김일수, "한·미 군사동맹의 초기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학논집』 제35집 2호 (2003):56.

소련이 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동적인 환경속에서 미국은 한반도 분할안을 제시하였으며, 소련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었다. 14)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 되자마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한국전 쟁은 현대 한민족의 수난의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한미 간의 동맹을 결성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미리 철저 하게 전쟁을 준비한 북한군의 공격에 의해 전쟁초반 한국군은 철저하 게 무너지며 수도서울을 3일 만에 내어주고 후방으로 철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는 유엔군을 결성하 고 한반도에 파병하는 안을 결의하고 7월 5일 스미스특수부대가 최초 로 죽미령을 점령하고 북한군과 결전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로부 터 5일 후인 10일에 이승만은 한국군의 지휘권을 맥아더에게 인계하게 된다. 또한 연이어 미군들의 한 대체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위를 인정하는 대전협정 등 맺게 된다

이승만 정권시기에는 이러한 외교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 정치적 영향요소가 거의 없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호란한 국내상황으 로 말미암은 이유도 있겠지만 국민대부분이 민주정치적 의식이 미성숙 되고 무엇보다도 이승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외교적인 조력을 담당할 정치세력이 부재한 상황에도 그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닷시 미

<sup>14)</sup> 당시 현실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상륙은 소련의 진출에 비해 훨씬 늦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세력권에 들어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소련에 대해 미소의 상호 군사력이 한반도를 점령하기 전에 한 반도 분할안을 제안하였다. 러스크, 홍영주·정순주 옮김, 『냉전의 비망록』서울: 시공사, 1991:56-57.

<sup>15)</sup> 정식명칭은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Agreement relating to Jurisdiction over Criminal Offences committed by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며 전쟁초기인 1950년 7월 12일 임시수도였던 대전에서 체결하여 대전협정이라고 통칭한다. 인터넷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 naver.com/entry.nhn?docId=2458465&cid=46624&categoryId=46624(접속날 짜: 2017년 6월 20일).

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정책과 협상은 이승만의 개인적 지식과 성향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 중의 이승만은 대미외교는 한미동맹을 성립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였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원래부터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전쟁은 이러한 그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호기로 생각되었다. 16) 그러나 미국은 최초 한국과의 동맹을 원하지 않았으며 한국전쟁의 장기화는 더욱 원하지 않았다.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후복구에 치중하면서 국내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정책적 방점을 두었고 미국민들의 종전에 대한 염원을 만족시키기위해 한국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리고한국과의 동맹으로 인해 재차 한반도전쟁 시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지자 하는 미국은 끊임없이 공산측과 휴전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다. 기려와 이승만은 그런 미국에 대해 당당히 맞서 북진통일을 주장하였으며 현재의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자하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반대하고 북한공산군을 완전히 격멸시키려하였다. 이러한 대립의 상황이 계속되자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한 "에버레디 작전(Operation Eveready)"을 구상하고 이를 시행에 옮기려하였다. 17) 하지만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를 철회하게 된다. 그러나 이승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거제도에 위치하고 있던 포로수용소를 대상으로 반공포로를 미국과의 사전에 아무런 의논 없이 석방하게까지 이르게 된다. 더군다나 이승만은 전쟁초기 미군에게 인계한 한국군의 지휘권을 반환하라고

<sup>16)</sup> 해방 이후 남한에서 군정을 실시하였던 미군은 이후 에치슨라인을 통해 한반도를 방위대상에 제외시키고 500여 명의 한국군사고문단만 남기고 모두 철수하였는데, 이승만은 이를 통하여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사활적 과업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장광열, 앞의 논문:190.

<sup>17)</sup> 장훈각, "이승만 대통령과 한미동맹: 동맹의 형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42집 1호(2011):142.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승만의 행동을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만약 이승만 정권에게 다시 한국군의 지휘권을 이양 할 경우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이승만이 어떻게 나올지는 명약관 화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속적인 상황은 이 시기 한국의 대미협상에 대한 밑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승만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명확한 목표를 가지 고 투쟁적인 협상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조기에 전쟁종결을 원 하던 미국의 의도를 상당히 잘 이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마침내 이승만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8월 8일에 한미동 맹에 대한 내용을 미국과 함께 가조인하고 그해 10월 1일에 공식조인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4년 11월 17일에 조약이 발효가 되 게 된다. 이렇게 동맹이 성립되기까지 이승마은 중공군의 철수를 요구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한미동맹이라는 목표 가 이루어지면서 기타 요구들은 수면 많으로 가라앉는다. 이렇게 한국 전쟁기간 중 이승만 정권은 미국이 원하지 않던 한미동맹을 일구어내 면서 약소국인 한국의 의지를 강대국인 미국을 대상으로 협상하여 관 철시키고 만다

한국전쟁이 종결되고 미국이 비전쟁기간에 돌입하면서 이러한 상황 은 돌변하고 만다.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기간과 만찬가지로 투쟁적 대미외교를 전개한다. 한국의 경제 및 군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 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승만의 개인적 대미외교관은 변 하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 이승만의 자유당은 이기붕의 실질적인 주도아래 조직적인 정치적 타락을 자행하였다. 1954년에 사 사오입개헌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으며. 1960년 에는 3.15선거에서 대규모의 선거부정을 저지르면서 국민들로부터 신 뢰를 상실해 갔다. 더군다나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주도가 되어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소위 관제데모를 실시하여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정치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쓰시마섬을 한국에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아시아지역의 각종 국가 간 협력에 있어서도일본을 배제시키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보였다. 18)

일 시	대회 명칭	주요 목적	장 소
1954.11.24.	대한민국 주권수호 학생궐기대회	대한민국 주건수호 민족운 동에 매진 선포	서울운동장
1958,5,20,~21.	K.N.A 납북사건관련 궐기대회	납북탑승인사 및 여객기 송 환 요구	서울시청 및 전국
1959.2.13.~15.	재일교포 북송반대 관련 궐기대회	입본정부의 재일 한국인 북 송 한대	"
1959.2.16.	재일교 <del>포북송</del> 반대 전국대회 발대 식 및 궐기대회	"	서울운동장
1959.6.8.	아세아민족 반공연맹 대표 환영 및 반공궐기대회	남북통일, 조속한 정부의 환 도에 최선	서울시청 앞

출처: 정호기, "이승만 시대의 위기 담론과 궐기대회", 『사회와 역사』 제84집(2009): 197.을 재구성.

이러한 이승만의 행동을 보고 있는 미국의 시선은 한국전쟁 중의 그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실 한국전쟁을 전후로 하는 기간 에도 이승만 정권에 의한 10만명 이상이 참가한 관제데모가 6회가 있 었으나 미국은 이를 묵인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시기에 있어서 미국이

<sup>18)</sup> 필리핀의 퀴리노 대통령이 주장한 아시아 군사동맹창설에 대해 이승만은 적극적인 지지를 하였으며 남태평양제도, 케나다, 호주 등의 참가를 지지하면서도 일본의 참 여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는 일본의 부활과 과거의 침략성에 근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박진희,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태평양동맹 구상", 「역사비평」 2006년 8월: 95-96.

한국을 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끊임없는 간섭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한국측에서 불평등한 대전 협정에 대한 개정에 대해 끊임없이 요청하였으나 미국은 소극적인 자 세와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고 동맹의 발전적 변화도 거의 없는 답보상 태를 보였다. 그리고 결국 4.19의거에 의해 이승만이 하야할 때에도 일 면 미국이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이를 묵인 및 방조한 결과로 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나. 베트남전쟁기(1964~1973)

5.16군사정변에 의해 탄생한 박정희 정권은 그 출발을 불안하게 시 작하였다. 군사정변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미국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도모하지 못하였고 국내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정서가 존재 하였던 것이다 1962년 박정희는 시청방침을 발표하면서 외교정책에 대한 근간을 밝혔다. 기존의 미국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유엔과 비 공산권 국가들과의 선린우호를 펼침과 동시에 경제외교에 매진하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신중하게 개선하리라는 의지를 표출한다. 그리 고 박정희는 미국에 대해 이중접근적인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자주외 교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간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 은 것이 그 첫 번째이며 미국과의 선린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두 번째로 본 것이다 [19] 그러나 이러한 그의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는 현실적인 상황변화가 필요해 보였다.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들이 크게 변화하게

<sup>19)</sup> 박정희는 해방 이후 하국에 대하 시탁통치를 미국이 주도하였으며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대한 점령에 골몸했던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어에 소홀히 함으로서 전쟁이 발발하였다는 '미국책임론' 과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지원하였고 많은 원조를 하면 서도 우리를 부러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대미긍정론'을 병행하여 갖 고 있었다. 박태균, "박정희의 동아시아 인식과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 구상," 『역사비평』2006년 8월호:123-125.

되는데, 이 시기에 있어 한국은 대미외교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였으며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 소위 밀월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미국이 전쟁에 돌입하면서 한국은 외형적인 면에서 남베트남의 파병요청에 의해 이에 응하는 모습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자유세계의 대공방위전선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적 단결과 반공의식의 강화를 들고 있었다. 20) 그러나 박정희의 실제 목적은 초강대국인 미국의 전쟁을 지원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정치적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통해 1966년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를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그래 마닐라에서 베트남참전 7개국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반공의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였다. 2차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과거 한국의 특수를 이용하여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박정희도 이러한 의도를 기지고 있었고 이를 위한 대미외교를 시행했을 것이다. 22)

60년대에 들어와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백악관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대한 군사원조에 대한 삭감이 거론되었다.<sup>23)</sup> 이러한 사실은 한 반도에서 병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미국 내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되나 한국에게는 충격을 주는 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연속 적인 북한의 공격적인 도발로 인하여 상당한 위협으로 국민들이 느낄

<sup>20)</sup> 윤충로, "20세기 한국의 대 베트남 관계와 인식: 1945년 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제97집(2013):265.

<sup>21)</sup> 이렇게 한국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을 초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것은 베트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박태균, 앞의 논문:130-131.

<sup>22)</sup> 윤충로, 앞의 논문, p. 267.

<sup>23)</sup> 조진구, "미국의 베트남 개입 확대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1963-1965", 『국방정 책연구』, 2006년 봄: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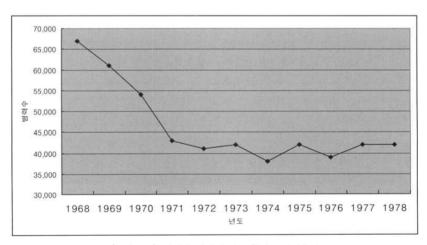
뿐 아니라 이는 곧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한국이 이를 지원하면서 이와 같은 주한미군 철수와 대한 군사원조 삭감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1961년 들어와 이승만 정권시기부터 추진해오던 대전협정에 대한 개 정작업을 한국측에서 다시 한 번 시도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국측의 무성의와 무관심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개정작업은 진척 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파병을 시작하면서부 터 상황은 급반전되다. 베트남에 파병한지 1년이 지난 1966년 5월에 협정과 관련된 군사 및 외교분야의 고위급 인물들이 협상을 위해 한국 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들은 한국정부와 대전협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하고 그해 7월9일까지 급속하게 개정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드 디어 한미행정협정(주둔군지위험정, SOFA)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 를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한미청정합점에 대한 불평등성은 논란의 소 지가 많으나 당시의 상황으로는 기존 대전협정의 비대칭성을 많이 개 선한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파월한국군의 지휘체계는 눈여겨보아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 다. 그때까지 모든 한국군은 미군인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있었 다.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에 대해서도 미군이 지휘하 려고 하였다. 그러나 채명신 장군이 지휘하던 주월한국군사령부는 미 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미군과 대등하게 독자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작 전을 펼친 것이다. 더군다나 베트남전쟁에 임하는 한국군은 전시라는 기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독자적 지휘권은 한층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전부터 진행되던 소규모의 연합훈련들이 대부대가 참가하는 야외기 동훈련으로 이어지면서 그 규모가 한층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1969년 에는 "포커스레티나 훈련"으로 발전되었다. 미군이 한국군과 연합하여 대규모의 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은 한국내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안도감을 두었고 이러한 사실은 한국정부를 의식한 미국의 배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시기에 있어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군사적 사건은 "한미국 방장관회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68년부터 시작된 한미국방장 관회담은 그동안 미국과의 공식적인 고위급상설군사회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 급박하게 회의를 개최했던 과거와는 달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은 하나의 큰 변화로써, 정기적인 회의는 사전에 보다 많은 생각과 대비를 가지고 준비하고회의 이후 사후검토에 충실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난 이러한 한미국방장관회의는 1971년에 한미안보협의회(SCM)으로 격상되어 개최되는데, 이때부터 국방부뿐 아니라 외무부 인원도 참가하여 명실망이 한미간의 외교 및 안보분야를 조율하고 확인하는 장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림 3-1〉 박정희 정권 후기 주한미군 병력추이

출처: 지효근, "1970년대 한미동맹 결속력에 관한연구: 동맹 안보문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73호(2013):124.

이와 같이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고 한국이 이를 대규모의 병 력으로 이를 지원함으로써 한미 간의 관계는 훨씬 가까워지고 한국은 이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미국 이 베트남전쟁을 종결하고 전후 상황정리에 매진하면서 한미 간의 관 계는 다시 반전되게 된다.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손을 떼려하는 시점인 1971년에 주한미군 1개 사단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된다. 〈그림 3-1〉은 베트남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박정희 정권 후반기까지의 주한미군의 주둔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70000여 명이었던 병력수준이 40000여 명으로 감소했다. 이 러한 상황과 더불어 남베트남의 패망이 눈에 보이는 가운데 베트남전 쟁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박정희 정권은 미국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된다. 이는 곧 미국이 유사시가 되면 한국을 포기 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생이었다. 따라서 박정희는 국방과학연 구소를 설립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중강수를 두게 된다. 24) 미국은 한 국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으며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미동맹관계를 극단적으로 치닫게 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카터정권은 한미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이완관계를 가지고 오게 하는데, 한국의 국내상황에 대해 미국은 적극적인 간섭을 실시하였으며 더구나 1978년부터 4-5년에 걸쳐 단계적 철수안을 발효하게 된다25) 그리고 이시기에 한국의 미사일개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능력을 제 한하는 한미미사일양해각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를 체결하는데.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사거리 180km. 탄두중 량을 500kg으로 묶어버리게 된다.

베트남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의 변화는 전쟁

<sup>24) 1974</sup>년, 인도는 핵실험에 성공하여 핵클럽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발언권 이 신장되면서 파키스탄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차상철, "박정희와 70년대의 한미동맹", 『군사』 제75호(2010):343-344.

<sup>25)</sup> 차상철. 앞의 논문:347-348.

에 임하지 않는 미국이 불안정한 세계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자주국방을 천명하면서 군현대화를 추진하는 한국에 대해 제한을 가하면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을 더욱 강화하는 상황으로 진행한 것이었다.

#### 다. 걸프전쟁기(1990~1991)

박정희 정권에 이어 5공화국이 시작되면서 정권은 정통성 논란에 휘말리게 된다. 12.12사태에 이어 일련의 요동치는 정국으로 인하여 이러한 논란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5공화국이 성립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신군부정권에 대해 호의적인면을 보이지 않았다. 카터정권은 불안한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더군다나 대통령을 청출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간접선거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이에 대한 우려는 극에 달한다. 그러나 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미국과의 관계향상에 진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 북원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러한 한미관계 복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걸프전 이전에 발발한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련의 아프간침공은 1979년에서 1989년까지 발생하였으며 신냉전적 동서대결을 만들어 낸 바 있다. 이러한 사태는 서방의 지도국인 미국에게는 전쟁에 준하는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게 하였다. 단지 미국의 레이건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 한미관계가 우호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국의 준전쟁적인 세계상황이 한미동맹을 한국의 요망대로 묶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레이건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공을 이념적 최고의 가치로 삼아 닉슨정권 이래 지속되어 오던 데탕트 분위기를 일소하는 미국의 상황과 반공을 외치면서 한국의

군부세력의 정권장악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상황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26)

걸프전은 1990년에서 1991년 사이에 일어났다. 이라크가 쿠웨이트 를 침공하면서 발생한 전쟁은 미국이 사막의 폭풍작전을 실시하면서 미국의 대규전력이 투입되었다. 이 전쟁을 위하여 한국도 의료 및 호송 부대를 파견하는 등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 미동맹을 한국에 유리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1988년 노태우 정권에 들어와 한국은 60년대에 조인한 한미행정협 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미국에 제의한다. 사실 그동안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많은 논란거리에 휩싸였으며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개정논의가 한국 내에서 끊이지 않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한국측 의 이러한 제의는 미국측으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에 발발한 걸프전은 이에 대 한 반전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런 미국은 행정협정에 대한 논의 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작업은 급물살을 타고 신속하게 진행되 었을 뿐 아니라 이듬해인 1991년 1월 4일에 개정협정이 양국간의 대표 에 의해 체결되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2월 1일에 발효가 되었다. 이 러한 상황은 미국이 전쟁이 한미동맹관계 변화에 미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91년에는 한미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협정이 체결되게 되 는데. 그것은 한미전시지원협정(WHNS: Wartime Host Nation Support) 이다. 평시 한반도에는 미 2사단병력 등 3만여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나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대규모의 미군 병력이 증원

<sup>26)</sup>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광주항쟁 이후 CNN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신군부의 행위를 용인하는 내용을 피력하였으며, 이러한 미국의 상황판단은 5.18 광주항쟁 을 겪으면서 극단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은 최소한의 정당성만 확보 한다면 군을 통제하면서 한국내의 소요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 전두환의 신군부정 권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원곤,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미국 의 대응".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 (2011):136-137.

되게 된다. 이렇게 대규모의 병력이 한반도에 투입되면 RSOI에 있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증원병력을 효과적으로 전투배치하기 위한 각종활동에 대해 한국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을 한미전시지원협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연관되는 비전투원소개작전(NEO: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은 한국내의미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작전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한미전시지원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일면 미국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부담함으로써 한국에게 불리한 면을 생각할 수 있으나 한국의 향상된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전시 미군증원의 명분을 부여하여 미국 내의 대한반도 파병반대 의견을 잠재울 수 있는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담당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시기에 있어 한국의 노태우 생물은 미국에 대해 동맹관계에 대한 몇 가지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간다. 한국군 작전통제권 환수와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가 그것들이다. 우선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한국 내에서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다. 한국 전쟁 이후 약 40여 년 동안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온 유엔군사 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그 지휘권을 환수하자는 사안으로써 1990년에 미군이 동아시아전략구상을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그 이후 1993년 제2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및 제 16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에서 평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환수에 합의하고 1994년에 이를 공식적으로 환수한다. 그러한 이러한 한국군 작전통제에 대한 안건은 걸프전쟁 중이었던 기간 중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후보자가 1987년 공약한 용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문제는 1988년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에 이를 제의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1990년에 들어와 한미에 의해 용산기지에 대한 이

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전체 이 전비용 가운데 1/3을 한국측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를 미국측에서 부담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1년 7월에 용산기지의 평택・오산 지역으로의 이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이 시기의 공격 적인 동맹협상 시도는 미국이 걸프전쟁에 임하면서 수용되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이렇게 미국의 걸프전 수행 중 동맹과 관련한 한국의 의견이 적극적 으로 수용된 반면. 걸프전이 종결되면서 동맹의 변화는 또 다른 국면으 로 치닫게 된다. 걸프전 이후 한국의 김영삼 정권은 신외교를 선언하면 서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에서 탈피하고 하고 한국의 위상을 재고하 는 지역 협력적 외교를 지향하게 된다. 그리고 안보에 대한 문제에 있 어서도 그동안 북한을 의식한 관념에서 북한 이외의 외부의 위협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전통적 안보를 고려해 가거에서 탈냉전시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협과 안보의 영역을 의사한 성격으로 변화시킨 것이었다 27)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문제는 과거보다 다소 탄력적인 과제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변화하게 되는데,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 서 핵개발을 선언하게 되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대회를 시도하면서 김 영삼 정권은 이를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와 더불 어 1996년에 북한의 무장공비가 강릉앞바다에 잠수함을 통하여 침투하 였는데. 이러한 북한의 각종 도발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이 의도한 대로 외교정책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 말기에 발 생한 IMF사태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라 걸프 전쟁 직후의 김영삼 정권시기에는 미국에 의해 주도된 동맹관계에 한 국이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의 대외정책은 자유주의를 포함하는 현실주의적인 성향

<sup>27)</sup> 이수형,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개념: 새로운 군사 전략개념의 모색". 『한국과정치』제18권 제1호(2002):178-179.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박정희 정권의 7.4남북공동성명과 6.23선 언에 의한 평화통일정책 그리고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과 연결되는 한편 기존정부의 대북전략기조와 연속성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28) 그리고 그는 집단안보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나타내었는데 4자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것과 대북정책의 근간인 3대 원칙을 주장하였다. 29) 그리고 북한이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설치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행동은 국민적 합이의 결여와 남한에 의한 상호주의의 일방적 적용과 검증절차 부재에 의한 부작용을 낳았다. 30)

김대중 정권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자주적 집단안보를 통하여 자주 국방과 균형외교를 통하여 한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인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0 시대중 정권은 미국과의 국제적 보조도 아끼지 않았다. 1999년에는 동리모르에 다국적군을 파견하고 PKO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002년에는 사이프러스에 PKO병력의 일부로 한국군을 파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한국측 제의가 1995년에 미국측에 전달된다. 그러나아프간-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11회에 걸쳐 관련회의가 진행되었으나 회담은 발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걸프기간 중에 활발하게 논의되던 용산기지 이전사업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이렇게 볼 때 걸프전과 더불어 동맹과 관련한 한국측의 요구가 미국에

<sup>28)</sup> 박용수, "김대중정부의 자유주의적 대북·대외전략의 현실주의적 측면", 『사회과 학논집』, 제42집 2호(2011):31.

<sup>29)</sup> 대북정책 3대원칙은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화해협력 추진 등으로 요약합 수 있다.

<sup>30)</sup> 최용섭, "김대중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동북아논총』, 제22권 (2002):81-89

<sup>31)</sup> 최용섭, 앞의 논문:86.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걸프전이 종결되자 다시 평시와 같은 미국 주도의 동맹의 흐름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이라크-아프가전쟁기(2001~2014)

미국에서 부시정권이 출발하자마자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하고 이 윽고 아프간전쟁이 발생하고 뒤이어 이라크전쟁까지 연속적으로 이어 졌다. 미국은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으로 수행하 지 않았고 다국적 동맹군을 형성하여 전쟁에 참여하였다. 한국의 김대 중 정권은 최초 아프간전쟁에 소극적으로 임했으며 전투병의 파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일어난 촛불시위는 한미동맹 의 위기감을 고조시켰고 후일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은 주 한미군 감축이라는 카드를 자주 사용하여 협상에 있어 한국측을 압박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아프지, 이라크 전쟁에 돌입하면서 부시 정부가 이후 주한미군의 감독을 백자화하고 한국에 대한 안보지원공약 을 그대로 유지하는 자세로 변화하는데. 이는 한국측을 배려하는 외교 적 행동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32)

2002년 대선을 통하여 정권을 획득한 노무현 정권은 진보적인 사고 로 동북아균형자론을 내새웠고 유연하게 대북정책에 임하였으며 미국 과의 한미동맹에 있어 비대칭성을 탈피하고자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면적으로는 당시 미국과의 한미동 맹에 있어 역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부정 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 질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 면 노무현 정권시기에는 미국과의 많은 대화채널이 구성되어 운영되었 으며 어느 시기보다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고려해 주었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다.

<sup>32)</sup> 장광열. 앞의 논문:181-182

전술한 바와 같이 노무현 정권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정권이 주장하던 동북아균형자론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기조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써, 동지역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고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제국주의나 패권주의를 추구한 사례가 없으며, 어느 특정국가의 의지 따라 전적으로 적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질서 속에서 막후 해결자 및 정직한 중계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그근거를 두고 있다. 33)

위와 같은 노무현정권의 동북이균형자론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정권기간 중에는 한미동 맹이 훼손되었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작품 도발과 핵실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서 잘 나타나있다. 미국의 다양한 출처를 통해 나온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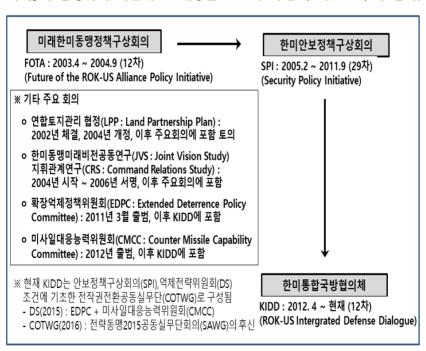
그러나 노무현 정권 기간에는 역대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맹과 관련한 많은 대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회의의 주제는 주로 노무현정권의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논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에 광범위하게 펼쳐져있는 주한미군의 기지에 대한 통폐합 및 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문제였다. 34) 두 번째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지역을 전담하는 것과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그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sup>33)</sup> 장경룡, "동북아 균형자론," 『정치정보연구』 제8집 제2호(2005):64.

<sup>34)</sup> 주한미군에 대한 기지이전 문제는 이전 노태우정권 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이후 점차 그 열의가 식었다가,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 다시 재개되었다.

세 번째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문제로써 기 존에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던 한반도 작전권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한 국군이 하나씩 화수하는 사항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는 기존의 양국의 국방장관이 참석하여 연례적으로 열리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외에 실무차워에서 토의하기 위한 기구를 창설하여 유용하였는데. 미래하미동맹구상회의(FOTA: Futur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s)가 바로 그것이다. 이후 이와 같은 실무회의의 창설과 변화 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도표화 하면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노무현정권 이후 한미협상관계의 변화

출처: 장광열, 앞의 논문:205.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많은 종류와 수의 한미동맹관련 협의체가 창설되거나 통합되는 것을 목격할수 있다. 이렇게 동맹의 냉각기가 예상되던 이러한 시기에 많고 다양한 대화채널을 열고 진화시키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은 한국의 요구에 대해 반대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으며 오히려 때로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FOTA는 다른 의제들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기도 하였지만 주한미군의 기지이전문제를 주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35)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측은 용산을 비롯한 대도시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기지에 대해 이전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처음부터 긍정적인 자세로 이에 응한다. 기간 중 일부 난항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진이전을 기정사실화 하여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전할 기지의 부지를 349만 및 교육의하고 기나긴 회의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기존 한미관계의 틀에서 빠져나오려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 미국이 순순히 응하고 오히려 역대정권보다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더욱 많은 대화를 주고받은 현상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그 당시 미군이 생각하고 있던 미국의 범세계적 재배치(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부수적인 원인이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미국이 이라크-아프간 전쟁 중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고 이를 진행하면서 비대칭동맹인 한미동맹에 임하는 자세에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 자칫 동맹관계가 심하게 훼손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그나마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였던 사실이 그 당시 미국이 접한 상황에서

<sup>35)</sup> 김종대는 FOTA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대한 문제에 주력하였다고 평가하고 이어 진행되는 SPI에서는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환구문제를 주의제로 하였다고 설명 하고 있다. 김종대.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서울: 나무와 숲, 2010:314~315.

연유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참여정부에 이어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북관계를 종속변수로 생각하고 그동안의 외교정책에 메 스를 가한다. 36) 그리고 아시아를 지향하는 외교에 방점을 두면서 오스 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 는 G20에서 의장국을 담당하고 있는 자격으로 외교에 대한 관심사를 확대할 필요에 의해 이와 같은 생각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37)

위와 같은 외교에 치중하면서도 이명박 정권의 외교적 중심은 항상 한미동맹에 있었다. 글로벌외교를 지향하는 외교정책의 필요성은 갖고 있었지만 한미동맹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모든 외교정책을 한미관계 중심으로 추진하였고,이에 따라 당시 정권의 긴 밀한 한미공조는 여기에서 기원했다고 할 수 있다.38) 예를 들어 이명 박 정권은 국민적 반대에도 무를 생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전격 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2011년에는 국내 일부 정 치적 단체들에 의해 추진된 한미 FTA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서 여당의 단독으로 국회비준을 실시하고 이를 발효시킨 사실도 이러 한 성향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 사실상 그 유해성과 불리성을 떠나 국민적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한미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미국과의 동맹관계 향상에 주력한 이명박 정권의 외교정책에 힘입어 2008년 한미정상회담에서 기존의 한미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 켜 가치. 신뢰. 평화에 기반한 전략동맹을 수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

<sup>36)</sup> 이대근, "이명박정부의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핵문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 연구단 국제학술회의 2008년 6월호:133.

<sup>37)</sup> 변창구, "이명박정권의 실용주의와 대중외교 평가," 『통일전략』제13집 제1호(2013): 167 - 169.

<sup>38)</sup> 장광열, 앞의 논문:198.

미일 공조를 강화하여 전략적이며 미래지행적인 동맹구조로 발전시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나아갈 것을 재확인 하였다. <sup>39)</sup> 이러한 한미 간의 구조변화는 한중 간의 마찰을 초래하였다. 중국과는 이미 동반자관계라는 대명제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마찰로 인하여 아시아를 지향하고 있던 이명박 정권의 구상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굳건하게 진행되고 있는한미관계 강화에 장애물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이명박 정권에 있어 한미동맹은 절대적 가치가 부여되었다.

이명박 정권에 있어서 한미 간의 군사회의도 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2008년 4월8일에 열린 SPI회의에서는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양국의 군사현안문제에 대해 폭넓은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2009년에는 그동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매를 원하던 글로벌호크의 판매증원에 가루어진 것이었다. 이후 2011년부터 진행되는 KIDD에까지 이란 분위기는 내내 유지되었다. 2012년에는 제3차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정하여 기존의 300km이던 제한사한을 800km의 사거리로 향상시키고 탄두중량을 드레이드오프 방식으로 개선된 것은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에는 북한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 등은 물론 사이버, 우주분야, C4I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한미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명박 정권과 미국과의 밀월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한국 및 세계적 환경에서 미국의 인식 및 역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적 요인으로 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정체성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정권인 노무현 정권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보다 더 미국에 다가

<sup>39)</sup> 이러한 한미일동맹으로의 합의는 이후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국민적 반발을 사기도 했다. 변창구, 앞의 논문:178.

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이전보다 더 밀접해진 것이었 다. 두 번째는 미국의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 는데, 미국이 긴 시간동안 아프간-이라크 전쟁을 치루면서 비대칭동맹 에 있어 약소국의 위치에 놓여있는 한국에 대한 일종의 배려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4 미국의 전쟁기가 한미동맹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렇지 않은 시기에 비해 한미동맹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 이할 수 있었다. 그러면 비대청동맹인 한미동맹에 있어 평소와는 달리 미국이 전쟁에 임했을 때 한국의 주장이 더 많이 반영되고 한국의 외교 적 입지가 강화되었는가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양면게임이론과 비대칭협상이론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양면게임이론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았다. 양면게임이론 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정치적 요소와 국내정치적 요소를 동등 한 위치에 놓고 협상의 진행과 결과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협상 결과에 대한 국내적 비준을 받기위해 각 협상국들은 위셋을 가지고 있 으며 이러한 윈셋은 협상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전쟁에 임하면 외교적 협상 시에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전쟁 시에는 협상결과 에 대한 비준의 환경이 평시와는 다르다는 것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간 중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얼마 되지 않은 상

황에서 벌어졌으며 전쟁기간도 1년이 넘어가는 장기전의 형태를 띠었다. 미국의 국민들은 전쟁의 피로에 많이 지쳐있었고 각종 국내정치적세력들도 전쟁에 대해 점차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트루먼 정권과 아이젠하워 정권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서둘러 한국전쟁을 종결하고자 하였으며 한국과의 타협을 통해 정전협정을 이끌어내어야만 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전쟁협정에 관한 회담 시 협상에 대한 윈셋이 대단히 확대되었다. 그즈음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사활적으로 맺고자 하였으나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았다. 한국의 이승만 정권은 한미동맹이 이루어진다면 휴전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출하게 되고 협상에 대한 윈셋이 확대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한미동맹을 성립시키고 한국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을 맺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듯이 미국은 국내정치세력의 요구에 의해 한국의 의견을 수용하는 전체를 보였던 것이다. 40)

베트남전쟁 시에는 초기 박정희 장리과 미국의 존슨 정권과의 정치적 밀월이 고조에 달하던 시기였다. 통킹반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전쟁에 본격적으로 참가한 미국은 전쟁초기 막대한 인원과 전쟁무기를 바탕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원거리의 병력수송과 군수지원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점차 그 동력을 상실하였고 전쟁에 있어 끌려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전쟁을 혐오하는 여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윽고 반전여론이 점차 확대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서둘러 종결시켜야만 하였는데, 우방국의 도움이 절실하였다. 한국은 이에 베트남전쟁에 참가하기로 하고 한국군을 남베트남에 파병하게 된다. 한국군의 규모는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사단급 이상의 부대 뿐 아니라 대규모의지원부대를 파견함으로써 미국의 신뢰를 획득하고 동맹변화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시기의 협상에 대한 미국의 윈셋은

<sup>40)</sup> 김일수, 앞의 논문:56.

많이 확장됨과 동시에 한국은 윈셋이 축소되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 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한국에게는 정치. 군 사.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점차 국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발생한 걸프전 시기에는 한국에는 신 군부 정권이 들어서 있었다. 전쟁 전 한국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 달갑 게 여기지 않던 미국이 걸프전에 참전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 였다. 미국은 한국의 새로운 정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 게 된다. 미국의 전쟁에 대해 한국도 이를 지원하며 미국의 우방으로서 의 면모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협 상시 그 윈셋은 확대되었다. 한국과의 좋은 못한 관계를 지양하고 걸프 전에 전념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전쟁 이외 또 다른 국가와 추가적인 분쟁을 발생시켜 국내 여론을 ♥회씨♥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 여 그 이후 박정희 정권 후기의 학회되었던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방관 계가 재복워 되었으며 미국과의 동맹협상 가에 한국의 입장이 많이 반 영된 것을 알 수 있다.

9.11사태가 발생하고 당시 미국의 부시 정권은 전쟁을 선언하게 된 다. 이러한 아프간-이라크전쟁 시 한국의 정권은 노무현. 이명박 정권 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미국은 장기간 펼쳐진 전쟁에서 천문학적인 전 쟁비용과 많은 인명피해를 보고 있었으며 미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회 의감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의 역대 정권들은 이러한 전쟁 을 지원하였고 이와 같은 한국의 반응에 대해 미국은 만족감을 표시하 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관계를 재정립시키게 된다. 당시 한국의 두 정권은 집권기간 중 전혀 다른 성향을 보여주었으므로 각기 미국과의 그 동맹관계가 다소 상이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미국의 관심과 이해를 통해 꾸준히 대화하고 관 계회복에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도 미국이 전쟁에 참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전쟁을 성실하게 지원하고 성의를 다하고 있는 한국과의 마찰을 빚을 필요가 없으며 미국민에게도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한미관계의 우호성을 알릴필요가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협상에 대한 윈셋은확대될 수밖에 없었으며 한국은 동맹협상에 있어 미국의 비전쟁기보다보다 축소된 윈셋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전쟁기에 한미동맹의 양상변화를 비대칭협상이론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비대칭협상이론에 있어 국가 간의 협상은 총체적 구조적 힘, 이슈관련 구조적 힘, 행위의 힘(협상전술) 등의 3가지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 중에서 총체적 구조적 힘은 강대국이 항상(강대국의 전평시를 불문하고) 우월할 것이며 이러한 힘을 가지고 강대국은 동맹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의슈관련 구조적 힘과 행위의 힘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강대국이 전쟁 중에 있을 경우에는 동맹의 주도권이 변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를 앞서 서술한한미동맹의 사례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따라서 강대국이 전쟁에 임하면 양국의 동맹협상 환경과 자세는 위의 두 가지 힘에 의해 평시와는다르게 변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협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슈관련 구조적 힘이다. 3가지의 요소 중에서 우선 '대안'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평시의 강대국은 그 강력한 국력으로 비대칭동맹을 통해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많은 대안을 갖고 있으나 전시가 되면 그 대안이 극도로 축소되고 동맹을 주도하는 힘이 약해지며 오히려 약소국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상에 대한 의지도 자연스럽게 약해지는데, 강대국이 비대칭동맹을 주도하고자 하는 주장과신념이 저하됨은 물론 타국가와의 전쟁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대칭동맹을 맺고 있는 약소국과의 협상에서는 자신의 모든 협상

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강대국의 협상의지가 급 격하게 하락시키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강대국의 전쟁은 협상 에 대한 통제력도 저하시킨다. 강대국이 전쟁에 임하면 평시와 비교해 볼 때 국제정세는 강대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 될수록 이에 부정적인 국내 정치환경이 생성될 가능성이 많으며, 협상과 관련한 수많은 부서 및 구성원들 간 그 응집 력이 다소 이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대국의 협상에 대 한 이슈관련 구조적 힘은 약해지며 약소국에 대한 협상자세도 변화하 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약소국은 평시에 비해 강대국의 전쟁을 통해 국 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것은 강대국에 대한 협상카드를 더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대한 집중적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리하여 전쟁에 임하고 있는 강대로 달리 안정적인 국내외 정치환 경을 바탕으로 협상에 대한 통제력을 가잡으로써 강화된 이슈관련 구 조적 힘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행위의 힘, 즉 협상전술적인 측면이다. 강대국이 전쟁에 임하게 되면 비대칭동맹에 대한 통제도 다소 느슨하게 됨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리하여 약소국은 동맹에 대한 비협조, 이완, 전쟁에 대한 약 소국의 입장 등의 직ㆍ간접적인 경고를 통하여 협상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약소국은 강대국의 전쟁에 대해 유무형 적 지원을 통하여 동맹협상에 있어 그 위치가 평소보다는 격상되어 국 가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강대국에 대한 지원 및 지지하는 입 장을 표명 및 시행함에 있어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하는 등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강대국 은 약소국과의 비대칭동맹에 있어 구시할 수 있는 협상전술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약소국은 강대국에 대해 다양하고 많은 협상전

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대칭협상이론을 통해 한미동맹의 변화를 바라보 있을 때, 강대국인 미국이 정규군을 투입하여 전쟁을 수행했던 대규모 전쟁기간 중에는 약소국인 한국의 입장이 동맹관계에 있어 유리한 상 황에 있었고 평소보다 더 많은 주장이 동맹변화에 반영되며 국가적 이 익이 증대되었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 5. 맺음 말

한미동맹은 한국전쟁기간 중에 밑그림이 그려지고 휴전이 성립됨과 동시에 맺어진 강대국인 미국과 약소국인 한국의 비대칭동맹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들은 이려한 한대동맹을 바라봄에 있어 한국의 자존심을 상실시키고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과거 힘없는 우리를 전쟁의 사선에서 손을 잡아주었고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버팀목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은 변하지않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위협적이고 변화무쌍한 국제정치적 환경변화가 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냉정하게 바라보았을 때, 한미동맹은 그동안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를 통해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적 상황에 있어 미국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 한미동맹은 그 해보다 득이 훨씬 많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사력을 다해 이를 이루려고 하였으며 역대 정권은 이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지 않았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은 과거의 빈약한 국가군에 탈퇴하여 한층 국력이 향

상되었으며 국제사회에 있어 그 발언권이 신장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 라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의 시각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 가 있다. 한미동맹도 국가대 국가가 맺은 협력과 협조에 대한 약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동맹이라는 실체를 통하여 국가이 익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활적 이익은 안정된 안보환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및 한 반도를 위협하는 각종 안보위협들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 이에 필수적인 것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명제 속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의 국가이익을 향상시키고 돗맷변화에 대한 주도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한미동맹의 변화에 있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 던 기간에는 한미동맹관계에 있어 한국의 입장이 보다 강화되고 평시 보다 유리한 협상진행 및 결과가 있었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들 은 미국의 전쟁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까지 미국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최강대국으로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 고 미국의 의지는 세계 각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크고 작은 다양한 전쟁을 수행할 것이며 이러한 미국의 전쟁기에 있어. 미국과의 동맹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협상전략과 전술을 준비하 고 구사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한편 우리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는 비전쟁기에는 협상준비를 어떻게 하는 가에 대한 문제이다. 평시에 미국은 강력한 자국의 총체적 국력을 통하여 비대칭동맹관계에 있어 항상 주도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 이러 한 동맹환경을 한국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조성하고 국가이익을 증대시 키기 위해서는 동맹협상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올바른 국민여론의 형성과 판단이 대미 협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협상 시에 필요한 윈셋이 형성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협상가 및 정치가들은 협상결과를 다양한 국내정치적 성향들로부터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여론형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협상 간한국의 윈셋은 축소되고 미국의 윈셋은 확장시키는 협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국내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전문가들은 정확한 정치정 보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알려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여론형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고 대중문화로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협상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입안자와 협상자들은 정치환경에 근거한 협 상전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협상 간에 사용될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상에 관계되는 각 부처들은 각종 협상정보 를 공유하고 상호협조적인 자계로 접증력을 발휘하여 한국의 입장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 다.41)

[원고투고일: 2017, 10, 8, 심시수정일: 2017, 11, 21, 게재확정일: 2017, 11, 23.]

주제어: 비대칭동맹, 강대국의 전쟁, 동맹의 형성 및 변화, 양면게임 이론, 비대칭동맹이론, 동맹협상과 주도권 / 산물

<sup>41)</sup> 장광열, 앞의 논문:242.

## 〈참고문헌〉

- 김관옥 "한국파병외교에 대한 양면게임 이론적 문석: 베트남과 이라크 파병의 사례비교", 『대한정치학회보』제13집 1호(2005). http://uci.or.kr/G704-001325,2005.13,1,016
- 김대성 "동맹의 딜레마와 약소국의 대응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학논집 제65집 2권(2009). http://uci.or.kr/G704-SER000001512 2009 65 2 003
- 김용호·소혁상 "비대칭적 국가간 협상이론과 북미 핵협상 : 북한의 협상행태 분석." 『협상연구』 제1권 1호(1995)
- 김일수 "한·미 군사동맹의 초기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학 논집』제35집 2호(2003). http://uci.or.kr/\$704-\$00559,2003,35,2,001
- 김종대.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서울: 나무와 숲, 2010
- 러스크, 홍영주 · 정순주 옮김, 『냉전의 바망록』서울: 시공사, 1991
- 박용수. "김대중정부의 자유주의적 대북·대외전략의 현실주의적 측면". 『사회과학논집』제42집 2호(2011). http://uci.or.kr/G704-SER00001444420 11.42.2.003
- 박원곤.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미국의 대응".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 (2011). http://doi.org/10.18854/kpsr.2011.45.5.006
- 박진희.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태평양동맹 구상". 『역사비평』 2006년 8월. http://uci.or.kr/G704-000293.2006..76.008
- 박태균. "박정희의 동아시아 인식과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 구삿." 『역사비평』2006년 8월호. http://uci.or.kr/G704-000293.2006..76.016
- 백성호. "강대국과 약소국간 안보동맹의 특성 고찰." 『사회과학연구』 9(2003)

- \_\_\_\_\_ "비대칭 안보동맹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0집(2003)
- 변창구, "이명박정권의 실용주의와 대중외교 평가," 『통일전략』제13집 제1호(2013), http://uci.or.kr/G704-001912,2013,13,1,006
- 윤충로, "20세기 한국의 대 베트남 관계와 인식: 1945년 해방이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제97집(2013), http://uci.or.kr/G704-0000242013...9 7.002
- 이대근, "이명박정부의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핵문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2008년 6월호
- 이수형,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개념: 새로운 군사전략개념의 모색", 『한국과정치』제18권 제1호 (2002), http://uci.or. kr/6704-200296.2002.18.1.001
- 장경룡, "동북아 균형자론," "정치정보연구』제8집 제2호(2005), http://uci.or. kr/6704~001718-2005.8.2.012
- 장광열, "비대칭동맹 변환과 약소국 요인: 미국의 전쟁기 한미동맹 변화요인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
- 장훈각, "이승만 대통령과 한미동맹: 동맹의 형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제42집 1호(2011), http://uci.or.kr/G704-SER000014444.2011.42.1.001
- 정호기, "이승만 시대의 위기 담론과 궐기대회", 『사회와 역사』 제84집 (2009), http://uci.or.kr/G704-000024,2009,.84,003
- 조진구, "미국의 베트남 개입 확대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1963—1965", 『국방정책연구』2006년 봄, http://uci.or.kr/G704-001646.2006.22.1.001
- 지효근, "1970년대 한미동맹 결속력에 관한연구: 동맹 안보문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군사논단』제73호(2013)

- 차상철. "박정희와 1970년대의 한미동맹". 『군사』제75호(2010). http://uci.or\_kr/G704-001528\_2010\_75\_005
- 최용섭.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동북아 논총』, 제22권(2002), UCI: http://uci.or.kr/G704-001454.2002.7.25.012
- 최은미. "양면게임이론으로 분석해 본 한일 과거사 문제: 2005년 역사 교과서 파동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7권 1호(2011). UCI: http://uci.or.kr/G704-SER000010553. 2011.7.1.001
- 인터넷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 docId=2458465&cid=46624&categoryId=46624(접속날짜: 2017년 6월 20일).
- Amstrong Adrienn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Depend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5 No. 3(1981)
- Habeeb Mark William, Power and Tactic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How weak nations bargain with strong nations(Baltimore: The H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 Thurer Daniel. "The Perception of Small State: Myth and Reality". Laurent Goetschel(ed). Small State ans Outside The European Union: Interests and Politics(1998)

<Abstract>

# The Meaning of America's War Influence on ROK-US Alliance Changes

Jang, Kwang-Yeol

In case of asymmetric alliance like that of ROK-US, strong power has the initiative and the upper hand in alliance changing. And it is possibly normal phenomenon that weak power does not have main role for the alliance and makes a concession to strong power's demand. But when strong power participates in war, this pattern of alliance changing is altered. In results of this study, weak power's demands has more powerful influence in strong power's wartime than peacetime. That means weak power's influence to the alliance changing strengther in strong power's wartime.

This phenomenon is the reason which the weak power's alliance policy become more active and bigger concentration and confidence for negotiation in strong power's wartime. In order to prove this phenomenon, I payed attention to three things in this study. The first is 'Two Level Game theory'. How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 political functions make negotiation processing and products of alliance. The second is 'Asymmetrical Negotiation Theory'. I trace the how weak power overcome the gap of total national abilities with strong power thorough the negotiation during the strong power's war and peace time.

The next is result of this study. Weak power has more initiative for the negotiation in strong power's wartime. Because the strong power has to concentrate his attention on the war, and weak power has more alternatives than strong power's peacetime. Moreover I checked the strong nation has expended 'win—set' for the negotiation by domestic political pressure and international situation, but weak power has small 'win—set' during the strong power's wartime. There for during the strong power's wartime, the bilateral asymmetrical alliance changed to weak power's favor. But in peacetime, strong power leads the alliance with his total national

abilities.

In the last analysis, if weak power want to have initiative in asymmetrical alliance with strong nation. The nation has to have attention to strong nation's wartime and quasi-state of war. And in strong power's peacetime. weak power make small win-set through hearing public opinion and diversity of strategy and tactics for negotiation with strong power.

Keywords: asymmetric alliance, strong nation's wartime, development and change of alliance, two-level game theory, asymmetric negotiation theory, alliance negotiation initiative/product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45–93 https://doi.org/10.29212/mh.2017..105.4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백마고지 전투의 재조명

- 국군 제9사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 분석을 중심으로 -

나종남\*

- 1. 들어가는 글
- 2. 국군 제9사단의 전시(戰時) 훈련과 성과
- 3. 백마고지 전투: 예고된 혈전
- 4.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 분석
- 5. 맺음말

#### 1. 들어가는 글

전투사(combat history) 혹은 전투 연구(combat studies)는 전쟁 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최초의 역사기록으로 남아있는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 전투(Battle of Marathon)로부터 로마와 카르타고가 결전을 벌였던 칸나에 전투(Battle of Cannae), 백년전쟁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던 크레시 전투(Battle of Crécy), 나폴레옹의 뛰어난 작전지휘를 엿볼 수 있는 아우스터리츠 전투(Battle of Austerlitz), 미국 남북전쟁

<sup>\*</sup>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중의 군사적 전환점이 되었던 게티즈버그 전투(Battle of Gettysburg), 제1차 세계대전의 솜 전투(Battle of Somme)와 베르됭 전투(Battle of Verdun),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 전환의 분기가 되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Battle of Stalingrad)와 미드웨이 해전(Battle of Midway) 등에 이르기까지 전투사와 전투 연구는 전쟁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부대가 수행한 전투에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6.25전쟁에 대한 공간사가 발행되는 시점과 때를 같이하여 미군 부대가 수행한 몇 가지 중요한 전투 - 낙동강 방어선 전투, 인천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지평리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 등 - 에 대한 다양한 연구서가 출판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1) 한편 중국에서도 중국군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청천강 전투, 상감령 전투와 금성전투에 대해 많은 연구서가 출간된 바 있다. 이러한 개별 전투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자(通史) 서술에서 제시된 6.25전쟁에 대한 전체적 이해와 더불어,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과 그 속에서 활약했던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심층 조명할 수 있다.

그런데 6.25전쟁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개별 전투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제한적이다. 6.25전쟁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기를 띠었던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주제발굴과 사료 소개가 진행되었으나, 유독 개별 전투사, 특히 국군이 담당하여 수행한 전투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조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1980년대 초반에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sup>1)</sup> Arned L. Hinshaw, Heartbreak Ridge: Korea, 1951 (New York: Praeger, 1989); Curtis Utz, Assault from the Sea: The Amphibious Landing at Inchon (Washington, D. C.: Naval Historical Center, 1994); Uzal W. Ent, Fighting on the Brink: Defense of the Busan Perimeter (Paduach, Kentucky: Turner Publishing Company, 1996); J. D. Coleman, Wonju: The Gettysburg of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Brassey's, 2000); Kenneth E. Hamburger, Leadership in the Crucible: The Korean War Battles of Twin Tunnels and Chipyong-ni (College Station, Texas: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3); Bill McWilliams, On Hallowed Ground: The Last Battle for Pork Chop Hill (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4).

다부동 전투를 시작으로 총 27권에 달하는 전투사 시리즈를 발간하였 으나, 횡성전투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2) 최근에는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가 '6 25전쟁 전투사 시리즈'를 새롭게 발간하고 있는데, 새롭게 발굴 된 사료와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참신한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은 높게 살만하다. 그러나 이것도 발간이 중단되었다.3)

그렇다고 해서 6.25전쟁 중 국군이 수행한 전투에 대한 연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눈에 띠는 사례는 6 25전쟁 발발 50주년 경 에 본격화되었던 춘천전투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조명이었다. 이를 통 해서 6.25전쟁에서 춘천전투가 갖는 의미를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결 국 '춘천대첩'으로 해석하는 성과가 있었다. 4) 이외에도 국군 제17연대 의 화령장 전투와 국군 제1사단의 다부동 전투는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비교적 자세하게 분석된 대표적 사례이다. 5)

<sup>2)</sup> 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그녀는 전투, 장진호 전투, 38도선 초기전 투(중·동부전선편), 용문산 전투, 인천상륙작전, 신령·영천 전투, 백마고지 전투, 청천강 전투,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평양탈환 작전, 안강·포항 전투, 단 양·의성 전투, 금성 전투, 저격능선 전투, 현리 전투, 양구 전투, 수도고지 · 지형능 선 전투, 월비산 · 351고지 전투, 백석산 전투, 임진강 전투, 진천 · 화령장 전투, 노 전평 전투, 충주·점촌 전투, 도솔산 전투, 오산·대전 전투, 교암산 전투, 횡성 전 투. 다만 이들은 대체로 각 부대의 작전일지를 사료로 발간한 전투상보(戰鬪詳報)와 참전자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상자, 포탄 사용량, 전투 경과 등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sup>3)</sup>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중국군 공세 의지를 꺾은 현리-한계 전투』(대전: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09);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유엔군 3차 반격작전 시 지암리-파로호 전투』(대전: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1).

<sup>4)</sup> 강원대학교 & 육군 쌍용부대. 「6.25 한국전쟁의 신화: 춘천대첩. 무엇을 남겼나?」 추천대첩 5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0; 이대용. 『두 번의 혈전 : 추천전투 와 낙동강교두보 사수』(서울: 도서출판 백년동안, 2014).

<sup>5)</sup> 정완진 『붉은 신호탄: 화령장 전투 4일간의 기적』(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3); 장삼열, "화령장 전투의 군사적 재조명과 의의," 軍史, 제73호, 2009 ; 조봉휘, "6.25전쟁 시기 다부동지역에서 한국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5; 다나카 츠네오, "다부동 전투를 통해 본 연합작전의 교훈," 軍史, 제53호, 2004, 한편, 남정옥은 6.25전쟁 중에 발생한 주요 10대 전투를 선정하고. 이들을 소개 및 분석한 바 있다. 남정옥, "한국전쟁 10대전투 고찰," 戰史, 제3호, 2001.

기존 공간사 서술에서 백마고지 전투는 6.25전쟁을 대표하는 전투 중의 하나로 손꼽히며, '불굴의 정신력으로 이겨낸 치열한 격전(激戰),'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중국군을 상대로 승리한 전투' 등으로 알려져 왔다. <sup>6)</sup> 특히 이 전투는 당시에 The New York Times 등을 포함한 국내 및 국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정도로 유명해서 온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전투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승만 대통령, 밴 플리트 (James A. Van Fleet) 미 제8군사령관 등이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전황을 보고받고, 제9사단장 김종오 소장을 포함한 주요 지휘관을 격려했을 만큼 이 전투가 갖는 의미도 여느 전투와는 달랐다. 그러한 맥락에서 국방부 공간사도 백마고지 전투를 다른 전투에 비해 자세하게 다루었으며, 이 전투의 승리가 갖는 의의에 주목하였다.

백마고지 전투에 대한 연구가 다른 전투에 비해 비교적 자세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전투에 대한 사료(史料)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백마고지 전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수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군과 미군의 작전일지, 전투상보, 참전자 증언을 포함한 구술자료가 비교적 자세하게 제작되었다. 이중에서도 미 제1, 9군단과 미 군사고문단(KMAG) 등이 작성한 자료는 일찍이 국내에 도입되어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7) 그럼에도 불

<sup>6)</sup> 이 글에서 기준으로 하는 국방부 공간사(公刊史)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전투사: 백마고지 전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下)』(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pp. 389~3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0권: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p. 396~430 등이다.

<sup>7)</sup> 이 글에서 국군 제9사단의 전투 효율성 및 작전수행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1차 사료는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8권(제9사단) (대전: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87), pp. 657~758; HQ, 9th US Corps, "Special After Action Report Hill 395 (White Horse Mountain) 6-15 October 1952," The James A. Van Fleet Papers, Box 81, the George Marshall Library, Lexington, Virginia. (이하 Van Fleet Papers로 표기함); 8202nd Army Unit, US Military Advisory Group, "Command Report, Oct. 1952, ROKA Combat Units, KMAG, 9th ROK Division, etc."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Non Organic Units, NARA 등이다.

구하고 백마고지 전투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1980년대 국방부 공간사 에서 제시한 시각, 즉 '치열한 격전(激戰)'이나 '불굴의 정신력을 앞세워 승리한 전투' 등에 한정되다보니.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활용한 참신한 시각과 접근은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6.25전쟁의 고지쟁탈전이 절정으로 치단던 1952년 가을, 국 군 제9사단이 철원 북방 무명 395고지에서 중국군 제38군 예하의 3개 사단과 약 10일에 걸쳐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한 백마고지 전투를 국군 제9시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과 전투 효율성(combat effectiveness) 에 집중하여 분석할 것이다 8) 우선 그동안 '불굴의 정신력을 앞세워 승 리한 치열한 격전'의 대명사로 알려진 백마고지 전투를 입체적으로 분 석하여. 개별 교전의 양상이 어떠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국군 제9사단이 승리하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피아 투입 병력, 포틴 사용장, 사상자 숫자, 교전 지속시간 등의 자료를 비교 분석할 것이며? 주요 지휘관이 보여준 리더십과 작전 지휘도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1951년 5월의 현리전투에서 패배 한 이후 제9사단이 야전훈련사령부 등에서 경험한 전시(戰時) 훈련. 1951년 가을에 중국군을 상대로 수행한 전초전, 1952년 하계에 실시한 부대 자체훈련, 그리고 치열하게 전개된 총 12차례의 공방전의 구체적

<sup>8)</sup> 여러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투수행 능력과 전투 효율성에 대한 정의와 모델은 대체로 달성 가능한 임무에 대한 판단, 부대의 작전수행에 대한 평가 등을 둘러싸 고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Trevor Dupuy가 Combat Effectiveness Variables에 근거하여 제시한 Quantified Judgement Method(QJM)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전투 효율성을 "전투에서 최단 시간 내에, 최소의 물자와 병력을 사용 하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투에 임하는 군대 조직의 능력(ability of a military organization to achieve its assigned missions with the least expenditure of resources (both material and human) in the shortest amount of time)"으로 정의한 Peter R. Mansoor의 연구에 따른다. 다만 탄약 소 모량과 사상자 숫자. 전투지속 시간 등 숫자 및 계량화 가능한 요소와 지휘관의 전 투 지휘 등 계량화하기 힘든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것이다. Peter R. Mansoor. The GI Offensive in Europe: The Triumph of American Infantry Division (Lawrence, Kansas: University of Kansas Press, 1999), p. 3.

양상을 입체적. 다각적 시각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은 또한 전투사 혹은 전투 연구의 특성을 이용하여 선정된 주 제에 대한 자세하고 세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특히 국군 제9사단이 395고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투 기간 중에 실시한 기동과 화력의 조율, 주공부대와 조공부대의역할 분담과 임무수행, 지휘관의 전체적 전황파악과 적시 적절한 예비대 투입 등의 과정을 전투수행 능력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통해서 기존에 백마고지 전투의 결정적 승리 요인으로 분석하였던 '불굴의 정신력' 외에도, 이 전투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보다 구체적, 가시적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백마고지 전투에 대한 이와 같은연구를 통해서 향후 6.25전쟁 중에 치러진 수많은 전투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분석을 위한 하나의 틀(a frame)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국군 제9사단의 전시(戰時) 훈련과 성과

국군 제9사단은 1950년 10월 25일에 충청도 출신 장병이 주축을 이뤘던 제28, 29, 30연대를 모체로 창설되었다. 이 사단은 창설 직후부터 약 2개월 동안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내륙 산악지대에서 활동하던적 게릴라 진압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중국군 참전으로 전세가 복잡해지자 육군본부의 명령에 의해 1950년 12월 중순에 전선으로 출동하였다. 전방으로 이동한 제9사단은 동부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51년 4월에는 국군과 유엔군의 선두에서 한계령 인근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51년 5월에 개시된 중국군 제5차 공세에서 국군 제3군단의 일원으로 현리전투에 투입된 제9사단은 치욕적인 패배를당했다. 1951년 초에 국군 제6사단의 사창리전투 패배와 제8사단의 횡성전투 패배와 마찬가지로, 국군 제3군단의 현리전투 패배는 이 시기

에 한국군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 문제와 근본적 한계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였다

현리전투 직후 국군 제9사단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많지 않다. 1951년 6월 30일에 미 제8군사령부가 이 사단에 대한 군수분야 점검 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군수 및 병참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열악했다. 식량과 군복, 전투화 등은 미군의 지원으로 큰 어려움이 없 었으나, 특히 전투장비와 차량 등이 부족하여 전투임무 수행이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 이유는 현리전투 직후 미 제8군사령관이 국군 제3군단 을 해체하면서 그 예하부대에 대한 병참지원을 금지했기 때문인데, 이 에 따라 국군 제3. 9사단에게는 전투물자와 장비가 제공되지 않았다. 그 결과 1951년 6월에 제9사단이 보유한 81mm 박격포는 고작 12문으 로. 편제 보유량 54문의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부대가 상급부대의 지시에 의해 전투에 투입될 경우,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관 총과 박격포 등 필수 전투장비는 인접 미 제3사단으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해야 했다.9)

제9사단 창설 초기부터 약 1년 동안 포병 고문관으로 근무했던 엘돈 앤더슨(Eldon B. Anderson) 소령의 증언에서는 현리전투에서 패배한 직후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파악이 가능하다. 앤더슨 소령은 제9사단이 포병화기 및 탄약부족으로 인하여 전투임무 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제9사단에게 일시적으로 미 군의 포병화력이 배속되는 경우에도 국군 지휘관이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군과 달리 국군은 지휘관 으로부터 부사관에 이르기까지 가부들이 화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었으며. 평상시에도 기관총이나 포병 장비 등에 대한 수리와 정 비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군 장병

<sup>9) &</sup>quot;Staff Visit to 9th ROK Division(26 Jun 51)," 30 June 1951, 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Box 39, AG No.333, 1951, NARA,

의 전사적 기질은 결코 미군에 뒤처지지 않았지만, 제9사단의 작전수행은 간부의 리더십 부족과 포병화력 운용 미숙 등으로 인해서 매번 치명적 차질이 발생했다고 분석하였다.<sup>10)</sup>

이 시기에 한국군 부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 지휘부, 미 제8군사령부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의 무기 및 장비, 병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당장이라도 미국이 한국군 규모를 증강시키고, 이들에 대해 충분한 무기와 보급품을 제공하면 한국군이 훨씬 더 잘 싸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1)</sup> 정일권 참모총장을 포함한 국군 지휘관들은 국군이 여전히 소총과 수류탄 등 기초 전투물자를 포함한 절대적 병참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교와병사 대부분은 정규훈련을 받을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으며, 그 결과 정규작전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병을 위해서 중국군에게 포위될 위험에 처하자 철수할 것을 지시한 사단장 장도영 준장은 훈련이 안된 병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이 다가오기 이전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13)</sup>

하지만 한국군 사단급 부대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작전수행에 대한 미 제8군사령부와 주한 미 군사고문단(KMAG)의 분석은 달랐다.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군의 장교를 포함한 간부 전체의 리더십부족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들은 한국군 장교와 부사관에게서 "강한 전투의지의 근간이 되는 열정적, 전문적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14) 또한 한국군은 "(중국군으로부터

<sup>10) &</sup>quot;Debriefing Report," No. 76, 6 March 1952, Fort Sill, Oklahoma, RG 550,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ian's Office, Organizational Files. Box 61. NARA.

<sup>11)</sup> 나종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u>軍史</u>, 제63호, p. 221.

<sup>12)</sup> 백선엽, 『6,25 한국전쟁 회고록: 군과 나』(서울: 대륙연구소 출판부, 1989), p. 198.

<sup>13)</sup> 장도영, 『장도영 회고록 : 망향』 (서울: 도서출판 숲속의 꿈, 2001), p. 215.

공격을 당할 경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매번 공포와 공황에 빠져 스스로 붕괴한다"고 분석하였다. 미 제8군 사령부 전투 관찰단 (Combat Observation Team)이 1951년 3월에 국군 제3군단의 전투수행 능력을 관찰한 후 작성한 보고서는 "(한국군 지휘관이) 부대를 효율적으로 장악 및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15)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1951년 초에 한국군 부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미군 지휘부와 KMAG의 평가는 예리하고 정확했다. 중국군 참전 직후부터 한국군의 작전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미 제 8군 사령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1951년 4월에 미 제8군사령관으로 부임한 밴 플리트 중장은 현리전투 직후 국군 제3군단을 해체하였는데, 중국군의 집중공결에 의해 붕괴되는 한국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서 태백나면 목쪽에 배치된 국군 제1군단을 제외한 모든 한국군 사단급 부대가 전선에서 모습을 감추는 기이한 현상이 전개되었다. 16) 한국군의 작전수행에 삼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보고받은 조지 마셜(George C. Marshall) 미 국방장관은 과거 필리핀에서 실시했던 방안, 즉 미군 지휘관이 한국군 부대를 지휘하는 방안을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17) 일부 군사전문가는 일본군이나 대만군을 한국전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8)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들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될 수 없었다. 짧

<sup>14)</sup> Ridgway to Hull, 23 July 1951, Ridgway Papers, Box 20,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Carlisle, Pennsylvania, (이하 USAMHI로 표기)

<sup>15)</sup> Far Eastern Command, Report of Army Field Observations (March 1951), pp.  $7 \sim 8$ . USAMHI.

<sup>16)</sup> 나종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p. 220.

<sup>17)</sup> Chief of Staff to Command in Chief, Far East Command, 23 May 1951, Van Fleet Papers, Box 86.

<sup>18) &</sup>quot;JNPR(Japanese National Police Reserve)," Frank E. Lowe, Major General, USAR to Harry S. Truman, 10 February 1951, The Frank E. Lowe Papers, USAMHI.

은 시간 내에 한국군을 다시 전장에 투입하여 중국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효과적인 해법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부는 훈련부족으로 인해 전투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된 한국군 부대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전훈련 사령부(the Field Training Center, FTC)<sup>19)</sup> 설치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밴 플리트 사령관은 FTC 훈련 프로그램을 구상하던 1951년 6월 중순부터 한국군의 사단급 부대에 대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군 각 군단장에게 FTC를 설치하여 한국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준비에 만반을 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한국군의 약점으로 지적된 각종장비의 효율적 운용, 소부대 전투기술, 수색과 정찰, 장교와 부사관의리더십 향상 등에 역점을 맞추라고 지시하였다.<sup>20)</sup> 이를 통해서 미 제8 군사령부가 의도했던 바는 한국군 사단급 부대의 전투 효율성(combateffectiveness)을 향상시켜 장치 중국은 상대로 전투임무를 수행할수 있을 정도의 전투수행 능력을 상대로 존련시키는 것이었다.<sup>21)</sup>

FTC에 입소한 한국군 시단을 훈련시킬 책임은 이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미군 군단장이 맡았다. 이들은 유능한 장교와 부사관을 선발하여한국군 부대를 훈련시키기 위한 시설과 훈련장 마련에 착수하였다. 한국군을 훈련시키기 위해 선발된 미군 장교와 부사관은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기 앞서 미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이 진행되는 도

<sup>19) 1951</sup>년 7월 말부터 조직되기 시작해서 8월부터 임무를 수행한 'the Field Training Center,' 'the Field Training Camp' 혹은 'the Field Training Command'를 "FTC" 혹은 "야전훈련사령부"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성 종, "6.25전쟁 시 야전훈련사령부(FTC)의 창설과 역할," 重史, 제91호, 2016, pp. 1~32의 각주 1)을 참고할 것.

<sup>20)</sup> Commanding General, US Eighth Army to Commanding General, I US Corps, "Letter of Instructions," 19 June 1951, Van Fleet Papers, Box 81.

<sup>21)</sup> 밴 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은 FTC를 설치 및 운용하는 책임은 미 육군의 각 군단이 담당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군에 대한 전체적인 훈련 실시와 통제는 KMAG이 담당할 예정이었다. 나중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1953," pp. 232~235.

중에는 일일 단위로 교육훈련 결산을 실시하여 전체적인 진행경과를 파악하였다 22) 특히 FTC에서는 미 육군 교육후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술의 기본내용을 한국군 훈련에 적용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지금까 지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 상이했던 소부대 전술이 일치되는 계기가 되 었다

미군 군단이 FTC에서 한국군 사단급 부대를 훈련시키기 위해 구상 한 표준훈련 기간은 대체로 9주였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1주에 는 부대이동 및 훈련준비, 훈련을 시작하기 위한 부대검열을 실시하고. 나머지 8주는 개인훈련으로부터 소부대 및 대부대 훈련 순서로 구성되 었다. 첫 주는 개인정비와 편제장비 훈련에 필요한 준비시간이었으며. 이후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어 사격과 기동. 제대별 화력운용과 전술 등이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제대별 훈련 이 종료된 직후에는 약 1주일에 전체 APC 본부에 의한 검열 혹은 지휘 소 훈련(Command Post Exercise, CPX)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한편 훈련기간 중에는 1주일 중 최소 60시간, 1일 10시간 이상의 훈련시간 이 엄수되었고. 규정된 시간 중 30%는 야간훈련에 할당되었다 23)

그런데 국군 제9사단이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일대에 설치된 미 제1 군단의 제1야전훈련사령부(FTC #1)에 입소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 다. 현리전투 이후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과 전투 효율성을 향 상시킬 방안을 고심하던 밴 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은 1951년 7월 말에

<sup>22)</sup> 위의 글

<sup>23)</sup> 이 기간에 추구한 후련 목표는 총 여섯 가지였다. 첫째, 보병 소총수를 육성하고, 이들이 보병 중대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 둘째, 보병 사단을 구성하는 각 병과의 모든 구성원이 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킨다. 셋째, 소부대와 팀들 이 단위부대(Unit) 혹은 상급부대의 일원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 넷째, 분대~소대~중대~대대 전술을 구사하여 각급 부대의 전투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전투 승리에 필요한 '협조된 팀워크'를 달성한다. 다섯째, 전투근무 및 전 투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여섯째, 모든 제대 지휘관의 지휘와 통솔 능력을 향상시킨다. 유성종, "6.25전쟁 시 야전훈련사령부(FTC)의 창 설과 역할." p. 20.

미 제1군단장에게 국군 제9사단을 즉시 후방으로 이동시켜 재편성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이유는 제9사단과 제3사단은 그 동안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투피로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편제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작전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밴 플리트 사령관의 지시와 달리, 미 제1군단장 오다니엘소장은 국군 제9사단을 전선 직후방의 인근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그곳에서 단기간에 걸쳐 보충훈련을 실시하려는 구상을 세웠다. 중국군의 압박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국군 1개 사단을 후방으로 철수시킨후 훈련시킬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24 대신 미 제1군단장은 국군 제9사단을 재편성하기 위해 미 제8군사령부에 자동소총 31정,경기관총 81정,중기관총 53정,81mm 박격포 43문,통신장비 117대등의 장비를 요청하였다. 25

하지만 밴 플리트 사령관은 및 제 군단장의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 제1군단장이 구상하는 국군 제9사단에 대한 훈련, 즉 전선 인근에서 단기간에 걸쳐 실시하는 훈련으로는 자신이 요구하는 체계적 훈련을 실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밴 플리트 사령관은 미 제1군단장에게 국군 제9사단을 "후방으로 이동시킨 후 KMAG이 주도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훈련 (a through, intensive training program in a rear area under close supervision of KMAG)" 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26)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미 제1군단장은 국군 제9사단을 제1야전훈련 사령부(FTC #1)에 입소시켰다. 이때 밴 플리트 사령관은 직접 미 제1

<sup>24) &</sup>quot;Commanding General's Journal," 24 July 1951, Van Fleet Papers, Box 81.

<sup>25)</sup>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 밴 플리트 사령관은 과거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이 적에게 많은 장비를 유실하였음을 상기하면서, 가급적이면 국군 제9사단에는 경장비 위주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만 현행 작전수행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즉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Commanding General's Journal," 24 July 1951, Van Fleet Papers, Box 81.

<sup>26) &</sup>quot;Commanding General's Journal," 24 July 1951, Van Fleet Papers, Box 81.

군단장에게 전문을 보내서 국군 제9사단에 대한 훈련 목적이 "고도의 전투 효율성 향상과 사기 진작(a high degree of combat effectiveness and morale)"이라고 명시하며, 훈련 종료된 직후 48시간 이내에 제9 사단을 즉시 전투임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고 지시하였 다. 27) 이처럼 한국군 사단 중에서 FTC에 최초로 입소한 국군 제9사단 은 1951년 8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8주 동안 훈련을 받았다. 그런데 국군 제9사단이 FTC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았으며. 후련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료는 많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료와 정황 증거를 통해서 국군 제9사단의 FTC 훈련이 성공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 1952년 초에 KMAG이 작성한 야전훈련사령부의 추가 및 확장 가능성에 대한 보고 서이다. KMAG 본부는 1952년 2월 말에 야전훈련사령부의 운용에 대 한 보고서를 통해 왜 미 제8군 사형무 FTC를 조직하였고. 어떻게 유 용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국군 제9 사단이 제1야전훈련사령부에 입소하여 성공적으로 훈련을 받은 내용을 개략하였으며, 이러한 성공이 차후 제2 및 제3야전후련사령부의 조직 및 확장으로 연결되었다고 분석하였다. 28) KMAG도 제1야전훈련사령 부에서 진행된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이 대단히 증가하였다(the greatly increased battle worthiness

<sup>27)</sup> Commanding General, US Eighth Army to Commanding General, I US Corps, "Letter of Instructions," 5 August 1951, Van Fleet Papers, Box 81.

<sup>28) &</sup>quot;HQ, Field Training Command - Command Report, January 1952," 29 February 1952. 국군 제9사단이 FTC 훈련을 받는 기간 중 FTC의 운영 및 한국 군 부대의 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많은 인사들이 방문하였다. 특히 훈 련 개시 4주 후인 1951년 9월 14일에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국방장관, 이종찬 육군참모총장, 오다니엘 미 제1군단장, 라이언 KMAG 단장 등이 방문하였다. 이 날 방문에서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지도자들은 국군 제9사단장으로부터 훈련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과 진행경과를 보고 받았으며, 야외훈련도 시찰하였다. "Commanding General's Journal," 14 September 1951, Van Fleet Papers, Box 81.

of the 9th ROK division)"고 분석하였는데, 특히 훈련을 통해 전투 원 개인은 물론 각급 부대의 지휘자 및 지휘관의 전투 중 역할과 리더십이 향상되었다고 분석하였다.<sup>29)</sup>

둘째, 국군 제9사단이 8주간 동안 교육을 마친 이후 다시 전선에 투입된 직후 보여준 실전의 결과이다. FTC 훈련을 마친 제9사단은 즉시미 제1군단에 배속되었으며, 이후 미 제3사단이 추계작전을 종료한 1951년 10월 20일에 철원 평야 북방의 281고지와 395고지 일대, 즉 철의 삼각지대의 좌측 지역을 인수하였다. 이후 제9사단은 우측에 제30연대를, 좌측에 제29연대를 배치하고, 후방에 제28연대를 예비로 배치하였다. 미 제1군단의 우익을 담당하던 국군 제9사단은 우측의 미 제15사단 및 좌측의미 제1기병사단과 연계하면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30의 그리고 1951년 11월 초에 281고지와 395고지에서 중국군 제42군 예하 126사단과의약 4일에 걸쳐 결혼하고 지생탈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고지를 빼앗겼으나. 이후 성통적인 반격작전을 통해 마침내 두고지를 모두 탈환하였다. 31의 FTC에 입소하기 이전에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승리였으며, 국군 제9사단이 그동안 야전훈련사령부에서 미군이주도하는 휴련을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였다.

이처럼 국군 제9사단은 미 제3사단을 대신하여 투입되어 실시한 최

<sup>29) &</sup>quot;HQ, Field Training Command - Command Report, January 1952," 29 February 1952,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NARA; "9th ROK Division - Result of Training," 7 September 1951, Park Byong Kwon, 9th ROK Division, Commanding General to General Chief of Staff, RG 554, Adjutant General's Office, Decimal Files, 1948–53, KMAG AG, 1951, 7–12, Box 43, NARA.

<sup>30)</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9권 :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 559.

<sup>31)</sup> KMAG이 밴 플리트 사령관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1951년 11월 초의 395고지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은 적과의 교전에서 약 400명을 확정 사살하는 동안 단 1명의 인명피해만 발생할 정도로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했다. "HQ, Field Training Command – Command Report, January 1952," 29 February 1952.

초의 전투에서 중국군의 공격을 완벽하게 저지함으로써 임무를 완수하 였다. 물론 1951년 11월에 395고지를 공격한 중국군의 병력과 화력 규 모가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국군 제9사단에게는 불과 5개월 전에 중국군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던 현리전투에서의 기억 을 씻어낼 수 있을 만큼의 소중한 승리였다. 뿐만 아니라 이 전투를 통 해서 국군 제9사단의 모든 장병은 전시 재편성을 위해 미군의 주도하 에 성실하게 진행되었던 FTC 훈련의 성과와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을 체감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후 실시될 전투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 다 32)

## 3 백마고지 전투: 예고됨

기존 공간사는 '치열한 결전'의 대명사로 알려진 백마고지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국군 장병이 보여준 불굴의 전투의지와 정신력, 그리고 사단장 김종오 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의 우 수한 전투지휘 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과 연 국군 제9사단이 당시의 미군 사단에게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뛰 어난 전투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약 세 배나 많은 규모의 중국군을 제압 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즉 기존과 완전히 달라진 작전수행 방식 과 높은 전투 효율성을 보유하게 된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395고지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이 성공적인 전투를 수행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백마고지 전투가 유례없을 정 도로 치열한 격전으로 전개된 이유를 분석하고. 국군 제9사단이 중국 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치룰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sup>32) &</sup>quot;HQ, Field Training Command - Command Report, January 1952," 29 February 1952.

국군 제9사단이 미 제3사단을 대신하여 철원 북방에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하던 1951년 10월, 중국군 제42군은 395고지와 281고지 등 철원 평야에 대한 주요 감제고지를 만회하기 위한 작전에 나섰다. 특히 1951년 11월에 접어들어 정전회담에서 현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의가 이뤄질 예측이 제기됨에따라, 점차 주요 전초진지를 둘러싼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었다.

결국 11월 3일에 중국군 제42군 예하의 126사단이 야간 22:30부터 대대적인 공격준비사격을 시작으로 281고지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였다. 약 1개 연대규모의 병력을 281고지에 집결한 적의 공격에 맞선 제29연대 1대대는 11월 4일 새벽 04:00경에 고지 정상을 적에게 내주고후퇴하였으나, 이후 연대장이 제3대대 병력을 추가 투입하여 반격작전을 개시하여 정오경에 다시 281고지를 탈환하였다. 33) 281고지 확보에실패한 중국군 제126사단은 11월 5월 약간에 395고지 방면으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395고지를 담당했다 제29연대 2대대가 적의 공격을 받아위험에 처하자, 제9사단장은 제28연대장에게 2개 대대를 투입하여 395고지를 방어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국군에게 탈취되었던 395고지 정상은 적시적인 반격작전을 개시한 제28연대 예하부대가 회복하였다. 이후 오전 11:00경에 국군 제9사단이 395고지 전체를 장악하였다. 34)

국군 제9사단은 1951년 11월 초에 395고지에서 중공군을 상대로 치른 일련의 전투 직후에 즉시 사단 자체 교육훈련을 계속하였다. 1951년 11월 말부터 1952년 5월에 이르기까지 정전회담으로 전선에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제9사단은 KMAG의 지도에 따라 FTC에서 훈련했던 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철원 평야 북방지역의 산악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부대 전술훈련, 화력훈련, 야간전투. 보전협동 훈련 등에 박차를 가했다.

<sup>33)</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pp. 563~564.

<sup>34)</sup> 위의 글, pp. 566~567.

국군 제9사단이 1952년 초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훈련 중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각급 제대의 공격 및 방어훈련, 보병에 대한 포병 및 전차의 화력지원. 각종 화기의 실사격 훈련 등이었다. 특히 1952년 6월 에 실시한 자체 훈련에서는 공격과 방어 시에 보병과 포병, 공병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데 역점을 둔 팀 단위 전투훈련(Team Combat Training)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35) 1952년 7월에는 각 연대별로 필요한 훈련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토록 하였는데. 가장 두드러 진 훈련은 사격과 소부대 전술, 그리고 야간전투였다. 각 연대별로 살 퍼보면, 우측에 투입된 제28연대는 소화기 사격후련(Small Arms Practice Firing)에 역점을 두었으며, 좌측에 투입된 제30연대는 중대 습격훈련(Company Raid)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후방에서 예비 임무를 수행하던 제29연대는 가장 많은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공격 및 방어 시의 소대전투, 소취 주는사격, 보전협동 훈련(Tank-Infantry Team Work Training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36)

또한 1952년 7월과 8월에는 지금까지 실시했던 훈련과는 차원이 다 른 대규모 사단 훈련이 실시되었다. 먼저 미 제9군단의 통제에 의해 진 행된 8주 훈련 프로그램은 1952년 8월 초에 종료되었다. 이 훈련에서 는 전방의 전선에 배치된 연대의 후방 예비대대를 중점적으로 훈련시 켰으며, 특히 전선에서 파악된 훈련소요를 중심으로 훈련을 전개하였 다 37) 군단 통제 훈련이 종료된 직후 제9시단장 김종오 소장은 8월 13일

<sup>35) &</sup>quot;Command Report, June 1952," ROKA Combat Units,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NARA.

<sup>36) &</sup>quot;Report on the Subject of Training Conducted during July," "Command Report, July 1952," ROKA Combat Units,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NARA.

<sup>37) &</sup>quot;Command Report, August 1952," ROKA Combat Units,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NARA,

부터 약 5주간에 걸쳐 자체 사단통제 자체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전방의 전선에 배치된 연대의 순환주기를 고려하여 각 연대별로 최소 3주 이상 대대급 이상 공격과 방어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제9사단장이 제시한 훈련중점은 고도의 사격술 훈련(high level of firing training)과 야간전투 친숙훈련(familiarization of combat in night time)이었다. 또한 주별 및 일일 훈련 시간은 야전훈련사령부에서 적용했던 것과 유사하게 주별 최소 60시간 이상, 일별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결정하였다. 제30연대는 사단에 배속된 미 제53전차중대와 협력하여 보전협동 공격을 중점 실시하였는데, 각 중대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전차를 활용한 고지공격 훈련에 집중하였다. 또한 야간전투에서 전차를 활용한 공격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였다. 38)

당시 제9사단에서 근무했던 국군 지휘관들은 훗날 백마고지 전투에서의 승리가 1952년 여름에 본격으로 실시했던 사단의 체계적 훈련에 힘입은 바 크다고 회고하였다. 사단장 김종오 소장의 명령에 의해부대 교육훈련을 담당했던 부사단장 감동한 대령은 소부대 사격훈련, 폭발물 취급법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5주 집중훈련이 종료된 직후에 백마고지에 대한 적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 다행이라고 회고하였다. 39) 제30연대 1대대장 김영선 소령도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사단 계획에 의하여 5주 교육훈련을 마친 이후 대대 장병의사기가 어느 때보다 왕성하였고, 훈련의 성과도 매우 컸다고 회고하였다. 특히 김영선 소령은 전선에 투입된 이후에도 대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계속하였는데, 그는 전투임무 수행 중에 실시한 교육훈련이 효과가크다고 평가하였다. 40) 제28연대 2대대 6중대장이었던 김운기 대위도 395고지 전투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아군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포병

<sup>38) &</sup>quot;Training Memorandum No. 21," "Command Report, August 1952," ROKA Combat Units.

<sup>39)</sup>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 6권 (서울: 중앙일보사, 1983), p. 163.

<sup>40)</sup> 김영선, 『김영선 회고록 : 백마고지의 광영』(서울: 도서출판 팔복원, 1997), pp. 62~63.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41)

백마고지 전투가 유례없는 혈전으로 치러진 또 다른 이유는 1952년 가을 즈음에는 국군과 중국군 부대 모두 막강한 포병화력을 보유하였 기 때문이었다. 한국군에 대한 화력 증강, 특히 포병화력의 증강은 한 국군에 대한 재편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1951년 중반부터 구상되었던 사안이다. 한국군이 화력부족으로 인해 전투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관찰한 밴 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재편성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화력증강이 근본적인 문제이 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의 장비와 무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 다. 42) 결국 이와 같은 밴 플리트 사령관의 지침에 따라 KMAG은 우선 한국군 각 사단별로 105mm 포병대대를 신설하여 지원토록 하고. 이와 별도로 육군본부 예하에 155mm 1개 대대와 105mm 6개 대대로 구성 된 별도의 포병단 6개를 창설하는 계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단순하게 포병장비의 자유탕으로는 한국군에 대한 포병화력 의 증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병과와 달리 포병은 장비의 조작과 운영뿐만 아니라 화력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 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KMAG은 조 기에 한국군 부대에 포병 운용인력을 육성하며. KMAG 주도하에 포병 부대에 대한 효과적 운영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미 제8군 예하의 포병부대들이 신설된 한국군 포병부대와 연 합훈련을 실시하여, 한국군 포병부대에 대한 관리와 훈련을 미군이 감 독하였다 43) 그 결과 1952년 초에 전선에 투입된 한국군 보병사단은 최소 1~2개 105mm 포병대대를 보유하였으며. 또한 특정 임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육군본부와 미 제8군사령부로부터 다량의 포병화력을 지

<sup>41)</sup> 김운기. 『철의 삼각지』(서울: 도서출판 현대문화센타. 1989). p. 268.

<sup>42)</sup> 전시 한국군에 대한 미 제8군사령부의 포병 증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종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1953," pp. 235~239를 참고할 것. 43) 위의 글, pp. 237~238.

원받아 작전을 전개하였다. 1952년 10월에 실시된 백마고지 전투에서도 국군 제9사단은 105mm 총 4개 대대와 155mm 2개 대대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작전을 수행하였다.

한편 1952년 후반기에는 중국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눈에 따는 부분은 대규모 포병화력 증강이었다. 1952년 8월에 마오쩌둥은 정치협상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부대는 감소했다. 그러나 장비는 더욱 강화되었다. 우리는 과거 20여 년의전투를 치렀지만 공군은 없었고, 적이 우리를 폭격하기만 했었다. 현재 공군도 만들어졌다. 고사포와 대포, 탱크도 모두 갖추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1952년 9월의 무기체계는 1951년 7월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는데, 비록 여전히 미군에 비해서는 무기와장비 면에서 열세였으나, 작전조건은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분석하였다. 44)

1952년 후반기에 본격화된 중국군의 포병화력 증가는 국군 및 유엔 군에게도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및 제8군사령부는 1952년 봄에 서부전선에서 공격하던 중국군 부대의 대포가 710문에서 884문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4월부터 6월 사이에 중국군이 매일 평균 발사하던 포탄의 숫자가 2,388발에서 6,843발로 증가했다고 분석하였다. 미 제8군사령부는 중국군이 전선에 투입한 이와 같은 화력 증가가 기존과 달리 눈에 띠게 달라진 보급능력의 향상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45)

중국군의 전투태세에서 드러난 또 다른 변화는 갱도 중심의 지탱점

<sup>44)</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 398.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포(山砲), 야포, 유탄포 총계가 1,141문에서 1,493문으로 증가했고, 그 중에서 야포는 388문에서 507문으로 증가 했으며, 유탄포는 347에서 578문으로 증가되었다. 산포는 수량 면에서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고사기관총은 2,291정에서 2,462정으로 증가되었고, 고사포는 805문에서 988문으로 증가되었으며, 로켓발사기는 752개에서 3,028개로 증가되었고, 경박격포는 4,717문에서 4,899문으로 증가되었고, 중박격포는 208문에서 241문으로 증가되었다. 문반동포는 443문에서 1,030문으로 증가되었다. 로켓포는 73문에서 162문으로 증가되었다... 탱크는 125대에서 160대로 증가되었다."

<sup>45)</sup>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66), pp. 284~285.

식 방어체계 구축이었다. 중국군은 1951년 하계와 추계 방어작전, 1952년 춘계와 하계 진지공고화 투쟁에서 굳건한 방어, 특히 갱도에 의지해 작전을 수행하는 방어전술을 통해 견고한 진지에 의지해 공격과 방어를 진행하는 작전 경험을 축적시켰다. 이 과정에서 각 부대 및 병종에 따라 고사포병의 후방운송과 엄호, 전선 포병진지의 엄호 및 각급 지휘관과의 협동작전 등 한반도 작전 특성에 맞는 공격 및 방어전술을 숙지한 상태였다. 46) 따라서 중국군은 장차 진행될 국군 및 유엔군과의 교전에서 고수방어에 성공한 이후, 진지를 중심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47)

1952년 가을, 정전회담이 포로문제에 대한 협상을 둘러싸고 난항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철(鐵)의 삼각지대'로 알려진 한반도 중앙의 요충지에 자리 잡은 395고지가 가지고 있는 작전 및 지리적 여건은 백 마고지 전투를 격전(激戰)으로 이끌었던 또 다른 요소였다. 철원평야 북쪽에 자리 잡은 395고지는 파악간에 서로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요충지였다. 평강~김화~철원을 연결하는 철의 삼각지는 한반도의 중앙이며, 남북으로 3번, 43번, 47번 도로 등이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48) 따라서 미 제8군은 1951년 후반에 고지쟁탈전이 시작된 순간부터 철의 삼각지에 대한 확보를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1951년 동계작전 초기에 김화~철원 선을 확보했으나, 휴전의 타결을 모색하던 판무점의 회담으로 인해 평강 공략은 보류하였다. 49)

<sup>46)</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p. 397.

<sup>47)</sup> 육군 군사연구소, 『중국군 공간사 번역서 : 중국군이 경험한 6.25전쟁 I』(대전: 육군 군사연구소, 2017), p. 176.

<sup>48)</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 전투』, pp. 23~24.

<sup>49)</sup> 이군이 395고지를 확보할 경우 이점은 우선, 철원 평야를 감제하여 철원 및 김화 일대에서 유리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나, 만약 이 고지를 적에게 빼앗길 경우 미 제9군단의 주저항선이 남쪽으로 고대산 선까지 밀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서 철원에서 서울로 통하는 유엔군의 주보급로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 이었다. 또한 395고지를 점령한 측이 휴전회담에 유리한 차기작전의 발판을 굳히 게 된다는 점 등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 화』, pp. 396~397.

1952년 6월부터 전 전선에서 고지 쟁탈전이 재개되었는데, 이때 나타난 양상은 대체로 공산군이 주요 전초기지를 선공하여 장악하면, 이를 아군이 역습으로 탈환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아군의 공격은 빼앗긴 고지의 일부만 탈환하거나 아니면 고지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50) 그리고 1952년 초가을부터는 철원평야 북방의 281고지와 395고지에 대한 중국군 제38군의 본격적 공격이 시작되었다. 395고지와 281고지를 탈취하여 차후작전 수행에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중국군과, 이에 맞서서 이 두 개의 고지를 지켜내려는 국군제9사단과 프랑스 대대의 전투는 이 시기에 진행된 고지 쟁탈전의 전형이었다. 백마고지 전투에서 성공적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한 국군이철원평야 서쪽의 저격능선 방면에서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도사실상 이와 같은 치열하게 전개된 고지 쟁탈전에서 중국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하고 있다고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1952년 10월 초에 지점된 백마고지 전투가 유난히 치열한 격전으로 전개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앞서 지적했듯이, 성공적으로 전시 훈련을 마친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과 전투 효율성이 향상된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국군 제9사단은 성공적으로 FTC 훈련을 마친 상태였으며, 또한 전투에 앞서 대대적인 병력 보충이 이뤄져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춰진 상태였다. 뿐만아니라 사단장을 포함한 전 장병이 절치부심(切齒腐心)하여 1951년 5월에 현리전투에서 당했던 치욕스러운 패배를 두 번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각오하였기 때문이었다.51)

특히 1952년 5월에 제9사단장으로 부임한 김종오 소장에게는 백마고지 전투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기회였다. 그는 치욕스러운 패배로 끝난 현리전투에서 국군 제3사단을 지휘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비

<sup>50)</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 전투』, p. 261.

<sup>51)</sup> 김영선, 『백마고지의 광영』, p. 57.

록 사단은 바뀌었으나. 그가 제9사단장으로 부임한 이후 가장 먼저 해 결해야 할 과제는 중국군에게 연전연패했던 한국군 부대의 패전의식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한편 1952년 춘계에 백마고지에 투입된 중국군 제 38군은 1950년 10월에 압록강 인근까지 진격한 국군 제6사단에게 치 명적 패배를 안겼던 부대였다. 따라서 김종오 장군은 자신에게 두 차례 나 패배를 안겨 주었던 중국군 부대를 백마고지에서는 반드시 격퇴하 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52) 대대장과 중대장 등 제9사단의 예하 지휘관들도 1951년 5월에 국군 제3군단 소속으로 중국군에게 당 했던 현리전투의 패배를 상기하여 반드시 적을 제압하겠다는 굳은 결 의를 앞세웠다 53)

요약하면, 국군 제9사단은 1951년 하계에 약 8주 동안 FTC에서 미 제1군단이 주도하는 전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 로 기동과 화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단의 전투수행 방식에 큰 변 화를 경험하였다. FTC에서 새로운 전투수행 방식을 체득한 제9사단은 전초전 격으로 치러진 1951년 11월 초의 전투에서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후 1952년 춘계와 하계에는 사단 자체적으로 실시된 실전에 대비한 훈련을 통해서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더불어 사단장 김종오 소장을 포함한 제9사단의 지휘관들의 작전 지휘 및 전투수행 능력이 향상된 상태에서 백마고지 전투에 임하였다.

1952년 10월이 되자 전 전선에 걸쳐 적의 공세징후가 나타나기 시작 하여 정찰과 경계를 강화하였다. 54) 우선 미 제5공군의 항공기가 10월

<sup>52)</sup> 유현종. 『백마고지: 김종오 장군 일대기』(서울: 을지출판공사, 1985), pp. 312~315; 양영조, "6.25전쟁의 명장 김종오 장군의 작전술 분석: 춘천전투와 백마고지 전투 를 중심으로," 김종오 장군 선양사업추진위원회 편, 「6.25 한국전쟁과 김종오 장군의 위상, (제95주년 김종오 장군 탄신제 및 학술대회 자료집, 2016, 5), pp. 37~43.

<sup>53)</sup> 김영선, 『백마고지의 광영』, p. 57; 김운기, 『철의 삼각지』, pp. 265~267.

<sup>54)</sup> 백마고지 전투의 구체적인 경과에 대한 기존의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전투가 진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전투 경과를 기술한 것인데, 이때 사용된 핵심 사료는 제9사단과 예하 연대의 전투상보에 작성된 날짜별 전투 경과

3일 22:30부터 10월 6일 15:10까지 적의 공격 기세를 사전에 격파할 목적으로 19회에 걸쳐 적 예상 집결지와 포병부대, 접근로 등에 대대적 인 폭격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서 적도 포격을 시작하더니, 10월 3일부터는 점차 강화되어 10월 5일에는 하루 만에 약 2,000발의 포탄을 쏟아 부었다. 이와 같은 중국군의 집중포화는 395고지의 아군 방어진지에 대한 파괴사격이었는데, 제9사단이 395고지를 인수한 이래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국군 제9사단은 좌측에 제30연대, 우측에 제29연대를 배치하고, 제28연대를 예비로 확보하였으며, 배속된 제51연대를 대대 단위로 운용하면서 주저항선을 방어하였다. 이 중 백마고지 방어를 담당한 제30연대는 395고지에 제1대대, 중마산 일대에 제2대대, 역곡천 남안에 제3대대를 예비대로 배치하였다. 적은 중국군 제38군단 예하 제114사단제340, 제324연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제113사단이 좌인접 미 제2사단 정면에, 제112사단이 제38군단 예비로서 수정덕산 부근에 배치되어 있었다. 작전기간 중 기상은 대체로 청명하였으며 야간에도 월광으로 인하여 비교적 관측이 양호하였다. 특별한 제한요인이 없는 한 월광은 야간공격을 위주로 하는 적에게 유리하였고, 청명한 날씨는 아군의항공지원에 유리하였다.

제1차 공방전은 10월 6일 아침부터 국군 제9사단 정면을 포격하던

였다.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8권 (제9사단) pp. 657~758; HQ, 9th US Corps, "Special After Action Report Hill 395 (White Horse Mountain) 6-15 October 1952." 두 번째는 12차례에 걸쳐 실시된 공방전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은 KMAG에서 작성한 Command Report의 내용을 따른 것이다. 8202nd Army Unit, US Military Advisory Group, "Command Report, Oct. 1952, ROKA Combat Units, KMAG, 9th ROK Division, etc." 이후에 작성된 공간사 서술에서도 위의 두 가지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술하고 있다.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下》』(1997), pp. 389~3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0권: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2012), pp. 396~430. 이 글에서는 2012년에 발간된 공간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 12차례의 공방전 전개 과정을 정리하였다.

중국군이 야음이 내리기 시작하던 19:00경부터 제114사단 예하 1개 대 대 규모를 395고지에 대한 정면에 투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날 공격 에서 적은 395고지 공격에 앞서 좌인접 미 제2사단 방어지역과 서남방 3km 지점의 281고지에 대해서도 대규모 공격을 병행하였다. 적의 공 격이 시작되자 이군 포병이 일제히 포격을 실시했는데, 특히 국군 제9 사단을 지원하던 미 제213포병대대와 미 제955포병 대대가 효성동 일 대의 적 예상 포진지와 집결지에 155mm의 포격을 집중하였다. 제30 연대는 3차에 걸쳐 진행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약 1시간 만에 적을 격 퇴하였다

약 30분 만에 시작된 5개 중대 규모의 적이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하 자. 제9사단 지휘부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공격에서 적의 선두 일부가 395고지 주봉 인근까지 진격함에 따라 제9 사단장은 즉시 제28연대 1대대의 사단 수색중대를 투입하여 역습하기 로 결정하였다. 395고지 정상까지 접근한 적과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 던 외중에 제30연대와 제28연대 1대대의 효과적인 방어작전으로 인해 적은 퇴각하였다.

두 차례의 공격에서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은 적은 불과 1시간 만에 제3차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번 공격에서는 지금까지의 공격과 달리 약 1.000여 발에 달하는 포격을 쏟아 부은 이후, 약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395고지 정상을 향해 여러 방면에서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제 9사단장은 즉시 항공기에 의한 전술폭격을 요청하는 한편, 사단의 전 지원포병의 화력을 주진지 전면에 집중시켰다. 이후 약 5시간 동안 지 속된 야간전투에서 미군의 B-29 폭격기로부터 155mm 야포에 이르기 까지 대대적인 화력지원이 집중되었으며. 이후 395고지 주봉과 화랑고 지 인근까지 접근한 적과 아군 사이에 근접전투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제3차 공격에서 아군은 압도적 화력으로 적을 격퇴하려 했으나. 중국 군이 화랑고지 전방 무명고지에 거점을 확보한 채 종료되었다.

제4차 전투는 화랑고지 전방 무명고지에 진지를 구축한 중국군을 격퇴하기 위한 아군의 공격으로 개시되었다. 아군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적의 포병화력이 아군 진지에 집중되었으며, 곧이어 아군의 폭격기와 포병에 의한 무차별적 대규모 화력지원이 이어졌다. 약 12시간 넘게지속된 공방전 중에는 아군의 포병 사격이 잠시 멈춘 사이에 5개 중대규모의 적이 395고지 주봉을 향해 공격해 왔으며, 백마고지 전투가 개시된 이후 최초로 주봉이 적에게 장악되었다. 하지만 제28연대 2대대가 시기적절하게 역습을 감행하였으며, 치열한 교전 끝에 395고지를 상실한 지 약 4시간 만에 주봉을 탈화하였다.

백마고지 정상을 빼앗긴 적은 약 5시간 후에 또 다른 공세를 개시하였는데, 기존에는 야간공격만 고집하던 중국군이 처음으로 주간공격을 감행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후 공격 개시 약 2시간 만에 압도적인 규모의 적이 395고지 정상을 탈취했으며, 후퇴한 아군은 즉시 포병사격과항공 화력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유권 피해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가속되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후에 전열을 가다듬은 아군은 17시 경에 제28연대 3대대를 앞세워 반격을 개시하고, 이에 맞춰 항공기와 포병화력을 395고지 정상에 집중하는 등 본격적인 야간전투에 돌입하였다. 이후 피아간에 치열한 교전이 발생하였으며, 마침내 아군이 395고지를 탈취당한 지 15시간 만인 23시경에 이를 재탈환하였다.

그런데 이전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국군이 불과 1시간 여만에 또 다시 제6차 공세를 재개함에 따라 백마고지 정상 일대에서 방어준비에 나선 제28연대 3대대 장병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395고지의 주봉을 차지하기 위해 피아의 병력이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근접하여 교전을 벌이는 등 백마고지 전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치열한 전투가벌어졌던 제6차 공방전에서는 국군 부대가 395고지 남동쪽 능선에서도밀려나면서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제9사단장은 제29연대를 다시 투입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제53전차중대를 제29연

대에 배속하여 395고지에서 활동하는 적 직사화기를 제압토록 하였다. 또한 미 공군기가 10~30분 간격으로 출격하여 395고지 일대를 대대적 으로 폭격하였다. 이와 같은 지원에 힘입어 제29연대 1대대와 3대대는 10월 9일 15시 경에 다시 395고지 정상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후 적의 역습을 저지하기 위해서 제29연대는 395고지 전방의 화랑능선 까지 진출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10월 9일 야간에 계속된 공방전에서 아군 화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 고 퇴각한 중국군은 10월 10일 미명을 기해 1개 대대 규모의 부대를 395고지로 직접 향하는 능선 접근로에 투입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395고지 9부 능선까지 진출한 적과 아군 사이에 치열한 백병전이 전개되었으나. 시기적절하게 도착한 아군 증원부대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빼앗겼던 395고지 주봄을 06:30경에 탈환하고 적 을 격퇴하였다.

하지만 불과 1시간 30분 후에 중국군이 제8차 공세를 개시함에 따라 395고지 사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특히 10월 11일 오전에 는 안개가 395고지 일대를 뒤덮자 아군 후방의 포병 및 항공기에 의한 화력지원이 제한되어 결국 적과 치열한 근접전을 치룰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군 오폭에 의한 우군피해가 발생하 자. 아군 진지에 혼란이 발생하였다. 오전 09:30경부터 불과 300m의 거리를 두고 적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고. 이후 제29연대 2대대가 역습 을 개시하여 13:20경에 중국군을 고지 정상에서 몰아내고 진지를 탈환 하였다

제8차 공세에서 제29연대 2대대의 역습으로 395고지를 탈환한 제9 사단장은 제30연대에게 즉시 화랑고지 일대를 향해 진격하여 적을 추 격하도록 지시하였다. 하지만 이군의 의도를 파악한 적이 대규모 포격을 실시함에 따라 아군의 추가 공격은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10월 10일 18시경에 중국군 2개 대대 규모가 은밀하게 화랑고지에서 주봉 방향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에 의해 불의의 기습을 당한 아군은 일 시적으로 395고지 정상을 빼앗겼으나, 다음날 정오경에 제29연대와 제 30연대가 협공으로 고지 정상을 다시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백마고지 정상에서 쫓겨난 적군은 불과 3시간 만에 다시 5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공세를 개시하였다. 10월 11일 오후에 시작된 제10차 공방전에서 중국군이 아군 방어진지에 최대한 은밀하게 접근한 뒤 395고지 정면으로 직접 공격을 개시함에 따라 아군의 후방 화력지원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했다. 그 결과 아군 제29연대 2대대 방어 병력은 적의 압도적인 공격에 밀려 후퇴하였으며, 결국 20:00경에 백마고지 정상을 적에게 내주고 말았다. 이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제9사단장은 제30연대에게 반격을 지시하여, 이튿날 13:00경에 395고지 탈환에 성공하였다. 55) 제10차 공방전을 끝으로 적은 더 이상 395고지 주봉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후 395고지 정상 일대에서 이군의 방어진지 구축이 시작되었다.

중국군 약 1개 대대 병력에 의해 개시된 제11차 공방전은 1시간 정도 지속되었고, 적은 395고지 정상 일대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한 아군의 진지를 돌파할 수 없었다. 결국 많은 사상자를 내고 퇴각한 적은 불과 세 시간 후에 야음을 틈타 다시 395고지 동쪽 능선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이 공격은 10월 13일 새벽 04:00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아군은 395고지 정상 일대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한 방어선을 중심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냈으며, 이 사이에 적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sup>55)</sup> 제10차 공방전에서 활약한 제30연대 1대대의 강봉우 소위, 오귀봉 하사, 안영권하사는 소대원과 함께 수류탄을 뽑아 들고 적진에 뛰어들어 기관총 진지를 폭파하고 자신들도 현지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들의 희생 덕분에 제1중대는 일제히 돌격하여 13:00경에 백마고지 정상을 탈환할 수 있었다. 이 정상 탈환을 마지막으로 적은 다시 395고지 정상에 접근하지 못했으며, 이날 수훈을 세운 세 명의용사를 '백마고지 3군신(三軍神)'으로 추앙하고 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 전투」, p. 212; 조성훈, "한국 현대사와 전쟁영웅 : 희생과 기여의 스토리、"조성환 외、『대한민국 국방사』(서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7), p. 345.

가해 중국군을 화랑고지 너머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제9사 단장은 후방에 예비로 준비 중이던 제28연대를 화랑고지 방면으로 진 출시켜 적을 추격하였으며, 이어서 제29연대가 화랑고지 전면까지 진 출함에 따라 적을 완전히 격퇴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국군 제9시단은 10 월 6일부터 15일까지 백마고지에서 중국군 제38군 예하 3개 사단의 공 격을 받아 10여 일간 12차례의 쟁탈전을 반복하여 7회나 395고지 주봉 의 주인이 바뀌는 혈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끝까지 백마고지를 확보 하는 데 성공하였다.

# 4.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 분석

백마고지 전투와 관련된 여러 자자료를 입체적으로 검토하면 국 군 제9사단이 이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휘한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의 실체를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살펴볼 자료는 총 12차례의 공방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전투별 교전 지속시간, 교전 사이 의 간격, 피아 투입부대 규모, 사상자 규모, 탄약 소모량 등이다. 이들 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백마고지 전투에 대한 입체적. 다각적 이해가 가 능하며, 또한 이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끈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방 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분석할 자료는 약 12회로 진행된 공방전의 지속 시간, 각 교전 사이의 간격 등인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1〉와 같다.

구분	교전 개시	교전 종료	지속 시간	교전 사이 간격	비고
1차	10. 6. 19:15	10. 6. 20:15	60분(1h)		
2차	10. 6. 20:40	10. 7. 00:00	200분(3h 20m)	25분	
3차	10. 7. 00:40	10. 7. 05:10	270분(4h 30m)	100분(1h 40m)	
4차	10. 7. 14:00	10. 8. 02:40	760분(12h 40m)	590분(9h 50m)	정상 쟁탈전
5차	10. 8. 02:40	10. 8. 23:05	1,125분(19h 25m)	0분	정상 쟁탈전
6차	10. 9. 00:20	10. 10. 00:30	1,450분(24h 10m)	85분(1h 25m)	정상 쟁탈전
7차	10. 10. 00:30	10. 10. 06:40	370분(6h 10m)	0분	정상 쟁탈전
8차	10. 10. 08:00	10. 10. 13:20	320분(5h 20m)	80분(1h 20m)	정상 쟁탈전
9차	10. 10. 15:20	10. 11. 12:04	1,240분(20h 40m)	120분(2h)	정상 쟁탈전
10차	10. 11. 12:15	10. 12. 13:20	1,485분(24h 45m)	11분	정상 쟁탈전
11차	10. 12. 13:40	10. 12. 16:50	130是(2h 10m)	20분	
12차	10. 12. 19:50	10. 15. 11:00	425是(7h 5m)	180분(3h)	

〈표 #1〉 교전 지속 시간 및 교전 사이 간격<sup>56)</sup>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395고지 정상 탈취를 둘러싼 공격과 탈취, 역습 등의 순서로 전개된 교전의 지속시간은 그렇지 않은 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특히 4차, 5차, 6차, 9차, 10차 공방전은 최소 12시간, 최장 24시간이 넘게 지속된 전투였다. 반면에 7차와 8차 공방전에서는 395고지 정상을 뺏고 빼앗는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6시간 정도 만에 종료되었다. 물론6차 공방전과 7차 공방전 사이의 간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투 지속시간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두 전투에 참가한 아군의 교전부대가 상이했기 때문에 이때의 교전시간은 유의미하다.

이와 같은 데이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951년 초의 사창리 전투, 횡성 전투, 현리 전투 등지에서 국군 부대가 적과 제대로 교전조차 하지

<sup>56) 8202</sup>nd Army Unit, US Military Advisory Group, "Command Report, Oct. 1952, ROKA Combat Units, KMAG, 9th ROK Division, etc."

못하고 붕괴되었던 과거의 전투와 달리. 국군 제9사단의 예하부대는 24시간이 넘게 중국군에 맞서 밀고 밀리는 접전을 지속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휘관의 상황에 맞는 리더십. 전투원의 전투의지 와 이들을 지원하는 충분한 장비와 보급품. 공격과 방어에 필수적인 화 력지원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이처럼 백마고지 전투에 임한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적을 압 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교전의 간격. 즉 전투기간 중 일시적으로 총성과 포성이 멈 췄던 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차부터 3차까지의 공방전은 거의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4차부터 11차 공방전이 진행되는 약 8일 동안 교전이 멈춰진 시간은 고작 8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했다. 10월 7일 오후부터 15일 정오경까지 백마고지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 투가 벌어졌으며, 이 기간 중에 총생과 포격이 멈췄던 시간은 길어야 2시간 이내였다. 또한 4차와 5차 공방전. 6차와 7차 공방전은 쉴 사이 없이 곧바로 진행된 연속전투였으며, 9차부터 11차 사이의 전투도 거의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다. 이처럼 수차례 교전이 거의 쉴 새 없이 지속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국군 제9사단의 사단장과 연대장의 효율적 부 대교체와 전투운영. 향상된 작전지휘 능력을 엿볼 수 있다. 전투 기간 중 사단장을 포함한 국군 제9사단의 주요 지휘관들은 395고지 탈환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전투의 구체적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에 대 처하였다. 특히 전황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을 미 리 준비하였으며, 매번 주도적으로 전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적에 비 해 더 많은 병력과 화력을 투입하여 395고지 주봉을 장악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였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자료는 일곱 차례나 395고지 정상을 뺏고 빼앗는 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아가 각각의 전투에 투입한 병력규모와 사 상자, 보충 병력 등이다. 먼저 총 12차례의 공방전을 벌이는 동안 각 전투에 투입된 피아의 투입부대 규모는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전투별 피아 투입부대 규모57)

		아군 규모		T 70 W			
구분	최초 투입	최초 투입 역습 / 반격		적 규모	비고		
1차	30연대 1·3대대		2개 대대	1개 대대			
2차	30연대 1 · 3대대	28연대 1대대	2+1개 대대	5개 중대			
3차	30연대 1·3대대 28연대 1대대		3개 대대	2개 대대			
4차	30연대 1 · 3대대	28연대 1·2대대	2+2개 대대	5개 중대	정상 쟁탈전		
5차	28연대 1·2대대 30연대 1대대	28연대 3대대	3+1개 대대	3개 대대	정상 쟁탈전		
6차	28연대 1 · 3대대 30연대 1 · 3대대	299टाम 1 असमि	4+2711 대대	4개 대대	정상 쟁탈전		
7차	28연대 1·3대대 29연대 1·3대대		यस पाप	1개 대대	정상 쟁탈전		
8차	28연대 1·3대대 30연대 1대대	29연대 1·3대대	3+2개 대대	1개 대대	정상 쟁탈전		
9차	28연대 1 · 3대대	29연대 1·3대대 30연대 2·3대대	2+4개 대대	2개 대대	정상 쟁탈전		
10차	28연대 1 · 3대대	29연대 1·2대대 30연대 1·2대대	2+4개 대대	5개 중대	정상 쟁탈전		
11차	30연대 3대대, 29연대 3대대	30연대 1대대	2+1개 대대	1개 대대			
12차	30연대 1·3대대	28연대 1·3대대 29연대 1·2대대	2+4개 대대	2개 대대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로 395고지 정상에 대한 쟁탈전이 개시된 시기는 10월 7일 오후이고, 제4차 공방전부터였다. 이때부터

<sup>57)</sup> HQ, 9th US Corps, "Special After Action Report Hill 395 (White Horse Mountain) 6–15 October 1952"

백마고지 전투가 가장 치열한 격전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전투에서 중국군의 공격부대는 대체로 아군의 방어병력에 비해 1/2 혹 은 1/3수준이었는데. 주로 야간공격을 통해서 아군이 방어하는 395고 지 정상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하지만 아군은 정상에서 밀려난 즉시 적 병력의 2~3배에 해당하는 예비대를 동원하여 역습 및 반격을 개시 하여 고지 정상을 반복적으로 재탈화하였다. 한편, 전투에 투입된 규모 면에서 가장 많은 피아 병력이 투입된 시기는 10월 8일부터 12일 사이 에 진행된 5차부터 10차까지의 공방전이었으며, 이 시기에 아군은 평 균적으로 5개 대대 규모의 병력. 적군은 약 2개 대대 이상의 병력을 투 입하여 교전하였다.

또한 이 자료에서는 국군 제9사단장 김종오 장군을 포함한 예하 지 휘관들이 매 전투마다 효율적으로 주력부대를 지정하고. 시기적절하게 예비대를 편성하여 투입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395고지 주봉에 대한 쟁탈이 이뤄졌던 4차부터 10차에 이르는 공방 전에서는 결정적 시간과 장소에서는 항상 아군의 투입병력과 화력이 적의 병력 규모와 화력을 압도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국군 제9사단의 지휘관들이 치열하게 지속되는 395고지에서의 불확실 한 전투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강력한 예비대를 보유한 뒤. 이들을 적 절한 시기에 투입하여 전체적으로 전황을 유리하게 전개하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백마고지 전투 기간 중 발생한 피아의 사상자 데이터는 다음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피아 인명손실<sup>58)</sup>

(단위: 명)

						아군			
갼		적				국군 제9사단 전투상보			미 제9군단
		국군 제9사단 전투상보	미 제9군단 보고서	중국군 공간사		장교	사병	계	보고서
	확정	8,234	2,695	1,748	전사	22	483	505	421
전사	추정	6,098	1,873						
	항공		707						
부상(추정)		1,001	4,241	3,062	부상	93	2,423	2,516	2,391
포로		57	51	562(실종)	실종	2	389	391	507
계		15,390	9,567	5,372	계	117	3,295	3,412	3,319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약 10일 동안의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의 총 사상자는 약 3,000여 명이었다. 이중에서 전사자는 전체 사상자의 약 1/6 정도이며, 실종자도 10% 이상이니, 전체 사상자 중에서 전사자와 실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59) 중국군 제38군의 인명손실에 대한 기록은 파악하는 주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전사자와 부상자의 숫자에서 큰 격차가 있음을 알수 있다.

약 10일 동안 백마고지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국군 제9사단에 발생한 전체 사상자 규모는 1951년 2월  $11\sim13$ 일 사이에 횡성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에서 발생한 총 7,464명(대부분 포로 및 실종자)의 사상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60) 반면 미 제23연대전투단이 1951년 2월

<sup>58)</sup> HQ, 9th US Corps, "Special After Action Report Hill 395 (White Horse Mountain) 6-15 October 1952"; 8202nd Army Unit, US Military Advisory Group, "Command Report, Oct. 1952, ROKA Combat Units, KMAG, 9th ROK Division, etc."

<sup>59)</sup> 중국군 공간사에서는 백마고지 전투 중에 발생한 국군 제9사단의 인명 손실을 총 9,300여 명으로 추산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p. 420.

<sup>60)</sup> Coleman, Wonju: The Gettysburg of the Korean War, p. 157.

중순에 지평리 전투에서 중국군 약 5개 사단과 약 5일 동안 대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342명(사망 51명, 부상 250명, 실종 42명) 에 불과했으니, 제9사단이 수행한 백마고지 전투에서 훨씬 많은 사상자 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61) 또한 6.25전쟁에서 미군이 수행한 대표 적인 고지쟁탈전으로 알려진 단장의 능선 전투(the Battle of Heartbreak Ridge, 1951, 9, 13~10, 15)를 수행한 미 제2사단과 프 랑스 대대에서 약 1달 동안에 발생한 사상자가 총 3,736명(전사 597 명. 부상 3.055명. 실종 84명) 정도였는데. 이 숫자는 제9사단이 10일 동안 백마고지 전투에서 입은 인명피해 규모와 비슷하다 62) 또한 미 제3사단이 1953년 7월 13~20일 사이에 폭찹고지(the Pork Chop Hill)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상자는 총 1.118명(사망 52명, 부 상 894명, 실종 172명)이었는데, 이 숫자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발생한 국군 제9사단 사상자의 약 1/3 정도였다. <sup>63)</sup> 이처럼 6.25전쟁 중에 발 생한 다른 전투와 비교할 때. 1952년 10월의 백마고지 전투에서 발생 한 제9사단의 사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그만큼 이 전투가 치열하게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작전 기간 중 제9사단에는 총 1,836명의 신병이 보충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유례가 없던 일이다. 제9사단의 병력 증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월 10일에는 890명(장교 1명, 사병 889명), 10월 11일에는 312명(장교 14명, 사병 298명), 10월 12일에는 366명(장교 17명, 사병 349명), 10월 15일에는 사병 300명이 등이었다. 백마고지 전투초기까지 일일 단위로 장교와 사병이 고작 10명 이내로 보충되었으나, 백마고지에서 진행되는 혈전 소식이 알려지면서 육군본부가 가용한 보

<sup>61)</sup> Ryan, Battle of Chipyong-ni, 13-15 February 1951, Tab C.

<sup>62)</sup>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Special Staff, US Army, *Action on 'Heartbreak Ridge*,' p. 17, 18, 26,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1960, Background Files to the Study, "Combat Action in Korea," 1951–1960, NARA.

<sup>63)</sup> McWilliams, On Hallowed Ground: The Last Battle for Pork Chop Hill, p. 416.

충병력을 우선적으로 제9사단에 할당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충 된 병력들은 각 연대와 대대에 배치되었으며, 기존의 전투원들과 힘을 합쳐 전투 후반기에 전세를 역전하고 전황을 유리하게 유지할 수 있도 록 일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료는 백마고지 전투가 진행되던 약 10일 동안 전투에 사용된 각종 화력장비의 포탄 소모량과 폭격의 규모이며, 이를 아래의 〈표 #4〉와〈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군		
일시/기간	적 포병(발)	포병(발)		항공기	비고
		소티(회) 폭탄량(lb)		<del>폭</del> 탄량(lb)	
10. 5 ~ 6	1,468	2,183	55	83,200	
10. 6 ~ 7	10,910	19,428	619	115,800	
10. 7 ~ 8	2,226	12,251	76	117,480	정상 쟁탈전
10. 8 ~ 9	12,024	31,102	5 52	49,100	정상 쟁탈전
10. 9 ~ 10	4,474	19,222	46	48,820	정상 쟁탈전
10. 10 ~ 11	4,340	23,455	90	224,160	정상 쟁탈전
10. 11 ~ 12	3,430	18,940	200	216,760	정상 쟁탈전
10. 12 ~ 13	5,467	23,023	76	128,680	정상 쟁탈전
10. 13 ~ 14	5,768	18,587	70	142,300	
10. 14 ~ 15	4,631	19,808	19	16,000	
계	54,738	187,999	745	1,142,300	

〈표 #4〉 피아 포병 사격 및 아군 항공 지원(4)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군은 전투 초기인 10월 6~7일, 8~9일에 가장 많은 포병사격을 실시하여 국군 제9사단을 몰아붙여 395고지를 신속하게 탈취하려 하였다. 반면에 이군은 10월 8~15일까지 매일평균 약 20,000발이 넘는 포병사격을 실시하였는데, 이 기간 중에는 395고지 주봉에 대한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포병이 막강한 화력을 지원하여 교전부대의 작전을 지원하였다. 한편 작

<sup>64) 8202</sup>nd Army Unit, US Military Advisory Group, "Command Report, Oct. 1952, ROKA Combat Units, KMAG, 9th ROK Division, etc."

전기간 전체에 걸쳐 아군 항공기에 의한 폭격도 실시되었는데, 주로 395고지 정상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투가 전개되던 10월 10일부터 12 일 사이에 가장 많은 출격과 막대한 분량의 폭탄이 집중적으로 투하되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5〉에서는 작전기간 중 아군이 유용한 다양한 포병 화기의 일자별 탄약 소모량을 파악할 수 있다. 대체로 국군 제9사단을 직접 지 원하던 105mm 4개 포병대대가 화력지원의 주축을 이뤘으며, 미군이 유용한 155mm 2개 포대와 4 2" 중박격포 1개 중대가 전방 교전부대에 대한 화력지원에 가세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중국군이 최초로 395고지 주봉을 점령한 10월 7~9일 사이. 그리고 아군이 395고지 주봉을 완전 하게 점령한 뒤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려던 10월 10~12일 사이에 가장 많은 포탄이 소모되었다. 즉, 395고지 전투가 가장 격렬하게 전개 되는 순간에 아군 포병 및 항공지원 부대가 가장 많은 화력지원을 제공 함에 따라 전장에서 작전을 추행하던 전투부대가 이를 효율적으로 이 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표 #5) 일자별 탄약 소모량<sup>(5)</sup>

(단위: 발)

	105mm				155	mm	4.2"	
구분	제51 포병대대	제52 포병대대	제50 포병대대	제30 포병대대	미 제213 포병대대	미 제955 포병대대	제9중박 격포중대	계
10. 6~7	4,054	6,214		3,550	1,002	2,648	3,597	21,065
10. 7~9	1,550	13,125	6,778	13,807	12,999	11,751	3,179	63,189
10. 9~10	199	6,900	1,933	4,157	2,757	332	776	17,054
10. 10~12	11,857	27,817	14,586	21,741	6,973	2,226	3,296	88,496
10. 13~15	4,029	4,000		5,406	12,595	5,054	5,021	36,105
계	21,689	58,056	23,297	48,661	36,326	22,011	15,869	225,909

<sup>65)</sup>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8권 (제9사단), pp. 657~758의 일자별 기록 을 정리한 자료임. 395고지 전투 기간 중 국군과 미군이 사용한 포병 탄약의 분량 은 약 7만여 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들 차이는 국군의 기록과 미군의 기록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들 중 어느 기록이 정확한 것인지를 확정하기 힘들다.

이상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음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국군 제9사단은 과거의 병력 중심 (man-power based) 전술에서 벗어나 화력과 기동(firepower & mobility)이 결합된 전술을 구사하였으며, 보병과 포병, 보병과 전차의 협동전술을 무리 없을 정도로 구사하여 임무를 완수하였다. 또한 국군 제9사단은 395고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포병부대와 공군의 화력지원 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전투를 수행해야 했으며, 특히 보포 및 보전협동 공격을 통해 고지 정상에 대한 탈환과 더불어 적의 공격을 격퇴하는 임 무를 완수해야 했다. 이처럼 국군 제9사단은 싸우는 방식의 변화를 통 해 전투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통해서 대규모의 적을 압도할 수 있었다.

한편 백마고지 전투 기간 중 사용된 포탄 사용량을 다른 전투와 비교하면 백마고지 전투의 상대적 지열도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미 제3 사단 15연대가 1951년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Hill 487과 Hill 477에서 수행한 전투(Battle of Bloody Angel)에서 총 61,836발 (105mm 48,576발, 155mm 13,260발)의 포탄을 사용한 반면, 백마고지 전투에서는 약 10일 동안 20여만 발의 포탄이 사용되었다. 66이 미 제 2사단과 프랑스 대대가 1951년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17일 동안 수행한 단장의 능선 초기 전투에서 사용된 총 포탄은 221,579발(105mm 184,191발, 155mm 37,388발)이었으며, 항공기에 의한 폭격지원은 총 25회, 440 소티였다. 67이 또한 미 제3사단이 1953년 7월 13~20일에 폭참고지(the Pork Chop Hill) 전투를 수행하는 7일 동안 사용한 탄약은 총 115,763발로 집계되었는데, 이 숫자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사용된 포탄 숫자와 유사하다. 68)

<sup>66) 5</sup>th Historical Detachment, EUSAK, *The Battle of Bloody Angel*, 30 January 1952.

<sup>67) &</sup>quot;Heartbreak Ridge, September-October, 1951," Special Report, G-3 Section, 2nd Infantry Division.

<sup>68)</sup> 폭찹고지 전투에서 중국군이 사용한 포탄은 약 71,826발인데, 이는 백마고지 기간

백마고지 전투는 전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국군 제9사단이 중국군 제38군을 상대로 395고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고지쟁탈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측 군대는 물론이고 국내외의 언론사에서 관심을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의 상당 부분은 1951년에 현리전투에서 붕괴에 가까운 패배를 당한제9사단이 1년 반 이후에 약 세 배에 달하는 중국군을 상대로 격전을벌이고 있다는 점에 집중되었다. 동아일보를 포함한 국내 주요 신문들은 1952년 10월 9일부터 백마고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69), 이후 국군 제9사단의 승전이 예상되는 10월 12일부터는 각 신문사가 앞 다투어 백마고지의 전황을 자세하게 보도하기위한 경쟁을 벌였을 정도였다. 70) 미국의 The New York Times도 백마고지 전투가 종료된 이후 국군 제9사단의 승리를 자세하게 전송하면서, 이번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 전체 한국군의 재편성과 증강을 다시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지도 했다. 71)

백마고지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이승만 대통령과 밴 플리트 사령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국군 제9사단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전투수행을 격려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0월 12일에는 경무대에서 국군 제9사단의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찬사하는 축하 전문을 보내서 사단장 김종오 소장을 격려하였다. 또한 다음날 오후에는 직접 밴 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과 함께 국군 제9사단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즉석에서 "자네들이 막강한 미군 사단들 못지않게 용감하게 승리해 주고, 국위를

중에 중국군이 사용한 포탄 양보다 많다. McWilliams, On Hallowed Ground: The Last Battle for Pork Chop Hill, p. 417.

<sup>69) &</sup>quot;一年來最大激戰," 동아일보, 1952년 10월 9일 ; "피에 물든 백마고지," 경향신문, 1952년 10월 11일.

<sup>70) &</sup>quot;白馬高地 固守, 十二日夜 狂信的 反擊 敵을 屠戮," 동아일보, 1952년 10월 14일; "북을 치는 中共, 遺棄屍體五百," 경향신문, 1952년 10월 15일.

<sup>71) &</sup>quot;South Korean Troops Improved in Combat," *The New York Times*, 19 October 1952.

선양하고 있기에 "라고 연설하였다. 72) 이승만 대통령은 백마고지 전 투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도 다시 한 번 제9사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사단장 김종오 소장을 포함한 일선 지휘관과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73) 한국에 부임한 이후 국군 제9사단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밴 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은 백마고지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던 10월 9일에 사단장 김종오 소장을 방문하여 당시까지의 전황을 보고받은 이 후. "승리를 기대한다"고 격려하면서 국군 제9사단에 대한 최대한의 지 원을 약속하였다. 74) 국군 제9사단의 성공적인 작전수행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밴 플리트 사령관은 지인에게 보낸 10월 10일자 서신에 서 "제9사단이 철원에서 수행 중인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대단히 자랑 스럽게 생각한다.(I am extremely proud of the splendid work of the 9th ROK Division in the Chorwon area.) 본인은 제9사단이 중국군을 완전히 격퇴시킬 것으로 환전한다."고 평가하였다.75) 이와 같은 밴 플리트 사령관의 격려와 후원에 대해 김종오 소장은 훗날 "모 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국군의 위신과 제9사단의 명예 를 위하여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다"고 당시의 심정을 회상하였 다 76)

국군 제9사단을 지휘하던 미 제9군단장 루벤 젠킨스(Reuben E. Jenkins) 소장은 백마고지 전투가 종료된 직후 제9사단에 표창을 주었

<sup>72)</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 전투』, p. 243 ;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3년지』(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부, 1954), p. B-56.

<sup>73)</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 전투』, p. 244.

<sup>74)</sup> 위의 책, p. 244.

<sup>75)</sup> Van Fleet to Major General Orlando C. Mood, 10 October 1952, Van Fleet Papers, Box 71. 밴 플리트 장군이 Mood 소장에게 보낸 이 편지는 백마고지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한 사료이다. 왜 나하면 이 편지가 작성된 시점에는 아직 백마고지 전투가 종료되지 않았으나, 밴 플리트 장군은 국군 제9사단의 작전수행 능력을 신뢰하였으며, 결국 국군 제9사단 이 백마고지를 장악할 것을 확신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sup>76)</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 전투』, p. 244.

으며, 사단장과 일선 지휘관이 보여준 탁월한 전투 지휘와 전투원들의 우수한 전투수행 능력을 치하하였다. 77) 그는 또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을 칭찬하였는데, 사단 장 김종오 소장의 적절한 부대 교체, 예하 부대의 우수한 전술적 전투수행 능력, 한국군 장병의 강인하고 용감한 전투 의지를 제9사단이 백 마고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꼽았다. 78)

미국과 중국의 공간사도 백마고지 전투와 국군 제9사단의 성공적인 작전수행에 대하여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공간사는 백마고지에서 제9사단이 보여준 작전 수행은 "완벽한 전투 준비, 효과적인 정보활용, 효율적 전술구사, 공중과 포병, 기갑에 의한 강력한 화력지원이원활하게 들어맞은 최고의 전투 사례(a prime example)"였으며, 1952년 여름부터 마크 클라크(Mark Clark) 유엔군사령관이 요구했던 여러가지 요소가 제대로 결합된 완벽한 전투의 전형이라고 분석하였다. 79)중국 공간사는 8박9일동안 가축된 281.2고지와 394.8고지 전투에서중국군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너무 급하게 작전을 전개했고, 목표선정이 적당하지 않았으며, 지형이 불리했고, 작전계획이 노출되었기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1952년추계 공세에서 중국군이 점령목표로 선정한 23개의 고지 중에서 오직 제9사단 정면의 두 개 고지에서만 점령에 실패했다고 분석하였다. 80)

<sup>77)</sup> Major General Reuben E. Jenkins, "Citation - Command General 9th Division, ROKA," 22 October 1952, Van Fleet Papers, Box 69.

<sup>78)</sup> Reuben E. Jenkins, Major General to Syngman Rhee, President, ROK, 23 October 1952, Van Fleet Papers, Box 69.

<sup>79)</sup>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307.

<sup>80)</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p. 420.

## 5. 맺음말

지금까지 1952년 10월 초에 철원 북방의 395고지에서 약 10일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격전에서 국군 제9사단이 승리하는 과정을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 전투수행 방식의 변화, 그리고 전투 효율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백마고지 전투와 관련된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군 제9사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을 입체적, 다각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백마고지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서 국군 제9사단이 전투기간 내내 정보, 기동과 화력 등 전장의 제 요소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변화된 작전수행 방식을 구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모든 면에서 적을 압도하는 수준 높은 작전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백마고자 전투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주목했던 '불굴의 정신력을 앞세운 승리'라는 요소 외에도 국군 제9사단이화력과 기동을 접목한 현대적 전투방식으로 임했고, 이를 통해서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군 제9사단이 395고지 전투를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전투 효율성 관련 여러 가지 자료는 동일한시기에 벌어졌던 다른 미군 부대가 수행한 전투에 비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다.

종합하면, 국군 제9사단이 치열한 격전으로 전개된 395고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과정과 배경, 승리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군 사단 중 최초로 FTC에 입소한 제9사단은 전 장병이 미군 군단과 KMAG의 지도에 따라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였다. 국군 제9사단이 FTC에서 이수한 전시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이를 계기로 제9사단 장병들이 새로운 전쟁수행 방식을 체득하였기 때문이었다. 기존의 병력 중심의 전투수행 방식을 탈피하고, 대신 화력과

기동을 접목하는 새롭고 현대적인 전투수행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였던 셈이다.

둘째. 제9사단은 FTC에서 전시 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체감하였으며. 이는 차후에도 주기적으로 실시된 사단 및 연 대급 부대의 자체 교육훈련에 반영되었다. 특히 사단 및 연대의 자체훈 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주당 훈련시간, 야간훈련 비중 등 훈련관련 상당부분을 FTC에서 배운 그대로 실시하였다. 이처럼 FTC 입소를 계 기로 제9사단의 모든 장병들은 평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특히 395고지 전투를 앞두고 실제 전투에 필요한 체계적 훈련을 실시 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할 수 있었다.

셋째. 미군의 장비와 보급품 지원은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 과 전투 효율성 향상에 큰 효과를 발휘하였다. 1951년 후반부터 미군은 한국군 사단급 부대의 화력 증상에 유학하였는데, 포병화력의 경우 지 원 및 자체 화력으로 구분하여 제공하여 한국군의 전투수행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한국의 산악지형을 고려하여 화염방사기, 유탄 발사기 등 근접 산악전 수행에 적합한 최신 무기체계를 적극 제공하여 갱도식 진지를 근거로 방어작전을 펼친 중국군과의 근접전투에서 우위 를 점할 수 있었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 백마고지 전투를 앞 둔 국군 제9사단에는 우선적으로 장비와 보급품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약 10일간의 전투가 지속되는 동안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전투력 발휘의 근간을 이뤘다.

넷째. 사단장 김종오 소장을 포함한 제9사단 지휘관들의 효율적 전 투지휘와 상황에 맞는 리더십 발휘였다. 395고지 전투가 지속되는 동 안 사단장과 연대장은 제한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전투 상황을 매우 구 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공 부대와 조공부대의 교체. 예비대의 효과적 투입 등을 통해 적을 압도하 였다. 뿐만 아니라 이군이 보유한 최대의 장점, 즉 적을 압도할 수 있 는 포병 및 항공 화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을 제압하려는 현대적 전투수행 방식을 구사함으로써 압도적인 규모의 적을 제압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과거의 연구에서 관심을 쏟지 않았던 자료를 분석하여 백마고지 전투를 재조명함으로써 기존에 주목하지 않았던 6.25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전투에 대한 구체적 사료 분석을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막연하게 언급하였던 여러 가지 정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투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가 계기가 되어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는 목적 지향적 전투사(combat history)를 넘어서서 전투에 참가한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군사사(new miliary history) 경향의전투 연구(combat studies)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고투고일: 2017. 10. 9, 심시수정말, 2017. 11. 23, 게재확정일: 2017. 11. 23.]

주제어: 국군 제9사단, 백마고지 전투, 전투수행 능력, 전투 효율성, 전투수행 방식, 야전훈련사령부(FTC)

# 〈참 고 문 헌〉

- 강원대학교·육군 쌍용부대, 『6.25 한국전쟁의 신화: 춘천대첩, 무엇을 남겼나?』, 춘천: 춘천대첩 5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0.
-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下)』,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서울: 국방부 군사 편찬연구소, 2005.
- \_\_\_\_\_, 『6.25전쟁사 제9권: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a.
- \_\_\_\_\_, 『6.25전쟁사 제10권: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b.
- 국방부 전시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천투》: 백마고지 전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 김영선, 『김영선 회고록: 백마고지의 광생』, 서울: 도서출판 팔복원, 1997.
- 김운기, 『철의 삼각지』, 서울: 도서출판 현대문화센타, 1989.
-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3년지』,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부, 1954.
- 백선엽, 『6.25 한국전쟁 회고록: 군과 나』, 서울: 대륙연구소 출판부, 1989.
- 이대용, 『두 번의 혈전: 춘천전투와 낙동강교두보 시수』, 서울: 도서출판 백년동안, 2014.
- 유현종, 『백마고지: 김종오 장군 일대기』, 서울: 을지출판공사, 1985.
- 육군 군사연구소, 『중국군 공간사 번역서: 중국군이 경험한 6.25전쟁 I』, 대전: 육군 군사연구소. 2017.
-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중국군 공세 의지를 꺾은 현리-한계 전투』, 대전: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09.

- \_\_\_\_\_, 『유엔군 3차 반격작전 시 지암리—파로호 전투』, 대전: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1.
-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8권(9사단)』, 대전: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87.
- 장도영, 『장도영 회고록: 망향』, 서울: 도서출판 숲속의 꿈, 2001.
-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6권)』, 서울: 중앙일보사, 1983.
- 정완진, 『붉은 신호탄: 화령장 전투 4일간의 기적』, 서울: 매일경제 신문사, 2013.
- 나종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군사』 63호(2007):213-266, http://uci.or.kr/G704-001528.2007..63.004
- 남정옥, "한국전쟁 10대전투 고찰" 『전사 3호(2001):135-180.
- 다나카 츠네오, "다부동 전투를 통해 본 연합작전의 교훈", 『군사』 53호 (2004):75-100,
  - http://uci.or.kr/G704-001528.2004..53.006
- 유성종, "6.25전쟁 시 야전훈련사령부(FTC)의 창설과 역할", 『군사』91호 (2016):1-32, http://uci.or.kr/G704-001528,2014...91.003
- 장삼열, "화령장 전투의 군사적 재조명과 의의", 『군사』 73(2009): 101-139, http://uci.or.kr/G704-001528.2009..73.006
- 조봉휘, "6.25전쟁 시기 다부동지역에서 한국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一年來最大激戰". 『동아일보』(1952년 10월 9일)
- "피에 물든 백마고지", 『경향신문』(1952년 10월 11일)
- "白馬高地 固守,十二日夜 狂信的 反撃 敵을 屠戮", 『동아일보』(1952년 10월 14일)
- "북을 치는 中共. 遺棄屍體五百". 『경향신문』(1952년 10월 15일)

- Coleman, J. D., Wonju: The Gettysburg of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Brassey's, 2000.
- Ent. Uzal W., Fighting on the Brink: Defense of the Busan Perimeter, Paduach, Kentucky: Turner Publishing Company. 1996
- Hamburger. Kenneth E. Leadership in the Crucible: The Korean War Battles of Twin Tunnels and Chipyong-ni. College Station, Texas: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3.
- Hermes. Walter G.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66.
- Hinshaw, Arned L. Heartbreak Ridge: Korea, 1951, New York : Praeger, 1989.
- Mansoor, Peter R., The Confensive in Europe: The Triumph of American Infantry Division, Lawrence, Kansas: University of Kansas Press, 1999.
- McWilliams, Bill. On Hallowed Ground: The Last Battle for Pork Chop Hill. 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4.
- Utz, Curtis, Assault from the Sea: The Amphibious Landing at Inchon, Washington, D. C.: Naval Historical Center, 1994.
- "South Korean Troops Improved in Combat". The New York Times(19 October 1952)

<Abstract>

### A Study on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1952

- Analysis on the 9th ROK Division's Improved Capabilities of combat execution -

Na, Jong-nam

This paper deals with the 9th ROK Division's historic victory against the Chinese forces at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October 1952,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official and/or academic, researches on this battle, mostly, they have focused on some vague factors such as mental power as key factors of the victory. This paper, however, tries to suggest fresh point of views on this battle by analyzing several first—handed data of the battle such as number of troops, casualties, times and durations of engagements, number of consumed analyzing, and etc. While suggesting the concept of ways of fighting and compat effectiveness as a analyzing frame, This paper seeks to find out how the 9th ROK Division was able to repulse the Chinese troops for more than 12 times during the 10—days long fierce and bloody battle.

In order to review the detailed backgrounds of the 9th Division, this paper follow the history of this unit since May 1951 when it was collapsed seriously by the Chinese forces. After the defeat, the 9th Division was the first ROK unit that entered the Field Training Command(FTC) in August 1951 in order to reorganize and rehabilitate under the guidance of US Forces in Korean and KMAG. During 8 weeks of a well-organized training at the FTC, officers and soldiers of this division learned modern combat skills by harmonizing firepower and mobility of forces together. Also, since this unit came back to the front line in November 1951, The commanders of this unit never stopped to train their soldiers and troops by using FTC training models while increasing its combat effectiveness.

When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started in early October 1952 finally,

the 9th ROK Division overwhelmed the Chinese forces by not allowing for the enemy to capture Hill 395. Although the Chinese troops captured the top seven times briefly during 10 days of the battle, the 9th ROK Division never stopped to repulse the enemy from the top with superior combat power based on more numbers of troops, strong firepower, and effective leadership skills. By analysing several key data on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9th ROK Division's developed way of fighting and superior combat effectiveness as the main factors of its final victory against the Chinese forces.

Keywords: the 9th ROK Division,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combat effectiveness, ways of fighting, the Field Training Command(FTC)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95-149 https://doi.org/10.29212/mh.2017.105.9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김일성의 6.25전쟁 전략 분석: 전략의 전술화\*

김태현\*\*

- 1. 머리말
- 2 이론적 고찰: 전략의 전술화
- 3. 김일성의 전술편향: 기원과 형성
- 4. 전쟁계획: 군사적 모험주의
- 5. 전쟁수행: 전략의 경직성
- 6. 결 론

### 1 머리말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그 가장 단순한 것이 어렵다. 이 어려움이 누적되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상 상할 수 없는 마찰을 야기한다."1)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서 계획과 현

<sup>\*</sup>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김일성의 한국전쟁전략, 2012)을 정리, 보완한 글임 을 밝힙니다.

<sup>\*\*</sup>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부교수

<sup>1)</sup> Carl von Clausewitz,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On Wa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 119.

실과의 괴리를 이처럼 표현했다. 전쟁에서 계획과 실제와의 괴리는 전쟁이 과학(science)뿐만 아니라 술(art)의 영역임을 명확히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2) 전쟁에서는 계획단계에서 과학적으로 계측하거나 정형화할 수 없는 많은 다양한 우발적 상황들로 인해 최초에 설정한 전쟁목표들이 실제에서는 기대하던 대로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전쟁지도자는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클라우제비츠는 '종이 위의 전쟁 (war on paper)'과 '현실전쟁(real war)'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을 '마찰(friction)'로 설명하였다. 3)

전쟁의 마찰이 전쟁계획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전형적인 사례가 북한의 6.25전쟁 수행이다. 김일성은 1949년에 적어도 2번은 남침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다. 김일성은 북한 정권 수립 직후부터 '혁명의 근거지'를 북한 지역에 공고하 출성하고 남한 내 '혁명세력'과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이승만 정권을 부력으로 전복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4) 첫 번째는 1949년 3월로에 이때 이미 김일성은 '남한내의 유격대와 인민의 지지'를 전제로 전면적 남침을 공식적으로 스탈린에게 제의하였다. 5) 두 번째는 1949년 8월 '국지전의 전면전화'의 전쟁구상으로 김일성은 인민군의 남침이 개시되면 "틀림없이 이승만 정권에 대항하는 인민봉기가 남반부에서 분출"하여 남한을 무너뜨릴 자신이 있다고 하였다. 6) 1950년 4월의 '3단계 공격' 구상은 수정되어 실

<sup>2)</sup> Michael I. Handel, *Masters of War: Classical Strategic Thought* (London, Portland: Frank Cass, 2001), pp. 23–32.

<sup>3)</sup> Clausewitz, On War, p. 119.

<sup>4)</sup> 박병엽, 『전 노동당 고위간부가 겪은 건국비화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탄생』(서울: 선인, 2010), p. 141.

<sup>5) &</sup>quot;김일성이 지휘하는 북한 정부대표단과 스탈린간의 대화록, 1949. 3. 7," 예프게니 바자노프/나딸리아 바자노바,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서울: 열림, 1997), pp. 27-28.

<sup>6) &</sup>quot;슈티코프대사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문, 1949. 8. 12. 문서군2, 목록 65, 문서 775, pp. 102-105," 허남성 · 이종판 역, 『한국전쟁의 진실: 기원, 과정, 종결』(서울 : 국 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00), p. 45.

전에 적용되었는데, 그것이 1950년 6.25전쟁이었다. 김일성은 1950년 초부터 6·25 남침전쟁을 계획하면서 승리에 대해서 한 치의 의심도 없 었다. 김일성은 1950년 4월 스탈린과의 전쟁모의과정에서 인민군의 남 침이 개시되면 남한 내 유격대와 대규모 봉기가 전개되므로 '3일 이내' 에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김일성은 '3일 이내'에 전쟁 을 종결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미국은 개입할 준비시간 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7)

김일성의 '머릿속의 전쟁'은 실제전쟁과 일치하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막상 개전하고 보니 남한의 인민봉기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기대 했던 유격전도 북한인민군의 정규전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짧 은 기간에 전쟁을 종결하여 미군이 개입할 기회를 주지도 않겠다던 야 심찬 계획도 허상에 불과했음이 증명되는데 까지는 1주일도 걸리지 않 았다. 김일성은 종전 이후 전쟁과 이를 부석하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전쟁 계획이 실제전쟁과는 큰 괴리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는 1950년 12월 21일 당 중앙위 3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는 많은 예비군을 준비하지 못 하였으며 우리 앞에 중첩이 쌓여 있는 곤란들과 난관들을 극복하는 데 대한 타산과 준비가 부족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예비부대 준비부족. 조직성 미약, 규율성 취약, 유생역량 소멸 실패, 특수조건하 전투 부족, 유격전 실패. 후방공급사업의 결함. 정치공작 사업 부족 등 8개의 과오를 지적하였다. 8) 김일성은 "남조선에 당원이 20만은 고사하고 1.000명만 이라도 있어서 부산쯤에서 파업을 하였더라면" 미군개입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9) 김일성의 이러한 언급 은 1950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간 공격 전쟁 수행이 자신의 구상대

<sup>7) &</sup>quot;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김일성의 소련방문(1950. 3. 30-4. 25)에 관 한 보고, 러시아 대통령실 문서고,"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54.

<sup>8)</sup>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김일성 선집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sup>9)</sup> 김일성, "조선인민군 군정간부 회의에서 한 연설: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군종, 병종 의 발전 전망에 대하여, 1954. 12. 23," 중앙정보부, 『김일성 군사논선』, p. 300.

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김일성이 전쟁의 마찰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전투처럼 수행하여 성급하게 개전하고자 했으며 그럼으로써 '예상치 못한' 전쟁마찰에 직면하여 경직된 전쟁수행을 하게 되었던 현상을 '전술의 전략(strategy of tactics)'의 동학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50년 전쟁계획 수립 과정에서 북한지도부에 내재되었던 '전략수준의부조화' 현상은 군사적 모험주의와 성급한 개전을 촉진하고, 그것이 전쟁수행의 경직성을 유발함으로써 전쟁의 마찰에 제대로 대응 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북한의 6.25전쟁 수행과정 전반에 나타나듯 전쟁의 마찰은 탁상전쟁과 실제전쟁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마찰 없이 움직이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관념상의 모든 과장과 허위는 전쟁에서 곧바로 나타났다.10)

본 논문에서 김일성의 6.25천째 중행 전략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전략의 전술화(tacticization of strategy)'의 개념이다. 전략의 전술화란 하위수준의 전술적 사고가 전략의 논리를 지배하는 경향을 말한다.<sup>11)</sup> 본 논문은 '전투처럼 전쟁을 수행하고자 했던' 김일성의 전술 편향의 사고방식이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군사적 모험주의와 개전의 '오판'을 촉진시켰고, 그것이 전쟁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전쟁의 마찰을 충분하게 계산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전술이 전략을 대체할 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수단이 선택되기 보다는 단기적 전술적 목적, 전투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수단이 운용된다. 이에 따라 군사전략은 전쟁의 목적이 아닌 '전투에서 승리'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이 전쟁의 승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김일성이 전격전을 통해 속승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과도한 믿음은 다른 모든 정치적, 전략적 고려요소들을 압도하고 전쟁을 전

<sup>10)</sup> 류제승, 『전쟁론』(서울: 책세상, 2008), p. 103.

<sup>11)</sup> Edward N. Luttwak,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투로 단순화시켜 버렸다. 그럼으로써 북한 내에서는 국제정세의 흐름 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단순한 군사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 개전만 하 면 전쟁이 자신의 뜻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가 형성 되었으며, 이것이 결국 김일성의 적극적인 개전요구로 연결되었다. 본 논문은 '전격전의 신화'에 대한 단순한 군사적 사고가 군사적 모험주의 를 부추겼고. 이것이 국제정세와 전쟁의 마찰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쟁을 개전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규명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김일성이 단순히 '스탈린의 대리자'라는 전통주의적 관점 과는 달리 소련이라는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독자적 전략을 견지했던 것으로 간주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쟁이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인 '3자 합작품'이라는 쑤이(D. Tsui)의 견해, 그리고 소련의 대미 세계전략의 일본에서 규정되는 '스탈린의 전쟁'이 라는 션즈화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12) 김일성은 대남 군사전 략은 스탈린의 전면적인 개입과 증인 하에서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소극적인 현상유지적 리더십에 국한되지 않았었다. 김일성은 늦어도 1949년 이후부터 무력 적화통일에 대한 야심을 지속적으로 드 러냈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전략적 독자성을 적극적으로 피력 하였다. 13) 김일성은 개전과정에서 적어도 '촉진자'역할을 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이러한 균형잡힌 관점 하에 한국전쟁 결심과정을 분석할 때 비로소 북한의 전쟁수행과 관련한 전략문제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으로 2장에서는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로서 '전략의

<sup>12)</sup> 데이빗 쑤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pp. 109-110.; 션즈화. "극동에서 소련의 전략적 이익보장: 한국전쟁의 기원과 스탈린 의 정책결정 동기," 『한국과 국제정치』제30권(2014), p. 30.

<sup>13)</sup> 가미야 후지, 『조선전쟁』(서울: 한반도 출판, 2004), p. 30. 가미야 후지는 "김일성 이 리드를 잡은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소련의 공동 결정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전술화' 모형을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3~5장에서는 김일성의 6.25 전쟁 수행 전략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3장에서는 김일성의 전술 편향적 사고의 형성과정을 제시하며, 4장과 5장에서는 그러한 전술편향이 김일성의 전쟁계획과 전쟁수행간의 괴리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사례분석의 범위로서 전쟁계획단계는 1950년 초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를, 그리고 전쟁수행 단계는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다룬다. 특히 김일성의 전쟁수행 단계로 분석하는 3개월간(1950. 6. 25-9.15)의 기간은 김일성이 자신이 구상했던 전쟁계획을 공격작전으로 구현하는 국면으로서 '계획과 실시'의 문제점을 대비시켜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전쟁을 통틀어 거의 유일하게 김일성이 제한적이나마 '자율성'을 가지고 전쟁을 지도했던 기간인기도 하다.

## 2. 이론적 고찰: 전략의 전술화

### 가. '전략의 전술화' 의 개념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많은 고민을 해왔다. 전략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위 용병술이다.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 전쟁이 폭력을 주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략은 폭력을 사용하는 방법론을 주요 고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전략과 전술의 위계에 있다.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의 차이를 명확히 규정한 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전략은 '전쟁의 목적을 위한 전투의 운용', 그리고 전술은 '전투에서 전투력의 운용'이다. 14) 이 개념에 따르면 '군사적 승리'는 전술 수준에서는

<sup>14)</sup> Carl von Clausewitz, On War, p. 128. 전략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

고유한 '목적(ends)'이 되지만, 전략 수준에서는 하나의 '수단(means)' 에 불과하다 15) 전략은 전쟁목적에 부합된 하나의 목표를 전체 군사적 행동에 부여해야 하며, 전쟁의 본질적 속성인 정치적 관계를 통합적으 로 고찰해야 한다 16) 이러한 점에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략과 전술이라는 서로 다른 수준의 용병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만약 서로 다른 수준의 용병술이 각각의 수준에서 이탈하여 다른 수준 에서 적용될 경우 전쟁수행은 기대하던 목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 진다 17)

전략과 전술의 경계는 특정 군사적 행위가 '전쟁목표' 또는 '전쟁 전 체국면'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 가에 있다. 전투력을 투사하는 시간. 공간 등의 범위에 따라서 전략과 전술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대 체적인 경향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본질적 차이를 밝히지 못한다. 오로 지 '전쟁 목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 나에 따라 전략과 전술의 경계가 비로소 명확해질 수 있다. 전쟁 전체 공명에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영향 을 미친다면 그것은 전략이 되겠지만, 가접적이고 부수적인 영향을 미 친다면 그것은 전술에 국한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전투는 전쟁 전체국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 의 전투라도 '전쟁 전체 국면'과 '전쟁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전략적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전쟁 전체국면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정치'이다. 정치가 전쟁

Liddell Hart B. H., Strategy (New Frederick A. Praeger, 1967), pp. 333-335.; Andre Beafre, trans. by. R. H. Barry, An Introduction to Strateg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5), pp. 21-23.

<sup>15)</sup> Carl von Clausewitz, On War, p. 143.

<sup>16)</sup> Carl von Clausewitz, On War. p. 142.; 마오쩌둥도 전략이란 전체국면(as a whole)으로서 전쟁을 지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Peng Guangian. The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Beijing: Military Science Publishing House, 2005), pp. 104-105.

<sup>17)</sup> Richard K., Betts, "Is Strategy an Illus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25. No. 2 (Autumn, 2000), p. 6.

목표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이자. 전쟁을 수단으로 정치목표를 달성하는 전쟁수행 동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쟁에 목표를 부여하는 정치만이 용병술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용병술 마다 각각의 의미와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정치와 보다 근접해 있는 것이 전략이라면, 순수한 군사적 영역에 밀접하게 연계된 것이 전술이 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의 연속"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전략은 전쟁목표 달성을 위해 "최상의 군사적 결과"가 "국제체제"와 어떻게 관계되고 다양한 상황들이 어디에서 전쟁에 현저한 영향을 미 치는가를 중시한다. 만약 국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 수 단으로서 '군사력의 역할과 기능'만 중시하는 전략가가 있다면, 이들은 국제관계에서 힘의 역학관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성급하게 '개전'하 려 하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저 청소의 후폭풍은 그저 '우연'에 맡겨 놓으려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것은 주로 현실정치(realpolitik)로 표현되는 '강대국 정치'의 '큰 그림'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집착할 경향이 있는 '약소국의 지도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특 성이다

전략과 전술의 엄연한 차이를 고려할 때 '전략의 전술화(tacticization of strategy)'란 전쟁에서의 전략을 규정하면서 하위수준의 작전적 사고에 편향된 경향을 말한다. 전략의 전술화는 하카비(Y. Harkabi)가이스라엘의 대중동 전략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사용한 개념으로써, 18)하카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략가들은 전통적으로 명확한 장기적인 전략적 구상 없이 작전 지향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스라엘지도부가 군사지향적인 사고로 국가의 안보전략을 결정했기 때문에 전략 범위를 '군사작전'으로 축소시켰다고 평가했다. 19)이처럼, 전략의

<sup>18)</sup> Yehoshafat Harkabi, *Israel's Fateful Decision* (London: I. B. Tauris and Company Ltd., 1988).

<sup>19)</sup> Michael I. Handel, "The Evolution of Israeli Strategy: The Psychology of

전술화는 '순수한 군사작전'의 논리가 전략의 논리를 결정하게 되는 현 상을 말한다. "마치 전투처럼 전쟁을 수행하는 현상"을 의미한다.20) 전 략의 전술화는 전술적 수준의 사고 작용이 전쟁전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군사의 꼬리가 정치 전략적 몸통을 뒤흔드는 것(military tail wagging the political-strategic dog)"에 비유된다. 21) 이에 대 해서 크레피네비치(A. Krepinevich)가 고도의 정군배합(政軍配合)으 로 수행되는 베트남전에서 군사수단으로만 전쟁목표를 달성하고자 했 던 미국 군사전략을 "전술의 전략(a strategy of tactics)"이라고 규정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2) 전략은 개별전투의 성공여건을 조성하여 전 투의 성공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로써 쟁취된 전술적 승리를 새롭게 전 개되는 국면에 적응시키는 역할을 한다. 23) 따라서, 전쟁을 전투처럼 수행한다는 것은 '전투'의 정치적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전쟁'을 마치 한 번의 전투로 종결될 수 있다는 작각으로 단순화시킬 우려가 있 다. 현실세계에는 그러한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24)

### 나. '전략의 전술화' 발생 요인

전략과 전술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전쟁지도자는 '전술 적 경직성'을 '전략적 유동성'에 적용하려 한다. 전략과 전술은 시공간

Insurgency and the quest for absolute security," Williamson Murray, MacGregor Know and Alvin Bernstein, Eds., The Making of Strategy: Rulers, States and War (The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994), p. 570.

<sup>20)</sup> Yehoshafat Harkabi, Israel's Fateful Decision, p. 16.

<sup>21)</sup> Michael I. Handel, Masters of War, p. 355.

<sup>22)</sup> Andrew Krepinevich. The Army and Vietna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sup>23)</sup> 귄터 블루멘트리트 지음, 류제승 옮김, 『전략과 전술』(서울: 한울아카테미, 1994). p. 24.

<sup>24)</sup> Carl v. Clausewitz, On War.

적으로 서로 삼투하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활동이다. 양자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양자의 내적 법칙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알수 없다. 물질적 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는 전술영역에서는 난점은 적지만, 주로 정신적 요인에 의해 지배되는 전략영역에서는 훨씬 더 난점이 증가한다. 전술은 단지 물질적인 요인에 제한된 영역인 반면 전략은 '평화'와 직결되는 목적을 추구하며 불확실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25) 이 때문에 전략에서 모든 것은 단순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쉽지는 않다. 따라서 전략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일정한 체계로 정형화하는 시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리를 특정 전략가의 독자적인 교리라고 끼워 맞추는 식의 우를 범하면 매우 위험천만한일이다. 전략은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하기 때문에 '교리'에 집착하는 경직된 사고는 전쟁실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26)

전쟁계획과 수행에서 전략의 전출 현상이 벌어지는 근본 요인은 전쟁지도자의 전술 편향에 있다고 한국한 전술편향의 첫 번째 요인은 전쟁 지도자의 '경험(experience)'이 상이한 수준의 용병술에서 잘못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27) 전쟁지도자가 특정 수준의 과거 경험을 다른 수준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자신이 인지도 못한 채 계획과 실제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전쟁지도자의 전술적 수준의 경험이 전술적 수준에서는 잘 작동될지 모르나, 전략적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기대치 않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지도자가 전술적 수준에서 성취한 자신의 성공경험에 집착한다면 작은 이점에도 쉽게 현혹될 수 있다. 28) 이러한 전술편향의 전형적인 형태는 '속승에 대한 과신'으로 나타난다. 신속결전으로 전쟁종결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인식은 전술적 사고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전쟁지도자가 적을 신속하게 격멸

<sup>25)</sup> 류제승, 앞의 책, p. 129.

<sup>26)</sup> 귄터 블루멘트리트 지음, 앞의 책, p. 34.

<sup>27)</sup> Michael I. Handel. Masters of War. p. 46.

<sup>28)</sup> Michael I. Handel, Masters of War, pp. 354-358.

하거나, 점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편협한 군사중심의 사고 로 변질될 수 있다. 시간, 공간, 전투력을 운용함에 있어 전술편향에 사로잡힌 지도자는 주로 "단기간, 협소한 공간, 소규모 병력"을 다루는 데 익숙해있다. 이것이 "장기간, 광범위한 공간, 대규모 병력"으로 확 장되는 전략적 국면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단순한 접근이 전쟁전체 국면에 관여되는 전략의 의미를 간파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전술편향의 두 번째 요인은 적의 중심(center of gravity)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한다. 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중심은 '무게가 가장 밀 도 높게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이 응집력 있는 지점에 대해 모든 전투 력의 타격력이 집중되어야 전쟁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29) 적이 중심 에 타격을 받아 균형을 잃는다면 균형을 회복할 시간을 허용해서 안 되 며. "연속 타격"으로 항상 같은 방향으로 중심의 균형을 무너뜨려야한 다. 중심타격이 일회로 끝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경험 없는 군사가들은 '얼화의 중심타격'으로 전쟁이 종결 될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중심식별이 전략문제에 서 중요한 첫걸음임에는 분명하지만. 중심의 균형을 회복하지 못할 정 도로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전투력과 소요시간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 요한 변수이다 30) 이 두 가지를 계산하지 않고 '일회 타격'만 생각하고 전쟁승리를 자만했다면 그 영향은 현실전쟁에서 가혹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군사적 수준에서는 대부대의 연속타격을. 그리고 정치적 수준 에서는 국제관계와 연계된 정치적 파급효과와 군사력의 정치적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중심을 잘 식별했다 하더라도 중심 을 허물지 못하는 것이다.

<sup>29)</sup> 류제승, 앞의 책, p. 320.; p. 395. 공략 가능한 중심으로서, 내분을 겪는 국가의 중심은 '수도' 이고, 강대국에 의존하는 약소국의 중심은 '후원국의 군대' 이며, 동 맹의 중심은 '공동이익'이며, 그리고 국민무장군의 중심은 '최고지도자의 인격과 여론'으로 제시하였다.

<sup>30)</sup> 류제승, 앞의 책, p. 399.

마지막으로, 앞의 두 가지 요인이 전쟁지도자의 '휴브리스(Hubris)' 와 결합되면 전술편향은 더욱 증폭된다. 휴브리스-네메시스 콤플렉스 (Hubris-Nemesis-Complex)는 전술적 수준의 성과에 대한 지도자의 과신이 전략적 수준에서 통할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성공 과신'의 심 리현상이다 31) 휴브리스-네메시스 콤플렉스는 자아도취적 경향에 젖 은 오만한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콤플렉스에 빠진 지도자들은 자 기 능력에 대해 지나친 확신과 교만으로 이에 반발하는 집단에 대한 격 렬한 복수를 자행한다. 론펠트(D. Ronfeldt)에 따르면 위기에 처한 국 가는 '힘 있는 지도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들은 자신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권위를 넘어설 수 없고. 권력욕구가 커서 스스 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바로 이러한 지도자의 지나친 오만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토인 비에 따르면 휴브리스는 역사를 내 생 데 성공한 창조적 소수가 그 성 곳으로 교만해지고. 추종자들에게 복종만을 요구하며 인의 장막에 둘 러싸여 지적, 도덕적 균형을 상실하고 불가능에 대한 판단력까지 상실 하는 현상을 말한다 32) 그럼으로써 권력을 잡은 창조적 소수는 자신들 의 성공방식을 절대적 진리인양 우상화하여 실패하거나 갈등을 불러일 으킬 가능성이 있다.

## 다. 영향: '전쟁계획의 모험주의'와 '전쟁수행의 경직성'

전략의 전술화는 전쟁계획과 전쟁수행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정치의 수단이 되는 전쟁이 정치가 부여한 목적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전술의 논리에 집중함으로써 지도자가 전쟁의 총체적인 요소가 합목적 적으로 운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술이 전략을 대체하

<sup>31)</sup> David Ronfeldt, Beware the Hubris-Nemesis Complex: A Concept for Leadership Analysis (RAND, 1994), pp. 5-9.

<sup>32)</sup> 윤석철, 『경영학의 진리체계』(서울: 경문사, 2002).

게 될 경우 군사와 정치 간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며, 또한 정치적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목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전술적인 성공은 역 량의 '낭비'와 '소모'를 초래한다 33) 전략의 전술화로 인해 정치적 효과 를 감안하지 않고 군사 목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군사 목표를 상정한 전쟁계획은 전술과 전략의 연계가 깨어져 실패한 다 34)

전략의 전술화의 심각성에 대해 마오쩌둥과 클라우제비츠는 엄중히 경고하였다. 마오쩌둥은 전략을 '전쟁의 전반적 법칙', 전술을 '국부적 인 전쟁지도'에 관한 영역이라고 규정하면서 용병술의 상하관계를 명확 히 하였다. 35) 그러면서 "전략적 승리가 전술적 승리에 의하여 결정된 다는 견해는 그릇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해는 전쟁의 승패에 있 어서 주요하고도 선차적인 문제가 전체국면 및 각 단계를 잘 고려하느 냐 못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전 체 국면이나 각 단계에 대한 고급에 중대한 결함이나 오류가 있다면 그 전쟁은 꼭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36) 클라우제비츠도 "중대한 군 사적 사건 또는 군사계획이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에 관한 문제여야 한 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전쟁에 필요 한 어떤 기본계획도 정치적 요인을 무시하고 수립할 수 없다"라고 경고 하였다 37)

전략의 전술화는 전쟁전략 수립과정에서부터 전쟁수행 등 전반적인 전쟁지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부작용은 군사적 모험주

<sup>33)</sup> Colin S. Gray, "Irregular enemies at the essence of strategy: Can the American way of war adapt?,"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 mil/pubs/display.cfm?pubid=650

<sup>34)</sup> Richard K., Betts, "Is Strategy an Illusion?," p. 7.

<sup>35)</sup> 모택동.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 김정계 역, 『모택동의 군사전략』(대구: 중문, 1994), p. 70.

<sup>36)</sup> 모택동, 위의 책, p. 71.

<sup>37)</sup> Carl von Clausewitz. On War. p. 607.

의이다. 속승에 대한 맹신은 다른 모든 정치적. 전략적 고려요소들을 압도한다. 기동과 속도를 과도하게 신뢰하여 군사적 승리를 확신하는 것은 '복잡한 전쟁'을 '단순한 전투'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모험주의 적 경향은 중심을 설정하는 데에도 혼돈을 야기하며, 개전에 대한 성급 한 또는 과도한 욕구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신중한 고려와 계산 없이 단순한 희망적 사고에 집착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질 경향성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쟁지도자는 상대 정부와 군의 사기를 꺾어버 리고 그들의 군사적 무능력을 단시간에 대중에게 폭로시키며. 전쟁의 승리를 신속히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기 위해 상대방의 심리적 중심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러한 속승의 열정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 순한 방법은 상대 국가의 '수도'를 점령하는 것이다. 38) 문제는 수도점 령이라는 '전술적 승리'를 언떻게 전략적 승리로 연결시키는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 차원에서 역속되었어 의한 중심의 균형 와해. 그 리고 정치적 차원에서 군사 공간으로 인해 파생되는 국제관계상의 '적 과 동지'의 구도 변화와 국제적 개업과 관여의 후폭풍의 동학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략이 속승의 열정에 편향된 단순한 일차적 공세에 집착하는 군사작전에 치우쳐 있다면, 전투에서의 승리를 전쟁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두 번째 부작용은 전쟁계획과 수행의 경직화에 있다. 전략의 전술화로 인해 전술적 국면에 집착하면서 전체전쟁 국면에 대한 안목이 상실되면서 전쟁수행에 있어 경직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의 마찰에 대해 상상하지도 못하고 모든 '머릿속의 전쟁'이 현실전쟁에서도 실행될 거라는 생각은 허구이자 착각이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전쟁은 없었다. 모든 전쟁은 예상치 못한 마찰과 전쟁지도자간의 끈질긴 투쟁의연속이었다. 이 때문에 동서고금을 통틀어 '첫 총성이 울리면 모든 계획은 종잇조각으로 변한다'는 말이 사실처럼 회자되어 왔다. 따라서 전

<sup>38)</sup> Clausewitz, On War, p. 619. p. 596.

략은 복잡한 대내외 환경에 대한 수많은 가정을 기초로 짜여 진다. 그 가정 사항들은 현실적인 근거로부터 추론해야 한다. 만약 가정들이 현 실에서 멀어질수록 전쟁의 마찰은 커지며, 이로써 전쟁은 도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전쟁이론은 전쟁의 마찰,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우발적 상황에 대한 '예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비 병력, 예 비 물자. 예비 계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의 마찰을 극복하려고 노 력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마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지면 새로운 상황 에 심리적으로 마비되어 전쟁수행의 유연성과 융통성이 현저하게 줄어 든다

# 3 김일성의 전술편향: 김원과 형성

## 가. 김일성의 만주 유격적 경험과 자신감

김일성의 1930년대 만주 항일무장투쟁 경험은 '사실'보다 '신화'로서 북한 군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 중국인과의 연합부대인 동북항일연군에서 주로 활동했던 김일성의 유격전 경험을 북한은 '혁명 전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혁명전쟁을 "비정부 집단과 정부 간의 투쟁"으로 정의할 때, 김일성의 유격전을 '전쟁' 수준으로 볼 수 있는가는 의심이 된다. 전쟁은 '두 개 조직적인 정치집단간의 폭력적 상호작용'으로서 정치의 수단으로서 개전이 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의지의 대결이다.39) 이에 반해 '전(戰, warfare)'은 특정 군사 력. 전술. 무기를 수반하는 군사적 행위로서 전쟁을 구성하는 수많은 폭력의 한 형태이다. 이렇게 볼 때 김일성의 유격전경험은 혁명전쟁을

<sup>39)</sup> Samuel P. Huntington. "Guerrilla Warfare: Theory and Policy." Franklin Mark Osanka, Modern Guerrilla Warfare: Fighting Communist Guerrilla Movements 1941-1961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2), p. xvi.

구성하는 투쟁, 파업, 태업, 그리고 테러리즘, 정규전 등의 다양한 투쟁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김일성의 1930년대 만주유격대 경험은 전쟁수준의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 김일성은 1930년대 장백산 일대에서 유격대 지휘관이었다. 김일성은 '사장', '방면군사령관' 등의 직함으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병력을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그가 속한 중국조선인 동북항일연군은 게릴라 부대였으며, 이 부대의 기본 투쟁방침은 '치고 빠지는(hit and run)'식의 유격전이었다. 40) 김일성은 북한이주장하는 것처럼 지도적 위치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한 것은 아니며, 중국공산당의 일원으로 중공의 지도원칙에 철저히 종속되어 부대를 지휘해야 했다. 41) 김일성의 유격대 경험은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수행되었고, 정치적, 전략적 판단은 중국공산당의 몫이었다. 김일성은 주어진전략방침에 따라 '전투'를 수행했을 뿐이다.

김일성의 유격전은 '속도'를 기본으로 기습타격과 도주를 반복하는 전형적인 게릴라전법이었다. 당시 김일성이 속했던 동북항일연군의 중국군 지휘관 저우바오중에 따르면 항일연군의 전략전술은 강한 적을 피하고 약한 적을 치며 기회를 타서 적을 타격하는 것이었다고 술회하였다. 42) 그러면서 "적들이 분산되고 피로해진 후에 재빨리 역량을 집중하여 적의 약한 고리를 친 후 다시 재빨리 분산하였다. 이것은 전략적 문제에 있어서의 항일련군의 일반적인 지도사상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김일성도 "우리는 경편한 무장을 갖추고 영활하게 기동하면서 집중된 적을 분산시키고 분산된 적은 각개 격파하면서 큰 적은 피하고 작은적은 먹어치우는 방법으로" 유격전을 진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43) 북

<sup>40)</sup>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346.

<sup>41)</sup> 우병국 외, 『북한체제 형성과 발전과정 문헌자료: 중국, 미국, 일본』(서울: 선인, 2006).

<sup>42)</sup> 권오근 책임편집, 『주보중문선』(연변인민출판사, 1987), p. 189.

<sup>43)</sup>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309-310.

한이 선전하는 보천보 전투도 이러한 유격전의 하나였다. 보천보 전투는 1937년 김일성이 일본치하에 있던 보천보를 습격하여 조국광복회 청년 80여명과 함께 주재소의 무기를 탈취하고, 현금과 물자를 탈취했던 습격작전을 말한다. 여기서 일본 혜산진서는 31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김일성 부대의 퇴로를 차단하려 시도하였으나, 압록강 근처에서 김일성부대와 교전하여 전사 7명의 피해를 입었다. 44) 김일성은 보천보전투에 대해서 "보천보 전투는 대포도 비행기도 땅크도 없이 진행한 조그마한 싸움이었다. 보총과 기관총에 선동 연설이 배합된 평범한 습격전투였다. 사상자도 많지 않았다. 우리 측으로 볼 때에도 전사자는 없었다"라고 인정하면서, 45) "그 의의는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 준데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46)

북한이 김일성의 유격전을 억지로 '혁명전쟁'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과잉해석이다. 실제 김일성의 전략적으로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독자적으로 부대를 기위할 권한도 없었다. 그는 오로지 주어진 전략지침을 수행하는 '전술 지휘관'이었을 뿐이다. 유격대 지휘관 김일성의 유격전 경험은 '적의 약점'을 신속하게 타격하고, 도주하는 '단순한 전투'의 반복이었다. 특히, 1937년 보천보전투는 일회성 '게릴라식 습격'이었을 뿐 그 이후의 항일무장활동과 연계성 있는 군사 활동이 없었다. 여기에는 '적의 중심'을 균형이 무너질 때까지 타격한다는 그어떤 전략적 구상도 없었을 뿐더러 연속타격에 소모되는 충분한 역량도 없었다. '중심' 타격에 근접한 어떤 군사적 성과도 없었다. 급기야 1937년 이후 김일성 유격대는 오히려 위축되었고 1940년 이후 일본군에 일망타진되어 소련으로 도피할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적의 중심을 허물기 위한 전체 국면의 전쟁수행은 김일성의 몫이 아니었다. 그는 중

<sup>44)</sup>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서울: 청계연구소, 1989), p. 32.

<sup>45)</sup>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145.

<sup>46)</sup> 김일성, "보천보 전투 30주년, 1968," 『북괴 군사전략자료집』(서울: 중앙정보부, 1974), p. 23.

국 '혁명전쟁' 지도방침에 철저히 종속되어 소부대를 지휘하는 전술적 게릴라지휘관에 머물렀다. 중국 혁명전쟁에서 '정치'만 제거한다면 그 것은 유격전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전투에 불과하다는 마오쩌둥의 언급이 김일성의 전술적 위상을 증명한다. <sup>47)</sup>

### 나. 해방 이후 김일성의 '유격대 신화'와 '휴브리스'

김일성은 자신의 군사적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유격대 지휘관 김일성에 대한 소문은 대체로 후한 편이다. 김일성의 상관이었던 저우바오중에 따르면 동만주 일대에서 김일성만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48) 1937년 보천보 전투는 일제치하에서 벌어진 국내진공 무장투쟁이었기 때문에 국내 여론에서도 많이알려졌다. 49) 일본통치가 심했던 건물일대에서는 김일성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동정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며, 북한지역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60) 김일성은 1940년 이후 소련으로 도피한후 소련도피 시절 소련군 교관에 의하면 김일성이 "종종 만주에서의 전투에서 자신이 세운 공적들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했다"고 한다.51)

군사적 자신감은 1945년 해방 이후 김일성의 북한지역 권력 장악과 동시에 항일경력 우상화작업과 결합되었다. 김일성의 만주항일무장투 쟁은 해방 이후 권력 장악 과정에서 대중적 지지를 결집시키는 좋은 정 치선전의 주제였다. 소련군정은 1946년 7월 김일성을 사실상 북한지도 자로 공식화한 이래 김일성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만주유격대 경

<sup>47)</sup> Colin S. Gray, *Modern Strate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292.

<sup>48)</sup> 신주백,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 p. 66. 각주 114번.

<sup>49)</sup> 김학준, 『북한의 역사: 제1권』(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 365.

<sup>50)</sup> 정현수 외,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서울: 선인, 2006), pp. 165-166.

<sup>51)</sup> 김학준, 앞의 책, p. 475.

력을 전면에 부각시켰다. 52) 김일성 우상화 과정에서 이미 1947년 8월 15일 한재덕은 '김일성 장군 개선기'의 선전 책자를 발간하고 김일성의 유격대활동을 과대선전하기 시작했다 53) 이러한 우상화 작업은 1946년 3월 단행된 토지개혁의 성과와 더불어 찬양수준으로 격상되었다. 54) 권 력 장악을 위해 조작화된 소문은 점차 '위대한 김일성 장군' 또는 '천재 적인 군사전략가'로 둔갑되었고. 나아가 '김일성 신화'로 체계화되어 굳 어졌다

김일성의 유격대 신화는 북한군 창설과정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해 방 이후 김일성의 우선 목표는 '김일성 군대'를 만드는 데 있었다. 김일 성은 1945년 9월 19일 원산으로 입북하자마자 평양학원을 창설하고. 평양학원을 통해서 '김일성 투쟁사'를 중심으로 한 이념적 통일을 유도 하는 한편, 소련군의 정규군 군사교리를 채택하였다. 55) 북한군은 소련 군 군사체제와 장비를 이식받았지만 ● 선적 구성에 있어서는 연안파와 소련파 출신들을 핵심요직에서 배계하고 철저하게 만주유격대 출신으 로 충원시켰다. 이들은 사실상 소련군 체제로 건설되는 정규군에 대한 유용능력이 떨어지는 인물로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척도로 등용 된 인사들이었다. 그러면서도 실무진에는 소련파 출신 군인들을 보직 시키는 이중 구도로 군을 건설했다. 이것은 인민군이 소련군 전법을 기 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게 되고, 전략적 판단에 있어 서는 "유격대식 사고방식"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유격전 편향의 군부집단은 '속도전'에 관심을 두었다. 인민군은 창설 초기부터 신속한 기동력과 화력을 통합한 기계화 부대의 충격력을 이 용하여 상대의 심리적 마비를 달성함으로써 포위 섬멸하는 소련군의 전격전을 군사교리의 기본지침으로 삼았다. 이들의 '속도'에 대한 욕구

<sup>52)</sup> 김주철. 『조선로동당 당원조직 연구: 1945-1960』(서울: 선인, 2008), p. 49.

<sup>53)</sup> 한재덕, "김일성장군 개선기," 『북한관계사료집7』(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1).

<sup>54)</sup> 오영진. 『하나의 증언: 소련군정하의 북한」(부산: 중앙문화사, 1952), p. 131.

<sup>55)</sup>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서울: 한국발전연구원, 1991), pp. 48-49.

를 충족시킬 수단은 기계화 부대였다. 김일성은 1948년 2월 조선인민 군을 공식 창설하고 그해 12월 소련군 철수시 잔류시킨 T-34 전차 60 대 등을 인수하여 제115전차연대를 창설하였다. 또한 민족보위성과 인민군 각 사단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탈린그라드, 레닌그라드 전투에 참전했었던 한인출신 소련군 약 2,500명을 배치하여 조선인민군을 소련의 전격전식 전술을 구현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 56) 1949년 1월에는 슈티코프를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하여 인민군현대화를 지원했다. 소련군측 지원인력은 4,293명이 북한에 잔류하였는데, 이들은 1950년 6월 25일까지 북한에 주둔하며 인민군의 교육훈련을 담당했다. 57) 이것은 김일성에게 군사적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김일성의 '유격대 신화'와 '김일성 군대'의 결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성공신화를 쟁현할 수 있겠다는 김일성의 휴브리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망주빨지산파의 군권장악과 소련 정규군의 결합은 북한의 모험주의로 있어요 가능성이 다분했다. 김일성은 자신과 연배가 비슷한 30대 중후반의 동료들을 군 요직에 배치하였는데,이들은 정규군에 대해 전혀 접해보지 못하였으며 소규모 게릴라전경험만 가지고 있는 패기 넘치는 집단이었다.이들은 해방 이후 소련으로부터 전차,야포,항공기와 같은 당대 '최첨단' 무기체계를 이양 받아군사적 '오만함'을 부릴 가능성이 커졌다. 두 번째는 김일성의 성공신화입증에 대한 강박관념이다. 신화의 주인공인 김일성은 '천재적인 군사전략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신화가 강조될수록 성공신화를 현실세계에서 입증해보여야 하는 김일성의 '강박관념'은 더욱 컸을 법하다. 김일성일파는 신화조작 과정에서 스스로 '허위'와 '착각'의 늪에서 헤어날 수

<sup>56)</sup> Kyril Kalinov, "How Russia Built The North Korean Army," *The Reporter* (September 26, 1950), p. 62.

<sup>57)</sup> 올레그 O, 벨로스룻쩨프(러시아연방 국방부 군사사연구소 대령), "소련 군인의 6 · 25전쟁참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서울: 군 사편찬연구소, 2009), p. 263.

없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자극하여 성급한 군사주의를 부추기는 동인이 될 만 했다. 1948년 말 김일성은 한국을 향해 "한줌도 안되는" 또는 "하룻강아지"라고 허세를 부린 것은 이러한 '오만'과 '강박'이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58)

### 다. 중심타격의 몰이해: 개전의 조바심과 군사적 아심

김일성은 1949년 3월부터 남침에 대한 조바심을 드러냈다. 김일성의 무력통일에 대한 조바심은 대내외 정세로부터 자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1948년 4.3사건 이후 여순 반란과 유격전으로 인한 남한의 불안정 사태, 1949년 전반기 주한미군의 철수, 모택동의 국공 내전 승리, 북한군의 급속한 전력증강 등 일련의 상황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무력통일 가능성을 처음할 하였다. 1948년 10월 이후 남한지역은 여순반란사건과 그 이후 성개되는 유격대 소탕작전으로 인해 불안정하였다. 1948년 10월 이후 지리산으로 도피한 유격대는 남한지역에 5개 전구를 형성하여 유격전을 진행하였으며 1949년 초에는 약3500-6000명으로 불어났다. 59)이 혼란을 틈타 북한은 1948년 11월부터 인민유격대를 남파하기 시작하였다. 60) 1948년 10월 말부터 여순반란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남한군은 정규군을 분리 운용해야 했으며, 유격대 토벌을 위해 부대를 재배치하여 38선의 병력배치가 취약해졌다.

1949년 전반기는 미군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국제정세는 북한에게 낙관적인 신호를 주었다.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자 김일성은 철수하던 미군이 한반도에

<sup>58)</sup> 김일성, "1949년을 맞이하면서 전국 인민에게 보내는 신년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내각수상." 『순간통신』(1949년 1월 상순호, 8호).

<sup>59)</sup> 최장집, "해방8년사의 총체적 인식," 최장집 저, 『해방 전후사의 인식4』(서울: 한 길사, 1989), pp. 28-29.

<sup>60)</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45-1960』(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8), p. 111.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듯하다. 여기에는 복잡한 상황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결정적으로 중국대륙의 국공내전 상황이 김일성에게 영향을 준 듯하다. 1949년 1월 양자강을 경계로 국민당군과 공산당군이 대치하자 북한은 양자강을 남북한의 38선으로 인식하는 기운이 돌기시작했다. 중공군이 양자강을 도하하여 국민당군을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의 개입이 없는 점에 주목하여 김일성은 "미제국주의자들은 장개석에 대한 원조를 끝까지 계속한다고 호언장담하던 것도 오늘에 와서는 어찌하여 그 논조가 좀 식어지는 모양"이라며 정세변화에 도취되었다. 611 김일성에게 38선은 '제2의 양자강'으로 인식되었음직하다.

이러한 대내외 정세에 자극받은 김일성은 군사적 야심을 드러냈다. 그것은 사려 깊은 전쟁지도자의 전쟁전략이라기 보다 단순한 군사적 모험주의의 태도로 인식되었다. 1949년 한 해 동안 김일성은 스탈린으로부터 개전을 승인받는 데 주산을 둔 보면 전쟁수행 전략에 대해서는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때 마다 그렇고은 김일성의 '모험주의'를 경계하며 개전을 거절했다. 모험주의는 다른 표현으로 무전략에 근접한 개념이었다. 김일성은 6.25전쟁 개전 15개월 전인 1949년 3월 모스크바로 가서 스탈린과 전쟁모의에 착수했는데 이 자리에서 스탈린에게 '최선의기회'가 왔으며, 북한군이 강력하며 남한 내 유격전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군사적 '해방'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2) 김일성의 이러한주장은 남한의 불안정을 촉발시켜 일거에 한국정부를 붕괴시키고 그것으로 미군의 개입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개입명분을 없앨 수 있을 거라는 '단순한' 생각에 기반 한 것으로 보인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 제안을 거절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먼저 도발을 유도한 뒤 북한이 반격을 감행한다는 '반공격전' 구상을 제시하였다. 63) 김일성은 신속결전으

<sup>61)</sup> 김일성, "조선 최고인민회의 제2차 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 수상의 총결 연설," 『인민』 제4권 2호(1949, 2).

<sup>62)</sup>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p. 27-28.

<sup>63)</sup> 정병준, "북한의 한국전쟁 계획수립과 소련의 역할," 『역사와 현실』 제66호(2007), p. 371.

로 미군의 개입가능성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단순한 '속승 편향'의 군사 계획을 제의하였으나 스탈린은 거절했던 것이다.

1949년 8월 이후에도 김일성은 전쟁수행 보다는 '개전' 그 자체에 많 은 관심이 있었다. 소련을 설득하는 문제도 문제였지만 개전만 하면 전 쟁수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군사적 자신감이 저변에 깔려 있었 다고 보인다. 실제. 1949년 6월 29일 주한미군의 철수와 함께 7-8월 북한군 전력이 급격하게 증강되었다. 1949년 7월 북만주에 있던 제4야 전군 소속 중국 인민해방군 제166사단과 제164사단이 북한으로 입북하 여 북한 인민군 제6사단과 제5사단으로 각각 편제되었다. 64) 이로써 1949년 8월 인민군은 5개 보병사단. 1개 보병여단. 1개 기계화여단 등 총 8만 명 수준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65) 남한에 대한 군사력균형 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숙련된 전투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군사력 증강에 힘입어 1948년 8월 의 되자 김일성은 '국지전의 전면 전화' 구상을 소련에 제의하였다. 김일성은 스탈린이 선제공격을 승인 하지 않자 남한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위장된 명분을 내세워 옹 진을 선제공격하여 점령한 후. 사정이 허락되면 전면전화하겠다는 복 안을 제안하였다. 66) 김일성은 옹진반도를 점령하게 되면 38선 상의 육 상접경선이 120km나 단축되며, 옹진반도는 차후 작전을 위한 거점으 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67) 김일성은 9월 3일 옹진반도 및 남한

<sup>64)</sup> 김경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서울: 논형, 2005), p. 229.

<sup>65) &</sup>quot;Memorandum form the soviet ambassador to the DPRK to the chairman of the USSR council of ministers with a brief description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n the south and north of Korea, 1949, 9, 15,"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sup>66) &</sup>quot;모스크바로 보내는 시티코프의 전보, 1949, 8, 12, 폰드 3, 목록 65, 문서 775. 리스트 102-106," A. V. 토르쿠노프,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서울: 에디 터. 2003), p. 75.

<sup>67) &</sup>quot;슈티코프 대사와 김일성과 박헌영간 대화를 수록한 1949년 8월 14일자 비망록." 예 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26.

영토인 옹진반도 동쪽 부근과 개성까지 점령하여 인민군의 방어선을 단축하고자 하는 의사를 타진하였다. 김일성은 옹진반도에 대한 국지 전을 전개한 이후 국제 상황이 허락할 경우 남쪽 방향으로 더 진격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짧게는 2주일 길게는 2개월" 내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68) 신속한 군사공격으로 승리를 쟁취하면 남한 내에 분열을 형성하고 인민봉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

1949년 김일성이 제안한 남침전략은 개전에 대한 조바심으로 가득한 반면 남한의 전략적 중심(center of gravity)을 타격하는 정치적. 군사 적 차원의 현실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했다. 김일성이 제시한 방법 은 기껏해야 남한의 유격대와 인민봉기와의 결합으로 남한 정권을 단 시간 내에 전복시킨다는 희망적 사고에 기반을 둔 것뿐이었다. 슈티코 프가 언급했듯이 그러한 '인상적인 계획'에 대해서 소련지도부의 평가 는 적어도 1949년 말까지는 입장을 달러 했다. 1949년 9월 24일 소련 공산당 정치국은 김일성이 제기한 대통 군사작전 안을 금지하는 결의 를 채택하였다. 소련은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군은 남한에 비해 군사력 의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며 정치적 관점에서도 인민 총궐기 를 위한 세력을 조직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 련은 김일성이 제시한 국지전 전략도 전쟁 개시로 간주되어 남한에 의 한 대규모 반격으로 인해 확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북한의 침략 전쟁이 장기화되어 미군 개입의 구실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 다.69) 김일성의 개전 욕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49년 말로 갈수록 강렬하게 변했다. 김일성은 9월 24일의 스탈린의 남침 거부 방침을 마 지못해 받아들였지만. 국지전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10월 14일

<sup>68) &</sup>quot;모스크바로 보내는 툰킨의 전보, 1949년 9월 3일자,"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28.

<sup>69) &</sup>quot;Politburo Decision to Confirm the following Directive to the Soviet Ambassador in Korea, 1949. 9. 24."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소련의 합의와는 무관하게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옹진에 대한 공격 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김일성의 옹진공격에 대한 무책임성 을 강하게 비판하고 38선상에서 충돌을 피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1950년 1월까지 남한에 대한 군사공격에 대해 김일성은 소련의 허가를 얻는 데 실패하였다

## 4 전쟁계획: 군사적 모험주의

#### 가.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전쟁계획

김일성은 1950년 초 대내외정세가 남침을 위한 적기라고 보았다. 그 것은 충분한 준비가 아니더라도 저지 잘 전개되는 군사작전이 더 큰 전 략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절라졌지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49년 말에서 1950년으로 해를 넘기면서 동북아 국제정세는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1949년 12월 16일 마오쩌둥이 모스크 바를 방문하는 등 국제정세가 유리하게 조성되자 북한은 무력통일 의 지를 공공연히 드러내었다. 1950년 1월 6일 코민포름이 미 점령군과의 대결을 피해온 일본공산당의 노선을 비판하는 등 일본에서의 미국의 지위에 대해 소련이 도전하였고. 이어서 1월 12일 애치슨이 불퇴방어선 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성명을 발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1 월 17일 김일성은 소련대사 슈티코프에게 중국이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남한 인민을 해방할 차례라고 하면서 "3일이면 옹진반도를 점령할 수 있고 전면전이 개시되면 단 며칠 사이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는데 왜 소련이 옹진반도 점령을 허가하지 않느냐"고 남침의사를 타진했다 70)

<sup>70) &</sup>quot;Telegram from Shtykov to Vyshinsky, 1950, 1, 19," James Person,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 (Washington D. C.: Woodrow Winson Center, 2010).

스탈린은 1949년 말까지만해도 김일성의 무력통일 계획을 비판하면서 거부하다가 1950년 초에 와서 입장을 바꾸었다. 김일성은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세 차례 스탈린을 만나 전쟁모의에 돌입했다. 이후부터 진행된 스탈린-김일성의 남침모의는 '희망적 사고'에 경도되었다. 가장 중요한 시험대는 미국의 개입가능성 여부였다. 김일성은 중소동맹 조약의 체결로 미국은 아시아 공산주의와의 도전에서 더욱 주저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내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조선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조선혁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미국의 개입 가능성과 중국지도부의 찬성,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김일성의 희망적 사고는 미국 개입가능성과 남침전략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유한, 김일성은 미국의 개입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이 배후에 있어 북한을 원조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 김일성은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권하에 들어가는 것을 중국과 소련이 원치 않을 것이며, 만약미국이 개입한다면 소련과 중국이 손을 놓고 좌시하지만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일성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본 데에는 인민봉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이유를 인민군의 공격 시 남한 내유격대 활동이 강력해지며 대규모의 봉기가 전개되고 공격이 신속히전개되어 전쟁이 "3일 이내"에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며,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될 쯤이면 이미 전 조선의 주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열광적으

<sup>71) &</sup>quot;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김일성의 소련 방문(1950. 3. 30-4. 25)에 관한 보고, 러시아 대통령실 문서고,"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53.

로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72) 김일성의 전략은 신속한 군사전 수행을 통해 남한영토를 점령하여 이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함 으로써 있을지도 모르는 미군의 개입을 무의미하게 만들자는 것이었 다 73)

스탈린이 반대로 일관하다가 1950년 초에 와서 급작스럽게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승인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분분하다. 스탈린은 '국제환경의 변화' 때문에 자신의 동북아 정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면에는 베를린 봉쇄사태 등 유럽에서의 미소냉전게임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극동에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 1950년 2월 조인된 중소협정에 따른 만주지역 소련군 철수에 따른 한 반도에서의 부동항 확보 의도.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의 대륙 침략 방지 의도 때문에 스탈린이 김일성을 앞세워 전후질서의 현상변 경을 가하려고 했다는 해석이 있다. 다양한 국제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는 스탈리의 계상은 김일성의 '군사적 모험주의' 와 무력통일 야심과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스탈린은 단기 결전을 통한 신속한 현상변경과 기정사실화에 중점을 둔 김일성의 남 침전략을 지지했다. 스탈린은 남침작전을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시하였 는데, 1단계는 38선에 인접한 특정 지역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고, 2단 계는 북한이 평화통일 제안을 제시하며, 3단계는 남한이 평화제의를 거부한 뒤 기습공격을 가하는 단계이다. 스탈린은 옹진반도에서 적과 교전을 실시하여 어느 측이 전투를 시작했는지 모르도록 위장하고, 북 한의 기습공격과 남한의 대응공격 이후 전선확대의 기회를 포착해야 하며. 속전속결을 통해 남조선과 미국이 정신 차릴 시간을 주지 않으

<sup>72) &</sup>quot;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김일성의 소련 방문(1950. 3. 30-4. 25)에 관한 보고."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54.

<sup>73)</sup> Archer Jones, Elements of Military Strategy: An Historical Approach (Westport: Praeger Publishers, 1996), p. 142; 온창일, 『한민족전쟁사』(서울: 집문당, 2008), p. 481.

<sup>74)</sup> 남시욱. 『6.25전쟁과 미국』(서울: 청미디어. 2015). pp. 24-25.

며. 강력한 저항과 국제적 지지를 동원할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75) 그러면서 미국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남한에 서의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서 신속한 "전격전"을 수행하라고 지시했 다 76)

스탈린이 부여한 남침개시를 위한 두 번째 전제조건인 중국의 허락 을 받기 위해 김일성은 마오쩌둥과 전략회의를 하였다. 5월 13-15일 베이징 회동에서 마오쩌둥은 조선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지지하며 성 공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스탈린이 제시한 3단계 전략에 대해서도 마 오쩌둥은 전적으로 찬성하였다. 다만, 마오쩌둥은 조선인민군이 신속 히 행동하고 대도시를 점령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회 진격해 야 하며, 적의 "군사력 파괴"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77) 미국의 개입 전망에 대해서는 마오쩌둥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남북한 통일은 불가능하며 통일은 군사적 유명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고. 미 국에 관해서는 두려워 할 필요들 없으며 이런 작은 땅덩어리 때문에 미 국이 제3차 세계대전에 뛰어들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8) 김일성도 또 다시 일본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미 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하였다. 79)

<sup>75) &</sup>quot;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김일성의 소련 방문(1950, 3, 30-4, 25)에 관한 보고, 러시아 대통령실 문서고,"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54.

<sup>76)</sup> 김철범, 『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혀진 한국전쟁의 진상』(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144.

<sup>77) &</sup>quot;Telegram from Roshin to Cde, Filipov(Stalin), 1950, 5, 14."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sup>78) &</sup>quot;Telegram from Shtykov to Vyshinski Regarding Meeting with Kim Ilsung, 1950. 5. 12."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sup>79) &</sup>quot;Telegram from Roshin to Cde. Filipov(Stalin), 1950, 5, 14"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 나. 전략수준의 부조화

김일성의 전면전 수행전략은 명확해졌다. 김일성의 우선 목표는 전 쟁초기단계의 '군사적 승리'를 통해 서울을 점령하는 데 있었다. 김일성 은 인민군 전력증강을 급속히 추진하여 1950년 1월과 4월 사이에 5개 사단규모에서 10개 사단으로 전투력을 급속히 확충하였다. 김일성은 1950년 3월 20일 중국 인민해방군으로부터 조선족 부대인 독립 제15 사단을 인수받아 인민군 제12사단으로 개편하는 등 조선족 부대의 병 력은 전체 인민군 군관의 1/3을 차지했고 인민군의 골간을 형성했 다.80) 1950년 3월까지 제4독립 혼성여단은 제4사단으로, 1, 2, 3 민청 훈련소는 각각 13. 10. 15사단으로 승격되었다. 81) 이로써 조선인민군 은 실질적인 전투력에 있어서 수뇌부의 현대전 지휘능력을 제외하고는 소련군의 최신식 장비와 조선종 부대의 실전이 융합된 강력한 군대로 섯잣했다

스탈린과의 전쟁모의를 마지고 4월 25일 평양으로 복귀한 뒤 김일성 은 기습을 통한 군사적 승리에 중점을 두고 전쟁준비에 박치를 가했다. 마오쩌둥과 최종 전략회담을 마무리 지은 5월 15일 이후 김일성은 남 침시기를 6월 말로 확정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김 일성은 인민군의 전투준비에 대한 정보가 남한으로 누출될 가능성과 7월의 장마기간을 고려하여 '6월 말'을 공격개시 시점으로 정하고자 했 다 김일성은 부대이동이 16일 소요된다고 판단하여 6월 8-10일 기간 중에 38선 일대로 부대를 이동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82) 김일성 은 5월 30일까지 개전시점에 대해서 당 정치국에도 알리지 않았으며

<sup>80)</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 전쟁의 배경과 원인』, p. 277.

<sup>81)</sup> 스즈키 마사유키. "북한구의 창설에서 대남침공으로." 『일본의 6.25전쟁 연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 38.

<sup>82) &</sup>quot;From Shtykov to Vyshinski, 1950, 5, 30."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1950년 6월 12일 인민군을 38선에서 10-15km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시키고 최전방 사단장 및 참모장, 포병 부대장을 대상으로 특별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구체적인 임무를 각 단위부대에 하달하였으며 특별히 '비밀유지'를 강조하였다.

군사계획은 철저한 소련식 전격전이었다. 남침계획도 소련 군사고문 단의 지시 하에 전격전 전략으로 완성되었다. 83) 북한에는 현대식 정규전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경험이 일천했기 때문에 소련 군사고문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써 한반도 지형과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소련군 전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었다. 84) 세부 계획은 3단계 작전으로 구분되었는데, 1단계 작전은 6월 25일 공격을 개시하여 옹진 반도에서 국지전처럼 행동을 개시한 이후 주타격 방향을 서해안을 연해 남진하는 데 두었으며, 2단계 작전은 서울을 점령하고 한강을 장악하는 동시에 동부전선에서 춘선과 장등을 점령하고 남한군 주력을 서울 주변에서 포위 격멸하는 데 있었다. 3단계 작전은 남한군의 잔여 병력을 소탕하고 주요 인구말집 도시와 항구를 점령하여 남한의 나머지지역을 점령하는 데 역점이 있었다. 85)

전쟁의 핵심국면은 초기전역으로서 5일 이내에 서울 방면에서 남한 군 주력을 섬멸하고 서울점령을 통해 심리적 중심부를 장악하는 데 목

<sup>83)</sup> 올레그 O. 벨로슬륫쩨프, "소련군인의 6.25전쟁 참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9), p. 262.

<sup>84) &</sup>quot;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 조선인민군 324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 2. 8," 『김일성선집 5』, p. 321. 김일성도 이점을 인정하고 있다. "6.25 이전에는 우리 군관들 속에 싸움을 해본 동무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있었다면 유격 투쟁 당시 일본 군대와 싸운 경험을 가진 간부들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일본 군대와 싸운 빨치산의 전투 경험과 현대적인 큰 전쟁을 한 경험을 대비할 수 는 없습니다. 또 전쟁 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우리 군대는 전투 훈련이나 해보 있을 뿐 실지 전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때에는 대포알이 어떻게 터지고 총알이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실지 전투에서 경험하지 못한 군인들이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up>85) &</sup>quot;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1950년 6월 16일자 전문,"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74.

표를 두었다. 구체적으로 38선 북방과 남방 접경지역의 남한군 주력을 격파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수원-원주 선까지 총90km의 작전 종심을 5일 만에 도달하도록 계획하였다. 86) 이를 위해 전격전의 핵심인 기계 화 부대를 집중 운용하여 신속하게 기동하도록 계획하였다. 북한은 105땅크여단의 2개 땅크연대(107, 109연대)와 차량화연대를 주공 방면 인 철원-서울 축선에 투입하고. 남천동-개성 축선에 203땅크 연대를 투입하여 개전 당일 오후까지 의정부까지 진출시키며, 2일째 4사단과 3사단과 협조하여 서울을 점령하게 하였다.87) 특히 105땅크여단은 서 울에 진입하여 한강교를 점령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조공 방면에는 603차량화연대를 투입하여 12사단이 남한군의 방어선을 돌파할 시 춘 천-홍천-원주 방면의 남한군 후방으로 진출하여 현지 유격대와 합류 하여 남한의 병참선을 마비시키고 수원으로 진격하여 서울로부터 후퇴 하는 남한군의 퇴로를 차단하므로 일부를 부여하였다.

결정적 시기인 6월 25일이 모까요? 남한을 기만하기 위해 북한은 1950년 6월 16일 남한 국회에 '평화통일안'을 제안하였다. 소련 측은 남한이 평화 통일안을 거부하자 "우리의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하는 것 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88) 6월 18일 인민군 총사령부는 정찰명령 제1호를 부대에 하달하여 공격대기진지에 진입한 다음 공격 개시 전후에 단계별로 수집해야 할 정보요구를 구체적으로 하달하였 다.89) 6월 21일 김일성은 남한의 라디오 방송과 정보보고를 토대로 남 한이 임박한 인민군의 공격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남한군이 군사 준 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초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건

<sup>86)</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2』(서 울, 2001), p. 137.

<sup>87)</sup> 위의 책, p. 12.

<sup>88) &</sup>quot;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1950년 6월 11일자 전문."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74.

<sup>89)</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사관계사료집1:북한군 전투명령」(서울: 군사편찬 연구소. 2001). pp. 6-27.

의하였다. 즉 1단계 작전을 옹진반도에 대한 국지작전 대신에 6월 25일 전 전선에 걸친 전면공격을 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90) 스탈린은 김일성의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였다.

북한의 남침계획은 유격대 지휘관 김일성과 대규모의 소련군식 전격전의 불균형적인 만남으로 요결된다. 김일성은 1949년 초부터 초전의확고한 '군사적 승리'를 인민봉기와 결합하면 신속하게 남한을 점령할수 있다는 단순한 전술 편향적 사고에 고착되어 있었다. 마치 '속도'만높이면 남한전역을 순식간에 석권할 수 있다는 전투중심의 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군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인민봉기의기대를 가지고 추진한 속승의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김일성은 초기단계에서 의심할 여지없는 확고한 군사적 승리를 기정사실화 해야만했다. 그의 전쟁계획은 앞으로 닥쳐올 전쟁의 마찰을 마치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다.

## 5. 전쟁수행: 전략의 경직성

## 가. 마찰의 등장 1: 군사적 수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격은 전격전식으로 개시되었다. 인민군은 개전 3일 만인 6월 28일 새벽 미아리고개를 넘어섬으로써 국군의 서울 방어선을 돌파하였고 국군의 조직적인 저항을 무력화시켰다. 6월 28일 11시 30분 경 인민군이 서울 중심부에 도달하자 김일성은 서울을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선언했다 91)

<sup>90) &</sup>quot;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1950년 6월 21일자 전문," 예프게니 바자노프, 앞의 책, p. 76.

<sup>91) &</sup>quot;서울시 해방에 즈음하여 전국인민들과 인민군대와 서울시민들에게 보내는 축하 문, 1950. 6. 28,"『김일성전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52.

그러나, 북한의 전격전 시나리오는 초기부터 발목이 잡혔다. 북한은 3-5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국군 주력을 포위섬멸하려 했으나 그 목 표는 좌초되었다. 인민군은 6월 28일 11시 30분 서울 점령 후에도 한 강교의 조기 점령에는 실패하였고 국군 주력이 한강 이남으로 후퇴하 여 재편성할 여유를 허용하였다. 6월 28일 오후 4시 경 인민군은 서울 남쪽을 우회하여 이촌동을 점령할 때까지만 해도 남한군은 한강 남방 으로 퇴각하여 도하지점이 일대 혼란 상태였으나. 인민군은 적극적으 로 추격하거나 한강 도선장들을 점령하지 않은 채 모호하게 행동하였 다. 소련 군사고문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극단적으로 완만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지휘관들도 부여된 임무를 유기하였기 때문에 남한군 이 한강을 도하하고 교량을 파괴한 후 한강 남안에 방어선을 구축할 시 간을 가지게 되었다며 비판했다 <sup>92)</sup> 인민군은 한강 이남에 남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7일이라는 세계을 소비한 7월 4일에서야 2단계 작전을 시행할 수 있었다 105명교사당은 7월 1일까지 수원을 점령하 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7월 4일 아침에야 사단 주력이 한강 도하 를 완료하였다.

여기에는 전쟁준비와 계획에 있어 마찰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탓 이 크다. 북한군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개전을 했음이 드러난 다. 6월 28일 이후 북한군의 군사적 정지는 인민봉기에 대한 환상뿐만 아니라 도하장비의 부족. 인민군의 비효율적인 지휘. 차후 작전을 위한 전열정비, 남한 지형에 부적합한 소련군 전술의 기계적 적용과 같은 군 사적 장애요인과 마찰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인민군의 도하장비 부족 은 인민군의 한강도하 작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민군은 창설 초기부터 소련 군사고문단에 의해 한반도의 지형에 대한 잘못된 상황 평가에 기초하여 부대가 편제되었기 때문에 한반도 실정에 맞지 않는

<sup>92)</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 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p. 184.

#### 공병장비를 갖추고 있었다.93)

지휘부의 지휘통제상의 결함도 한몫 했다. 인민군의 각 사단은 무서운 속도로 남진을 했음에도 군사 지휘부인 총참모부는 전선 상황을 통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개전 첫날에 각 사단과의 교신이 불량하여 전투 통제가 불가능했으며, 군단 예하 각 부대도 상급부대 참모부와 통신유지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대대 이상의 지휘소는 상급부대의 동의 없이 위치를 함부로 변경하는 등 지휘체계상에 문제를 드러내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상급지휘관들이 전투 경험이 없어 소련군사고문이 떠난 후 전투를 조직적으로 지휘하지 못하고, 화포와 탱크의 운용이 미숙하였으며 교신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94) 단적으로 6월 26일에는 심지어 홍천 축선으로 공격하는 12사단과 의정부 축선으로 공격하는 3사단과 하루 종일 연결이 되지 않았다. 95)

서울 이남에서 국군주력을 함말하다는 당초계획에 차질을 준 다른 요인은 동부전선의 조공 부대와 신출이었다. 보조타격방향에 투입된 인민군 2군단 예하 2사단과 12사단은 국군 6사단의 선방으로 춘천 점령이 늦어지고 홍천 북방에서 저지당하여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96) 당초 이들은 인민군의 조공으로 6월 25일 당일 춘천을 점령한이후 수원 방향으로 진출하여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여 1군단과 협공하여 국군의 주력을 포위 섬멸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그러나 국군 6사단의 선방으로 6월 25일 춘천 점령은 고사하고 오히려 큰 손실을 입고 공격력이 약화되었다. 이에 인민군 12사단은 홍천축선의 2개 연대를 춘천으로 전환하여 2사단과 협공하여 당초 목표 보다 48시간이 지연된

<sup>93)</sup> 주영복, 『내각 겪은 조선전쟁』(서울: 고려원, 1990), p. 304.

<sup>94) &</sup>quot;러시아 연방 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5, 목록 918795, 문서철 122, 9-14쪽, 사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과천. 2006). p. 64.

<sup>95) &</sup>quot;Top Secret on Military Situation by Shtykov to Comrade Zakhrov, 1950. 6. 26."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9.25.).

<sup>96)</sup>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서울, 1995), p. 165.

6월 27일 저녁에 가서야 춘천을 점령할 수 있었다. 97) 인민군 1군단이 서울시내의 주요 기관을 장악한 이후에도 2군단은 춘천점령에 실패하 여 수워으로의 우회기동이 불가하자 포위섬멸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 래한 것이다 <sup>98)</sup>

이것은 기계화 부대의 운용에 있어서 계획상, 운용상의 결함이 있었 기 때문이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인민군은 소련군의 전격전 교리의 기 계적 적용 때문에 한반도 지형의 특수성을 면밀히 감안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2사단 지역에 투입된 603차량화연대는 기동성을 발휘할 수 없 는 산악 지형에 투입되었다 99) 이에 따라 603차량화연대의 강점이 전 혀 활용되지 못했으며 서울에서 퇴각하는 남한군의 퇴로를 수원 지역 에서 차단한다는 당초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100) 김일 성이 "지난 조국해방전쟁 신기... 전쟁 초기 우리의 인민군 부대들은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에 맞는 한법을 할 연구하지 못하여 일정한 곤란 을 겪었다"라면서 소련전법의 기계적인 적용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바 로 이 당시 상황을 두고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1)

### 나. 마찰의 등장2: 정치적 수준

김일성의 '머릿속 전쟁'을 지탱했던 두 가지 핵심가정인 미군개입과 인민봉기에 대한 기대도 예측을 빗나갔다. 미군이 개입하더라도 서울 점령을 통해 남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개전 3일 만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국이 예상외로 빨리 움직인 것이다. 미국

<sup>97)</sup>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137.

<sup>98)</sup>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서울, 1984), p. 346.

<sup>99)</sup> 김철범. 『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혀진 한국전쟁의 진상』, p. 147.

<sup>100)</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p. 12.

<sup>101) &</sup>quot;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1983. 6. 30." 『김일성저 작선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152-153.

은 6월 25일 유엔안보리 소집을 요청하였고, 6월 26일 유엔은 북한의 남침을 '평화 파괴'로 규탄하고 북한에게 전투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 철군을 촉구하였다. 102) 김일성이 계속해서 공격을 진행하여 6월 27일 서울 북방으로 진출하자 트루먼은 해·공군을 이용하여 38도선 이남의 북한군 부대, 전차, 포병에 대한 공격을 하도록 허가하였으며 미 7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배치하였다. 103) 6월 28일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은 6월 29일 해·공군 작전지역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6월 30일 백악관은 맥아더 장군에게 휘하에 있는 병력을 사용할 전권을 부여하고 지상군 파병을 사실상 결정하였다. 104) 미국 참전 결정은 개전 6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미군은 맥아더 휘하에 있는 주일미군을 전개시킨 다음 7월 말부터 미 해외 및 본토로부터 증원 병력을 전개하였다.

미군의 신속한 참전결정은 불학에게는 충격이었다. 김일성은 6월 30 일까지 서울 일대에서 국군의 주력을 포위 섬멸하고 수원-원주-삼척 선을 점령하겠다는 의도가 좌초되고 한강 방어선을 돌파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의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6월 29일 미 극동공군이 인민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자 김일성이 과연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퍼졌다. 김두봉, 홍명희 등의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이 미국에 힘으로 대항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김일성에게 "조심스레" 이 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105) 평양, 원산, 남포, 함흥에 대한 미군 폭격으로 공장가동도 제한되었으며 미군이 개입한 이상 소련과 중국의 지원 없이 전쟁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고개 들기 시작했다. 106) 7월 5일

<sup>102)</sup> 이서항, "유엔과 한국전쟁의 휴전과정", 강성학 편, 『유엔과 한국전쟁』(서울: 리북. 2004). p. 59.

<sup>103)</sup>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173.

<sup>104)</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2』, p. 110.

<sup>105) &</sup>quot;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No. 423, 1950. 7.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p. 69.

미지상군 상륙이 임박하자 김일성은 전쟁의 결말에 대해 우려하는 김 두봉 김달현을 질책하기까지 했다 107) 당황한 것은 스탈린도 마찬가 지였다. 그는 7월 1일 슈티코프에게 전문을 보내 "그들이(인민군) 계속 해서 전진할 생각인지. 진군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는지 보고하기 바랍 니다. 우리는 물론 계속 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이 빨리 해 방될수록 군사적인 간섭의 기회는 줄어들 것입니다"라면서 미군이 본 격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에 인민군이 신속하게 남진해야 한다고 촉구했 다 108)

김일성이 기대하던 인민봉기도 없었다. 전황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에도 김일성이 기대하던 인민봉기는 '허상'에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막상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서대문 형무소를 '해방'시켰어도 자발적인 자체봉기는 일어나 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월 20일 인민유격대가 해방구를 확 대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선전을 요란했으나 지리산, 경남북, 호남지 역의 몇몇 유격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109) 김일성이 기대했던 인민봉기가 불발된 것은 김일성의 '속도전'과 '기습'에 고착된 전쟁계획에서 비롯된다. 인민군이 6월 25일 초기 군사공격에서 기습적 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남침계획에 대한 철저한 보안유지에 있었으나 '보안유지'는 역으로 정치전의 효과를 감소시킨 중요한 이유 가 되었다. 김일성은 상급 지휘계선에서만 남침계획에 대한 정보를 유

<sup>106) &</sup>quot;Memorandum on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Operation, 1950, 8, 11."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sup>107) &</sup>quot;북한주재 소련대사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No. 468, 1950, 7, 7," 국사편찬위 원회. 『한국전쟁』, p. 75.

<sup>108) &</sup>quot;소련내각회의 의장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에게 보낸 전문. 임박한 전투작전 시기의 조선인민군 사령부의 계획을 확인하는데 대하여, 1950. 7.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p. 64.

<sup>109) 『</sup>人民日報』(1950. 7. 1).

통시킴으로써 인민군의 연대급 제대는 물론이거니와 남한 내 활동하는 남로당지휘부도 남침계획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6월 초에 남한으로 파견된 공작조들은 물론이거니와 남한 내의 남로당원들과 유격대들조차 남침 정보를 접할 수가 없었다. 110) 강동정치학원에서는 5월 말부터 월북한 남한출신 공작원들을 훈련하면서도 6월 25일 아침에도 남침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였다. 111) 개전 약 20일 전부터 도별로 남파된 남로당원들도 보도연맹원들에게 조차 인민군의 남침정보를 제대로 전파하지 못했다 112)

기대하던 인민봉기와 유격전이 일어나지 않자 김일성은 그간 장담해 왔던 '3일 이내 전쟁종결'이라는 단기결전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했다. 기대했던 인민봉기가 일어나지 않고 단기결전의 가능성이 사실상 멀어지는 가운데 미군이 참전을 결정하자 김일성은 전혀 예측하지 않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보이 마국의 개입과 당혹감, 이것이 6월 28일 이후 인민군의 서울에서의 완망한 행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유가되었을 것이다.

#### 다. 전쟁수행의 경직성1: 속도전 고착

국군주력 섬멸에 실패한 이후 이미 '새로운 전쟁' 국면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서울점령과 협상이라는 제한전략을 추구할 수도 있 었을 테지만,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전쟁의 마찰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 일성은 오로지 하나의 가능성에 도박을 걸었다. 그것은 일관되게 '속도 전'이었다. 김일성에게는 '시간'이 전쟁수행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어 버

<sup>110)</sup> 박갑동,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31화: 내가 아는 박헌영," 『중앙일보』(1973. 8. 23).

<sup>111)</sup> 김철범, 『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혀진 한국전쟁의 진상』, p. 83.

<sup>112)</sup> 조한범 외, 『구술로 본 북한현대사 재인식 : 김남식, 이항구』(서울: 선인, 2006), p. 92.

<sup>113) &</sup>quot;유마니테 신문기자 마니앙씨의 질문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 성 장군의 대답, 정치상학 교원들과 선전원들에게 주는 자료1, 민족보위성 문화 훈련국 1950, 8."

렸다. 미군의 대대적인 개입이 임박하자 김일성은 미군이 대량으로 동 원되기 전에 유엔군을 "단 시일 내에 소탕하고" 인민군을 신속히 남진 시켜 한반도를 석권함으로써 미국의 증원부대가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 는 데 중점을 두었다. 114) 김일성은 미군의 공습으로 인한 난국을 인식 하면서 신속히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 모든 병력을 남한 공격에 집중하 며 이를 위해 인적 물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결심했다.115)

속도전에 기우는 김일성의 전략은 앞으로 닥쳐 올 전쟁의 마찰에 대 한 통찰 없이 전쟁을 단순히 '전투'처럼 수행하고자 했던 전술편향에 기 반하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선, 그의 전쟁은 소련의 '지도' 없이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그제야 소련 군사 고문단을 현지에 배치해 줄 것을 스탈린에게 시급히 요청하였다. 김일 성은 7월 5일 인민군의 작전지휘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전선사령부를 서울로 이동시킨다는 결정과 함께 소란군 군관 2명씩을 군단 고문으로 배속(군단장 고문, 포병사령관 교문) 학교 바실리예프를 비롯한 군사고 문단을 전선사령부에 배속할 것을 요청하였다. 116) 전선사령부의 참모 장 강건은 소련 군사고문단 없이는 아예 부대를 지휘할 수 없다고 말했 다. 김일성도 인민군 간부들이 "현대적 지휘기술을 충분히 익히지 못했 기 때문에" 25-30명의 소련 군사고문들을 전선사령부와 각 군단으로 배치해줄 것을 스탈린에게 요청하였다 117) 나아가, 김일성은 전쟁지속

<sup>114)</sup>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25:조국해방전쟁사1』(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 85-86.

<sup>115) &</sup>quot;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의장에게 보낸 전문, 1950. 7.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p. 69.

<sup>116) &</sup>quot;Telegram from Shtykov to Stalin, 1950. 7. 6."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sup>117) &</sup>quot;Ciphered Telegram, Shtykov to Stalin, transmitting Letter from Kim Ilsung to Stalin, 1950, 7, 8,"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동원 체계를 전시체제로 일제히 전환하였다. 김 일성은 인민군의 병력증강을 위해 7, 8, 9사단을 창설하였으며 전시 총 동원법을 제정하였다. 7월 4일에는 김일성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전시 권력이 김일성에게 집중되었다.

'시간'과의 전쟁이 되어버린 7월 초 이후의 전쟁은 오로지 밀어붙이 기식 속도전이었다. 미군의 공중공격과 포병공격에 의해 주가공격이 제한되는 악조건하에서 미군의 추가적인 증원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남 한 전역을 점령하려는 조급함이 더 컸다. 실제 인민군의 진격속도는 실 제 매우 빨랐다. 인민군의 진격 속도가 후퇴하는 남한 경찰 병력의 속 도를 추월할 정도였다.[118] 그러나 김일성의 조바심은 더 컸기 때문에 모순적인 지시를 반복했다. 급기야 김일성은 7월 16일 직접 서울로 내 려 와서 전선사령부에서 직접 대전지역의 작전을 지휘하였는데 119) 여 기서 그는 7월 16일 이전까지의 작전에 밀어붙이기식 전쟁에 집착하였 다면서 과오를 인정하였다. 120) 조건 변성도 김일성은 7월 20일 대전을 점령한 후에도 전선사령관 김책과 참모장 강건이 "여전히 상황의 정치 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높은 속도로 남진할 것을 지시하 는 모순을 보였다. 김일성은 두 번이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 선사령부에서는 미군 항공대를 핑계로 주간에는 작전이 불가능하고 야 간에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서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분개했 다 121)

전쟁은 단기결전으로 종결될 수 없음이 명확해진 가운데 미군이 본 격적으로 개입하자 김일성은 더욱더 '속도'에 집착했다. 그러나 단순한

<sup>118)</sup> 정현수 외,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서울: 선인, 2006), pp. 188.

<sup>119)</sup>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25』, p. 175.

<sup>120) &</sup>quot;대전해방작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전선련합부대들의 남진속도를 더욱 높일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작전회의에서 한 연설, 1950. 7. 16," 『김일성전 집 12』, p. 140.

<sup>121) &</sup>quot;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의장에게 보낸 전문, 1950. 7. 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pp. 87-88.

속도전은 인민군 작전의 악순환의 고리를 강화시켰다. 김일성은 도시 와 지역의 점령에 주안을 두었기 때문에 국군과 미군을 완전히 포위소 멸하지 못하고 후퇴를 허용하였다. 국군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연한 공격이 아니라 산악을 이용하여 국군의 측면과 후방으로 우회하 여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포위 섬멸하는 데 주력했어야 하지만 산악전 과 야간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김일성은 다급해질수록 국군 주 력을 섬멸하기 보다는 '밀고만 나가는' 식의 공간 확보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미 지상군의 개입이 본격화된 7월 중순은 북한군에 있어 중요한 전 략적 판단의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좌우를 살필 만한 눈과 마 음이 없었다. 7월 19일 마오쩌둥은 미국의 개입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인민군 주력의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어디에서 후퇴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122) 그러나 김일성은 마 오쩌둥의 문제 제기에 아랑 곳 없이 대대적인 미군개입 이전에 유엔군 을 격퇴하겠다는 군사목표를 밀어붙였다. 북한군이 제한전과 협상에 돌입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있었어야 했으나, 김일성의 전쟁 수행은 이미 한곳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좌고우면하기보다 오로지 속 도전으로 겨우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한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데 도박을 걸었다

## 라. 전쟁수행의 경직성2: '예비'의 부재

전선이 교착상태로 접어든 8월 말부터 김일성은 초조해지기 시작했 다. 문제의 본질은 김일성이 이에 대한 '예비'적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정이 무너지면 전략적인 예비라고 부를 무언

<sup>122) &</sup>quot;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의장에게 보낸 전문, No. 649, 1950, 7, 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p. 89.

가가 있었어야 하나 그러한 것이 존재할 리가 없었다. 소련은 모른 체했고, 중국은 말로만 지원했다. 김일성은 어느 누구를 탓할 입장이 아니었다. 오로지 자신만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다. 국군주력 섬멸에 실패한 이후 이미 '새로운 전쟁' 국면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현상유지와 협상의 제한전략을 추구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좌고 우면하지 않았다. 김일성의 결정은 1949년 3월 초의 전술편향에 기초한 속전주의의 복사판이었다.

8월 중순부터 낙동강 전선에서 인민군의 전쟁지속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였지만 '실질적인' 예비는 없었다. 김일성이 보유한 14개 사단 중10개 사단(6, 4, 10, 3, 15, 13, 1, 8, 12, 5사단)과 105땅크사단이 전선에서 전투 중이었고 3개 사단만이 예비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공격작전으로 인민군부대는 병력과 장비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특히 공격의 첨단에 있는 1, 3, 1, 6, 15사단의 병력 손실은 컸으며, 단적으로 3사단과 1사단의 연대들은 전투인원 100-200명에 불과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전투 중인 부대는 8월 18일까지 병력을 보충 받았으나 물자는 거의 보충 받지 못했다. 123) 미 공군의 제공권 장악으로 인민군은 부대를 재편성할 인원과 장비의 이동이 제한되었고 후방 지역에서 전선 지역으로 물자와 보급품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여전선 지역에서는 적시에 충분한 병력과 전투 물자, 그리고 유류와 식량을 보급 받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유엔군은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을 위해 전투력을 결집하고 있었다. 유엔군은 부산 교두보에 10개 사단(미 2, 24, 25사단, 1기병사단, 1해병사단, 국군 1, 3, 6, 7사단, 수도사단), 그리고 영국 27여단, 5개 독립연대를 집결하였다. 이들 부대들은 병력과 장비 면에서 보충을 받아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제공권과 제해권은 전적으로 유엔군에 유리하였으며 전력 면에서도 유엔군이 보병과 포병은 2배, 전

<sup>123)</sup>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서울: 오비기획, 2002), p. 49.

차는 10배 이상의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 124) 미군과 국군이 전력의 우 위를 점하게 되고 공세전화을 위한 여건조성에 돌입하자 김일성은 전 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세를 추구하였다. 8월 중순 이후 김일 성은 이원 장비 면에서 매우 열세한 상황에서 공격을 추진했으며 105 땅크사단의 경우 공격개시까지 병력과 장비를 전혀 보충 받지도 못하 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 26일 김일성은 이미 미국이 인천과 수원지역에 해병대를 상륙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으나 심각한 딜레마에 빠 졌다. 김일성은 8월 26일 전선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파 병 문제를 스탈린에게 요청하려고 했다.125) 그러나, 베이징을 방문한 박헌영과 이상조에게 마오쩌둥은 인민군의 '전략적 후퇴'의 가능성도 고려하라고 조언할 뿐이었다 126) 김일성은 진격할 만한 능력도 그렇다 고 후퇴할 여유도 없는 진퇴양생의 사했다. 8월 29일 김일성은 내무성. 민족보위성 및 도 인민의원화 의원장을 불러 임박한 미국의 상 륙작전에 대비한 "후방보위" 방침을 하달하였다. 김일성은 미국이 대병 력을 동원하여 동서해안으로 상륙을 기도하고 있으며, 서해안의 인천. 초도, 남포, 안주, 철산, 다사도가 그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해안연선에 대한 전 인민적인 방위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127)

8월 말-9월초 북한인민군은 이미 공격한계점에 도달하였고 군기와 결속력이 와해되어 갔다. 인민군은 남한영토의 90% 이상을 점령하긴 했지만 이미 사단 전투력이 50-60% 수준으로 약화되었고 병참선도 300km로 신장되어 공격력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김일

<sup>124)</sup> 러시아 국방부,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p. 51.

<sup>125) &</sup>quot;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외무상에게 보낸 전문. No. 981. 1950. 8. 29. 030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 p. 96.

<sup>126)</sup> 임은. 『북조선창설 주역이 쓴 김일성정전』(옥천문화사, 1989), pp. 224-225.

<sup>127) &</sup>quot;후방을 튼튼히 보위하자 : 내무성, 민족보위성 책임간부들,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도 내무부장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0. 8. 29." 『김일성전집 12』. pp. 251-256.

성과 인민군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도 승리에 대해 의심했다. 김일성은 8월 29일 해안 경계를 강화할 것과 "인민군대 기피자와 대렬 도주자"의 비겁한 행동과 투항 변절을 막을 데 대한 대책을 지시하였다. 128)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일성에게 위로가 된 것은 스탈린의 격려편지뿐이었다. 129)9월 초 이미 전선부대의 보급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인민군의 공격력이 정점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북한의 선전선동만 오히려 더욱 요란해 졌다. 김일성은 미군의 상륙이 임박한 가운데 부산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전투력이 열악한 인민군을 희망 없는 참화 속으로밀어 넣었다. 김일성은 탄약을 보급해주지 못하면서 '공격'만 강조했다. 김일성은 9월 9일 "조국해방전쟁은 결정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를 반복하면서 공격과 기습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이것은 최후의 독전이었다.

## 6. 결 론

본 논문은 한국전쟁기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전략의 전술화'의 논리로 해석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많은 전략가 들이 지적하듯이 전쟁사령관이 전술적 사고에 집착하여 전쟁을 지도하 면 전쟁에 실패하게 된다. '전술의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심각 한 '전략수준의 부조화' 현상은 전쟁계획 수립에서부터 전쟁수행에 이 르기까지 전반적인 전쟁지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적인 부작

<sup>128) &</sup>quot;후방을 튼튼히 보위하자: 내무성, 민족보위성 책임간부들,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도 내무부장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0. 8. 29," 『김일성전집 12』, p. 257.

<sup>129) &</sup>quot;Ciphered Telegram, Stalin to Kim Ilsung Via Shtykov, 1950. 8. 28."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korean-war-origins-1945-1950 (검색일: 2017. 9. 25.).

용은 현실전쟁에서 단순한 군사적 모험주의와 전쟁수행의 경직성으로 드러난다. 전략의 전술화로 인해 전술적 국면에 집착하여 전체전쟁 국 면에 대한 안목이 상실되면 전쟁의 마찰에 대해 상상하지도 못하고 모 든 전쟁계획은 현실전쟁에서도 실행될 거라는 사고로 편향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형태의 전쟁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제를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쟁의 승리가 결국에는 전략과 전술의 적합한 조화로 이 루어진다는 점을 김일성의 6.25전쟁 수행전략을 사례로 확인할 수 있 었다. 북한의 한국전쟁 전략은 김일성의 유격대 신화와 군사적 오만함 의 결합. 그리고 속승에 대한 맹신이 빚어낸 '전술의 전략'으로 평가된 다. 김일성은 자신의 전술적 경험을 국가적 수준의 전략으로 확장 적용 하여 전투처럼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하고자 했다. 그것은 속승에 대한 믿음으로 굳어졌다. 그 영향력은 선생계획에서는 희망적 사고에 기초 한 모험주의적인 성향을 띠었으며, 전쟁수행에서 닥쳐올 많은 장애요 소들, 즉 전쟁의 마찰을 충분하게 고려하지도 못했다.

전술편향으로 수립된 군사전략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많은 환상을 가 지게 했다. 그러한 이상적 가정에 기초한 김일성의 전쟁구상은 성급한 개전을 부추겼으며 단기속승에 대한 오판을 촉진시켰다. 김일성은 신 속한 군사공격을 통해 불안정한 남한을 무너뜨리고 남한영토를 점령하 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요소는 없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김일성의 속승에 대한 환상은 대담한 전격전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간단하 게 끝날 것 같던 김일성의 전쟁구상은 전쟁의 마찰에 의해 완전히 뒤집 혔다. 본 논문은 희망적 사고에 기반 한 전쟁계획과 실제 부딪혀야했던 현실전쟁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전쟁의 마찰'에 있다는 점을 명백 히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찰을 계산하지 않은 북한의 전술 편향적 전쟁 계획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김일성의 전쟁은 처음부터 '예비'를 계획하지 않았다. 북한은 미군개입과 인민봉기와 같은 핵심가정이 무

너질 경우에 대비한 우발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북한은 1950년 8월 이후 작전한계점에 봉착하여 낙동강 전선에 투입할 병력도 부족하였으며, 더군다나 인천지역으로 미군이 상륙작전을 준비한다는 첩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할 만한 예비 병력의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예비 물자의 부족은 심각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전쟁수행의 경직성이었다. 전략적 후퇴와 제한전과 같은 여러 가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안목이 없었다. 속승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난 것은 유엔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행된 1950년 9월 15일에 가서이다. 그제야 김일성은 무모한 전격전의 폐해와 '전쟁예비'의 결여로 전쟁이 결코 자신의 뜻대로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했다.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개전이후 실제 전개되는 현실전쟁이 자신의 전쟁계획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김일성은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 마찰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전출편향의 사고가 전쟁의 모험성과도박성을 더욱 부추겼다.

북한의 6.25전쟁 전략에 나타난 '전략의 전술화'의 패착과 과오는 한 국가의 전쟁전략수립에 좋은 반면교사가 된다. 한 국가의 전략은 전쟁 목적에 부합된 하나의 목표를 전체 군사적 행동에 부여해야 하며, 전쟁의 본질적 속성인 정치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전략이 전술에 목적을 부여해야지 그 역작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략과 전술이라는 서로 다른 수준의 용병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준의 용병술이 각각의 수준에서 이탈하여 다른 수준에서 적용될 경우 전쟁수행은 기대하던 목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전쟁지도자의 전술 편향적 사고와 과도한 자기 성공체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전략수준에서도 적용가능하다는 지도자의 오만함은 전쟁전략 수립에서 경계해야할 요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전쟁지도자의 자기능력과 방법론을 우상화하는 '휴 브리스'는 전쟁 수행에서 위험을 초래한다. 그것은 군사적 수준에서는 지휘관들의 속승에 대한 맹신이 근거 없는 모험주의를 부추기고, 그럼 으로써 전쟁계획과 수행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마찰에 대해 눈을 가리게 하는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것으로, 왜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 가장 단순한 것이 어렵다"고 말했는지 설명된다.

[원고투고일: 2017, 4, 25, 심사수정일: 2017, 11, 22, 게재확정일: 2017, 11, 23.]

주제어: 전략의 전술화. 김일성. 한국전쟁. 군사적 모험주의. 전격전. 전략의 전술, 희망적 사고, 전쟁의 마찰, 전략수준의 부조화, 전쟁수행의 경직성



### 〈참 고 문 헌〉

- 가미야 후지, 『조선전쟁』, 서울: 한반도 출판, 2004
- 권오근 책임편집, 『주보중문선』, 연변인민출판사, 198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45-1960』, 서울: 국방부 전사편차위원회. 1988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사관계사료집1:북한군 전투명령』, 서울: 군사편찬 연구소, 2001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 귄터 블루멘트리트 지음, 류제승 옮김, 『전략과 전술』, 서울: 한울아카 데미, 1994
-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업: 소년 등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에서 한 보고," 『김일청 선집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6권』, 평양: 조천로동당출판사, 1994
- 김일성, "보천보 전투 30주년, 1968," 『북괴 군사전략자료집』, 서울: 중앙정보부, 1974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일성, "1949년을 맞이하면서 전국 인민에게 보내는 신년사: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순간통신』 1월 상순호 (1949)
- 김일성, "서울시 해방에 즈음하여 전국인민들과 인민군대와 서울시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1950. 6. 28," 『김일성전집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김일성,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1983. 6. 30." 『김일성저작선집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김철범, 『진실과 증언 : 40년 만에 밝혀진 한국전쟁의 진상』,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김주철 『조선로동당 당원조직 연구: 1945-1960』 서울: 선인, 2008
- 김학준. 『북한의 역사 : 제1권』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남시욱. 『6.25전쟁과 미국』 서울: 청미디어. 2015
- 데이빗 쑤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서울:오비기획, 2002
- 류제승. 『전쟁론』 서울: 책세상. 2008
- 모택동.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 김정계 역. 『모택동의 군사전략』. 대구 : 중문, 1994
- 박갑동.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31화: 내가 아는 박헌영." 『중앙일 보』(1973. 8. 23).
- 박병엽. 『전 노동당 고위간부가 젊은 견국비화 :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탄생』, 서울, 선인, 2010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25』.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 션즈화 "극동에서 소련의 전략적 이익보장: 한국전쟁의 기원과 스 탈리의 정책결정 동기."『한국과 국제정치』제30권(2014): 1-44. http://doi.org/10.17331/kwp.2014.30.2.001
- 예프게니 바자노프·나딸리아 바자노바.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서울: 열림, 1997
- 오영진. 『하나의 증언: 소련군정하의 북한』, 부산: 중앙문화사. 1952
-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서울: 집문당. 2008
- 우병국 외. 『북한체제 형성과 발전과정 문헌자료: 중국. 미국. 일본』. 서울: 선인, 2006

- 윤석철, 『경영학의 진리체계』, 서울: 경문사, 2002
- 이서항, "유엔과 한국전쟁의 휴전과정", 강성학 편, 『유엔과 한국전쟁』, 서울: 리북, 2004
- 임은. 『북조선창설 주역이 쓴 김일성정전』. 옥천문화사. 1989
-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 서울: 한국발전연구원, 1991.
- 정병준, "북한의 한국전쟁 계획수립과 소련의 역할," 『역사와 현실』 제66호(2007): 363-398, http://uci.or.kr/G704-000054.2007..66.011
- 정현수 외,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서울: 선인, 2006
- 조한범 외, 『구술로 본 북한현대사 재인식 : 김남식, 이항구』(서울: 선인, 2006), p. 92.
- 주영복, 『내각 겪은 조선전쟁』, 서울: 고려원, 1990
- 최장집, "해방8년사의 총체적 인식," 최장집 저, 『해방전후사의 인 식4』, 서울: 한길사, 1989
- 한재덕, "김일성장군 개선기," 『북한관계사료집7』, 서울: 국사편찬위 원회, 1991
-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서울: 합참, 1984
- 허남성·이종판 역, 『한국전쟁의 진실: 기원, 과정, 종결』, 서울 :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00
- Andre Beafre, trans. by. R. H. Barry, *An Introduction to Strateg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5).
- Andrew Krepinevich, *The Army and Vietna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Archer Jones, Elements of Military Strategy: An Historical Approach (Westport: Praeger Publishers, 1996).

- Carl von Clausewitz,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On Wa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Colin S. Gray, Modern Strate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Colin S. Gray. "Irregular enemies at the essence of strategy: Can the American way of war adapt?."(접속날짜 2017년 9월 1일)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v.mil/pubs/
- David Ronfeldt, Beware the Hubris-Nemesis Complex: A Concept for Leadership Analysis (RAND, 1994).

display.cfm?pubid=650

- Edward N. Luttwak,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 (Cambridge: The Belkman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James Person New Evidence on the Korean War (Washington D. C.: Woodrow Wilson Center, 2010).
- Kyril Kalinov, "How Russia Built The North Korean Army," The Reporter (September 26, 1950).
- Liddell Hart B. H., Strategy (New Frederick A. Praeger, 1967).
- Michael I. Handel. Masters of War: Classical Strategic Thought (London, Portland: Frank Cass, 2001).
- Michael I. Handel. "The Evolution of Israeli Strategy: The Psychology of Insurgency and the quest for absolute security," Williamson Murray, MacGregor Know and Alvin Bernstein, Eds., The Making of Strategy: Rulers. States and War (The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994).

- Peng Guangian. The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Beijing: Military Science Publishing House, 2005).
- Richard K. Betts. "Is Strategy an Illus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2 (Autumn, 2000).
- Samuel P. Huntington, "Guerrilla Warfare: Theory and Policy," Franklin Mark Osanka. Modern Guerrilla Warfare: Fighting Communist Guerrilla Movements 1941–1961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2).
- Yehoshafat Harkabi, Israel's Fateful Decision (London: I. B. Tauris and Company Ltd., 1988).
- "Memorandum form the soviet ambassador to the DPRK to the chairman of the USSR council of ministers with a brief description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n the south and north of Korea, 1949. 9. 15." (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 korean-war-origins-1945-1950
- "Politburo Decision to Confirm the following Directive to the Soviet Ambassador in Korea. 1949, 9, 24." (접속 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 134/korean-war-origins-1945-1950
- "Telegram from Roshin to Cde. Filipov(Stalin), 1950. 5. 14." (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 korean-war-origins-1945-1950
- "Telegram from Shtykov to Vyshinski Regarding Meeting with Kim Ilsung. 1950. 5. 12."(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 korean-war-origins-1945-1950

- "Telegram from Roshin to Cde, Filipov(Stalin), 1950, 5, 14" (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 /korean-war-origins-1945-1950.
- "From Shtykov to Vyshinski, 1950, 5, 30." (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 korean-war-origins-1945-1950
- "Top Secret on Military Situation by Shtykov to Comrade Zakhrov. 1950. 6. 26."(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 korean-war-origins-1945-1950
- "Memorandum on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Operation, 1950, 8, 11." (접속 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 /korean-war-origins-1945-1950
- "Telegram from Shtykov to Stalin, 1950, 7, 6." (접속날짜: 2017. 9. 25.).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 /korean-war-origins-1945-1950
- "Ciphered Telegram, Shtykov to Stalin, transmitting Letter from Kim Ilsung to Stalin, 1950, 7, 8." (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 /korean-war-origins-1945-1950
- "Ciphered Telegram, Stalin to Kim Ilsung Via Shtykov, 1950. 8. 28." (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34 /korean-war-origins-1945-1950

<Abstract>

## The analysis of Kim Ilsung's Strategy during Korean War: The Tendency of Turning Strategy into Tactics

Kim, Tae-Hyu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Strategy of Tactics', based on a case study of Kim Ilsung's strategy during Korean War, especially the period from June to September 1950. The strategy of tactics can explain why Kim Ilsung as a supreme war commander of north Korean Army conducted the Korean War like a battle rather than war without any consideration or calculation on the possible 'friction of war' (conceptualized by Carl von Clausewitz). This research argues that a discord or a mismatch in the level of war defined in the 'strategy operational art - tactics' hierarchical system facilitated the military adventurism and rigidity of strategy, which ultimately contributed to expand a crack and friction between ideal war(merely war planning) and real war(conduct of war). This basic conceptual framework defined as 'tacticization of strategy' illustrates a phenomenon that a lower level of war strategy (tactics) dominates the logic of higher level of strategy, possibly compared with a paradoxical situation such as 'the tail wags the dog'. This article argues that Kim Ilsung's tactics-oriented way of thinking, misinterpreting the whole war as a battle or combat rather than as a 'war itself', was an critical factor which motivated him an adventuristic initiation of war, and caused an unexpected friction and catastrophic mistakes and failure in the conduct of the initial offensive phase of Korean War from June to September 1950.

This explanatory concept of 'tacticization of strategy' or 'strategy of tactics' can explain why Kim Ilsung miscalculated the war prospect based on a wishful thinking such as a blitzkrieg-victory illusion. This was a decisive mistake he made during war decision making process, which forced

him not to assess and decide in a strategic sense during conduct of war as well. He overestimated the impact of blitzkrieg. He believed once north Korean army occupied south Korean Capital within a short perio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collapse and then he could rule all the territory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This illusion of blitzkrieg before and during war made his war as a simple combat or battle at a tactical level. As long as he regarded his war as a 'mere combat, there was no reason to take into account the frictions of war for him. He never doubted the victory of his army. Kim Ilsung's misunderstanding of war, defined as a tacticization of strategy in this article, resulted in a fatal catastrophe for him.

Key Words: tacticization of strategy, Kim Jlsung, Korean War, military adventurism, Blitzking, Strategy of Tactics, The Tail wags the Dog, Wishful Thinking, Friction of War, discord of war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151-188 https://doi.org/10.29212/mh.2017.105.15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 초기 한국정부의 미국에 대한 대응전략

- '방기의 두려움'을 중심으로\* -

양준석\*\*

- 1. 서 론
- 2 한국의 1.21사태와 푸에블로호사건의 통합대응 시도
- 3 미국의 북미협상 추진과 한국의 대응
- 4. 한미공동성명 이후 한국의 두려움 지속과 해소
- 5. 결 론

#### 1 서 론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서울에 침투한 이틀 후인 1월 23일 미 해군 정보수집보조함 푸에블로호(USS Pueblo)가 북한에

<sup>\*</sup> 이 논문은 2016년 6월 25일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에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네 분 심사자들께 감사드린다.

<sup>\*\*</sup> 서울신학대학교 조교수

피랍되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푸에블로호사건과 1.21사태를 통합하여 미국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은 1월 30일 북한과의 단독협상 가능성을 발표하며 본격적 인 북미협상이 추진되었다. 결국 북미협상이 1968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이뤄진 후에 1968년 12월 23일 푸에블로호 승무원 82명이 송환됨으로써 푸에블로호사건은 종결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푸에블로호사건은 자국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치스러운 굴욕(disgraceful humiliation)이었다.1)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푸에블로호사건 처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일권(丁一權) 국무총리가 "6.25이래 새로이 전쟁터에 나온 것 같다"한 것은 당시 급박한 위기상황에 대한 한국정부 인식의 표현이었다.2)

이 연구는 '수치스러운 굴욕'을 감수하면서도 푸에블로호 및 승무원 송환을 위해 북미협상을 추진했다. 제국에 대해 '6.25이래 새로운 전쟁터' 당시 상황을 인식했던 한국정부가 추구했던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푸에블로호사건과 1.21사태에 대한 한국의 통합대응, 미국과의 공동대응 전략이 미국의 북미협상 추진으로 실패한이후 미국으로부터의 방기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추구했던 대응전략을 1차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하려 한다.

푸에블로호사건의 기존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범주화해볼 수 있다. 첫째, 북미 간 협상 중심의 연구로서 미국의 대북 대응전략과 전략 실패, 북한의 협상전략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3) 둘째, 한·미, 한·북·미 관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연구들이

<sup>1)</sup> Daniel V. Gallery, The Pueblo incident (Garden City, NY: Doubleday, 1970), p.83.

<sup>2) &</sup>quot;가시돋힌 反問에 얼굴 붉혀", 「東亞日報」(1968년 2월 14일). 이하 인용구문의 맞춤법은 원문상 의미전달이 필요한 경우 원문을 그대로 표기한다.

<sup>3)</sup> 김정배는 푸에블로호사건을 통해 냉전체제의 논리와 냉전적 정치의 의미를 밝히며 북한의 납치의도, 미국의 대북대응의 성격, 미국과 소련의 관계를 설명해내고 있다. 김정배, "북한, 미국, 그리고 냉전체제: 1968년 Pueblo호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 사연구』제27집(2008). 정성윤은 미국과 북한의 비공개협상과정을 통해, 북한의 일

있고, 북미 협상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갈등과 균열이 발생하는 부분에 초점을 둔다 4) 셋째, 한·북·미 외에 소련이나 중국을 사건의 행위자 로 참여시키는 연구들이 있다. 5) 넷째, 푸에블로사건이 북한에서 어떠 한 상징적 의미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6) 이처

- 4) 푸에블로호사건의 핵심 연구이며, 미국의 의기관리, 동맹관리 측면에서 사례로 푸에 블로호사건을 분석한 연구는 양성절, 문장인. "한미 안보관계의 재조명: '프에블로 호' 사건의 위기 및 동맹관리사례를 중심으로", 안병준 편, "한국과 미국 1, 정치 · 안보 관계,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홍석률은 푸에블로 사건과 북미의 협상과정, 그리고 남한과 미국의 협상과정에서 동맹관계가 동요를 일으키고. 갈등관계가 나타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홍석률,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과 남한 · 북한 · 미국의 삼각관계". 『한국사연구』113집(2001). 윤민재는 푸에블로호사 건으로 인해 한미관계는 공조와 조화보다는 긴장과 갈등에 빠지고, 북미 협상과정 에 저항하지 못함으로 균열과 갈등을 외무부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민재. "푸에블로호 사건과 한미관계", 『사회와 역사』 제85집(2010). 서규화는 1.21사태와 푸에블로호사건 발생 이후 이를 수습하며 박정희 정부는 최초로 자주국 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주성을 확대했다는 연구를 분석하고 있다. 서규화. "박 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수립과정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한용 섭 역시 1.21사태와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박정희의 생각이 전환되 며 자주국방 정책을 채택했음을 기술했다. 한용섭, "우리의 튼튼한 국방정책", 남성욱 외 지음.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 70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82쪽.
- 5) 임재학은 선행연구들에 비하여 푸에블로호사건을 둘러싸고 미국이 위협적으로 인식 하고 있었던 소련과 중국요인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임재학, "미 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 · 중국 요인", 『중소연구』 제36권 제3호 (2012)
- 6) 푸에블로호사건이 북한에게 반미소재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에 관한 연구는 이신재. "북한의 기억의 정치와 푸에블로호 호명", 『현대북한연구』제17권 제1호(2014).

과되 현삿태도와 위기외교대처방식을 비교하여 북한 고유의 현삿저략과 대응을 확 인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정성윤, "1차 사료를 통한 미북간 협상과정 분석: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제43호(2008). 정성 유(2014)은 또한 강대국의 무력 강압은 종종 실패로 끝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푸에블로호사건에서 미국의 무력강압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정성유. "미 국의 대북 무력강압 실패에 대한 연구: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제54집 2호(2014). 145-178쪽. 엄정식(2013)은 기존의 푸에블로호 사건을 미국의 위기관리 실패사례로서 분석하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의 대북인식 변화라는 측면에서 협상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엄정식. "푸에블로호 사건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접근", 『軍史』86호(2013). 푸에블로호사건과 북한의 대미인식과 협상에 과한 연구들 이신째 『푸에를로호 사건과 북한』 서울: 선인 2015.

럼 푸에블로호사건 연구는 사건의 개별 행위자의 영향, 이론과 역사적 접근의 다층적 분석이 활용되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에 기초하여 한국외무부 생산문서를 정밀 분석하였으며, 사건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사안에 대한 미국측 문서들은 적극 활용하였고, 당시 언론 자료와 사건 관계자들이 남긴 기록7) 등 준1차자료 등을 통해 보다 입체적으로 푸에블로호사건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1월부터 2월까지의 푸에블로호사건 발생 초기, 북미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기를 피하며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성과를 나타나게되었는지에 집중한다.

이 연구는 1차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역사적 접근방식과 함께 동맹관련 논의8)를 이론적 토대로 활용할 것이다. 동맹의 딜레마는 후 견-피후견 관계, 안보-자율성 교환동맹이론, 방기-연루 딜레마를 들수 있다. 비대칭적 동맹에서 강대국을 약소국에게 안보를 제공해 주지만 약소국은 그 대가로 일정부분을 강대국과 교환하게 된다. 이런 비대 칭적 동맹은 구조적으로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를 겪게 된다. 스나이더 (Glenn Snyder)는 '방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라는

<sup>7)</sup> 사건 관련인물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공로명,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납치", 「나의 외교노트』,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2014; 노창희, 「어느 외교관의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2007; 이재원 구술, 조수현 채록, "이재원 [최규하 대통령 정무비서관]", 『한국 대통령 통치구술 사료집 1, 최규하 대통령』, 서울: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2012; 玄石崔圭夏大統領八旬記念文獻集發刊委員會, 『玄石片貌: 玄石崔圭夏大統領八旬記念文獻集發刊委員會, 1998. 특히 사건 발생 당시 외무부 구미국장이었던 윤하정의 생생한 기록은사건 관련 자료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윤하정, "북한 특공대 침공과 푸에블로호 피랍", 『어느 외교관의 비망록』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2011.

<sup>8)</sup> 동맹관련 논의는 다음을 참조. Ole R. Holsti, P. Terrence Hopmann, and John D. Sullivan. *Unity and Disintegration in International Alliance: Comparative Studies*(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3); Glenn H. Snyder, "Alliance, Balance, and Sta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5-1 (Winter, 1991); Glenn H. Snyder, "Alliance Formation," *Alliance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동맹국 사이의 상호작용을 지탱하는 것은 상호 지지인데, 관련국이 이러한 상호지지에 대해 느끼는 기대감과 불안감 을 포착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이 방기와 연루이다. 한 국가가 적대국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불 확실하면 그 나라에는 방기와 불안이 나타난다. 동맹게임에서는 어떤 국가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동맹국의 지원이 불확실한 상태에 서 다른 보호자를 찾아 그 동맹을 이탈할 수 있는 능력마저 결여되어 있다면. 당사국은 높은 방기의 불안을 경험할 것으로 본다. 9) 특히 스 나이더는 동맹 국가 간 정치적 딜레마의 4가지 경우를 상정하는데 ① 동 맹상대국에 대해 강한 지원과 공약을 할 경우. ② 동맹상대국에 대해 약한 지원과 공약을 할 경우. ③ 적대국에 대해 강경입장을 취할 경우. ④ 적대국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취할 경우 등이다. 10) ④의 경우에 나 타날 수 있는 특징은 갈등을 하철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으며. 적대 국으로 하여금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갈 등해결의 의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즉 동맹상대국은 적 국에 대한 유화적 입장을 목격하고 동맹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이는 방기에 대한 우려와 연결되다 11) 이 연구에서는 방기와 연루 모델에서 나타나는 딜레마의 특징을 중심으로 특히. 북미협상과정에서 박정희 정부가 대미(對美) 대응전략 구축을 통해 방기의 두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다 12)

<sup>9)</sup> Victor D. Cha.,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37-41.

<sup>10)</sup>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 (July, 1984), pp.461-495.

<sup>11)</sup> Glenn H. Snyder, 1984, p.469.

<sup>12)</sup> 기존의 한미동맹에서 나타나는 방기와 연루의 특징을 푸에블로 사례로 파악한 연 구는 다음과 같다. 박용수는 박정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존슨정부는 북한과 의 양자협상을 추진하며, 이러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한국에게 방기의 두려움을 강화시켰다고 보았다. 결국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미국으로부터의 방기

#### 2. 한국의 1.21사태와 푸에블로호사건의 통합대응 시도

미국방부는 미 해군정보수집보조함 푸에블로호가 1968년 1월 23일 오후 1시 45분 동해 공해상에서 4척의 무장한 북한의 초계정과 미그기 (Chasseur Mig) 2대의 위협 아래 나포되어 원산항으로 납치되었다고 발표했다. 13) 장교 6명과 수병 75명 민간인 2명을 포함하여 총 83명이 탄 푸에블로호는 동경 227도, 북위 39도, 북한해안에서 4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나포당했다. 미 해군함정이 국제공해상에서 나포되기는 미 해군사(美海軍史)상 10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14) 북한은 푸에블로호의 나포를 "정당한 자위조치라고 말하고 미국이 도발을 되풀이한 다면 침략자들을 엄중히 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노동신문은 "버처 함장

에 대한 우려는 데탕트시기 한미 1 15 로 고조된다고 보았다. 박용수, "1990년대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중에블로호 사건'과 비교해 본 제1, 2차 '북핵 위기'이 특징", 『국제정치순종』제47십 2호(2007). 방기와 연루 모델로서 한미동맹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연구는 이상현, "한미동맹과 전략적 유연성- 쟁점과전망", 『국제정치논총』제46집 4호(2006); 이수형, "동맹의 안보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 · 미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제39집 1호(1998). 신욱희는 데탕트 시기의 한미갈등의 원인을 단순히 구조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 방기와 연루를 통한 양국이 갖는 위협인식의 차이, 한미 간공격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에서 오는 부분적 입장차이 등 정향적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신욱희. "기회에서 교착상태로: 데탕트 시기 한미관계와 한반도의국제정치."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6집 2호(2005).

<sup>13)</sup> 푸에블로호 선장 부처(Lloyd M. Butcher)의 푸에블로호 나포와 관련한 기록은 Bucher, Lloyd M. *Bucher: My Story*(Garden City, N.Y.: Doubleday, 1970). 푸에블로호의 활동과 나포 상황,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판단, 그리고 승무워의 송화을 위해 미국이 서명한 자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Gallery(1970).

<sup>14) &</sup>quot;북괴, 미함 푸에블로호 납북." 『東亞日報』(1968/01/24).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공로명은 그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푸에블로호사건이 일어나자 미국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동해로 항진시키고 350대 전투기를 한국에 급파하는 한편, 예비역 일부를 동원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 남전을 수행 중이었으므로 한국에서 제2의 전선을 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 미국은 북한 측에 강경한 자세를 표명하고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측이 북한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강경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고한다." 공로명, 2014, 201쪽.

이 영해침범을 자백했다"고 말하고 이 같은 사실은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미국의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15) 러스크 (Dean Rusk) 미국무부장관은 푸에블로호를 납치한 만행을 "전쟁행위" 로 간주했다. "북한은 이미 행동이 지나쳤으며 자중하라는 것이 나의 충고다"라고 전제하며, 미국이 푸에블로호 및 승무원들의 송환을 실현 시킬 어떤 "결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호히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나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때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 실현시킬지는 밝히지 않았다 16) 미국은 푸에블로호 나포가 북한의 지도부 수준에서 확실한 결정에 의해 추진된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17) 이에 따라 1월 23일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과 러스크는 미군에 의한 북한 공 격. 설명을 통한 해결. 북한의 함정 나포와 같은 보복조치들을 논의하 고 있었다. 18) 한국 역시 "받 대통령은 먼전, 대북제재와 보복을 생각하 고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군도 휴전성을 넘어 20km 정도 전진할 것과 미 해군도 원산만을 봉쇄할 것을 주장한 걸로 보아 매우 강경한 입장이 었던 것으로 여겨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19)

이러한 북미 간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1968년 1월 25일 외무부 장관 최규하(崔圭夏)는 〈북괴무장침입자 일단의 서울침입사건과 미국 함선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에 관한 외무부장관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우선 푸에블로호를 북한 해공군이 동해안 근처 공해

<sup>15) &</sup>quot;北傀, 警戒態勢令", 『東亞日報」(1968년 1월 26일).

<sup>16) &</sup>quot;딘 러스크 미국무장관...", 『東亞日報』(1968년 1월 25일).

<sup>17) &</sup>quot;North Korean Seizure of the Pueblo--Plan or Opportunity?" The Pueblo Incident: Briefing Materials for Ambassador Ball's Committee, 5 February 1968, Pueblo Crisis 1968, vol.3, Documents Part 1, Box 29, National Security File, LBJL.

<sup>18)</sup> The Soviet response is in telegram 2550 from Moscow, January 23, Central Files 1967-69,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G 59, POL 33-6 KOR N-US; Korea, Pueblo Crisis, FRUS 1964-1968, Volume XXIX Korea. 이에 대한 원문은 1. Hitting the North Koreans with U.S. forces. 2. Getting a thorough explanation. 3. Capturing one of their ships.

<sup>19)</sup> 윤하정, 2011, 36쪽,

상에서 납북한 사건이며 "대한민국정부는 이를 대한민국 및 극동의 안전에 대한 북괴의 가장 중대한 위협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괴의무장침입자 일단의 서울침입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와 요인들을 살해하려는 목적이었음은 생포된 자의 증언으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으며또한 민간인의 교통수단인 버스에 수류탄을 마구 투척하여 양민을 사살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무차별 살해하는 등 가장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행위 및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했다"하며 1,21사태와 푸에블로호사건을 같은 성명서에 발표하였다.20)

이는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있는 푸에블로호사건 심각성을 1.21사태와 연계하여 다루며 무장공비의 습격에 대한 주목을 강화시키려 한 의도로 파악된다. 21) 한국정부의 위기인식은 1.21사태 발생 직후 나타난 미국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무부 대변인 발표에 따라 미국무부가 이 두 사건이 북한의 중대한 도발행위라는 것을 완성하면서도 서로 관련된 것으로 보려하지 않으며, 미국무부뿐 아니라 주한외교대표들도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주의 깊게 다루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22) 따라서 한국정부에게는 두 사건을 북한의 중대한 도발행위로 연결하고 구체화하여, 미국과 국제사회에 그 심각성을 호소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1968년 1월 25일 문서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에서 푸에블로호 납치에 대해 다룬 당시의 외신보도 내용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 "안보이사회에서 주로 Pueblo 사건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sup>20)</sup> 북괴무장침입자 일단의 서울침입사건과 미국 함선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에 관한 외무부장관성명서, 1968년 1월 25일,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 전8권, V.1 기본문서철,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1, 등록번호: 2662.

<sup>21)</sup> 양성철, 문정인(1988)은 푸에블로호사건은 한국에 안도감을 주었다고 보았다. 즉, 1.21사태와 푸에블로호사건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북한이 한 국과 미국의 공동의 적이라는 것을 재부상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양성철, 문정인, 1988, 68-69쪽.

<sup>22) &</sup>quot;北傀挑發, 緊張의 內幕", 『每日經濟新聞』(1968년 1월 25일).

보도되고 있으며 북괴의 무장간첩침범사건은 외신에서는 거의 언급되 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북괴의 최근 일련의 만행, 특히 지난 21일의 무장침입 사건 등. 우리입장에서는 가장 중대한 사건이므로 Pueblo사건과 동등 이상으로 강조되고 주시되어야 하는 만큼 적어도 양 사건을 강조함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하니 미국에게 이를 강력 히 요청하시기"23) 바란다고 하였다. 1월 26일 한국정부는 전체 재외공 관에 훈령을 내려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고, 주미대사와 주유엔 대사에게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24) 1월 30일 문서에도 "미국 재 외공관과 재주재국활동이 Pueblo 사건만 취중하고 있는 인상이 강하다 는 보고임으로 이점 국무성의 주의를 환기하시고 시정을 촉구"하기를 지시하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당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한국국회는 일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 다. 공화당과 신민당의 '10인중시회의' 1월 27일 "북괴특곳대의 수도 침입사건과 미함의 불법납북사건은 여야정치인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 지 않는 결의와 행동을 요구하는 사태임을 직시하고 정치인, 군, 이 일 치단결하여 철통같은 대공(對共)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 치를 보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공동성명 2항 내용 으로 "국군의 장비현대화가 시급하므로 미국은 즉각적으로 특별지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25)는 구체적인 대미정책안을 포함시켰다.

한국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1968년 1월 30일 미국은 북한이 나포 한 푸에블로호 및 승무원의 계속 억류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한 국문제 전반에 걸쳐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당시 유엔안

<sup>23)</sup> 외무장관이 주유엔대사 및 주미대사에게 보낸 전보, WUS-01129, 1968년 1월 25일,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 전8권, V.1 기본문서철,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1, 등록번호: 2662.

<sup>24) &</sup>quot;北傀가 南派한 武裝共匪事件과 푸에블로호 拉致事件에 대한 我國政府의 外交的 措置事項", 1968년 1월 30일, 총무처 의정국 의정과, 관리번호: BA0084530, 동 문서는 외무부장관이 총무처장관에게 보낸 국무회의 안건문서로서 "국무회의 통 과 직후 파기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sup>25) &</sup>quot;美國에 國軍現代化 촉구", 『東亞日報」(1968년 1월 29일).

전보장이사회 토의에의 북한 초청을 중대한 문제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26) 이에 대한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의 저자세는 가해자인 북 괴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주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북괴 의 함정에 말려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경고치 않을 수 없다. 한편 우리 에 대한 미국 측의 군사지원의 소극적인데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우 선 공군력에 있어 북괴의 그것에 비해 우리가 열세라는 것이 명백히 지 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 다"27)고 하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강경하지 않음을 비난하고, 동시에 한국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최규하 외무부 장관은 1월 31일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무조건 초청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장관은 "푸에블로 호 사건이 해결된다고 해도 한국사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 문"이라고 말하면서, "휴전선병에를 바롯한 한국방위에 적절한 조치가 유엔 안보리와 자유애호국들 자이에 궁구돼야만 한다"고 강조하며,28) 푸에블로호 문제를 한국의 한보와 북한에 대한 위협 나아가서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29)

<sup>26) &</sup>quot;美,北傀와 直接協商 모색",「東亞日報」(1968년 1월 30일). 정성윤에 의하면 푸에블로호사건에 대한 미국의 초기 대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미태평양함대 주도로 동해안 인근으로 신속한 무력 증강이 시도되었다. 둘째, 워싱턴 정책결정자들은 무력조치를 유력한 방안으로 상정하면서 정보분석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하지만 1월 25일 이후 골드버그(Arthur J. Goldberg) 주유엔 대사와 러스크 국무장관이 제기한 외교적 대안제시에 국방부와 존슨 대통령은 뜻을 같이했으며 북한과의 비공개회담쪽으로 선회하며 미국이 초기에 고려했던 대안들은 실현되지 못했다. 정성윤, 2007, 88쪽, 임재학, 2012, 143쪽에서 재인용.

<sup>27) &</sup>quot;友邦美國에 대한 忠言", 『東亞日報』(1968년 1월 31일).

<sup>28) &</sup>quot;北傀, 유엔 招請 반대", 『東亞日報』(1968년 1월 31일).

<sup>29) 1968</sup>년 1월 31일 11시 서울시민, 학생 등 20만 명이 서울운동장에 모여 북한의 만행에 반대하는 범시민 궐기대화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는 "푸에블로호의 납치 만행은 전세계평화를 위협하는 3차대전 도발행위임을 전세계 자유의 이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선언되었다. 外務部 情報文化局,「北傀의 武裝共匪 南侵 및 美艦 '푸에블로'號 拉致事件」, 서울: 外務部 情報文化局, 1968, 27-28쪽.

1968년 1월 31일 미국무부 대변인은 대한민국 대표의 참석없이 한국 문제의 전반적 토의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서울과 당지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북미회담에서의 소 외에 대한 한국의 불만을 인식한 듯 "국무부장관께서 미국에 대하여 푸 호에만 치중하고 아국에서의 간첩단 사건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불평하였다는 서울발신보도에 대하여 국무부 관리는 이를 부인하고 시 스코 국무차관보가 보직에게 다짐한 내용을 예로서 보도하였으며, 미 국이 푸호사건 처리에 열이 식었다는 평에 대하여 이사건 처리에 우리 는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30)는 입장이 한국에 전달되었다. 정성유은 초기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미국은 곧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책을 적 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이유로 무엇보다도 존슨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책결정자들이 그들의 의지와는 별개로 군사적 강압만으로 승무원의 생환을 보장할 수 없다고 된 했기 때문이라 파악했다. 31)

한국정부는 미국의 발표 이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는 데. 1968년 1월 28에 외교문서에 의하면 'Pueblo 승무워 석방을 위하 여 68년 1월 27일 미국이 파란정부를 중계로 북괴측과 간접 접촉중이 라는 외신보도가 있었음에 감하여 여사한 접촉은 앞으로 북괴와의 직 접적인 접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직접적 인 접촉이 그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일 뿐만 아니라 북괴의 지위향상의 인상을 줄 수 있음에 비추어 68년 1월 28일 주한미대사관에게 아국정부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구미국 장-Ericson참사관). 이에 대해 미측은 본국정부에 강력히 반영시키겠 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서에서 북미 간의 회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 장도 확인할 수 있는데. 외무부장관이 주미대사에게 특히 강조하는 점

<sup>30)</sup> 주미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보, USW-01256, 1968년 2월 1일, 외무부 미주 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전8권, V.1 기본문서철.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1. 등록번호: 2662.

<sup>31)</sup> 정성윤, 2014, 154쪽,

은 "상기와 같이 미국정부와 북괴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그 형태의 여하를 막론하고 반대하는 아국입장을 미정부에 강력히 반영시키기 바람"이라는 문구로 확인할 수 있었다. 32)

한국정부의 북미 간 직접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과 여론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언론에서는 "인도주재 북괴 외교대 표부 대변인이 북괴정권이 푸호와 그 외 83명 선원을 포로(서울에 침입하였든 간첩단원을 지칭하고 있었다함)와 교환하는 것을 합의하지 않을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33) 또 다른 미국언론은 "미국이 북한에서 선박과 선원을 석방한다면 북한과 전 한국문제를 논의할용의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사에서 소련의 소식통을 인용하며 "북한이 미국 측에서 위기조성을 감소하면 선박과 선원을 석방할 것이라고 시사하였다"고 하였고, 이 보도에서의 전한국문제란 "미국에 의한 남한의 점령", 플에블로호사건, 북한의 주권 및 한국의 분단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았다. 34) 이는 푸에블로호사건 해결자체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며, 1.21 청와대 습격사건과 연결시켜, "극동의 위협상황"이라는 공동안보인식 하에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공동 압박하려는 한국의 의도가 어렵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북미 간 직접회담의 저지를 위한 성명과 외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북미 간 직접회담은 현실화되었다. 미국무부 대변

<sup>32)</sup> 외무장관이 주미대사에게 보낸 전보, WUS-01138, 1968년 1월 28일, 3급비밀,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 전 8권, V.1 기본문서철,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1, 등록번호: 2662.

<sup>33)</sup> Washington Post, 28, Jan. 1968.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제의는 거절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Pueblo 호가 공해에서 피랍되었다는 확고한 지론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 교환에 응하면 북괴영해를 침범하였다고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외무장관이 주미대사에게 보낸 전보, USW-01230, 1968년 1월 29일,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전8권, V.1 기본문서철,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1, 등록번호: 2662.

<sup>34)</sup> The New York Times, 30 Jan. 1968.

인은 1968년 2월 1일, 2월 3일, 2월 5일, 3차례에 걸쳐 판문점에서 회 담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에 한국정부의 반응도 더욱 거세졌는데. 1968년 2월 1일 경부고속도로 기공식 연설에서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1 21사태 때 날 까부시겠다고 내려왔을 때는 너희들 비교적 군에 경계 령만 내리고 하더니 너희가 정작 이렇게 되니까 82명하고 나하고가 이 게 내가 그것만도 못하냐"고 미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 은 포터(William James Porter) 대사에게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 병력 을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며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은 북한 과 협상하지 말 것과 푸에블로호사건을 1.21 사건과 동등이 다룰 것을 존슨 행정부에 각서로 전달했다. 35)

미국 역시 한국의 반응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 무부 문서에는 "1 21사건과 이틀 후에 발생한 푸에블로호사건은 한국의 국가안보정책에 근간의 기초를 재고칠하게 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한국정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이고. 한국이 현재 까지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대사관.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과 접촉이 끊겨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한국의 국방정책 과 전략개념에 중대한 변화"가36)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는 미국 역시 한국이 동맹 간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데 특별한 관심 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관심이 북미협 상 진행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한국정부는 1968년 2월 3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에 대한 입 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이중 4번째와 6번째 내용은 한국의 입장을 잘 확인 할 수 있는데. "넷째. 이번 무장공비의 남파사건과 「프에블로」호

<sup>35)</sup> 문화방송시사교양국, 2001, 5-22쪽, 엄정식, 2013, 81쪽에서 재인용. 노창희는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면 서 한국 단독으로라도 북한에 대해 보복조치를 강행하겠다고 위협했다"고 기록하 고 있다. 노창희. 2007. 46쪽.

<sup>36) &</sup>quot;Subject: ROKG Strategic Intentions and Military Planning - a Politico-Military Assessment" Pueblo Crisis 1968, Vol.21, Airgrams-Misc, Box 37, National Security File, LBJL.

사건이 때를 같이하여 일어났으며 군사정전위원회에서는 의당 공비남 침문제를 주제로 하고 종전의 관례에 따라 한국군사대표 참석하에 진행되어야 함이 정상적인 것인데 비정상적으로 회의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하여 국민은 크게 불만이며 많은 의혹을 갖게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여섯째,... 집단무장공비가 서울에 침입한 사건에 크게 충격을 입은 한국국민은 이와 같은 중대사건의 재발방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보장책이 한미 간에 시급히 세워져야 할 마당에 오히려 판문점 회담에서까지 한국군사대표가 참석치 못하게 되는 것은 한미협조에 있어서 크게 유감된 일이라는 것이 국민의 공통적인 의사이다"37)라고 한국정부 불만입장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8년 2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는데, "휴전 후 가장 심각한 이 일련의 도발행위는 대한민국 내에 불안상태를 조성하여 그 경제발전을 전해하고 월남에 있어서의 한미 양국 공동의 군사행위에 견제를 가하려는 역도를 가진 것으로 보겠습니다만이와 같은 북괴의 도발행위는 동시에 한반도뿐 아니라 극동 및 태평양전역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서의 동문제 토의의 결과 아무런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본인은 한미 양국의 태평양 지역 방어 태세의 획기적인 재정비 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방위태세를 확고한 반석위에서 있게 함으로써만 월남에서 싸우는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를 유지할 수 있고... 본인은 이에 관련한 모든 문제와그 대책을 토의하기 위한 한미 간의 고위 정치 회담의 즉각적인 개최가유익하리라고 생각"한다는38) 내용이었다. 이 친서 역시 두 사건의 연계성을 통해 하나의 위협상황으로 인식하여. 미국과 한국의 공동의 위

<sup>37)</sup>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에 대한 우리의 입장, 1968년 2월 3일,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전8권, V.2 판 문점회담,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2, 등록번호: 2663.

<sup>38) &</sup>quot;대통령각하친서: 존슨 미대통령 앞 대통령 각하 친서(안)," 1968년 2월 3일, 「1.21 무장공비 침투 및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1968-1969, V.1 기본문서철」.

협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베트남전과 연계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기를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1968년 2월 4일에 외무장관이 주미대사에게 보낸 전보에 의하면 미 국에 대한 강도 높은 항의성 입장 표명과 미국 측 반응을 주시하는 모 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내용으로 "판문점 회담에 관한 우리 입장 에 대하여 대호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응이 어떠한지 조속한 미국 측 회 답이 기대된다. 판문점에서 푸에블로호사건 회의를 미국수석대표와 북 괴간의 단독 비밀회담이 있었음으로 아국국민에게 많은 의혹을 자아내 고 있음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이 늦어지는 경우. 국 민들의 의혹을 풀기위하여 우리정부는 동 각서에서 개진된 내용을 국 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입장이 될지도 모르니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미 국정부에 양해시키고 조속한 학교의 호의적 회답을 촉구하기 바란 다"39)고 하였다 또한 외무부 과 사는 2월 5일 주한미대사관 참사 관을 외무부로 불러 무장공비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빚어진 한미 간 의견대립을 조정했다. 이 자리에서 유국장은 "1. 판문점 회담을 공개할 것. 2. 한국대표를 참석토록 할 것 3. 무장공 비의 서울침입사건을 푸에블로호와 동등하게 또는 동등이상으로 취급 할 것"을 요청했다 40)

미국정부는 한국의 반대입장을 의식하는 듯 "미국의 북한과의 단독

<sup>39)</sup> 외무장관이 주미대사 및 주유엔대사에게 보낸 전보. WUS-0218. WUN-0211. 1968년 2월 4일, 3급비밀,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 전8권, V.2 판문점회담,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2, 등록번호: 2663.

<sup>40) &</sup>quot;金駐美大使, 美에 抗議覺書 傳達", 『東亞日報』(1968년 2월 6일). 윤하정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번 사태가 분명히 UN이 규정한 조직된 부대에 의한 무력공격 행 위(act & aggression)에 해당함에 비추어 이번 침투사태를 UN안보리에 상정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렇지만 안보리 심의에서는 어디까지나 두 사건을 동등하게 중 요사건으로 다루어 주도록 요구하여, 은근히 푸에블로호사건에 치중되지 않도록 경고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 윤하정, 2011, 42쪽.

비밀교섭으로 발단한 한미 간 긴장이 각서 혹은 특사파견과 같은 외교적 움직임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41) 한국은 "미국과 북한 간의 단독 비밀회담에 대한 한국민의 의혹은 한미 간 긴장으로 커지고 있는 단계에 있고, 청와대는 판문점 회담에 한국대표의참석과 동회담의 공개를 미국에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한국국회는 푸에블로호에 관한 북미 간 비밀회담에 국가적 의분(national indignation)을 표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음날 미국무부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한무장간첩단에 의한 청와대 습격문제를북한에 제기하였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가.한국관리들이 북괴의 폭력행위를 과소평가하여서는 안된다는 이해할수 있는 관심을 우리에게 표명하였다. 나. 우리는 두 가지 문제의 양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 판문점에서 제4차 회담은상금없었으나 우리는 그 회담에 제품을 것을 기대한다."42) 미국의 입장은 한국 측의 요구조건이나 불만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지속적으로 북미 간 회담을 이어가며 한국과 갈등관계는 심화되었다.

1968년 2월 6일 한국언론은 푸에블로호 승무원의 송환을 위한 미국의 판문점회담은 "매우 굴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어서 "러스크 국무장관은 북괴의 해적행위는 전쟁상태라고 결정했고, 핵무장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동해바다에 급거 출동시키지 않았던

<sup>41)</sup> 주미대사가 외무장관, 청와대, 총리, 국방, 공보, 중정, 합참에게 보낸 전보, USW-0234, 1968년 2월 5일,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 전8권, V.1 기본문서철,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1, 등록번호: 2662. 미국측 자료에 따르면 미국대사 포터는 1월 29일 북한에 협상 수락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박 대통령에게 북한-미국간의 비밀접촉을 통보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승인(approve)한 것으로 되어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전문(1968.1.29)〉Subject-Numeric Files 1967-1969 Pol 23-7 Kor S. 김정배. 2001. 197쪽에서 재인용.

<sup>42)</sup> 주미대사가 장관들(청와, 공보, 증정)에게 보낸 전보, USW-0247, 1968년 2월 6일,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전8권, V.1 기본문서철,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1, 등록 번호: 2662.

가 만일 미국이 지금에 와서 영해침범을 시인한다면 이 모든 발언과 조치는 모두 조작된 거짓말이고 실속없는 위협에 불과했다는 것을 미 국 스스로 전 세계에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판 문점회담은 "미국의 굴욕외교로 일관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 서 "다음 회담부터는 반드시 공개리에 진행되고 동시에 한국측대표의 참석리(參席裡)에 무장공비 서울 침입사건이 토론되어야 할 것이며, 북 괴측이 이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또한 앞으로 그렇듯 야만적인 범 죄행위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다음에야 푸호 승무원의 송 환을 실현하여야 할 것<sup>"43)</sup>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1968년 2월 7일의 여론에 공개된 채 진행된 판문점 회담은 원활하지 않았다. 언론은 "행여나 하고 7일의 판문점공개회의에 걸었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표현하며, 북한의 비서장 한주경(韓柱庚)은 회담 시작부터 "유엔 측이 금년 1월 이래 보무장지대에서 462건의 휴전협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하다. "40분 동안 터무니없는 넋두리만을 계속하며 정작 중요한 문제에 한마디도 언급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 였다. 이후 북한 측의 발언이 끝나자 유엔대표는 "한국 대통령을 살해 할 목적으로 남파된 무장공비사건을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 장하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으 나 곧 북한 측의 휴회제의에 동의하여. 공개회의는 50분 만에 끝났다. 회담의 핵심논의 사항인 푸에블로호사건에 대해서는 양 측 모두 한마 디 언급도 없이 끝난 상황이었다. 44)

미국은 푸에블로호사건에 대해서 대북직접협상을 전개하면서. 청와 대습격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에 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45) 사건처리과정에 있어서의 한국의 비중을 높이며, 북한에 의한 동아시 아의 안보위협. 즉 국제적 불안상황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푸에블로호

<sup>43) &</sup>quot;美國의 威神과 韓國의 覺悟", 『東亞日報』(1968년 2월 6일).

<sup>44) &</sup>quot;세계의 이목 실망시킨 판문점 공개회의", 『東亞日報』(1968년 2월 8일).

<sup>45)</sup> 한용섭. 2015. 282쪽.

사건과 1.21사태를 통합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은 1월 30일 북한과의 단독협상 가능성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북미협상이 추진되었다. 미국의 대북전략 전환에 따라 적대국에 유화적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 나타나자 방기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포함한 정부수준의 항의를 지속했다. 동시에 한국정부의 단독 행동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북미단독 협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 3. 미국의 북미협상 추진과 한국의 대응

한국정부는 푸에블로호사전의 청완대 급격사건과의 연계적 대응과 북미회담 반대가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푸에블로호사건의 유엔안 전보장이사회 회부를 위한 의교활동과 6.25전쟁 참전16개국의 공동선 언을 재확인하는 대응전략을 추진했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엔터프라이 즈호에 의한 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만족할 만 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본 사건의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가능성은 높아 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1968년 1월 25일 미국유엔대사는 안전보장이사 회의 의장에게 이사회의 긴급소집을 요청하여 26일 개최되었다. 한국 은 각국 주재대사관에 신문, TV, 라디오, 통신 등 모든 미디어를 활용 하여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는 PR활동을 적극강화하기 바란다"는 지시 를 하였다. 46) 1월 2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영국은 북한의 행동이 평화와 유엔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고, 푸에블로호와 승무원의 석 방을 북한에 촉구하였다. 헝가리는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정책을 비난

<sup>46)</sup> 외무장관이 24개국 대사에게 보낸 전보, WJA-01234, 1968년 1월 26일,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 전8권, V.1 기본무서철,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1, 등록번호: 2662.

하고 미국이 군사외교를 촉구하는 조치를 안보리가 취할 것을 주장했 다 47) 1월 29일 워싱턴의 한국특파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북괴의 대남침투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했지 만 회원국의 발언은 주로 푸에블로호에 치중되었고. 남침은 휴전위반 사건이며, 세계평화위협으로서는 푸에블로호 납북이 더 큰 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보도했다 48)

푸에블로호사건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문제가 수월하지 않은 상 황에서 한국정부는 "애초에 한국정부가 안보리에 푸에블로호사건을 회 부하려 하였던 것은 첫째로 청와대 침입사건과 푸에블로호사건의 안보 리 논의에 있어서 북한이 요청하는 것을 미국이 거절할 방도가 없었다 는 점이었고, 둘째로 북한을 초청하는 경우 남한도 적극적으로 참석하 여 북한의 도발적 침략행위를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는 이유로 미국정부가 적극 권유하였고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안 보토의의 별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극히 본의는 아니었지만 이 에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고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었다고 밝혔 다 49)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9일 포터 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 국 대표단의 참석을 단념하도록 미국측 의사를 전달한데 대하여 한국 정부는 "우리는 우리국민의 분격을 유엔에서 내보일 기회마저 가지지 못하게 하는 미정부의 태도는 전후모순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음" 이라 하였다. 또한 "고조된 우리 국민 여론과 국회의 강경한 태도에 대 해 우리정부로서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미국정부가 마련하여줄 책 임이 있는 것"이라는 자세를 취하였다. 다만, 한국정부는 "북한의 안보 요청저지를 미국이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의의

<sup>47)</sup> 外務部 情報文化局, 1968, 63-64쪽.

<sup>48) 『</sup>東亞日報』(1968년 1월 29일).

<sup>49)</sup> 외무장관이 주유엔대사 및 주미대사에게 보낸 전보. UNW-0160. 1968년 1월 30일. 3급비밀,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 전8권, V.1 기본문서철,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1, 등록 번호: 2662.

안보리 참가의 의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만일 한국과 북한이 불참한 가운데 제출될 안보리 결의안 에는 한국의 주장인 규탄(condemnation), 징계조치(punitive measures),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확약(guarantee for prevention of recurrence of similar north Korean aggressive acts against ROK)의 3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교섭할 것을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50)

1968년 1월 31일 한국 언론은 존슨 미 대통령이 한국의 긴박사태에 대비하여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증강을 구상중이라 하며, 한국정부에 미국이 푸에블로호 석방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사태에 전반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유엔 내외의 외교노력에 있어서도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음을 기회 마다 강조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51) 이러한 상황에서 외무부 구미국장은 푸에블로호 기울 개기로 한미동맹체제를 활성화시 키고. 공동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지 위하여 「북한특공대 침입에 처한 대미 교섭요강이란 대미 교섭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이 계획안은 진필 식 외무부차관의 검토 후 외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추진되었 다. 내용으로는 "1) 대한 군원을 시급히 최대한 증가하는 방향에서 한 국군의 무기장비 증강과 현대화. 2) 자체 방위능력 강화를 위하여 병기 와 장비의 자체생산 공장과 시설의 지원, 3) 증가가 예상되는 북한 무 장간첩 및 게릴라 공세에 대비하여 대간첩 작전을 위한 장비지원 및 향 토 예비군 무장지원(추후제안), 4) 한미공동방위를 위한 체제의 확립과 한미 간의 상시적인 기구 설치. 5) 이상의 교섭을 위한 미국 대통령 특 사 파한 제의"였다. 이 건의가 있은 후 사이러스 밴스(Cyrus Roberts Vance) 특사의 한국 파견이 이루어졌다.52)

<sup>50)</sup> 같은 문서.

<sup>51) 『</sup>東亞日報』(1968년 2월 1일).

<sup>52)</sup> 윤하정(2011), pp.39-41. 또한 특사 파견에 있어서 "박 대통령은 포터 대사 자신이 훌륭히 존슨 대통령을 대표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특사가 필요한지 되물었다"

특사 파격을 통한 한미 간 고위급 회담을 추진한 미국정부는 1968년 2월 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군원증가를 언급하였다. 미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 추가 군사원조를 증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조약의무를 명심하고 있다"라는 존 슨 대통령의 언급을 인용했다.53) 2월 8일 존슨 대통령이 발표할 원고 에는 한국에 대하여 1억 달러 특별군사원조가 포함될 것이고 이는 예 년 계획 배정되는 통상 군사원조에 추가하여 새롭게 특별 배정되는 예 산임은 미국무부를 통해 확인했다 54) 2월 11일 밴스 특사가 방한하여 한국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대처하기 위해 한국 군과 주한미군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관한 박정희 대통령을 비 롯한 정부당국자들과 회담했다.55)

한국 외무부는 밴스 특사의 임무를 1) 최근 일련의 긴장 상태 처리과 정에서 빚어진 한미 간 이견과 조성을 조정하고, 2) 무장 공비 등 한국 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에 대처하는 공동방안을 마 련하자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효 조건이 조약의 체결당시와는 현격하게 달라진 북한의 도발양상에 대처 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운영이 현실화 되어야 함을 갓조하기로 입장

이에 대사는 "그렇더라도 이런 특사의 파견은 유용할 것이라고 거듭 권하였다"고 윤하정은 기록한다. 특사문제 관련 한국정부의 구상과 미대사관의 입장이 일치되 어 나타났다고 파악할 수 있다. 윤하정, 2011, 46-47쪽.

<sup>53)</sup> 주미대사가 외무장관 및 국방장관(합참)에게 보낸 전보, USW-0259, 1968년 2월 8일.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 전8권, V.2 판문점회담,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2, 등록 번호: 2663.

<sup>54)</sup> 주미대사가 장관들(외무, 청와, 국방방관, 공보, 중정)에게 보낸 전보, USW-0267, 1968년 2월 8일,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 사건, 1968-1969, 전8권, V.1 기본무서철,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1. 등록번호: 2662.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당시 북한에 대한 보복을 염두하 고 있던 한국정부의 우려를 고려하여 1억 달러 특별군사워조와 추가적 군사지워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은 홍석률. 2001; 2009. 윤민재. 2010을 참고.

<sup>55) 『</sup>東亞日報』(1970년 9월 22일).

을 모았다.<sup>56)</sup> 또한 "밴스 특사의 파한은 무장공비의 남침과 푸에블로 호사건으로 빚어진 한미 간의 불협화음을 찾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것을 완전정리하려는 미 대통령과 행정부의 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sup>57)</sup>으로 파악했다.

밴스 특사의 방한 이전 미국무부의 특사임무에 대한 특별지시사항 (Special Instruction)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만약 푸에블로호와 승무원들이 빠른 시기에 송환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미국과 북한 간 아주 심각한 문제(a very serious matter)가 될 뿐 아니라 미국의 선거와 관련된 정치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존슨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처칠 수상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방식을 존슨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함께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는 메시지가 한국에 전해지기를 일도했다. 특히 방한에서 중요한 사항은 미국의 특사가 한국의 최고성객실정자에게 "우리는 푸에블로호와 승무원들의 송환에 있어서 한국을 방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전보다 더 강력히 한국에 주둔할 것이다"58)[저자강조]라는 한국에 대한 방기는 없다는 명확한 미국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다.

북미회담의 추진, 미국의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반대는 한국정부의 방기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시켰고, 한국정부의 구 체적 자구전략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의 방기 두려움의 확대에 따라 미국은 한미 간 불협화음을 조정하고.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특

<sup>56)</sup> 즉, 무장공비가 남침할 경우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적절하고 신속한 응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위조약 2조 협의의 정신에 따라 정기 적인 각료급 군사협의기구가 있어야겠다는 데 한국 측 요구가 집약돼있다.

<sup>57) &</sup>quot;異見조정의 구심점, 방위강화", 『東亞日報』(1968년 2월 13일).

<sup>58) &</sup>quot;Mission of Cyrus R. Vance: Special Instruction," 2 Feb. 1968, Pueblo Crisis 1968, Vol.3, Day-by-Day Documents Part11, Box 29, National Security File, LBJL. 원모은 "We are not going to abandon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 USS Pueblo and its crew are returned, but we will remain in Korea in even stronger force that before."

사파격을 이끌어냈다. 미국은 푸에블로호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방기 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국에 전달하고자 했다.

#### 4 한미공동성명 이후 한국의 두려움 지속과 해소

밴스 특사는 1968년 2월 12일에 방한했다. 최규하 외무장관과 밴스 특사의 단독 양자회담이 철야로 진행되며 공동성명안도 마무리 되었다. 당시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은 1억 달러의 추가군사원조이며, 그 결정 사항은 1968년 2월의 한미회의의사록(ROK, US Agreed Minutes)에 기록되었다. 59) 2월 12일 밴스와 박정희 대통령의 접견에서 박정희 대 통령은 "보복하지 않으면 북은 더 대단해지고. 판문점 회담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좋으나 시한 내 타결이 양되면 해군력, 공군력으로 보복해 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배스 특사는 가접침략에는 신중히 대처해 아하며 보복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며 현격한 견해의 차이를 드 러냈다 정일권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배스는 한국측의 보복관련 부 분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저촉됨을 주장하며 1억 달러 추가군사원조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60) 2월 14일 밴스 특사와 포터 대사는 한국의 외무장관과 합의를 도출을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러너는 당시의 상황을 "10시간의 고통스러운(torturous) 회담에서 사

<sup>59)</sup> 윤하정, 2011, 49쪽, 박준규(朴浚圭) 의원은 "미국의 백악관이 쿠바 유격대의 기습 을 받았다면 미국민의 감정은 어떠했겠느냐"고 무장공비 남침에 대한 미측의 태도 를 은근히 꼬집었다는 것이며 "무장공비남침 때는 조용하다가 푸에블로호 납북사 건이 나자 주하미군이 갑자기 비상경계에 들어가 것을 한국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 각하겠는가"하고 가시 돋힌 반문을 했을 때 밴스 특사는 얼굴을 붉히기까지 했다 는 일화도 있다. 윤하정, 2011, 49쪽.

<sup>60)</sup>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Vance, Cyrus R. 미국 대통령특사 1.21사태관련 방한, 1968.2.12.-15, 전2권 V.1 기본문서철. 1968. MF번호: C21-1.

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호 합의한 다는 내용의 성명을 작성하였다. 미국은 이 협상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한국의 방위강화를 위해 특별 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취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었다고 묘사했다.61)

이러한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다음날인 1968년 2월 15일 박정희 대통령과 밴스 특사는 "격증된 침략행위와 폭력행위의 결과 및 최근에 와서 대통령관저에 대한 습격기도 및 공해상에서의 푸에블로호 불법 납치사건 등으로 야기된 중대한 사태에 관해 충분히 고견"을 교환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미국의 일억 달러 추가 군사원조를 미국의회에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했다. 또한 대한민국국군의 계속적 현대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한국의 방위능력을 더욱 증강하기 위해 재향군인에 대한 경무기 공급문제에 관해서도 토의했다. 62) 또한 밴스 특사는 최대한 외무장관 앞 비밀서한을 통해서 팬텀기 제공, 공군기지 건설, 수년간의 군원수준 유지 등을 존슨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63) 한미공동성명의 원문의 부분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박 대통령과 밴스 특사는 과거 14개월 동안 共産 北傀가 休戰 協定을 違反함으로써 일어난 격증된 侵略 행위와 폭력 행위 및 최근에 와서 대통령 관저에 대한 襲擊 企圖 및 공해상에서 美함선 푸에블로호 불법 拉致사건 등의 결과로 야기된 중대한 사태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가 모든 文明諸國民에 의하여 糾彈되어야 한다는 데 意見을 같이하였다...(중략)...한미양국은 國際聯合 憲章의 원칙에 의하여 이들 문제를 평화적으로 解決하

<sup>61)</sup> Mitchell B. Lerner. *The Pueblo Incident: A Spy 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y*. Lawrence,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2. pp.134–135.

<sup>62) &</sup>quot;共同聲明全文", 『東亞日報』(1968년 2월 15일).

<sup>63)</sup>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Vance, Cyrus R. 미국 대통령특사 1.21사태관련 방한, 1968.2.12.-15」 전2권 V.1 기본문서철. 1968. MF번호: C21-1.

려는 그들 양국의 진지한 소망을 재확인하였으나 만약 이런 侵略이 계속된다면 양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相互防衛條約 하에서 취하여야 할 행동을 즉시 결정할 것이라는 데 합의하였다. (후략)

3. 양국 정부는 相互 利益과 공동 관심사인 방위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大韓民國 國际部와 美合衆國 國際府 閣僚級 年例 會議号 개최항 것에 합의하였다

4. 박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미국의 1億弗 추가 軍事 援助를 미국에 제의함에 있어 조속한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謝意를 표명하였다. 박 대통령과 맨스 특사는 대한민국 국군의 계속적인 現代化의 必要性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방위 능력을 더욱 증강하기 위하여 한국 在鄕軍人에 대한 經武器 공급 문제에 관하여도 토의하였다 "64)

1968년 2월 15일에 한미공동성명서 발표 이후 한국은 북미 간 협상 에 대해 좀 더 완화된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2월 17일부터 4일 동안 열렸던 한 회사과 한미공동성명에 대해서 "공 비의 침입사건과 푸에블로호의 남자 건이 공동의 적인 북괴에 의한 휴전협정위반사건이므로 두 사건은 관련이 있고. 두 나라의 공동관심 사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65)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판문점 비공개회의에 대해서는 "미국대표와 북괴대표가 회의하는 것이라고 해 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간의 비공개회의라 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점에 관하여서도 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 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태를 보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사태를 우리와 같이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66)이라고 발표했다.

<sup>64) &</sup>quot;韓美共同聲明, 1.21사태 收拾 방안" 1968년 2월 15일. 玄石崔圭夏大統領八旬記 念文獻集發刊委員會. 『玄石片貌 : 玄石 崔丰夏 大統領 八旬 記念文獻集, 서울: 玄石崔圭夏大統領八旬記念文獻集發刊委員會. 1998.

<sup>65) 『</sup>東亞日報』(1968년 2월 17일).

<sup>66) 2</sup>월 15일자 한미 공동 성명서에 관한 외무부 장관의 해설. 1968년 2월 17일. 외 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 전 8권. V.8 자료집 II.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8. 등록번호: 2669.

밴스 특사는 한미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 백악관에서 대통령과의 고위회담에서 한미회담이 "대단히 유익"했다고 전했다. 최규하 대통령의 정무비서관을 지낸 이재원의 증언에 따르면 "밴스 특사하고 회담결과 발표된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예비군 무장, 두 번째는 국군현대화 그러니까 공군력 증강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세 번째가 한미연례안보회의 개최라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국 방부장관 회담 또 외무부장관 회담 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한미 연례안보회의를 하는 겁니다. 협상에서 성공을 거둔 것"67)이라고 회고했다.

하지만 한미회담에 대해 미국정부와 언론의 평가는 달랐다. Washington Post는 "한미고위회담은 의문이 풀리지 않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명백한 한국인의 불만을 남긴 채 종료하였다. 회담결과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한가지 이미 분명한 경향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상실하였고, 그들은 없으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것이다. 한국인이 자기의존에 치중하고 있는 바 미국이 한국에서 그의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정도를 높이려고 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68) 독일 Frankfurter Allgermeine지는 "한

<sup>67)</sup> 이재원 구술, 조수현 채록, "이재원[최규하 대통령 정무비서관]," 『한국대통령 통치구술 사료집 1, 최규하 대통령』(서울: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2012), 122쪽. 이재원은 "타워호텔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두 분이 협상을 했습니다...(중략)...최대 통령께서는 밴스 특사하고 밤샘 협상을 하고 자기도 사표를 써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의사표시죠. 그리고 또하나는 밴스에게도 사표를 써서 가지고 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한테 하나의 뭐라고 할까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그런 표시도 되겠지요." 이재원, 2012, 122쪽. 또한 최규하 외무부장관의 평가에 대해서는 "밴스가 회고록에서 자기는 최규하라는 사람한테 세 가지 점에서 놀랐다. 첫째는 그 철저한 애국심, 두 번째는 그 뚝심, 세 번째는 건강, 그러니까 밤새 그렇게 잠을 한숨도 안자면서 끝까지 하면서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놀랐다고 회고했답니다"라고 기록했다. 이재원, 2012, 122~123쪽. 윤하정의 기록에서는 "최장관은 꾸준히 기자회 건과 국회 참석 등 활동을 통하여 사태의 중대성과 정부대책을 설명하였다"고 하고 있다. 윤하정, 2011, 43쪽.

<sup>68)</sup> Washington Post, 19, Feb. 1968. 또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는데 "현재

국. 군사적인 독립을 희망. 밴스 특사와의 교섭난항"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에는 "최근 양국 간의 긴장상태로 인하여 미 국에 대한 한국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약화되고 이에 따라 한국 측 요망 이 너무나 광범위한 것임으로 밴스 특사의 방문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독자적인 군사체계를 향상함과 아울러 미국과 동맹관계를 개정하고자 원하고 있다"69)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는 동맹협정의 명시성70)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효 조건을 구체화함으로서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미국의 자동대응으로 방 기의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실제로 미국이 파무점 회담에서 안이한 타결에 도달할 것에 불안을 느낀 한국 정부는 밴스 특사 방한과 한미공동선언 이후에도 북미 간 지속적 접근에 따라 방기의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한 국정부는 푸에블로호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회부와 함께 국제사회에

까지 한국은 민간 공업발전에 중점을 두고 군장비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여 왔 는데 최근 무장공비 남침과 후에블로호 납북사건이 있은 후 2월 초부터 한국정부 는 독자적인 군사공업건설을 주장하여 왔으며 우선 금념말까지 소형무기 및 탄약 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장 건설을 원하고 있는 바 이미 미국의 모회사와 공장건 설에 관한 교섭이 개시되었다는 말이있다"고 전했다. 주독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 낸전보. GEW-0272. 1968년 2월 17일.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 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 전8권. V.4 홍보활동 및 일본의 반응.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4, 등록번호: 2664.

<sup>69)</sup> 주독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보. GEW-0272. 1968년 2월 17일. 외무부 미주 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전8권. V.4 홍보활동 및 일본의 반응,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4, 등록번호: 266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까지의 방위조약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산침략이 있는 경우 동의를 얻어서만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 는데 한국은 NATO와 같이 공산측의 모든 도발행위에 대해 즉각 그리고 자동적으로 대응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방위조약을 개정할 것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sup>70)</sup> 동맹딜레마에서 국가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은 첫째, 동맹국 사이의 의존도, 둘 째. 상호 방어에 대한 전략적 이익의 정도. 셋째. 동맹협정의 명시성. 넷째. 적에 대항하는 것에 대한 이익의 공유 정도로 구분된다. 신욱희, 『순응과 저항을 넘어 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대미정책』(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19쪽, 한 미상호방위조약의 조건에 대한 재고 요청은 셋째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맹 협정의 명시성이 모호할수록 방기의 두려움은 커지게 된다.

서 한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로 한국공동방위에 대한 6.25전쟁 참전 16개국의 결의 및 한국지지의 재확인을 시도하였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미국무부와 협의한 결과 "한국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바이나 참전 16개국 중 몇 개 국가는 한국정부의 이와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향이 농후함에 비추어 공동방위에 대한 결의와 재확인 요청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71) 하지만 한국정부는 1968년 2월 20일 미국무부와 재차 협의하고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으나,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다른 15개국이 찬성하면 공동으로 선언함이 최선일 것이나 만약 16개국 중 몇 나라가 불참하거나 선언의 표현이 약화되는 경우에는 신중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72)는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확인했다.

6.25전쟁 참전국의 한국 지지성명에 대한 문제는 이미 사건 발생초 기부터 논의되고 있었는데, 1968년 1월 30일 주터키한국대사와 터키외 무부장관 면담에서 논의한 내용의 보고에 따르면 "가. 우방한국의 입장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으나 현사점으로 보아 공동결의로서 경고책을 취하게 되면 그 결과가 역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성시키는 호전적 인상을 줄 우려성을 고려치 않을 수 없을 것임, 나. 1953년 휴전당시와 비교해서 현재의 국제정세는 상당히 변화하였으며 공동결의안을 다시 채

<sup>71)</sup> 주미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보, USW-0263, 1968년 2월 10일, 3급 비밀,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 전 8권, V.6 16개국결의안,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6, 등록번호: 2666.; 윤하정, 2011, 52-56쪽.

<sup>72)</sup> 같은 문서집, USW-02178, 1968년 2월 21일. 이에 문서에 밝히고 있는 각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영국: 공동선언에 명시된 commitment는 상금도 유효. 프랑스: 심심한 동정을 표하지만 공동선언 재확인 조치에는 반응 없음. 필리핀: 공동선언사항 현재도 유효. 호주: 16개국 전원의 합의를 얻기 어려울 것임, 터키: 긴박하지는 않으나 최대의 협조를 제공할 것임. 캐나다: 단동성명은 곤란하나 공동조치는 고려하겠음. 태국: 한국입장 지지하나 공동성명재확인은 실현에 난점 있음. 뉴질랜드: 적극 협조할 것임. 벨기에: 구체적인 commitment를 하는 것이 아니면지지할 것임. 에디오피아: 공비사건을 현지 신문기관에서 취급한 일 없음. 콜롬비아: 구체적 반응 없음. 이외 5개 국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

택할 때는 수개국은 이탈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오히려 북괴 및 공산 진영에 대하여 한국 및 서방진영의 약점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며 상대 방을 고무시킬 수 있는 결과가 될 것"73)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참전 16개국 중 위상이 높았던 터키의 부정적 태 도에도 불구하고 16개국 공동선언 재확인을 위한 외교활동을 지속적으 로 진행한다. 1968년 3월 12일 전상진 공사는 브라운(W. G. Brown) 주미대사를 방문하였고. 대사는 "참전 16개국 공동선언 재확인 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지지획득은 불가능하며 기타국가의 태도도 미온적 임으로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태도를 표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공사는 "대통령각하의 친서를 관계국에 전달 한 현 단계에 있어서는 공동선언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인바 특히 미국의 확고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을 강조했다. <sup>74)</sup> 한국정부는 3월 23일 1.21공비남침사건'과 '푸에블로 호납북사건'이 발생한 직후 참정 16개국 주재공관에 훈령. 공동선언 발 표에 관한 교섭을 해왔다고 밝혔다. 공관으로부터의 보고로 보아 참전 16개국의 반응은 극히 호의적이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75)

Washington Post지는 3월 24일 북한이 "미국에 굴욕을 안겨주고 미국이 "종이호랑이"라는 것을 그들 인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사 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하며, 북한은 "푸에블로호 납북 및 무장공비남침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의 분열을 조

<sup>73)</sup> 주터키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보. TUW-0206. 1968년 2월 1일. 3급 비밀.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 전8권, V.6 16개국결의안,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6, 등록번호: 2666.

<sup>74)</sup> 같은 문서집, USW-0372, 1968년 3월 12일. 러스크 장관은 "16개국 공동성명을 다시 이끌어내는 데에는 프랑스 등 일부 미온적인 국가들의 태도가 염려"된다고 전했다. 결국 미국무부는 4월 1일자 비맛록을 통하여 1953년 결의에 대한 '전원 일치한 무조건 재확인'(Unanimous and unqualified reconfirmation)은 불가능 하다는 회답을 하여왔다. 북한 침입은 6.25전쟁 같은 전면적 침공이 아니며, 따라 서 재확인하는 성명서에는 서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윤하정, 2011, 46쪽,

<sup>75) &</sup>quot;參戰國 宣言을 推進", 『京鄉新聞」(1968년 3월 25일).

장"시키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76) 이 같은 한미관계의 불안한 요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국방부 대변인은 하원외교위원회에서 한국사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최근의 북한의 도발과 침략위협으로 인하여 한국군의 전투태세의 계속적인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고 말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한국군의 현대화가 지연되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동북아시아에 할당되는 약 2억 1천 9백만 달러 중 대부분이 한국에 할당되고 있음을 언명하고 존슨 대통령이 요청한 특별군원 1억 달러가 추가되어 한국군의 현대화와 전투력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77)

참전 16개국의 한국지지 재확인 문제는 6.25전쟁 시기와 달라진 국 제환경에서 16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정부에 있어서 결의안 재확인 문제는 명목상의 상징적 행위가 아니었으며, 한국정부는 각국 외교부와 협의하며 해당국의 입장을 확인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각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했고,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추진해나갔다. 그 결과 1968년 4월 18일 박정희와 존슨 대통령이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78) 5월 27~28일 제1차 한미국방장관회담을 개최되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는 1.21사태와 푸에블로호사건의 후속조치에서 한국정부의 지속적 요청으로 협의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기존에 미국주도의 한국정책을 결정 통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었다. 79)

<sup>76) &</sup>quot;韓美間 分裂을 助長, WP가 본 北傀 속셈", 『京鄉新聞』(1968년 3월 25일).

<sup>77)</sup> 주미대리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보, USW-03191, 1968년 3월 28일,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전8권, V.2 판문점회담, 1969, 분류번호: 729.55 1968-69 V.2, 등록번호: 2663.

<sup>78) &</sup>quot;韓國防衛公約 再確認", 『京鄉新聞』(1968년 4월 18일).

<sup>79)</sup> 서규화(2016), 162쪽. 제1-3차 회의까지는 그 명칭이 '한미 국방장관회담'이었으

### 5 결 론

이 연구는 푸에블로호사건 초기 미국에 의한 방기의 두려움을 극복 하기 위한 한국의 대미정책의 특징을 1차사료를 통해 분석했다. 동맹의 정치적 딜레마와 관련해서 한국정부는 동맹국(미국)에 의한 약한 지원 과 공약 그리고 동맹국이 적대국(북한)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확인하 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불안은 방기의 두려움으로 표출됐다. 한국정 부는 푸에블로호사건을 북한에 의한 동아시아의 안보위협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해 푸에블로호사건과 1.21사태를 통합하여 미국과 공동 대응하는 전략을 시도했다. 하지만 미국의 북미협상 추진 은 한국정부에게 적대국에 유화적 입장을 취하며 갈등해결의 의지에 의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동맹국간 의원과 기대를 불안하게 하였다. 이 에 북미협상에 대한 즉각적 반대인장과 북한에 대한 규탄, 징계, 재발 방지 확약이라는 한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포함된 안보리결의안을 통과 를 추진했다. 한국의 대응전략은 미국의 특사파견과 "한국을 방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미국의 입장 조율. 1억 달러 군사원조 발표 등을 이끌 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추가 군사원조 조치와 무기 공급을 약속하는 공동성명과 1.21사태와 푸에블로호사건이 연계 사건인 점. 그리고 북 · 미협상이 국가 간 협상이 아닌 정전위원회 수석대표간 비공개회의라는 점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미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안이한 북미협상 타결'에 대한 우려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효조건이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방기의 두려움이 지속됐다. 한국은 방기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 해 6.25전쟁 참전16개국의 한국지지 재결의를 시도하였다. 주요 참전 국들은 부정적 입장을 내보였으나 한국정부는 각국 정상에 서한을 보

나 197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부터 '한미 안보협의회의'라고 칭하였다. 서규화. 2016. 162쪽.

내는 등 적극적 외교활동을 추진한 결과 미국의 한국방위 재확인과 한 미안보협의회의로 연례회를 이끌었다. 푸에블로호사건 발생 후 한국정부는 신속한 외교적 대응과 독자적 외교 활로를 모색하며 한미동맹간 방기의 두려움 극복을 시도했다.

[원고투고일: 2017, 10, 9, 심사수정일: 2017, 11, 23, 게재확정일: 2017, 11, 23.]

주제어 : 한국외교사, 푸에블로호사건, 1.21사태, 북미협상, 방기의 두려움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1968-1969, 전8권, V.1-8, 1969, 분류번호: 729 55 1968-69 V.1. 등록번호: 2661-2668
-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Vance. Cyrus R. 미국 대통령특사 1.21 사태관련 방한, 1968.2.12-15, 전2권 V.1 기본문서철, 1968. MF번호: C21-1
- 外務部 情報文化局 『北傀의 武裝共匪 南侵 및 美艦 '平에블로'號 拉 致事件』、서울: 外務部 情報文化局、1968
- 총무처 의정국 의정과, "北塊가 南城한 武裝共匪事件과 푸에블로호 拉致事件에 대한 我是政府의 文的 措置事項。" 1968년 1월 30일 관리번호: BA0084530
- Pueblo Crisis 1968, vol. 3, Documents Part 1, Box 29, National Security File. LBJL
- Pueblo Crisis 1968, Vol. 3, Day-by-Day Documents Part11, Box 29, National Security File, LBJL
- Pueblo Crisis 1968, Vol. 21, Airgrams-Misc, Box 37, National Security File, LBJL
- Central Files 1967–69.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G 59. POL 33-6 KOR N-US
- 'Korea, Pueblo Crisis,' FRUS 1964-1968, Volume XXIX, Korea

### 2. 준1차 자료

- 공로명,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납치", 『나의 외교노트』, 서울: 도서 출판 기파랑, 2014
- 노창희. 『어느 외교관의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2007
- 배삼진, "[한미동맹 60주년] (3) 한미동맹의 토대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연합뉴스』(2013년 10월 1일).
- 윤하정, "북한 특공대 침공과 푸에블로호 피랍", 『어느 외교관의 비 망록』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2011
- 이재원 구술, 조수현 채록, "이재원[최규하 대통령 정무비서관]", 『한국대통령 통치구술 사료집 1, 최규하대통령』, 서울: 연세 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2012
- 玄石崔圭夏大統領八旬記念文獻集發利委員會,『玄石片貌:玄石 崔圭夏大統領 八旬 記念文獻集》(書:玄石崔圭夏大統領八旬記念文獻集發刊委員會,1998
- "북괴, 미함 푸에블로호 납북", 『東亞日報』(1968년 1월 24일)
- "北傀挑發, 緊張의 內幕", 『毎日經濟新聞』(1968년 1월 25일)
- "北佛, 警戒態勢令", 『東亞日報』(1968년 1월 26일)
- "딘 러스크 미국무장관...", 『東亞日報』(1968년 1월 25일)
- "美, 北傀와 直接協商 모색", 『東亞日報」(1968년 1월 30일)
- "友邦美國에 대한 忠言", 『東亞日報』(1968년 1월 31일)
- "北傀, 유엔 招請 반대", 『東亞日報』(1968년 1월 31일)
- "美國에 國軍現代化 촉구", 『東亞日報』(1968년 1월 29일)
- "美國의 威神과 韓國의 覺悟", 『東亞日報』(1968년 2월 6일)
- "金駐美大使, 美에 抗議覺書 傳達", 『東亞日報』(1968년 2월 6일)
- "세계의 이목 실망시킨 판문점 공개회의",『東亞日報(1968년 2월 8일)

- "異見조정의 구심점, 방위강화", 『東亞日報』(1968년 2월 13일)
- "가시돋힌 反問에 얼굴 붉혀". 『東亞日報』(1968년 2월 14일)
- "共同聲明全文". 『東亞日報』(1968년 2월 15일)
- "參戰國 宣言을 推進". 『京總新聞』(1968년 3월 25일)
- "韓美間 分裂을 助長、WP가 본 北傀 속셈"、『京網新聞』(1968년 3월 25일)
- "韓・美共同防衛條約補完을 위한 政府의 努力"。『京郷新聞』(1968년) 3월 28일)
- "韓國防衛公約 再確認"、『京鄉新聞』(1968년 4월 18일)

The New York Times 30 Jan 1968.

Washington Post. 28. Jan. 1968; 19. Feb. 1968.

### 3 2차 자료

- 김정배. "북한, 미국, 그리고 냉전체제: 1968년 Pueblo호 사건을 중심 으로". 『미국사연구』제27집(2008):115-144. http://uci.or.kr/G704-000538.2008.27..004
- 박용수. "1990년대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푸에블로호 사건'과 비교해 본 제1.2차 '북핵 위기'이 특징", 『국제정치논총』 제47집 2호(2007):51-74 http://uci.or.kr/G704-000367.2007.47.2.004
- 서규화.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수립과정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6
- 신욱희. "기회에서 교착상태로: 데탕트 시기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국제 정치."『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6집 2호(2005):253-286. http://uci.or.kr/G704-001329.2005.26.2.012
- 신욱희. 『순응과 저항을 넘어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대미정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양성철, 문정인. "한미 안보관계의 재조명: '프에블로호' 사건의 위기 및 동맹관리사례를 중심으로", 안병준 편, 『한국과 미국 1, 정 치·안보 관계』,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 엄정식. "푸에블로호 사건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접근", 『軍史』86호 (2013):71-92, http://uci.or.kr/G704-001528,2013..86,005
- 윤민재. "푸에블로호 사건과 한미관계", 『사회와 역사』제85집(2010): 239-270, http://uci.or.kr/G704-000024,2010..85.008
- 이상현, "한미동맹과 전략적 유연성- 쟁점과 전망", 『국제정치논총』제 46집 4호(2006):155-178, http://uci.or.kr/G704-000367.2006.46.4.011
- 이수형, "동맹의 안보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1998):21-38
- 이신재, "북한의 기억의 정치와 푸에블로 호명", 『현대북한연구』제 17권 제1호(2014):156-196, http://uci.or.kr/G704-SER000003282,2014.17.1.004
- 이신재, 『푸에블로호 사건과 북한』, 서울: 선인, 2015
- 임재학,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중국 요인", 『중소연구』제36권 제3호 (2012):131-170, http://uci.or.kr/G704-000471.2012.36.3.007
- 정성윤, "1차 사료를 통한 미북간 협상과정 분석: 1968년 북한의 푸에 블로호 나포사건을 중심으로", 『전략연구』제43호(2008):164-203, http://uci.or.kr/G704-001467,2008,15,43,001
- 정성윤, "미국의 대북 무력강압 실패에 대한 연구: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4집 2호(2014):145-178, http://uci.or.kr/G704-000367.2014.54.2.006

- 한용섭 "우리의 튼튼한 국방정책" 남성욱 외 지음 『한국의 외교안보 와 통일 70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홍석률,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과 남한 · 북한 · 미국의 삼각관계". 『한국사연구』113집(2001):179-208
- Bucher, Lloyd M. Bucher: My Story (Garden City, N.Y.: Doubleday, 1970)
- Gallery, Daniel V., The Pueblo incident (Garden City, N.Y.: Doubleday, 1970)
- Lerner. Mitchell B. The Pueblo Incident: A Spy 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y (Lawrence,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2)
- Holsti, Ole R., P. Terrence Hopmann and John D. Sullivan, Unity and Disintegration in International Alliance: Comparative Studie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3)
- Cha. Victor D.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 Snyder, Glenn H. "Alliance, Balance, and Sta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5–1 (Winter, 1991)
- Snyder, Glenn H. "Alliance Formation," Alliance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 (July 1984)

Abstract>

# The ROK Government's Counter Strategy to the US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1968 Pueblo Incident

- Focused on the Fear of Abandonment -

Yang, Joon-seok

Using primary data,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responding strategies adopted by the ROK government to overcome the fear of abandonment by the United States at the early stages of the Pueblo incident. The ROK government sought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by integrating with the 1.21 incident to make the Pueblo Incident aware of U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t reflected the security threat to East Asia by North Korea, However, the VS pursued direc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hich sparked a fear of abandonment in the ROK government. As a result, the latter requested a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at included objections to the North Korea-US negotiation, as well as condemnation, disciplining, and the prevention measures of recurrence against North Korea. In response, the US dispatched special envoys to ROK to announce that they would not abandon the country and would continue to provide military ai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s fear of abandonment persisted due to concerns over the easy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US negotiation and the need to revise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Through this, the ROK government attempted to confirm the South Korean support of the sixteen nations involved in the Korean War. As a result, the US reaffirmed its defense of ROK and held its annual meeting between ROK and US Ministers.

KeyWords: Korean Diplomatic History, Pueblo incident, 1.21 incident, North Korea-US negotiation, fear of abandonment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189-225 https://doi.org/10.29212/mh.2017.105.18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8월의 폭풍"에서 "사막의 폭풍"으로: 냉전 시기 미육군의 소련군 작전술 이론의 연구와 수용 과정

류하수\*

- 1. 머리말
- 2. 미군의 작전술 개념 부재: 1982년까지의 상황
- 3. 베트남 전쟁과 미군의 변화: 잔존하는 편견
- 4. 편견의 학술적 극복과 미군의 작전술 수용
- 5. 맺음말

### 1 머리말

지난 20세기의 후반기는 미합중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무력 충돌의 가 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치하는 냉전의 시대였다. 그 긴박한 대립 상황

<sup>\*</sup>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이 논문의 완성에 큰 도움을 준 유승현 씨께 고마 움을 표합니다.)

속에서 두 초열강의 군대는 상대를 제압할 능력을 갖추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냉전기에 미국군은 소련의 붉은 군대를 자본주의 진영을 위협하는 강력한 적으로 인식하면서 적대감을 키웠다. 그 적대감은 때로 경멸감으로 이어져서, 미국 군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동맹군이었던 소련군을 증오하면서 폄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인에게 인종주의적 편견을 품은 19세기 독일 장교단의 후예인 독일국방군(Wehrmacht) 장교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패망한 뒤에 냉전의 동서 진영 대립을 틈타 미국의 군 기관에 기용되면서 특히 미육군청 역사과에서 제2차 세계대전사 편찬에 참여하면서 소련군에 품은 편견이 미국 군부에서 재생산되고 확대강화되었다.1)

그러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는 편견은, 상호 이해에도 그렇지만, 상호 대결할 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상황 아래서 미국 사회와 그분에는 소련군을 얕보고 업신여기는 정서가 팽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되군에는 소련군이라는 적을 이기기위해서라도 미국군이 근거 없는 편견을 버리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파악해서 실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도 존재했다. 냉전 시대에, 비록 소수였을지라도, 소련군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깨달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군사학의 영역에서 소련군의 다양한 양상을 엄정하게 연구해서 미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했다. 그러한 사례들 가운데 하나로 미국인 군사 전문가의 노력으로 미국군이 편견을 애써 버리고 소련군이 전략과 전술 사이의중간 개념으로 정의하고 개발한 작전술 개념을 군사 교리와 군사 교범에 정식으로 받아들인 일을 손꼽을 수 있다.

<sup>1)</sup> 류한수·유승현, 「"진흙 발의 거상"인가? "붉은" 스팀롤러인가?: 러시아/소련 군대에 관한 서방 세계의 편견과 실상」, 『중소연구』제41권 1호 (2017년 5월), 293-322쪽; Ronald Smelser and Edward Davies Jr., The Myth of the Eastern Front: The Nazi-Soviet War in American Popular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Chapter 2 and 3을 참고할 것.

미군이 작전술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탐구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주제로 삼은 선행 연구는 국내외 학계에 적잖이 존재한다 2) 기존의 연 구에서는 작전술 개념을 최초로 고안하고 도입한 주체가 소련군이라는 사실이 부정되지 않으면서도. 대체로 미군의 작전술 개념 도입 과정에 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 에드워드 루트왁(Edward Luttwak)이나 미군 의 윌리엄 데퓨(William E. Depuy) 장군과 돈 스타리(Donn A. Starry) 장군이 한 역할이 부각되고 강조된다. 3) 루트왁은 "작전적 수 준"(operational level)에 관해 최초로 말한 군사 자문관이었고. 데퓨 장군과 스타리 장군은 각각 미육군 훈련교리사령부(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의 제1대. 제2대 사령관이었다.

그러나 미군의 작전술 개념 도입이라는 주제에 관해 기존의 연구가 짜 맞춘 퍼즐은 큼직한 그림 조각이 여럿 빠진 미완성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소련군의 작전술을 연구한 때국 군사전문가들의 영향력이 언급 되지 않거나 극도로 축소되어 얼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완성되지 못한 그 퍼즐이 완전해지려면, 명문화된 작전술 개념이 사실 상 공산권 국가에만 존재했다는 사실이 더 강조되고 냉전기에 소련군

<sup>2)</sup> Richard M. Swain. "Filling the Void: The Operational Art and the U.S. Army." in B. J. C. McMercher and Michael A. Hennessy (eds.), The Operational Art: Developments in the Theories of War (London: Praeger, 1996); Kevin C. M. Benson. "Educating the Army's Jedi: The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and the Introduction of Operational Art into U.S. Army Doctrine 1983-1994." (Ph.D. Diss., University of Kansas, 2010); 노양규, 「미 국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년).

<sup>3)</sup> 리처드 스웨인(Richard Swain)이 논문에서 소련 군사이론에 관해 언급한 분량은 딱 한 줄에 지나지 않았다. Swain, "Filling the Void," pp. 162. 케빈 벤슨 (Kevin Benson)은 고등군사연구원(SAMS) 강사 제임스 슈나이더의 교육을 언급하 기는 하지만 슈나이더가 소련군의 작전술을 연구했다고는 쓰지 않았다. 로렌스 프 리드먼(Lawrence Freedman)은 저서에서 1980년대 작전술의 등장을 설명하면서도 루트왁의 역할만 언급한다. 로레스 프리드먼 (이경식 옮김). 『전략의 역사』제1권 (비즈니스북스, 2014), 424-429쪽, 노양규는 미군의 작전술 도입에 소련군 연구자 들의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따로 서 술하지 않았다. 노양규, 「미국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 연구」, 6-10, 32-37쪽.

과 바르샤바 조약군의 재래식 전력을 상대할 방법을 모색하던 미군이 서방의 여러 군사전문가들의 학술적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그 작전술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부각되어야 한다.<sup>4)</sup>

이 글의 목적은 냉전기에 소련군과 소련의 군사 이론을 연구한 서방의 여러 군사 전문가,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데이비드 글랜츠(David M. Glantz), 제이콥 키프(Jacob W. Kipp), 브루스 메닝(Bruce W. Menning), 그레이엄 터비빌(Graham H. Turbiville)을 비롯한 옛 소련군사연구소 (Soviet Army Studies Office) 소속 연구자의 학술 활동이 미군의 작전술 개념 도입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를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미군이 적군인 소련군의 군사 이론을 수용하고 체화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규명하는 이러한 시도는 냉전기에 전반적으로는 미국과소련이, 특정하게는 미군과 소련군이 극한적 대결을 추구하면서도, 어쩌면 대결을 추구했기에 상호의 전체 관계를 맺게 되는 복잡한 대립의한 양상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에 이바지할 것이다.

## 2. 미군의 작전술 개념 부재: 1982년까지의 상황

군사술(용병술)의 한 체계인 작전술은 전략과 전술의 중간 영역이다. 작전술은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과 참모가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역이나 주요 작전을 구상하고 군사력을 조직하여 운용하기 위해 지식, 숙련된 능력, 경험을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기술이다. 5) 전략

<sup>4)</sup> 미군과 영국군이 작전술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에 소련 군사이론이 미친 영향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한 예외적인 연구자로는 이스라엘의 군사 이론가 시몬 나베흐 (Shimon Naveh)가 있다. 나베흐는 "미군의 개혁학파가 소련의 군사이론을 받아들이는 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들이 영국과 미국의 소련군 연구자들이 었다고 주장했다. Shimon Naveh, *In Pursuit of Millitary Excellence: The Evolution of Operational Theory* (London: Frank Cass, 1997), pp. 273-274.

과 전술의 중간 영역에 관한 탐구는 산업화 시대의 대량군대(mass armv)를 동원한 대규모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군대가 거대해져 야전군 과 집단군처럼 지휘관이 전장에서 전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큰 편제가 나타났고 러시아-일본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야전군과 집단군의 군사 작전은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작고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큰 중간 의 영역이 되었다 6)

그 중간의 영역을 이론화한 이는 소련의 군사이론가 알렉산드르 스 베친(Aleksandr A. Svechin) 장군이었다. 스베친은 세계 최초로 전략 과 전술 사이의 중간 개념. 야전군과 집단군의 영역을 군사작전 수행의 기술인 "작전술"로 정의했다.7) 그가 1924년의 소련군 참모대학에서 한 강의에서 작전술의 정의를 제시하고 1926년에 저서 『전략』(Strategiia) 에서 확대한 뒤에 작전술 개념은 소련군의 공식적인 개념이 되었고 보 편화되었다.8) 그러나 미군에서는 작가들을 비롯해서 전략과 전술 사이 의 중간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소련군의 개념으로 전략과 전

<sup>5)</sup> 합동교범 3-0. 『합동작전(최종 인쇄본)』 2010.9판, 121쪽. 『합동작전(미 합동교범 3-0 번역본, 2011.8.11.판), 257쪽에는 작전술이 "지휘관 및 참모들의 인식적 접근으로 - 그들의 기술, 지식 및 경험, 창의력 및 판단의 도움을 받아 - 전략, 전역 및 작전 을 구상하고, 최종상태, 방법 및 수단들을 통합함으로써 군사력을 평성 및 운용하 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더 자세한 작전술 해설은 앞의 글, 27-29쪽을 볼 것.

<sup>6)</sup> Bruce Menning, "The Operational Art's Origin," in Michael Krause and R. Cody Phillips (eds.).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2005), pp. 4-6.

<sup>7)</sup> Aleksandr A. Svechin, Strategy (Minneapolis: Westview Press, 1992), pp. 68-69.

<sup>8)</sup> Richard W. Harrison, The Russian Way of War: Operational Art, 1904-1940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 pp. 140-141, 스베친에 관해서는 A. A. 코 코쉰 (한설 옮김). 『군과 정치: 러시아 군사정치·군사전략 사상사(1918~1991년)』(육 군군사연구소, 2016), 34-60, 101-119, 218-224쪽; 장문종, 「스베친의 소모전략 연구」(고려대 석사논문, 2010)을 참고할 것.

<sup>9)</sup> 같은 시기에 미군의 어떤 교범도 작전술뿐만 아니라 "작전"이라는 용어를 전략 및 전술과 구분되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다. Herold Nelson, "The Origin of Operational Art," in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pp. 333-347을 참고 할 것. 영국의 경우에는 군사이론가 바실 리델 하트(Basil H. Liddel Hart)가 군사 술을 대전략(Grand Strategy). 군사전략, 전술로 삼분화했다. 바실 리델 하트 (주

술의 중간 개념으로 작전술이 있음을 맨 처음으로 미국에 알린 연구는 1961년에 미국의 군사 간행물 『육군』(Army)에 실린 월터 제이콥스 (Walter Jacobs)의 논문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이콥스는 소련 군의 작전술 개념을 다음과 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한 혁신[작전술]의 목적은 불명확하다. (......) 서방의 군사학에서 이론적 개념으로서의 작전술은 완전히 부인된다. (......) 서방은 단순히 이 개념이 서방 군사술의 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서방의 병기고에 추가해서는 안 된다.<sup>10)</sup>

미국에서는 제이콥스가 소련의 작전술 개념을 소개한 뒤에도 오랫동 안 작전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1)</sup>

은식 옮김), 『전략론』(책세상, 1999), 455~457폭. 그러나 리델 하트의 분류는 영 국군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sup>10)</sup> J. Walter Jacobs, "The Art of Operations," Army, no. 11 (November 1961), p. 64; Justin Kelly and Mike Brennan Alien: How Operational Art Devoured Strategy (Carlisle,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9), p. 1. 소련구의 마리옙스키 대령은 제이콥스의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과연 그 럴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몇몇 외국 군대는 현대 작전의 실상으로 관심을 돌 렸다. (.....) 서유럽 국가들은 전쟁 수행을 전략으로, 작전의 준비와 수행은 낮은 전략(영국)이나 대전술(프랑스)로, 전투를 전술로 평가했다. 그리하여 몇몇 서유럽 군대는 작전의 수행을 특별한 원칙의 주제로 연구했다." I. Mariyevsky.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Operational Art (1918-1938)," in Herold Orenstein (ed.), The Evolution of Soviet Operational Art. 1927-1991: The Documentary Basis vol. 1: Operational Art. 1927-1964 (London: Frank Cass, 1995), p. 303. 즉, 마리옙스키는 작전술이 소련군 만의 특수한 개념이 아니며 다른 나라의 군대에서도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한 개념 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가주한다. 실제로 미군도 19세기 말과 1930년대에 이르 기까지 전략과 전술의 중간 영역을 파악하려는 연구와 연구 결과를 반영한 대규 모 기동훈련이 존재했다. 그 흐름에 관해서는 Michael Matheny, Carrying the War to the Enemy: American Operational Art to 1945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12). pp.45-91을 참고할 것.

<sup>11)</sup> 소련군과 독소전쟁에 관한 연구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존 에릭슨(John Erickson) 도 소련의 군사 이론을 연구하며 스베친이 작전술 개념을 주창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1962년에 책을 저술할 때에는 그 점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에 릭슨은 스베친의 작전술 개념을 "전술적 과업의 핵심"으로 파악했다. John Erickson,

미군이 작전술 개념에 관심을 느끼지 않은 까닭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리고 그 직후인 냉전 초기에 미국으로서는 작전술이 필요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하 고 준비할 이유가 없었다. 둘째, 19세기 이래로 내려온 군사술의 전략/ 전술 프레임이 더 편했으므로 미군에게는 그 프레임을 더 복잡하게 해 석할 의향이 없었다 12) 1917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미국은 1918년에 이르러 1개 야전군(제1군)을 편성해서 작전술 이 형성되는 밑바탕인 대량군대(mass army)를 유럽의 대규모 전장에 투입했다. 13) 그러나 미 제1군의 작전 수행 경험은 1918년 8월에서 11 월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평시 에는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대대적 감축을 단햇했다 따라서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뒤에야 비로소 작 전술 수행의 기본 편제인 이상을 작위부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뒤에도 미육군은, 독일국방군이나 소 련의 붉은 군대와 달리,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 상륙하는 1943년 1월 부터 프랑스의 노르망디(Normandie)에 상륙하는 1944년 6월까지 종 심과 정면 측면에서 야전군 수준의 단위부대 전체가 기동할 수 있는 전 장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적이 없다.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태평양 전선에서도 미육군이 벌인 대부분의 전투는 1개 사단 수준의 병력이 투

The Soviet High Command: A Military-Political History, 1917-1941 (London: Frank Cass. 2001), pp. 313, 717.

<sup>12)</sup> Bruce W. Menning, "The Operational Art's Origin," in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p. 3.

<sup>13)</sup> 제1차 세계대전에서 1918년 5월에 미국 원정군이 첫 전투를 치를 때 프랑스에 있 던 미군의 병력은 66만 명이었다. 그 해 8월에 미 제1군이 창설될 때 그 수는 147만 명이었고, 11월 종전 시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김재박, 「제1차 세계대 전 시기 미국 원정군(AEF)의 군사교리 연구: 1사단의 참전 경험을 중심으로」(고 려대 석사논문. 2001년). 16쪽, 더 자세한 수치는 American Battle Monuments Commission, United States Marine Corps, American Armies and Battlefields in Europe: A History, Guide, and Reference Book (Washington, DC.: U.S. Marine Corps. 1989). p. 502에 있다.

입될 수 있는 도서 지역에서 벌어졌다. 이런 까닭에 미육군은 두 해 가까이 작전술적 기동이 아닌 전술적 전투만 계속 수행한 셈이며, 1944년 6월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야 비로소 미군의 야전군급 단위부대가 기동할 수 있는 전장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작전술 개념이 없었고 작전술적 수준의 경험을 쌓지 못했던 미군은 유럽 본토 서부전선에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면서 적잖은 미숙성을 보여주었다. 14) 이 미숙성은 한 해 뒤에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덕택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냉전이 시작되자 미군은 동맹군이 아니라 가상 적군이 된 소련군을 일어날지 모를 미래의 전쟁에서 상대할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군과 실제로 전투를 벌였던 독일국방군의 경험을 활용했다. 미육군청의 역사과가 주도해서 제2차 세계대전유럽 동부전선의 전쟁사를 편칭하고 선출하는 작업에 나치 독일의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프란츠 할더(Frang Halder) 상급대장을 비롯한 독일국방군 장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전화 독일군 장교들은 동부전선에서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벌며 적이 전진해서 측방이 취약해졌을 때노출된 약점을 노리고 역습을 가하는 기동방어(mobile defence)가 소련군을 상대할 때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 군사교범에 적잖이 반영되었다.15)

<sup>14)</sup>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군과 영국군은 주로 화력과 공중우세에 의존하고 원활한 군수 보급에 집착하고 측방 노출을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였고 작전술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서방 연합군은 조지 패튼(George Patton) 장군이지휘하는 미 제3군을 제외하면 전술적으로 얻은 전과를 작전술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다. Charles Dick, From Victory to Stalemate: The Western Front, 1944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6)을 참고할 것.

<sup>15)</sup> Robert Hutchinson, "The Weight of History: Wehrmacht Officers, the U.S. Army Historical Division, and U.S. Military Doctrine, 1945–1956,"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78, no. 4 (October 2014), pp. 1321–48; Kevin Sutor, "To Stem the Red Tide: The German Report Series and Its Effect on American Defense Doctrine, 1948–1954,"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57, no. 4 (October-December 1993), pp. 653–688, 이 과정에서 독일군 장

그러나 냉전이 격화되고 미국이 핵무기 전력에서 앞서나가면서 제2 차 세계대전 식의 재래식 전력의 역할과 위상에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 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행정부의 대량보복 전 략(massive retaliation strategy)과 존 케네디(John F. Kennedy) 행정부의 유연대응 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으로 대표되는 핵전략이 미군 전략가들의 사고를 지배하면서 재래식 전력의 역할을 최소화해서 소규모 국지전이나 저강도 분쟁, 또는 대반란전(對反亂戰, counterinsurgency) 투입 등에 국한해야 한다는 전망이 우세해졌 다. 16) 또한 기동전보다는 화력 중심의 소모전을 선호하는 미군의 전략 문화에는 변화가 없었다. 17) 이런 탓에 대규모 재래식 전쟁의 소산이자 기동전의 산물인 작전술 개념이 미국에서 각광을 받으며 등장하고 수 용될 분위기는 조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정세가 바뀌 면서 전환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 3 베트남 전쟁과 미군의 변화: 잔존하는 편견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면서 미육군은 워낙 크나큰 충격을 입어서 그 때까지 견지해오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전술적 수준 의 전투에서 베트남 군대에게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도 미육군은 전

교들은 자기들이 나치 정권과 무관한 순수한 군인이며 "아시아적 야만"인 볼셰비 즘(Bolshevism)에 맞서 유럽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켰다는 "결백한 독일국방군" 신화를 만들었다. 류한수 · 유승현. 「"진흙 발의 거상"인가? "붉은" 스텀롤러인가?」. 295-302쪽을 참고할 것.

<sup>16)</sup> Robert Doughty, The Evolution of U.S. Army Tactical Doctrine, 1946-1976 (Fort Leavenworth, Kansas: U.S.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79), pp. 12-18.

<sup>17)</sup> Dima Adamsky, American Strategic Culture and the U.S.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Oslo: Norwegian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2008), pp. 33-37.

투의 전술적 승리를 종합적인 전략적 승리로 확대하지 못했으며, 마침 내 치욕을 안은 채로 베트남에서 물러나야 했다 18) 또한 베트남전 패배 의 여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1980년대 초에는 급증한 소련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비 수요가 급증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핵무기의 위력 을 강조하며 지상군 병력을 크게 감축했던 소련군은 1970년을 기점으 로 삼아 다시 재래식 기계화 전력을 사용하는 작전술적 수준의 대규모 기동전의 역할을 재고하고 기갑 전력과 기계화 전력을 크게 확충하기 시작했다.19) 소련의 대규모 기계화 전력에 대항할 방법을 찾으려고 부 심하던 미군에게 실마리를 준 것은 1973년에 일어난 제4차 중동전쟁이 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항공력과 기갑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대공 미사일 체계와 휴대용 대전차 무기를 사용했다. 실전에서 지대 공 미사일은 이스라엘 공군의 활동을 크게 제약했고. 대전차 미사일도 이스라엘의 기갑 부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수에즈(Suez) 운하를 도하해서 이 소라엘의 바레프(Barew) 방어선을 돌파하고 시나이(Sinai) 반도에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이스라엘 군대 의 방어 계획을 무너뜨렸다. 이 성공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특공부대의 운용. 대전차 화기 및 대공 무기와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통합 운용. 제병협동작전을 통한 세밀한 도하작전 실행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황 이 이렇게 전개되자.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전쟁 이 일어날 경우에 재래식 전력이 가질 역할에 관한 관심이 새로 고조되 었다 20)

<sup>18)</sup> 해리 서머스 (민평식 옮김), 『미국의 월남전 전략』 (병학사, 1983), 107-117쪽.

<sup>19)</sup> David Glantz, *Military Operational Art: In Pursuit of Deep Battle* (London: Frank Cass, 1991), pp. 203–211.

<sup>20)</sup> Jacob Kipp, "Operational Art and the Curious Narrative on the Russian Contribution: Presence and Absence over the Last 2 Decades," in Stephen J. Blank and Richard Weitz (eds.), *The Russian Military Today and Tomorrow: Essays in Memory of Mary Fitzgerald* (Carlisle,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10), p. 220; 노양규, 「미국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연구」, 35쪽.

미래의 전쟁이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는 순수 재래식 전쟁, 또는 설령 핵무기가 사용되더라도 전면 핵전쟁보다는 제한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자. 미군은 다시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군의 대규모 기계화 전력 에 대항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그리고 아울러 베트남 전쟁의 패전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내야 할 과제에 부딪쳤다. 이러한 상 황에서 종전에는 관심 밖에 머물던 작전술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고 수용해야 할 동기가 마련되었다. 21) 미군의 베트남 전쟁 수행을 비판 적으로 본 에드워드 루트왘은 전력과 전술 사이에 "중간 수준"이 없었 다는 점이 미군의 패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중간 수준에 "전쟁의 작전적 수준"(operational level of war)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미군이 승리하려면 그러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 루트왁의 주장 은 미군 군사교범에 반영되었고. 군사교범 저술을 담당하는 훈련교리 사령부의 사령관 글렌 오티스(Clent K. Otis) 중장의 지시에 따라 1982년판 「야전교범 요무령」(FM-100/5)에서는 전쟁이 세 가지 수준으 로, 즉 "전략적 수준의 전쟁", "작전적 수준의 전쟁", "전술적 수준의 전쟁"으로 구분되었다 23)

한편, 독일국방군의 영향을 받아 1940년대 후반에 미군 군사교범에 기재되었던 능동방어(active defense) 개념이 다시 주목을 받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독일국방군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군이 추진 하던 개혁의 본보기로 떠올랐다. 24) 독일국방군이 미국의 개혁 모델로

<sup>21)</sup> Swain, "Filling the Void," p. 156.

<sup>22)</sup> Edward Luttwak, "The Operational Level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6, no 3 (Winter 1980-81), pp. 61-67.

<sup>23)</sup> Field Manual 100-5 Operations (Washington, DC.: GPO, 1982), pp. 2-3; 해리 섬머스 (권재상·김종민 옮김), 『미국의 걸프전 전략』(간디서원, 2005), 166쪽.

<sup>24)</sup> 대표적으로 마틴 판 크레펠트 (주은식 옮김) 『전투력과 전투수행』 (한울. 1988)이 있다. 판 크레벨트는 제2차 세계대전기의 미군과 독일군을 문화. 제도. 사회 차워에서 분석하면서 독일군이 미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뛰어난 전투 력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루트왁도 작전적 수준의 모델로 독일군의 프랑스 침공 을 제시하고 있다. Luttwak. "The Operationa Level of War." pp. 67-79.

부상하게 된 한 계기는 백악관 국가안보실의 주최로 1980년에 열린 워게임(war game)이었다. 이 워게임에는 독일군의 장군참모 제도와 총참모본부 체계를 연구하다가 독일군 숭배자가 된 트레버 듀푸이(Trevor Dupuy) 대령의 초청으로 헤르만 발크(Hermann Balck)와 프리드리히 폰 멜렌틴(Friedrich von Mellenthin)이 참여했다. 제2차세계대전기에 독일국방군 장군이었던 발크와 멜렌틴은 독일국방군이제2차세계대전에서 소련군을 상대로 구사했던 기동방어를 이 워게임에 적용해 바르샤바 조약군의 가상 침공을 물리쳐서 미군 장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25)

발크와 멜렌틴은 소비에트 연방과 소련군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인물이 결코 아니었다. 이 두 사람은 "소련 체제의 군대는, 기병 창을 든 카자크(kazak; Cossack) 기병이든 AK47 자동소총을 들고 보병전투 차량(Boevaia Mashina Pekhoty)에 되중하는 차량화 보병이든, 이반(Ivan)은 이반이어서 유연하지 못한 존재라는 확신", 즉 독일군 장교들이 오랫동안 소련군에 품었던 편견을 고스란히 간직한 인물들이었다. 26) 멜렌틴은 회고록에서 소련군의 전술을 분석하는 소단원의 서두부터 "소련군 병사들의 성격과 기질, 그리고 전형적 전투 방식 등은 현저하게 변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27) 앞서 언급된 워게임 훈련에

<sup>25)</sup> Trevor Dupuy, General Balck and von Mellenthin on Tactics: Implications for NATO Military Doctrine (Maclean, VA.: BDM Corporation, 1980), pp. 22-38.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그러한 기동방어가 이론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는 위험한 방법이며, 서독에는 그러한 기동방어를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이 없음을 지적하며 기동방어 개념을 비판하고 경계했다. John Mearsheimer, "Maneuver, Mobile Defense, and the NATO Central Fro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6, no. 3 (Winter 1980-81), pp. 104-122.

<sup>26)</sup> Dennis E. Showalter, "A Dubious Heritage: The Military Legacy of The Russo-German War," *Air University Review*, vol. 36 (March-April 1985), p. 16. 가장 흔한 러시아 남자 이름인 "이반"은 서방 군대가 러시아 군인을 일컫는 속칭이자 비칭이다.

<sup>27)</sup> 프리드리히 폰 멜렌틴 (민평식 옮김), 『기갑전투』 (병학사, 1986), 387쪽.

서 멜렌틴은 소련군에 우월감을 드러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러시아 인은 종잡을 수 없어요. 오늘 그는 아주 철저하게 공격하는 영웅인데. 내일은 완전히 겁에 질려 아무 것도 하려 들지 않지요 ( ) 우리 말 을 믿으세요. 그들은 무리지만 우리는 개인입니다. 이것이 러시아 군인 과 유럽 군인의 차이입니다."28) 러시아 군인이 더 교육을 받거나 서방 의 사상에 노출되어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발크는 딱 잘라 이렇게 말했다. "아니오 나는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29) 발 크와 멜렌틴은 소련군이 몇십 년이 지나도 어떠한 발전도 없이 정체되 어 있다고 간주했다. 워게임 이후에 독일국방군의 방법을 연구하고 받 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미군 장교 사이에서 성행했다.30) 1940년대 후 반의 상황과 다를 바 없이. 냉전기에도 나치 군대의 인물들이 미군의 군사 발전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련군에 관한 편견을 키웠다.

그리나 소련군은 제자리걸음을 한다는 이러한 인식은 실상과는 거리 가 멀었다. 1977년에 총참모장에 된 니콜라이 오가르코프(Nikolai Ogarkov) 육군원수의 주도 아래 소련군은 기술 변화로 말미암아 "군 사 혁신"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고 전구전략 작전(teatral'naia strategicheskaia operatsiia), 작전기동군(operativnaia manevrennaia gruppa). 정찰-타격 복합체(rekognostsirovochnoe-udarnyi kompleks) 를 비롯한 새 개념을 고안해서 훈련에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31) 한 편. 미국 장교단과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를 비롯한 안보 싱크탱크(think tank)는. 미국의 논픽션 작가 제임스 캐럴(James

<sup>28)</sup> Dupuy, General Balck and von Mellenthin on Tactics, p. 9, 10.

<sup>29)</sup> Ibid., p. 11.

<sup>30)</sup> Smelser and Davies, The Myth of the Eastern Front, pp. 121-126.

<sup>31)</sup> 오가르코프가 주도한 소련의 "군사 분야의 혁명"에 관해서는 Timothy S. Waddell. Marshal N. V. Ogarkov and the Transformation in Soviet Military Affairs (MA Thesis: University of Manitoba, 1999), pp. 38-102를 참고할 것. 정찰-타격 복합체에 관해서는 심경욱, "러시아의 항공우주산업과 국가안보," 『국방개혁 의 패러다임을 통한 항공우주력 건설」(오름, 2007), 94-98쪽을 참고할 것.

Caroll)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충족 편집증"(self-fulfilling paranoia)에 따라 의회에서 국방 예산을 확충하고 예산을 더 많이 받아낼 의도로 소련군의 양적 우세를 크게 부풀려서 미국민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32) 그러면서도 정작 미군은 소련군이 실제로는 질적 열세 탓에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기 위안에 빠져 있었다. 33)이러한 행태를 두고 글랜츠는 "유능하고 유연한 적수보다는 서툴고 유연하지 못하고 예측가능한 무리와 벌이는 전투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34)

## 4. 편견의 학술적 극복과 미군의 작전술 수용

영어권 국가의 소련군 학술연구는 1950년대부터 존재했다. 레이먼드 가토프(Reymond Garthoft)는 소련군의 군사교리 개념을 탐구했으며 전후 시기의 소련 군사전략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맬컴 매킨토시(Malcom Mcintosh)는 독소전쟁 시기의 소련군을 분석한 저작을 저술했다. 존 에릭슨은 1960년대 초에 소련군의 고위 지휘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고 동서 진영의 긴장이 완화된 데탕트(Détente) 시기에 입수한 소련 자료를 활용해서 독소전쟁과 소련군에 관한 수준 높은 저서를 써냈다. 35) 로버트 헤릭(Robert Herrick)은 소련군의 해군 전략

<sup>32) &</sup>quot;자기충족 편집증"의 기원과 전개에 대해서는 제임스 캐럴 (전일휘·추미란 옮김),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동녘, 2009), 244-351쪽을 참고할 것. 예를 들어, 스튜어트 사이밍턴(Stuart Symington) 공군장관은 1960년에 소련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조만간 3,000기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소련이 1960년 초에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실제로는 겨우 2기였다.

<sup>33)</sup> Showalter, "A Dubious Heritage," pp. 20-21.

<sup>34)</sup> David Glantz, "Soviet Offensive Ground Doctrine since 1945: Historical Overview," *Air University Review*, no. 34 (March-April 1983), p. 26.

을 분석했다. 데이비드 존스(David Jones)는 소련 군사사 분야의 정기 간행물을 수집하고 소련 군사 분야의 모든 기본적 관련 사항을 표준 형 태로 조직해서 분석한 뒤 문서화하고 서지화했다 36) 여기에 미군의 「야전교범 요무령」(FM-100/5) 1982년 판에서 "작전적 수준의 전쟁"이 정의되면서 더 나아가 작전술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더 힘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소련군만 사용하던 용어인 종심전투 (glubokii boi)와 종심작전(glubokaia operatsiia). 그리고 특히 작전 술이 미군의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떠올랐다 37)

이러한 성과를 배경 삼아서 소련 군사사 연구부터 경력을 쌓은 유일 한 군사전문가인 데이비드 글랜츠가 등장했다. 그는 미군 장교로 베트 남 전쟁에 참전한 뒤에 북대서양 조약 기구 정보장교로 근무하다가 캔 자스(Kansas) 주 포트 레븐워스(Fort Leavenworth)의 미육군지휘참모 대학(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산하 전투연구소(Combat Studies Institute) 연구위원장으로 근무했다. 1979년에 일본 육상자위대가 연구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45년 8월에 소련군이 만주에서 일본 관동군(關東軍)을 상대로 펼쳤던 공세 작전을 연구해 달라고 전투연구소에 의뢰했을 때. 이 과제를 맡은 인물 이 바로 글랜츠 중령이었다.38) 그는 소련 측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sup>35)</sup> David Glatnz, "The Red Army at War, 1941-1945: Sources and Interpretations,"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2, no. 3 (July 1998), p. 612.

<sup>36)</sup> Ibid., p. 221.

<sup>37)</sup> Bruce Menning, "The Operational Art's Origin," in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pp. 13-14. 종심전투 및 종심작전 이론은 "소련 군사과 학의 긍지"로 일컬어질 만큼 소련의 군사 교리의 핵심이었다. 코코쉰, "군과 정 치』, 229쪽.

<sup>38)</sup> David Glantz, The Relationship between "August Storm" and "Desert Storm" (Unpublished article, 2013), pp. 1-3, 이 연구 원고는 일본 방위연구소 전쟁사 연구회가 2013년 10월 29일 ~ 11월 1일에 도쿄에서 개최한 학술 회의에서 발표 되었으며, 저자의 호의로 입수할 수 있었다. 이 학술 회의에 관해서는 防衛研究所. NIDS News, 2013年 11月号(www.nids.mod.go.jp/publication/nids news/ pdf/2013/news201311.pdf), p. 3을 참고할 것. 당시의 연구는 David Glantz.

면서 서방의 편견과는 달리 소련의 군사 연구가 정확하고 중립적이며 소련군의 군사술이 생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련군에 관한 서방의 인식과 평가에 강한 의문을 품은 글랜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1983년에 완성한 논문 「8월의 폭풍: 소련군의 만주 전략 공세」(August Storm: The Soviet Strategic Offensive in Manchuria) 에 투영했다. 39)

논문 서두에서 글랜츠는 "서방인은 오직 지리, 기후, 엄청난 병력 수가 동부전선에서 독일의 군사 기량과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기존의 통념을 비판한 뒤 "이런 인상에는 동부전선에서 펼쳐진 작전의 분석에 나타나는 독일 특유의 편견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글랜츠는 그러한 인식이 생겨난 까닭과 그것에 내포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이런 서방의 틀린 인식은 역사를 구하하고, 그 곡해는 (...) 소련의 - 과거, 현재, 미래의 - 군사적 역량에 관한 오늘날의 평가를 왜곡한다.

동부전선의 전쟁에 관한 우리의 견해는 (...) 독일의 1941년과 1942년의 경험에서 비롯한다. 그 견해는 구데리안(Guderian), 멜렌틴, 발크, 만슈타인(Manstein) 같은 이의 견해이다. 이들은 모두 다 서방 군사사의 영웅이지만, 자기의 작전술적 인, 전술적인 성공으로 얼마간은 전략적 실체를 보지 못한 영웅이다. 1943~44년이 되면, 그들의 "영광스러운" 경험은 끝나버렸다. 저 독일인들은 1942년 이후에 자기의 공적이 바닥나자 멀리서 전략적 재앙이 보이는 가운데 거두는 전술적 승리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저 1941년의 정복자들의 견해, 즉 일반화되어서

<sup>&</sup>quot;August Storm: Soviet Strategic Offensive in Manchuria, 1945," Leavenworth Paper, no. 7 (February 1983); David Glantz, "August Storm: Soviet Tactical and Operational Combat in Manchuria, 1945," Leavenworth Paper, no. 8 (June 1983)로 저술되었다. 두 연구논문은 2003년에 각각 개정판인 David M. Glantz, The Soviet Strategic Offensive in Manchuria, 1945 "August Storm" (London: Frank Cass, 2003)과 David M. Glantz, Soviet Operational and Tactical Combat in Manchuria, 1945 "August Storm" (London: Frank Cass, 2003)로 출간되었다.

<sup>39)</sup> Glantz, The Relationship between "August Storm" and "Desert Storm", p. 9.

동부전선의 전쟁 전체의 특성을 규정하는 저들의 초기 인상이 아직도 받아들여지는 관점으로 남아 있다 ( )

동부전선에서 독일이 펼친 작전에 관한 이 기우뚱한 견해는 소련군에 관한 부정확할지언정 마음은 놓이는 이미지를 전해준다. 우리는 나중에 자기를 변명하 는 책을 쓴 저 독일인들을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큰 진실을 잊고 말았다 그들의 나라가 전쟁에서 졌다는 그들이 "서툴다"고 묘시한 소련군과 맞서다가 근본적으로는 동부전선에서 전쟁에 졌다는 진실 말이 다 40)

소련군의 만주 작전이 소련군이 이룬 군사적 성과에 주목하며 글랜 츠는 결론에서 소련군이 만주에서 과시했던 군사 기술이 "미국의 전술 가들에게도 역사적 흥미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 연 구논문 「8월의 폭풍이 나온 1983년에 미육군지휘참모대학 전임강사로 부임한 글랜츠는 이듬해까지 소명 문서 사와 군사술. 특히 소련 작전술 의 이론과 실제에 관해 논문을 쓰고 장악를 하며 연구의 심도를 키우고 제이콥 키프. 브루스 메닝. 그레이엄 터비빌. 제임스 슈나이더(James J. Schneider)처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전문가와 교류했다. 42) 1984년 하반기부터 1985년까지는 미육군대학위(U.S. Army War College) 에서 열린 전쟁술 심포지엄(Art of War Symposium)을 주도하면서 소련군이 1942년 12월과 1945년 4월 사이에 펼쳤던 작전을 분석

<sup>40)</sup> Glantz, August Storm: The Soviet Strategic Offensive in Manchuria, 1945. pp. xiii-xiv.

<sup>41)</sup> Ibid., p. 177. 영국 소련학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초대 소장인 피터 비거(Peter Vigor)도 소련군의 만주 전역을 연구했다. 피터 비거 (이한종 옮김), 『소련 전격 전 이론』(국방대학원, 1986), 112~131쪽. 비거는 당시의 소련군이 "전쟁 초 기"(nachal'nyi period voiny)에서 기습을 통하여 단기간에 승리를 거두는 것을 중시하고 소련군의 만주 작전을 그 사례로 삼는 경향을 고찰했다.

<sup>42)</sup> David Glantz, The Soviet Airborne Experience (Fort Leavenworth, Kansas: Combat Studies Institute, 1984); "Soviet Operational Formation for Battle: A Perspective," Military Review (February 1983); "The Nature of Soviet Operational Art," Parameter (Spring 1985).

했다.43)

비슷한 흐름이 영국에서도 나타났다. 영국의 샌드허스트(Sandhust) 왕립육군사관학교의 부설 연구기관인 소련학연구소(Soviet Studies Research Centre)에 속한 연구자인 크리스토퍼 도넬리(Christopher Donnelly), 크리스토퍼 벨라미(Christopher Bellamy), 찰스 딕(Charles Dick)은 소련군의 작전술, 특히 작전기동군 개념을 연구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소련군의 기계화 전력에 대처할 방법을 모색했다. 44) 이러한 노력에 존 에릭슨도 가세했다. 작전술의 의미를 깨달은 에릭슨은 작전술이 새로운 전쟁 개념을 만들기 위한 기술 변화를 수용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전쟁을 더 크게 보는 데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고 작전술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5) 또한 그는 화력과 기동을 동등하게 중시하고 전술과 작전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1982년판 「야전교범 요무령」(FM-100/5)의 개념도 소련군의 개념을 꽤 많이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sup>43)</sup> David Glantz, "1984 Art of War Symposium, From the Don to the Dnepr: Soviet Offensive Operations December 1942 - August 1943, a Transcript of Proceedings," (Carlisle, PA.: Center for Land Warfare, U.S. Army War College, March 26-30, 1984); Glantz, "1985 Art of War Symposium, From the Dnepr to the Vistula: Soviet Offensive Operations November 1943 - August 1944, a transcript of Proceedings" (Carlisle, PA.: Center for Land Warfare, U.S. Army War College, April 29-May 3, 1985); Glantz, "1986 Art of War Symposium, from the Vistula to the Oder: Soviet Offensive Operations - October 1944-March 1945, A transcript of Proceedings" (Carlisle, PA.: Center for Land Warfare, U.S. Army War College, May 29-23, 1986).

<sup>44)</sup> Christopher Donnelly, "Operational Manoeuvre Group: A New Challenge to NATO," International Defence Review, 9 (1982); Christopher Bellamy, "Antecedents of the Modern Soviet Operational Manoeuvre Group (OMG)," RUSI Journal, vol. 129, no 3 (September 1984); Charles J. Dick, "Soviet Operational Manoeuvre Group: A Closer Look," International Defence Review, 6 (1983).

<sup>45)</sup> Adamsky, American Strategic Culture and the U.S.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p. 16.

스베친 장군과 이세르손(Isserson) 장군, 투하쳅스키(Tukhachevskii) 육군원 수는 [미군에게] 감명받고 치켜 세워졌을 것이다. 심지어 자기의 저작권에 대한 오랜 침해를 눈감아 줄만큼 충분히 말이다. 46)

한편, 후련교리사령부 사령관 윌리엄 리처드슨(William Richardson) 중장이 글래츠의 연구 성과를 눈여겨보았다. 소련과 소련군을 장기적 으로 더 깊이 분석할 연구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리처드슨은 그러 한 과제를 맡을 군인 및 민간인 전문가로 선정해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자 했다. 리처드슨은 브루스 메닝과 대령으로 진급한 글랜츠가 그 연구 소를 이끌 적임자라고 보고 그들에게 1985년부터 훈련교리사령부 산하 에 소련군사연구소를 창설해서 소련군의 전술, 작전술, 전략, 교리를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47) 소련군사연구소의 임무는 영국군의 전투 지휘 교리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소련함연구소의 업무처럼 소련의 개방된 군사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소련군사연구소와 영국의 소련학연구소는 러시아서 서적을 찾아내는 일에 협력했고 소련 의 기록보존소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도 했다. 48)

<sup>46)</sup> John Erickson, "Development of Soviet Military Doctrine," in John Gooch (ed.). The Origins of Contemporary Doctrine. Strategic and Combat Studies Institute Occasional Paper no. 30 (Camberley, UK: Strategic and Combat Studies Institute, 1997), pp. 106-107. Adamsky, American Strategic Culture and the U.S.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p. 17에서 재인용. 투하쳅스키와 이세르손은 소련군의 종심작전 이론 개발을 주도한 인물들이었다. 리처드 록-풀런 (Richard Lock-Pullan)도 당시 미군이 소련군의 종심전투 개념을 비롯한 여러 개념을 받아들였다고 단언했다. Richard Lock-Pullan. U.S. Intervention Policy and Army Innovation: From Vietnam to Iraq (New York: Routledge 2006), p. 93.

<sup>47)</sup> Jacob Kipp, "FMSO-JRIC and Open Source Intelligence: Speaking Prose in a World of Verse," Military Intelligence Professorial Bulletin(January-February 2006). http://www.thefreelibrary.com/FMSO-JRIC+and+Open+Source+Intelligence/83a+ speaking+prose+in+a+world+of...-a0146354022(사이트 접속일 2017년 5월 1일). 소련군사연구소는 1989년에 해외군사연구소(Foreign Military Studies Office)로 개칭되었고, 역할에도 변화가 있었다.

<sup>48)</sup> Kipp, "Operational Art and the Curious Narrative on the Russian Contribution," p. 226.

글랜츠는 소련군사연구소에서 키프와 메닝을 비롯한 동료와 함께 러시아어 자료를 분석하고, 1986년에는 소련을 몸소 찾아가 미국과 소련의 학자들 사이의 군사사 심포지엄에 참여해서 군사사 분야에서 동서진영이 어떻게 이견을 좁히고 접점을 찾을지를 논의했다. 49) 소련군사연구소는 1988년에 소련 군사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계간 학술지 『소련군사연구지』(The Journal of Soviet Military Studies)를 만들고 글랜츠를 편집장으로 내세웠다. 50) 키프와 함께 글랜츠는 소련군의작전술을 연구 주제로 삼아 그 성과를 알렸고 소련군이 펼쳤던 작전을연구하는 서방 및 러시아의 소장 학자를 북돋았다. 51) 메닝은 제정 러시아 군사사를 연구해서 소련 군사사와 작전술의 기원을 탐구했으며, 52) 터비빌은 소련군의 군수보급 체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53)

<sup>49)</sup> 글랜츠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심포시험에서 독소전쟁과 소련군에 대한 미국의 기존 인식과 소련군에 관한 편견을 비평한 David Glantz, American Perspectives on Eastern Front Operations in World War II (Fort Leavenworth, Kansas: SASO, 1987)를 발표했다. 소련군에 대한 서방 세계의 편견에 관해서는 Ibid., pp. 27-8을 참고할 것.

<sup>50) 『</sup>소련군사연구지』는 1993년에 『동유럽군사연구지』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로 명칭이 변경되어 소련뿐만 아니라 공산 진영의 군사문제 전반을 다루는 학술지가 되었다.

<sup>51)</sup> 대표적으로 David Glantz, Soviet Military Operational Art: In Pursuit of Deep Battle (London: Frank Cass, 1991)을 참고할 것. 그리고 Jacob W. Kipp, "Mass and Maneuver and the Origins of Soviet Operational Art," in Carl Reddel (ed.), Transformation in Russian and Soviet Military History: Proceedings of the Twelfth Military History Symposium, USAF Academy, 1986 (Washington, DC.: U.S. Air Force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99), pp. 87-116도 참고할 것.

<sup>52)</sup> Bruce W. Menning, "The Deep Strike in Russian and Soviet Military History," *The Journal of Soviet Military Studies*, vol. 1 (April 1988), pp. 9–28; Bruce W. Menning, *Bayonets before Bullets: The Imperial Russian Army*, 1861–1914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sup>53)</sup> Graham H. Turbiville Jr., "Sustaining Theater Strategic Operation," *The Journal of Soviet Military Studies*, vol. 1 (April 1988), pp. 81–107; Graham H. Turbiville Jr., "Soviet Operational Logistics, 1939–1990," in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pp. 293–326.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배출하기 시작하자. 예전에는 서방의 소련 군사사 전문가들을 모조리 "부르주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던 소련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54) 1985년에 집권한 미하 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개방 정책(Perestroika)을 펼 치면서 유신의 폭이 예전보다 크게 넓어진 소련의 학자들은 미국의 『소 련군사연구지』 창간호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우리는 이 새 학술지 창간호의 등장을 결정하는 몇 가지 특성, 즉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학술지 필자들의 뛰어난 전문성, 그리고 중요한 것을 구분해내고 탐구되는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내는 그들의 능력을 언급하고자 한다 ( ) 이 학술지의 필진은 러시아와 현대 소련의 군사사뿐만 아니라 소련군이 풀어내야 할 문제들도 결해야 할 문제들도 잘 파악하고 있다. 이 학술지는 소련 군사교리의 이론적 개념을 객관적이고도 철저하게 평가하는 편이다. 이 점이 이 학술지가 소련군 문제를 다루는 다른 간행물과 저희가 뭐나 구분되는 특색이다. 55)

이렇게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기운데. 미국에서는 소련의 군사 이론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면서 작전술 개념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85년에 미육군지휘참모대학에 고등군사연구원(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을 창설하고 초대 원장을 지낸 후바 보쉬 데 체계 (Huba Wass de Czege) 대령은 한 해 전인 1984년에 그 교과 과정을

<sup>54)</sup> 이러한 원색적인 비난의 시례로 B. Nezorov, "Comments on 'Bourgeois Falsification' of Battle of Moscow in WW II," Military History Journal (Voenno-Istoricheskii zhurnal), no. 4 (April 1982), pp. 39-44를 들 수 있다.

<sup>55)</sup> V. Zimonin and A. Prikhodchenko, "Perestroyka in Soviet Military Science as Mirrored in Western Press," Military History Journal (Voenno-Istoricheskii zhurnal), no. 3 (March 1989), p. 53. 저자들은 『소련군사연구지』 가 "이 학술지의 논문들에 나타난 저자들의 판단에서 소련 군사교리 수정에 관한 논의에 계급적 접근을 하고 그 요소들이 서방과 불가피하게 대치된다고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우리는 이 학술지의 관심사를 넓힐 기회를 위해 소련 군사연구의 신뢰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보를 주어서 학술지 편집 진을 돕고 소련의 군사전문가들이 이 학술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 다고 본다"며 소련군사연구소와 협력할 의지를 내비쳤다.

개설할 준비를 하면서 이미 장교들에게 작전술을 가르칠 구상을 하고 있었다. 56) 보쉬 데 체계는 작전술 교육을 위해 고등군사연구원에 2년 기간의 고등작전연구 과정(Advanced Operational Studies Fellowship) 을 설치했고 제임스 슈나이더를 강사로 기용했다.<sup>57)</sup> 이 고등작전연구 과정의 이론 강의를 담당한 슈나이더는 소련군의 주요 이론가인 투하 쳅스키와 블라디미르 트리안다필로프(Vladimir Triandafillov)의 저서 들에 관한 강좌를 교육 과정에 넣었다 58) 1985년에는 투하쳅스키의 저 서 『전쟁의 새로운 문제』(Novye voprosy voiny)를 미육군대학원이 번 역한 판본이 교육 과정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새로운 문제」는 미완성 저서인 탓에 작전술 교육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고등군사연구 과정은 1986년에 트리안다핔로프의 대표 저서 『현대군의 작전 특성』(Kharakter operatsii sovremennykh armii)를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사건군사연구소에 의뢰했고. 제이콥 키프가 그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 슈국이더가 교재로 사용한 『현대군의 작전 특성』영어본은 고등군사연구 과정을 이수하는 생도들에게 고전 전략과 현대 작전술의 이해 사이에 놓인 지적 교량의 역할을 해주는 저 작이었다 59)

<sup>56)</sup> Kevin C. M. Benson,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Commemorative History*, 1984–2009 (Fort Leavenworth, Kansa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09), p. 6.

<sup>57)</sup> Benson,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Commemorative History, p. 18. 상급작전연구 과정은 1995년에 상급작전술연구 과정(Advanced Operational Arts Studies Fellowship)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이콥 키프도 전임강사로 근무했다.

<sup>58)</sup> Swain, "Filling the Void," pp. 162. 슈나이더의 교육에 관해서는 Benson,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Commemorative History, pp. 28-30을 참고할 것. 트리안다필로프는 투하쳅스키를 도와 종심작전 이론의 출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sup>59)</sup> James J. Schneider, "Introduction: The Legacy of V. K. Triandafillov," in Vladimir K. Triandafillov, *The Nature of the Operations of Modern Armies* (London: Routledge, 1994), pp. xxvi-xxvii,

마침내 우월감을 내세우지 않고 미군은 소련군이 개발한 개념인 작전술 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60) 1986년에 고등군사연구 과정의 주도로 개 정된 미육군 「야전교범 요무령: 작전」(FM-100/5 Operations)은 드디 어 1982년의 교범을 넘어서서 군사술을 소련군처럼 전략/작전술/전술 로 명확하게 구분했다. 61) 미군은 적성 국가의 군사 이론을 연구해서 그 대처법을 찾는 수준을 넘어 그 이론을 체화하고 적용하게 된 셈이 다.62) 이러한 자세는 편견을 극복한 결과이며, 또한 그 편견의 극복은 미국 군사학자들의 열성적 연구를 밑바탕 삼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냉전 시대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소련군이 자랑하는 군사학 이 론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하고 체화하면서 미군이 발휘한 인내 는 "베트남 전쟁 이후 각 군의 군사 사상의 르네상스를 입증한" 1991년 걸프 전쟁(the Gulf War)에서 놀라운 열매를 얻었다. 63) 기술이 발전 하면서 실제 1990년의 미군 시단에 1945년의 군단의 임무를. 1990년 의 미군 군단이 1945년의 야전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이 커지며 군단이 작전술 수행의 주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 강화된 부 대가 작전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군사교육원에서 양성된 참모장교 들이 배치되었다. 이 참모장교들은 1990년의 "인터널 룩"(Internal Look) 훈련에 참여하며 작전술의 수행을 경험했다. 미군은 1944년에

는 필요한 개념틀인 작전술이 없어서 곤란을 겪었지만, 1990년에는 이 러한 불균형이 더는 없었다. 64) 작전술 도입이야말로 대규모 작전술적 기동이었던 걸프전쟁의 지상 전역이 원활히 수행되게 만든 원동력이었

<sup>60)</sup> Menning. "The Operational Art's Origin." p. 14.

<sup>61)</sup> Field Manual 100-5 Operations (Washington, DC.: GPO, 1986), p. 9.

<sup>62)</sup> 고등군사연구 과정은 미군 야전교범을 개정하던 1985년에 소련의 군사 전문가들 의 이론을 많이 참고했고. 소련군사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이 과정에서 많이 도 왔다. Schneider. "Introduction." p. xxvi.

<sup>63)</sup> 섬머스, 『미국의 걸프전 전략』, p. 183.

<sup>64)</sup> John S. Brown. "The Maturation of Operational Art: Operations Desert Shield and Desert Storm," in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pp. 440-444.

다고 할 수 있다.<sup>65)</sup>

특히 걸프 전쟁에 투입된 미군을 지휘하는 미국중부사령부(United States Central Command)의 수뇌부를 이루고 이 전쟁의 양대 작전 인「사막의 방패」(Desert Shield) 작전과 「사막의 폭풍」(Desert Storm) 작전66)을 기획하고 작성한 참모장교 70여 명이 있었다. "제다이 기사 단"(Jedi Knights)이라고 불린 이 참모장교들은 미육군지휘참모대학 고등군사연구원의 고등군사연구 과정에서 투하쳅스키와 트리안다필로 프의 저서를 탐구하면서 작전술을 익히고 소련군의 기법에서 영감을 얻었던 이들이었다 67) 그리고 이 장교들은 미육군지휘참모대학에서 데 이비드 글랜츠의 저서 『8월의 폭풍』을 교재로 1945년 8월에 만주에서 소련군이 일본 관동군을 격파했던 전략적 공세를 탐구한 이들이기도 했다. 68) 걸프 전쟁에서 "제다이 기사단"은 작전기획수립 과정에서 문 제에 봉착할 때마다 고등군사연구 과정 교수진에게 조언을 요청했으며. 그럴 때마다 고등군사연구 과정의 회장 구성원인 제임스 슈나이더가 소련군사연구소의 제이콥 커프와 함께 그 문제를 연구하고 해답을 찾 아내어 조언을 해주었다. 슈나이더는 소련군의 군사 이론을 바탕으로 문하생인 미군 장교들에게 작전술을 가르친 군사 이론가였다. 걸프전 쟁 뒤에 키프는 글랜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sup>65)</sup> 노양규, 「미국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 연구」, 92쪽.

<sup>66) 「</sup>사막의 방패」 작전은 1990년 8월 2일부터 이듬해 1월 17일까지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고 이라크에 진공할 군사 기지를 구축하는 작전이었으며, 「사막의 폭풍」 작전은 1991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미군이 동맹국 군대와 함께 이라크 군대를 상대로 벌인 지상전에서 수행된 작전이었다.

<sup>67)</sup> Schneider, "Introduction: The Legacy of V. K. Triandafillov," p. xxvii. "제다이 기사단"이라는 명칭은 조지 루카스(George Lucas) 감독의 영화「스타워즈」(Star Wars)에 나오는 제다이 기사단에서 따왔다. 이 "제다이 기사단"이 작전 기획에서 맡은 역할에 관해서는 John S. Brown, "The Maturation of Operational Art: Operations Desert Shield and Desert Storm," in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pp. 444-459을 참고할 것.

<sup>68)</sup> Glantz, The Relationship between "August Storm" and "Desert Storm", p. 3.

집(Jim)[제임스 슈나이더 고등군사연구원 교수]은 \_\_\_\_ 그 제다이들이 되보내온 문제 하나에 매달렸습니다. "이라크군의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은 무엇이 었나?" 짐과 나는 그 문제를 철저히 연구해서 공화국수비대라는 답을 찾아냈습니 다 이런 점에서, 목표는 만주에서의 목표와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군(관동 군)이 목표였지. 지형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69)

또한, 소련 군사이론의 전문가인 키프와 슈나이더는 문하생이었던 "제다이 기사단"에게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 정규군을 포위하고 아 군을 구출하고자 그 포위맛을 돌파하려는 이라크의 공화국수비대를 측 방기동으로 격멸하라고 조언했다. 70)

걸프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수행한 작전을 기획하고 수립한 미군 의 미국중부사령부 참모장교들이 얼마만큼 소련군의 군사 이론과 경험 에 심취해 있었는지는 걸프 전쟁의 작전명에서 드러난다. 작전이 기획 되는 초기 단계에서 구상된 일래의 작전명은 "사막의 검"(Desert Sword)이나 "사막의 기병도"(Desert Sabre)였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 정된 작전명은 다름 아닌 "사막의 폭풍"이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 다 "제다이 기사단" 가운데 몇 사람이 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에 글랜 츠에게 말해준 바에 따르면, 작전기획 과정이 진행될 때 포트 레븐워스 의 미육군지휘참모대학에서 온 "제다이" 한 명이 "사막의 검"이나 "사 막의 기병도"로 거론되던 작전명을 바꾸자고 계속 주장했다. 마침내 그

<sup>69)</sup> Ibid., p. 5. (짐은 제임스 슈나이더의 애칭.) 실제로 중부군사령관은 참모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국경의 와디 알 바틴(Wadi Al-Batin)의 서쪽에서 포위 작전을 실행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포위 작전의 목적은 다른 다국적 군 군대가 쿠웨이트를 향해 조공을 펴는 동안에 주공 부대가 이라크군 주력 부대 의 후방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 공격의 주목적은 이라크의 공화국수비대를 섬멸 하는 것이었다. 국방군사연구소, 『걸프전쟁: 미국방부의회최종보고서』(국방군사연 구소, 1992), 476쪽, 소련군의 만주 작전과 미군의 「사막의 폭풍」 작전을 비교한 연구로는 류한수. 「1945년 "8월의 폭풍"과 1991년 "사막의 폭풍": 붉은 군대의 만주 전역과 미군의 이라크 전역의 유사성 분석」, 『역사문화연구』, 제63권 (2017년 8월), 171-206쪽이 있다.

<sup>70)</sup> Glantz, The Relationship between "August Storm" and "Desert Storm", pp. 5-6.

제안을 받아들인 "제다이 기사단"은 작전의 모델이 1945년 8월에 소련 군이 만주에서 수행한 전역을 분석한 『8월의 폭풍』이었음을 기리고자 원래의 작전명을 내버리고 "사막의 폭풍"(Desert Storm)을 작전명으로 정했다. 71) 1991년 서남아시아의 사막에 휘몰아친 폭풍의 기원은 1945년 8월에 동북아시아의 만주에 휘몰아친 폭풍에 있었던 셈이다.

### 5. 맺음말

작전술 개념이 부재했던 미군은 베트남 전쟁 패배의 충격 속에서 개혁을 추진했다. 그 개혁 과정에서 냉전의 동서 갈등을 틈탄 독일국방군인시들의 영향으로 독일국방군인 대군의 개혁 모델이 되었으며 독일국방군이 소련군에 품었던 편견이 대국에서 확대재생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데이비드 글랜츠를 비롯한 서방의 소련군사사 전문가들은 적성국인 소련의 군대를 제대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소련군의 군사 이론과 개념을 능동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은 연구를 배출했다. 그 결과로 소련 군사이론가들의 저서가 미육군지휘참모대학 고등군사연구원의 고등군사연구 과정에서 교재로 채택되었고, 소련군에 관한편견에서 벗어난 미육군은 1986년판 「야전교범 요무령」 FM-100/5에소련군의 작전술 개념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미군 교육기관에서 소련군의 군사 이론, 특히 작전술을 배운 미군의 참모장교들은 1991년에 걸프전에서 활약하면서 미군의 대승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알궂게도 1991년은 오히려 미군에서 작전술 개념이 쇠퇴하는 기점이 되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 체제가 끝나자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게 줄었으며, 서방 진영의 안보를 위협하는

<sup>71)</sup> Ibid., pp. 6-7.

세력으로 여겨지던 소련이 무너지자 소련군의 작전술을 비롯한 소련학 의 수요가 사라졌다. 걸프 전쟁에서 "소련식 군대"인 이라크군을 무너 뜨리고 완승을 거두었으니 소련군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인식 이 미국에 생겨났다. 72) 한편, 재래식 전쟁보다는 대테러전과 대반란전 이 새로운 안보 환경으로 떠오르면서 대규모 재래전을 배경으로 탄생 한 작전술 및 소련군 연구는 인기를 잃었다. 73) 더욱이 1999년 발칸 반 도의 내전에 항공전력 위주로 개입해서 효과를 본 미군은 대규모 지상 전의 가치를 평가절하했으며, 최소한의 지상군 병력으로 최대의 효과 를 본다는 효과기반 작전(effect-based operation)이나 네트워크 중 심전(network-centric warfare) 개념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조에서 미국의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장관은 2003년에 군 사 혁신에 기초한 새로운 군사력이 지난 정밀 타격과 정보처리 능력으 로 강화된 10만 명 미만의 병력으로 이라크를 침공하라고 지시했다. 74) 최소한의 지삿군 전력으로 침공을 개시한 미군은 단기간에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대규모 작전술을 무시한

<sup>72)</sup> Kipp, "Operational Art and the Curious Narrative on the Russian Contribution," p. 200. 당시의 이라크군의 무기 체계가 거의 소련의 무기체계였고 초급 장교들 가운데 소련의 군사교육 기관으로 유학을 다녀온 장교들이 있었지만, 이라크군은 영국의 식민지 주둔군을 모태로 하고 있는 관계로 교리와 편제. 계급이 소련군보 다는 영국군과 유사했으며 고위급 장교들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사관학교에 서 유학한 인물들이었다.

<sup>73)</sup> 미육군의 군사사연구소(Center for Military History)에서 간행한 작전술을 다룬 연구 선집이며 1980년대 말에 출간 예정이었던 On Operational Art는 1994년에 출간되었고. 1990년대 초에 출간될 예정이었던 Historical Perspectives on Operational Art는 2005년에야 출간되었다. 미국의 군사이론가 에릭 달(Erik Dahl)은 네트워크 중심전의 원칙은 작전술의 원칙과 아무 관계도 없으며, 네트워 크 중심전의 시대에 작전술은 죽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린드(William Lind)는 이른바 "제4세대 전쟁"의 시대에 작전술은 과거의 존재일 뿐이며 제4세대 전쟁에 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bid., p. 200, 202,

<sup>74)</sup> 이근욱, 『이라크 전쟁: 부시의 침공에서 오바마의 철군까지』(한울이카데미, 2012) 94쪽. 에릭 신세키(Eric Shinseki) 미육군참모총장은 주요 군사작전이 종 결된 이후 이라크 치안 유지에 최소한 "수십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증언했 지만, 럼스펠드는 이러한 주장을 "터무니없다"며 무시했다.

대가로 이후의 이라크 안정화에 투입할 병력이 크게 모자란 상태에 처한 미국은 여러 해 동안 이라크 전쟁의 "대실패"(fiasco)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75) 그 결과로 작전술이 다시 미국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노력과 자원이 대테러전에 집중된 탓에 미군의 작전술은 스베친의 원래 정의나 1986년 교범의 정의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76)

비록 소련군의 산물인 작전술이 평가절하되고 소련학 연구의 수요가 급감했을지라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뒤 예전에는 감춰져 있던 자료가 개방되면서 학자들이 신선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글랜츠를 비롯한 당시의 연구자들은 소련군 작전술 연구에서 얻은 성과와 새롭게 개방된 자료를 바탕으로 삼아서 독소전쟁사 연구를 계속 진행했다. 또한 찰스 딕은 1944년 여름을 기준으로 서부전선의 서방연합군과 동부전선의 소련군의 작전술 수행을 비교하고 분석하며 소련군이 서방연합군보다 작전술학 주면에서 더 뛰어났음을 입증하는 연구서를 2016년 말에 저술하여 1980년대의 소련군사연구소와 소련학연구소의 연구 경향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제)

[원고투고일: 2017. 7. 16, 심사수정일: 2017. 11. 19, 게재확정일: 2017. 11. 21.]

주제어: 작전술, 군사사, 알렉산드르 스베친, 소련군, 미군, 미육군지휘참모대학, 고등군사연구원, 데이비드 글랜츠, 걸프 전쟁

<sup>75)</sup> Kipp, "Operational Art and the Curious Narrative on the Russian Contribution" p. 202.

<sup>76)</sup> 탈냉전기 미국의 작전술 변화에 관해서는 노양규, 「미국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 군 적용 연구」, 163-207쪽을 참고할 것.

<sup>77)</sup> Charles J. Dick, From Defeat to Victory: The Eastern Front, 1944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6). 구체적인 비교에 관해서는 pp. 252-262을 참고할 것.

# 〈참고문헌〉

- 국방군사연구소 『걸프전쟁: 미국방부의회최종보고서』 서울: 국방군사 연구소. 1992
- 김재박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 워정군(AEF)의 군사교리 연구: 1사단의 참전경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노양규. "미국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 연구". 충남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0
- 노양규. 『작전술』. 서울: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류한수·유승현. "'진흙 발의 거상'인가? '붉은' 스팀롤러인가?: 러시 아/소련 군대에 관한 서방 세계의 편견과 실상". 『중소연구』 제41권 1호 (2017년 5월) 293-322, DOI: 10.21196/aprc. 41.1.201705.009
- 류한수 "1945년 '8월의 폭풍'과 1991년 '사막의 폭풍': 붉은 군대의 만주 전역과 미군의 이라크 전역의 유사성 분석". 『역사문 화연구』제63권 (2017년 8월): 171-206. http://dx.doi.org/10.18347/hufshis.2017.63.171
- 리델 하트, 바실, 주은식 옮김, 『전략론』, 서울: 책세상, 1999
- 프리드먼, 로렌스, 이경식 옮김, 『전략의 역사』 제1권, 서울: 비즈니스 북스. 2014
- 버거. 피터, 국방대학원 옮김, 『소련 전격전 이론』, 서울: 국방대학원, 1986
- 섬머스, 해리, 권재상·김종민 옮김, 『미국의 걸프전 전략』, 서울: 간디서워. 2005
- 서머스, 해리, 민평식 옮김, 『미국의 월남전 전략』, 서울: 병학사, 1983

- 심경욱. "러시아의 항공우주산업과 국가안보". 『국방개혁의 패러다 임을 통한 항공우주력 건설』. 서울: 오름. 2007
- 이근욱. 『이라크 전쟁: 부시의 침공에서 오바마의 철군까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 육군대학 전략학처 작전술과. "작전술과 작전적 수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군사평론』제432호 (2010)
- 장문종. "스베친의 소모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캐럴. 제임스. 전일휘·추미란 옮김. 『전쟁의 집: 페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서울: 동녘. 2009
- 코코쉰, A. A., 한설 옮김, 『군과 정치: 러시아 군사정치·군사전략 사상사(1918~1991년)』. 서울: 육군군사연구소. 2016
- 판 크레펠트, 마틴, 주은식 옮김, [전투력과 전투수행], 서울: 한울, 1988 폰 멜렌틴, 프리드리히, 민평식 옮김, 그 갑전투, 서울: 병학사, 1986 합동교범 3-0. 『합동작전』(최종 인쇄본) 2010.9판
- 『합동작전』(미 합동교범 3-0 번역본, 2011.8.11 판)
- Adamsky, Dima P., American Strategic Culture and the U.S.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Oslo: Norwegian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2008
- American Battle Monuments Commission. United States Marine Corps. American Armies and Battlefields in Europe: A History. Guide. and Reference Book. Washington. DC.: U.S. Marine Corps, 1989
- Bellamy, Christopher, "Antecedents of the Modern Soviet Operational Manoeuvre Group (OMG)". RUSI Journal. vol. 129, no. 3 (September 1984)

- Benson, Kevin C. M., "Educating the Army's Jedi: The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and the Introduction of Operational Art into U.S. Army Doctrine 1983-1994". Ph.D. Diss., University of Kansas, 2010
- Benson, Kevin C. M.,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Commemorative History, 1984-2009. Fort Leavenworth, Kansa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09
- Brown, John S.. "The Maturation of Operational Art: Operations Desert Shield and Desert Storm". in Michael D. Krause and R. Cody Phillips (eds.).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2005
- Donnelly, Christopher, "Operational Manoeuvre Group: A New Challenge to NATO International Defence Review. 9 (1982)
- Doughty, Robert A., The Evolution of U.S. Army Tactical Doctrine, 1946-1976, Fort Leavenworth, Kansas: U.S.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79, 2001
- Dupuy. Trevor. General Balck and von Mellenthin on Tactics: Implications for NATO Military Doctrine. Maclean. VA.: BDM Corporation, 1980, pp. 22-38
- Dick. Charles J., From Defeat to Victory: The Eastern Front. 1944.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6
- Dick, Charles J., From Victory to Stalemate: The Western Front, 1944.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6
- Dick. Charles J., "Soviet Operational Manoeuvre Group: A Closer Look", International Defence Review, 6 (1983)

- Erickson, John, The Soviet High Command: A Military-Political History. 1917-1941. London: Frank Cass. 2001
- Field Manual 100-5 Operations, Washington, DC: GPO, 1982
- Field Manual 100-5 Operations. Washington, DC.: GPO, 1986
- Glantz, David M., American Perspectives on Eastern Front Operations in World war II. Fort Leavenworth, Kansas: SASO, 1987
- Glantz, David M., "August Storm: The Soviet Strategic Offensive in Manchuria, 1945", Leavenworth Paper, no. 7 (February 1983)
- Glantz, David M., "August Storm: Soviet Tactical and Operational Combat in Manchuria, 1945", Leavenworth Paper, no. 8 (June 1983)
- Glantz, David M., Soviet Military Operational Art: In Pursuit of Deep Battle, London: Frank Cass, 1991
- Glantz, David M., "Soviet Offensive Ground Doctrine Since 1945: Historical Overview". Air University Review. no. 34 (March-April 1983), pp. 24-35
- Glantz, David M., "Soviet Operational Formation for Battle: A Perspective", Military Review (February 1983)
- Glantz, David M., "The Red Army at War, 1941-1945: Sources and Interpretations,"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2, no. 3 (July 1998), pp. 595-617
- Glantz, David M., "The Nature of Soviet Operational Art", Parameter 15, no. 1 (Spring 1985), pp. 2-12
- Glantz, David M., The Relationship between "August Storm" and "Desert Storm". Unpublished article, 2013

- Glantz, David M., The Soviet Airborne Experience, Fort Leavenworth, Kansas: Combat Studies Institute, 1984
- Harrison, Richard W., The Russian Way of War: Operational Art. 1904–1940.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
- Hutchinson, Robert W., "The Weight of History: Wehrmacht Officers, the U.S. Army Historical Division, and U.S. Military Doctrine. 1945–1956."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78, no. 4 (October 2014), pp. 1321-48
- Kipp, Jacob W., "FMSO-JRIC and Open Source Intelligence: Speaking Prose in a World of Verse". Military Intelligence Professorial Bulletin (January-February 2006)
- Kipp, Jacob W., "Mass and Maneuver and the Origins of Soviet Operational Art" in Karl Reddel (ed.). Transformation in Russian and Soviet Military History: Proceedings of the Twelfth Military History Symposium, USAF Academy, 1986. Washington, DC.: U.S. Air Force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99
- Kipp, Jacob W., "Operational Art and the Curious Narrative on the Russian Contribution: Presence and Absence over the Last 2 Decades". in Stephen J. Blank and Richard Weitz (eds.). The Russian Military Today and Tomorrow: Essays in Memory of Mary Fitzgerald. Carlisle,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10
- Krause, Michael D., and R. Cody Phillips (eds.),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2005
- Lock-Pullan, Richard, U.S. Intervention Policy and Army Innovation: From Vietnam to Iraq. New York: Routledge 2006

- Luttwak, Edward N., "The Operational Level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5, no. 3 (Winter 1980–1981). pp. 61-79
- Matheny. Michael R. Carrying the War to the Enemy: American Operational Art to 1945.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12
- Mearsheimer, John, "Maneuver, Mobile Defense, and the NATO Central Fro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6, no. 3 (Winter 1980–81)
- Menning. Bruce W., "The Deep Strike in Russian and Soviet Military History". The Journal of Soviet Military Studies, vol. 1 (April 1988)
- Menning, Bruce W., "The Operational Art's Origin", in Michael D. Krause and R. Cody Phillips (eds.),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2005
- Naveh, Shimon, In Pursuit of Millitary Excellence: The Evolution of Operational Theory: London, Frank Cass, 1997
- Nelson, Herold W., "The Origin of Operational Art", in Michael D. Krause and R. Cody Phillips (eds.).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2005
- Nezorov, B., "Comments on 'Bourgeois Falsification' of Battle of Moscow in WW II." Military History Journal (Voenno-Istoricheskii zhurnal), no. 4 (April 1982)
- Orenstein, Herold S., (ed.), The Evolution of Soviet Operational Art. 1927–1991: The Documentary Basis vol. 1: Operational Art. 1927-1964. London. Frank Cass: 1995
- Schneider, James J., "Introduction: The Legacy of V. K. Triandafillov", in V. K. Triandafillov, The Nature of the Operations of Modern Armies, London: Routledge, 1994

- Showalter, Dennis E., "A Dubious Heritage: The Military Legacy of The Russo-German War". Air University Review. vol. 36 (March-April 1985)
- Smelser, Ronald, and Edward Davies Jr., The Myth of the Eastern Front: The Nazi-Soviet War in American Popular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Svechin, Aleksandr A., Strategy, Minneapolis: East View Publications, 1992
- Swain, Richard M., "Filling the Void: The Operational Art and the U.S. Army". in The Operational Art. 1996
- Sutor, Kevin, "To Stem the Red Tide: The German Report Series and Its Effect on American Defense Doctrine. 1948–1954".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57, no. 4 (October December 1993)
- Turbiville Jr., Graham H., "Soviet Operational Logistics. 1939-1990." in Michael D. Krause and R. Cody Phillips (eds.),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2005
- Turbiville Jr., Graham H., "Sustaining Theater Strategic Operation". The Journal of Soviet Military Studies. vol. 1 (April 1988)
- Waddell, Timothy S., Marshal N. V. Ogarkov and the Transformation in Soviet Military Affairs. MA Thesis: University of Manitoba, 1999
- Zimonin, V., and A. Prikhodchenko, "Perestroyka in Soviet Military Science as Mirrored in Western Press". Military History Journal (Voenno-Istoricheskii zhurnal). no. 3 (March 1989)

<Abstract>

From "August Storm" to "Desert Storm": The U.S.

Army's Research and Adoption of the Soviet Theory of

Operational Art in the Cold War Era

Lyu, Han-su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influence exerted by the American military scholars on the adoption by the U.S. Army of the theory of operational art which had been developed in the Soviet Union. We could see that the Russian military theorist Alexander Svechin introduced the innovative concept of operational art in 1920s. The Soviet army was quick to adopt operational art as its official military theory, whereas the U.S. army ignored it for a long time The latter's denial of the operational art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re was no the massive standing army which could be a basis of operational art and the lack of the experiences of managing the massive army in USA during the peace time. Moreover, the massive conventional forces have been replaced by nuclear weapons during the Cold War. The defeat in the Vietnam War, the massive build-up of the Soviet conventional forces, and the result of the Middle East War in 1973 compelled the U.S. army to think it necessary to adopt an intermediate concept between strategy and tactic, however. Under such circumstances, some American specialists in the Soviet army such as David Glantz and Jacob Kipp began to argue that the U.S. army should not hesitate to adopt the operational-level art which was the part and parcel of the Soviet military theories. Their endeavor prompted the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to use the Soviet military literature as textbooks in the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At last, the concept of operational art was officially stipulated in the 1986 FM-100/5. Those competent U.S. staff officers who learned the operational-level art by studying the Soviet military theories proceeded to make the efficient plans for the U.S. army's military campaigns in the Gulf War in 1991. In a nutshell, some excellent Western specialists scrutinized the military theories of the Soviet Army in the Cold War era and contributed to the adoption by the U.S. Army of the operational art developed by the Soviet military theorists. As a result the USA won the Gulf War in 1991.

Keywords: operational art, military history, Alexander Svechin, Soviet army, U.S. army, David Glantz, the Gulf War, the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the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 제2차 세계대전기 소련의 대일전 참가를 둘러싼 미·소 군사협력

- 무기대여법과 '훌라 프로젝트(Proiect Hula)'의 역할을 중심으로 -

심헌용\*

- 1. 들어가는 말
- 2. 독소전 발발 이후 미소 군사협력
- 3. 소련의 대일전 참전 전후 미소 군사협력
-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1917년 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볼셰비키 정부는 1918년 3월 3일 독일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에서 물러났지만 폴란드, 발트지역 외 우크라이나까지 내주는 굴욕을 맛보았다. '일보전진을 위한 이보후퇴(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전술이었으나 곧이어 전개된 연합국의 간섭전쟁으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sup>\*</sup>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 선임연구원

이때 일본에 이어 미국이 시베리아로 출병함으로써 미소 양국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다. 미국의 적대적 대러 관계는 1918년 11월 독일 이 패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으며 1922년 소련(USSR)이 성립되고도 한동안 개선되지 않았다.

1933년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F. Roosevelt)는 그동안의 대소 적대 정책을 끊고 11월 16일 외교관계를 정상화시켰다. 소련을 승인하며 외 교관계를 복원하는 데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소련은 공산주의 이념 을 선전, 선동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지도 않으며, 심지 어 제정러시아가 미국에 진 부채를 승계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런 국가와 외교관계를 복원하느니 차라리 신흥 산업자본국가 독일이나 일본과 협력하는 게 순리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루스벨트는 오히려 소련과 협력함으로써 파시스트 국가를 견제하는 것이 더욱 미국의 국익을 보장하고고 주장하였다. 루스벨트의 대소 유화정책은, 서방국가들이 대공항으로 신음할 때 계획경제를 통해 '씩씩하게 전진'하는 소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작용한 결과였다. 루스벨트는 양국 관계가 악화되어 소련이 독일과 강화할 경우 독일의 공세가 미국으로 뻗칠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루스벨트의 대소 유화정책은 소련을 앞세워 독일의 대외 팽창을 막아보자는 의도가 다분했다.

소련은 소련대로 혁명과 내전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하고 산업화를 달성하고자 공업화정책에 필수적인 외국의 원조를 필요로 하였다. 스탈린은 최고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사회주의 체제 건설은 우선 소련이란 일국 내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일국사회주의를 주창하였다.(1924)이는 역으로 보면 세계혁명을 우선하여 유럽 각국에 공산주의 운동 내지 혁명을 전파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다름 아니었다. 이같은 소련의 변화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1930년대 세계적 대공황에서 탈출하려는 활로 모색에 소련과 반파시즘 연합전선을 맺을 가능성을 주었다.

미국과 소련의 협력은, 비록 경직된 이념과 체제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공황과 파시스트 추축국(Axis-Powers)이 일으킨 전쟁에 직면하

여 본격화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군사협력은 전시 연합국으로서 '공동 의 적' 독일을 격퇴시킨다는 목표 하에 탄력을 받았다. 미소 군사협력 문제는 민감하면서도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안이었다. 비록 냉 전기의 비판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시 미소 양국의 협력은 지속적으 로 주목된 관심주제였다.1) 그러나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중 반 이후 냉전기 이념과 체제 갈등이 서서히 걷히는 때에서였다. 1986 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미국과 소련의 학자들은 1933년 복원된 지 53년이 지난 미소 외교관계를 군사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재점검하였다 2)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1989년 미국 육군 군사연구소 는 제2차 세계대전시를 종합 편찬하는 과정에서 미소 양국의 군사협력. 특히 미국이 소련 등 연합국에 군수물자 및 장비를 지원한 경위와 과정 을 자세히 언급하였다.3)

러시아에서는 무기대여법과 현일 개일전 참전에 대한 연구섯과가 관심만큼이나 큰 성과로 이어지자 있다. 4) 러시아에서 수행된 무기대여

<sup>1)</sup> А. Ю. Борисов, США *и СССР. Союзники в годы войны* 1941–1945, М., 1983; Израэлян В Л Антигитлеровская коалиц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 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ССО (IIIA и Англии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41-1945, М., 1985; В. Я. Сиполс, На пути к великой победе: Совет 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1941-1945, М. 1985.

<sup>2)</sup> Theodore A. Wilson, "In Aid of American's interests: The Provision of Lend-Lease to the Soviet Union, 1941-1945," Soviet-U.S. Relations 1933-1942,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9, pp. 121-139.

<sup>3)</sup> Robert W. Coakley and Richard M. Leighton, United States Army in World War II. The War Department. Global Logistics 1940-1943,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9; Robert W. Coakley and Richard M. Leighton, United States Army in World War II. The War Department, Global Logistics and Strategy 1943-1945,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9; T. H. Vail Motter, The Middle East Theater, The Persian Corridor and Aid to Russia,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9.

<sup>4)</sup> А Николаевич Лаптеб, Союзн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 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проблемы ленд-лиза, Диссертация 2005 г.: knigi.link/russia-history(2016.04.19.), С. С. Бережной, Флот СССР. Кора бли и суда лендлиза Справочник М.: Avito.ru, 1994; М. П. Комаров,

법에 관한 연구는 1989년 발표한 소콜로프(Б. В. Соколов)의 글이 객관적이란 평가다. 5) 그 후 2005년 라프테브(А. Н. Лаптеб)가 박사학위논문 "제2차 세계대전기 동맹국 관계와 Lend-lease문제"를 통해미소간 자동차 및 산업교류가 전시 무기대여법 효과로 자동차, 항공기, 기관차 등 동력기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주었다는 연구성과를 냈다. 6) 러시아에서는 무기대여법이 미친 전시 소련의 전쟁수행에 대한 영향이당시 소련 국민생산량의 4%에 지나지 않는다")며 폄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산술적 비판을 넘어 연합국간 군사원조가 준 질적 효과가 컸음을 인정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무기대여법을 둘러싼 진실은 여전히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본고가 관심을 갖는 주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둘러싼 미소 양국의 군사협력에 관한 것이다. 소련을 지원한 국가는미국 외 영국, 캐나다도 있으며, 소련으로 지원한 물자의 수송루트는동서남북 전방위로 다양하게 응용되었다. 미국이 소련과 체결한 무기대여법, 즉 소비에트의정서는 해마다 체결되어 전쟁이 종식된 1945년

*Ленд-Лиз для военного морского флота СССР*, М: Морское наследие, 2014.

<sup>5) 1989</sup>년 그가 편찬한 논문모음집인 『대조국전쟁의 진실(논문모음집)』에서 그는 1941-1945년간 소련 군사력에서 Lend-Lease가 차지하는 역할(Роль Лентлиза в советских военных усилиях 1941-1945 гг,)이란 글을 발표하였다. 이글은 1994년 Journal of the Slavic Military Studies(vol. 7, No. 4, Dec., 1994)에 영문으로 번역되어 미러 양국 관계 전문가 간 이견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그의 글은 스쩨치니우스(Эдвард Стеттиниус)가발간한 『랜드리스의 수수께끼(Загадка Ленд-лиза)』의 부록으로 첨부되는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되었다.

<sup>6)</sup> А. Н. Лаптеб, Союзн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проблемы ленд-лиза, Циссер тация 2005 г.,(검색일: 2016.04.19.) knigi.link/russia- history.

<sup>7)</sup> 소련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미국 측의 군수지원 규모가 소련이 치룬 전시 부담금의 4%에 지나지 않는다고 의미를 과소평가하기도 하였다. Н. Вознесенский, В нешняя экономика СССР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М.: Госполиздат, 1948.

9월 2일 이후에도 효력이 지속되었다. 무기대여법의 효과는 유럽의 대 독전선 외에도 아시아 · 태평양의 대일전선에서도 발휘되었다. 미국 육 군 군사연구소는 북태평양 전역에서 대일전과 관련해 협력한 미소간 군수물자 지원 및 소련 병사를 훈련시킨. 일명 '홀라 프로젝트(Project Hula)'까지 전개하였다. 이처럼 미소간 군사협력 사업은 그 중요성에 비해 여전히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분석해 보고 자 하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중 심으로 전개된 미소 양국의 군사협력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독일의 소련 침공시 미소협력 양상과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관한 외 교적 혐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소련이 '제2 전선', 즉 태평양 북부지역과 만주 및 동북아 지역에 형성된 대일전선에서 보다 차원이 다르게 전개된 미소간 군사협력 사 연구로 유도할 것이다. 그 속에서 을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무기대여법의 연관성이 규명되기 때문이다. 그 후 훌라 프로젝트(Project Hula)라 명명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규모가 크고 야심찼던 미소간 군사 협력사업이 어떻게 어떤 내용 으로 전개되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시 미소 양국의 군사협력의 정도와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독소전 발발 이후 미소 군사협력

#### 가. 미국의 무기대여법 제정과 군수지원

미소 간 협력적 군사관계는 양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파시스 트 독일과 전쟁을 치루면서 구체화되었다. 1938년 3월 독일의 나치 정 부가 범게르만주의를 표방하며 오스트리아를 병합하였고 9월에는 체코 를 분할해 들어갔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뮌헨협정으로 독일의 대외 팽창을 저지하려 했으나 독일은 체코의 나머지 지방마저 병합하고 말 았다. 사태가 심각히 돌아가자 영국은 폴란드와 상호원조조약을 맺는 한편 프랑스와 소련에 동맹을 제안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였다. 그 러나 소련은 오히려 1939년 8월 23일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독일이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하자 자신도 폴란드 분할에 동참하였다. 영국은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이 철군하길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자 전 쟁을 선포함으로써 인류역사상 최악의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 되었다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자 대서양 건너 미국은 연합국에 군수물자나 장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독 연합전선에 동참하였다. 1941년 3월 11일 미 의회는 이른바 무기대여법(Lend-Lease Act)8)을 통과시켜 군 수지원 형태로 참여한 셈이다 전쟁을 치루는 연합국에게 군수 물자의 물품비만이 아니라 그 유흥비까지 무료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영국이 수혜를 입었으며 4월에는 중국으로 확대되었다.

1941년 6월 22일 03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해 들어갔다. 불가침조약 을 체결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독소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독일은 영국 과 계속 전쟁을 치루면서 교착상태에 빠지자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 였다. 미국이 영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전력을 회복한 까닭이다. 게다

<sup>8)</sup> 무기대여법(Lend-Lease Act. Закон о ленд-лиз)은 '미합중국 방위촉진 조 례(An Act to Promote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Закон по об еспечению защиты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를 간단히 부르는 말이 다. 이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Raymond H. Dawson, The Decision to Aid Russia, 1941.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59; Warren F. Kimball, The Most Unsordid Act: Lend-Lease. 1939-1941.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9; Robert Huhn Jones. The Reads to Russia: United States lend-lease to the Soviet Uni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69; George C. Herring, Aid to Russia. 1941-1946: Strategy, Diplomacy, the Origins of the Cold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3; Albert Loren, Russia's Life-Saver: Lend-Lease Aid to the U.S.S.R in World War II. Weeks Lexington Books. 2010.

가 유럽 동부지역엔 계획경제로 성공적인 군비증강을 이룬 소련의 부 상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했다고 안심할 수 없었다. 독일은 대소 전쟁 개 시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유럽 동부에 제2의 전선이 형성될 기회마저 없앨 전격전(blitzkrieg)을 개시하였다. 그 전격작전은 초기에 소련군 주력을 섬멸하고 점령지역을 확산한다는 일명 바르바로사 작전(Op. Barbarossa)이라 불렸다. 독일은 기습전으로 붉은 군대를 아르한겔스 크-아스트라한 선(A-A 라인)까지 밀어낼 심산이었다.

소련 지도부는 독일의 기습 침공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7월에 전 쟁계획안을 내놓았지만 10월에야 국민총동원 계획을 내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독일군의 1차 공세가 끝나는 9월 30일 경 소련 은 레닌그라드-스몰렌스크-브랸스크-하리코프 라인까지 밀렸다. 스 탈린은 1941년 7월 4일 국가계획위원회(GOSPLAN)에 우랄 이서지역 의 산업시설을 우랄 이동지역 및 세계리아로 옮기되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은 초토화 작전으로 발전소 광산, 토지 등을 불 지르거나 파괴시 켰다

소련은 중요 산업시설을 우랄산맥 이동지역으로 후송하면서 생산중 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였다. 그러나 한동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여 높은 생산량을 기대할 순 없었다. 저 하된 산업생산량에 비례해 전선은 계속 밀렸고 미국 등 서방국가의 지 원은 당연한 듯 보였다.

미국은 무기대여법을 소련에도 적용하여 군수물자를 지원하기로 하 였다. 미소 양국은 모스크바에서 군수협력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끝에 1941년 10월 1일 '제1차 소비에트의정서(First Soviet Protocol. 혹은 모스크바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제1차 소비에트의정서의 유효기간은 1942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다. 그때까지 루스벨트는 총 10억 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루스벨트는 연합국에 대한 군수지원을 원활히 하 기 위해 백악관이 직접 관리하는 무기대여청을 만들었다. 모스크바에

는 미국인이 상주하는 지부를 두어 업무를 전담시켰다.<sup>9)</sup> 미국과 소련은 파시스트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해야 했으므로 군수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조하였다. 소련으로 최초로 보내질 특별 분량의 군수물자 약 2,972톤이 1941년 12월 이란의 '페르시아경로(трансиранский маршрут)'을 경유하여 제공되었다.

경로	지원분량(천)	%	비고
태평양경로(Тихо-океанский маршрут)	8,244	47.1	
페르시아경로(Трансиранский маршрут)	4,160	23.8	
북극경로(Артетикиские конвои)	3,964	22.6	최단경로(2주) (미동부-무르만스크)
흑해경로(Черно-морский маршрут)	681	3.9	
소비에트 북극경로(Советская артетика	452	2.6	
총계	17,501	100	

〈표 1〉 대소 군수물자 운송 경로와 분량

제1차 소비에트의정서에 따라 소련에 지급된 군수물자는 127억 3,600만 톤이었다. 이때 제공된 물자를 보면 군수용 비행기 22,150여 대, 탱크 12,700대, 화물차 975,883대, 모터사이클 35,170대, 트랙터 8,071대에 자동화기 131,633대, 폭발물 345,735톤 그리고 민수용 신발, 가죽, 광물, 주류 등 다양하였다.<sup>10)</sup>

제1차 소비에트의정서에 나타난 군수협력사업의 특징은 배상문제가 전혀 발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정서에는 소련측으로부터 어떤 정 보도, 구체적인 부대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일방적 원조제공을 명기하 였던 것이다. 스탈린은 의정서 내용에 만족했으며 미국측 서명자인 해

<sup>9)</sup> T. H. Vail Motter, op. cit., p. 65-66.

<sup>10)</sup> G. C. Herring Jr., Aid to Russia, 1941–1946: Strategy, Diplomacy, the Origin of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3, p. 66.

리만은 소련에 대한 지원이 미국의 유럽전선에의 개입 대가로 전개되 길 희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였다 11)

#### 나. 미국이 요구한 소련의 대일전 참전

1941년 12월 8일 일본 연합함대가 진주만을 기습하자 그동안 중립을 지키던 미국이 대일 선전포고와 함께 참전하였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 된 것이다. 미국은 미군의 희생을 줄이고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소련과의 협력을 더욱 지속해 나갔다. 전쟁 발발 직후인 12월 10일, 미 극동군 최고사령관 맥아더(D. MacArthur)는 육군 참모총장 마셜(G. C. Marshall)에게 소련의 참전을 권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표명된 바는 없었다. 당시 주미 소련 대사였던 리트비노프(M. Litvinov)는 미국무장관 코델 헐(C. Hull)에게 소련이 미국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12) 당시 소 련이 독일과 전쟁을 치루는 상태에서 '제2 전선'인 태평양 전선을 개설 하기란 역부족이란 파단이었다 즉 일본이 미국을 침공한 직후에도 미 국이 소련을 대일 전략 기획 속에 끌어들이기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은 1942년 6월 4일 개시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의 주 력을 격파함으로써 태평양 해상에서 제해권 확보의 전기를 마련하였 다. 13) 그러나 미국은 해전시 본토인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the Aleuti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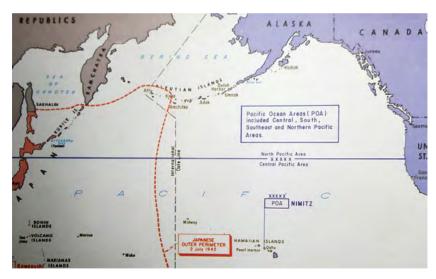
<sup>11)</sup> 이주천, "전쟁 초기 루스벨트의 대소 무기대여 정책(1941-1942) - 제1차 소비에 트의정서를 중심으로", 『미국사연구』제5호, 1997, pp. 125-126.

<sup>12)</sup> Richard A. Russell, Project Hula, Soviet-American Cooperation in the War Against Japan, No. 4. The US Navy in the Modern World Series, Washington : Naval Historical Center Department of the Navy, p. 4, 2003.(0) Project Hula)

<sup>13) 1942</sup>년 6월 태평양 한복판인 미드웨이 섬 근처에서 벌어진 해상 대회전을 말한다. 미 해군 총사령관 니미츠(Chester W. Nimitz) 제독은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아마 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가 이끄는 주력함대의 암호 기동로를 해독하여 대패시 켰다. 미 해군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일본 항공모함 4척과 함대 비행 기를 파괴함으로써 태평양 해상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의 끝자락에 위치한 애투(Attu)와 키스카(Kiska) 섬을 점령당하였다. 일본 연합함대 소속 태평양 북부함대가 미드웨이 해전에서 고전하는 연합함대 본진을 지원하려다 승세가 불리해지자 합류를 포기하였고 현 지에 그대로 잔류한 채 알류산 열도의 섬 일부를 점령했던 것이다.

1942년 6월 17일 미소 간 군사협력 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루스벨트는 스탈린에게 메시지를 보내 "일본이 소련의 연해 지방에서 작전을 수행할 유형의 증거(tangible evidence)가 제시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14) 그럴 일이 벌어지면 미 공군이 군사지원할 것이므로 시베리아에 적당한 상륙 장소(기지)를 제공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스탈린의 즉답이 없자 루스벨트는 6월 22일 다시금 메시지를 보내알래스카—시베리아 정기운항로(Alaskan—Siberian ferry route)를 개



〈지도 1〉 미드웨이전투 이후 태평양 해상의 미일소간 세력범위(일본의 애투, 키스카 점령)

출처: Thomas E. Griess(ed.), Atlas for the Second World War. Asia and the Pacific, Wayne, New Jersey: Avery Publishing Group Inc., 1985, p. 16.

<sup>14)</sup> Richard A. Russell, Project Hula, p. 6.

설하고 러시아내 비행장 부지 및 항로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15) 그러 나 유럽전선에서 독일의 패배가 요원한 상황에서 소련은 태평양전쟁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을 모두 차단하였다. 이에 따라 1943년 가을까지 전개된 일련의 연합국 간 회의에서 미소 양국군은 북태평양 해상에서 의 군사협력 문제에 하나의 진전도 이룰 수 없었다.

1943년 중반 이후 최악의 고비를 넘긴 소련이 유럽 동부전선에서 공 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 즈음 1943년 10월 모스크바에서는 미영소 3국 외상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미 국무장관 헐(C. Hull)이 소련 의 대일전 참전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때에도 스탈린은 독일과 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여전히 소련은 유럽 전선에서 독일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한 시점이어서 또 다른 '제2 전선' 을 태평양 지역에 개설할 필요나.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16) 다만 이 전과 대응이 달랐던 점은, 아이 차전 세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여 건이 조성된다면 소련도 극동에서의 대일전 참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 달 후인 1943년 11월 이란 테헤란에서 미영소 3국 정상회담이 열 리자 소련의 대일전 참전 문제가 또다시 논의되었다. 11월 28일 개최된 첫 번째 회의에서 루스벨트가 태평양전선과 유럽전선의 현황을 언급하 였다. 그 중 태평양전선 상황을 설명하던 중에 루스벨트는 미 해군이 수많은 부대와 병력 1백만 명 이상을 투입하였고 호주, 뉴질랜드와 작 전을 수행 중이라면서. 비록 작전구역이 넓지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였다. 루스벨트는 계속해서, 태평양 남부로부터는 곧장 일본 남 동부로 진격할 수 있으나 태평양 북부에서는 진격하지 못하고 있다 하 였다. 그 이유로 알류산 열도가 쿠릴열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 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루스벨트는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으로 군 수물자와 무기를 공급할 길을 개척하면서 대일전을 수행해야 하고 도

<sup>15)</sup> *Ibid*.

<sup>16)</sup> Richard A. Russell, Project Hula, p. 7.

쿄와 공업지대를 공습할 목표를 갖고 있다 설명하였다. 17)

스탈린은 루스벨트의 현황설명에 응답하면서 "영미 부대가 태평양전선에서 버텨내고 있음에 우리 러시아인들은 환영하는 바이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영미 친구들의 노력에 동참할 수 없다. 우리 군사력은 서부전선을 맡고 있어서 반일 작전을 수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극동지역에 있는 소련군은 방어만 할 정도이며 공격하려면 최소 3배의군사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참전은 독일이 패전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며 비로소 반일 공동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18)는 기존입장을 견지하였다.

미일 양국의 군지도자 간의 대일전 참전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지만, 그럼에도 군사작전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진행되었다. 소련은 대일전 참전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군사 기획가들 사이에 예상 가능한 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루스벨트는 스탈린에게 연해주의 항공기지를 이용하고 북서 태평양 지역에서 해군작전을 수행할 준비문제를 언급하였다. <sup>19)</sup> 이 문제는 물론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루스벨트는 스탈린에게 '부록'으로 건넨 문건에서 소련 측의 입장과 상응한 정보를 주소미국대사관에 제공해 주길 희망하였다. 여기서 상응한 정보란 연해주지역의 항공기지와 주거지, 물자, 통신수단, 기상조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알레스카에서 연해주로 진입할 항공노선 정보가 그것이었다. 미국은 연해 지역에서 100에서 최대한 1,000대에 이르는 4구동 폭격기

<sup>17)</sup> Мини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а м 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период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 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Том II Тегеран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трех союзных держав—СССР, США и Велико британии 28 ноября—1 декабря 1943 г.)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78, с. 94.

<sup>18)</sup> Тамже. с. 95.

<sup>19)</sup> Там же. с. 134.

와 폭격을 수행할 요원들이 머무를 기지를 제공받길 원했다 20) 미국은 작전이 극비리에 즉시 준비된다면 일본에 대한 폭격은 신속히 끝날 것 으로 기대하였다

1943년 11월 29일 미군은 해군 작전에 대한 예비계획을 스탈린에게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1) 일본에 관한 군사정찰 자료의 제공. 2) 육해 상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련 측의 잠수함. 함정기지용 항구를 미국이 설비를 확충하여 활용할 가능성. 3) 미국이 쿠릴 열도의 북부지역을 공 격할 경우 소련 측이 직. 간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 4) 미국이 소련 측 항구를 이용할 시 항구의 해군 군사력 정보와 하역능력에 대한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21)

이에 대한 스탈린의 대답은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련은 여전히 극동전선에서 공세를 펼칠 군사력이 부족하며, 참전한다면 독 일 패배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 하였다. 다만 스탈린은 귀국 후 미국 측 요구사항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으며, 한 달이 지난 후 첫 번째 요구 사항인 일본에 관한 군사정보 제공은 가능하나 나머지 다른 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22)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소련의 참전 대가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소련은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후 빼앗긴 영토와 이권을 되찾 고자 하였다. 사할린 남부와 쿠릴 열도를 되찾고 중국의 뤼순과 다롄이 포함된 랴오둥반도 조차권과 중국 동부와 남만주 철도에 대한 조차권 을 요구하였다. 그 후 1943년 12월 소련은 주소 미국대사 해리만에게

<sup>20) &</sup>quot;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военно-воздущных опер аций в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части Тихого океана (29 наября 1943 г.)," Мини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Советский С оюз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периода Великой от 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Том II ор. cit., с. 119.

<sup>21) &</sup>quot;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военно-воздущных опер аций в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части Тихого океана(29 наября 1943 г.)," *op. cit.*, с. 120.

<sup>22)</sup> Richard A. Russell, Project Hula, p. 8.

군사적 이유로 점령하고 있던 외몽골에 대한 영향권까지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알타회담 과정에서 연합국간 비밀협정으로 보장되었다.

# 3. 소련의 대일전 참전 전후 미소 군사협력

#### 가.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연동된 '마일포스트 프로그램'

앞서 언급되었듯이 미국의 소련에 대한 군수지원은 1941년 3월 미의회가 채택한 무기대여법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는 연합국 소련이 독일의 침공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 지원을 매개로 미국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요구할 수 있었다. 소련에 대한 미국의원조는 종전 직전 2년간, 즉 1943년 중반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제3차소비에트의정서가 1943년 10월 14일 체결되어 미국의 소련에 대한 군수지원은 그 이듬해인 1944년 6월말까지 연장되었다. 제3차소비에트 의정서가 체결된 시점은 소련 적군(the Red Army)이 유럽 동부전선에서 공세를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조응한다.

(표 2) 무기대여법 관련 미소 '소비에트의정서'(1~3차) 체결 현황

회수	체결일	효력 발생 기간	비고
1차	1941. 10. 01.	1941. 10. 1.~1942. 06. 30.	군수물자 지급량 127억 3,600만 톤
2차	1942. 10. 06.	1942. 07. 1.~1943. 06. 30.	
3차	1943. 10. 19.	1943. 07. 1.~1944. 06. 30.	유럽전선에서 소련군 공세로 전환

미군 책임 장교들은 대독 전투를 치루는 적군이, 1) 유럽에서 영미 연합군이 성공적으로 공세를 취할 조건을 만들고, 2)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토록 하며, 3) 아시아추축국을 패퇴시키는 데 소련이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도록 군사원조를 지속하였다. 23)

이 시기에 영국이 1941년 10~12월 사이 지원을 약속했던 800대의 비행기, 1,000대의 탱크 중 669대의 비행기와 487대의 탱크를 뒤늦게 나마 지원하였다. 미국은 제3차 소비에트의정서에서 약속한 군수장비 와 물자. 특히 545대의 비행기와 783대의 탱크 그리고 화물차량 16.502대 등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는 약속 분량에 훨씬 미치지 못 하였다. 계획량에 비해 전달된 군수물품은 상당히 적었다.24)

1944년 10월. 처칠이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을 만났을 때 루스벨트 대 통령을 대신하여 참석했던 주러 미국 대사 해리만(W. Averell Harriman) 이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다시 언급하였다. 여전히 스탈린은 독일이 항 복한 3개월 후에야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25) 다만 참전 시기를 명시 함으로써 앞선 답변보다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탈린은 연해 주와 캄차카에 있는 항공기와 회토로프스크 해군 기지를 제공할 것이며, 아무르강 연안의 항구와 철도노선들이 콤소몰스크 지역의 항 구와 연계되어 미군이 공군기지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도 언급하였 다 26) 그러나 스탈린은 소비에트 극동지역의 지상군이 전력을 갖추기 위한 물자지원을 강조했으며 '추가 지원목록'을 작성해 주면서 1945년 6월 말 이전에 태평양경로로 공급되길 희망하였다 27)

당시 소련은 공세를 취하며 동유럽에서 독일군을 몰아내고 자신들에 게 유리한 정부를 수립해 나가던 참이었다. 이때 스탈린은 소련이 대일 전 참전 결정하기 전에 무기대여법에 따라 할당된 연간 지원분 외에 별 도로 군수물자와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sup>23)</sup> Robert W. Coakley and Richard M. Leighton, United States Army in World War II. The War Department, Global Logistics and Strategy 1943-1945,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9, p. 671.

<sup>24)</sup>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Краткая история, М., 1970.

<sup>25)</sup> Robert W. Coakley and Richard M. Leighton, op. cit., p. 690.

<sup>26)</sup> *Ibid.* 

<sup>27)</sup> Ibid.

회차	체결일	효력 발생 기간	비고
4차	1944. 04. 17.	1944. 07. 01 ~ 1945. 05. 12	
5차	1944. 10. 17.	1944. 10. 17~ 1945. 09. 02	<ul> <li>일본항복일 9. 2.까지 연장(실제 9월 20일 종료)</li> <li>태평양경로 활용한 이송명령 (Milepost Program이라 명명) (그 중 Project Hula 운용)</li> </ul>

〈표 3〉 무기대여법 관련 미소 '소비에트의정서'(4~5차) 체결 현황

당시 무기대여법은 1944년 4월 17일 제4차 소비에트의정서가 체결되어 있어서 1944년 7월 1일부터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유효한 상태였다. 그런데 미국이 대일전 참전의 선행조건으로 군수물자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며 '추가 지원목록'을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의정서가 1944년 10월 17일 체결되었다.

미국은 소련이 추가로 요구한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데 원칙상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얼본의 방해공작을 뚫고 이른바 '태평양 경로'를 이용하여 소련 극동으로 군수물자와 장비를 수송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탄생한 계획이 '마일포스트(Milepost) 프로그램'(소련측은 10월 17일 프로그램이라 명명 — 필자)이었다.

마일포스트 프로그램은 미 합참 합동군수위원회(Joint Logistics Committee, JLC)가 임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1944년 12월 미합참 JLC는 소련으로 수송할 군수물자와 함정 목록을 작성하였다. 미합참 JLC는 소련측과 군수물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이듬해 1월 중 소련에 게 인계하였다. 목록을 제공받은 소련 측 책임자 알라푸조프(B. A.  $A \pi a \phi y 3 \circ B$ )는 목록에 다종의 항공기와 함정, 그 중에서도 유도함, 상륙정, 소해정 등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8

그런데 마일포스트 프로그램에는 소련측 입장에 따라 병사훈련과 함

<sup>28)</sup> Richard A. Russell, Project Hula, p. 8-9.

정수송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수립하였다. <sup>29)</sup> 1945년 4월 3일 최종 확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소련 병사들은 미국으로부터 함정 및 장비운용지침을 받았다. <sup>30)</sup> 그런데 군사장비의 경우 첨단장비가 장착되어 소련군이 운용하기엔 곤란한 점이 있었다. 장비운용법을 습득해야만 전력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소 군사협력은 단지 군사장비 및 물자를 제공하는 데 한정되지 않고 장비운용법을 습득시켜 귀국시키는 사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사업이 다음에 살펴볼 이른바 '훌라 프로젝트'이다

#### 나. 미소 군사협력의 정점, 훌라 프로젝트(Project Hula)

1945년 1월 초 소련 해군 총사령관 쿠즈니초프(Н. Г. Кузницов) 는 자국 병사들이 훈련받을 장소로 비를 알래스카의 알류산 열도의 섬 중 소련에 근접하여 친숙한 다친 하변(Dutch Harbor)를 제안하였다.



〈지도 2〉 알류산 열도와 소련군 훈련 후보지역(더치 하버. 콜드 베이. 코디악)의 위치

출처: Thomas E. Griess(ed.), Atlas for the Second World War. Asia and the Pacific, Wayne, New Jersey: Avery Publishing Group Inc., 1985, p.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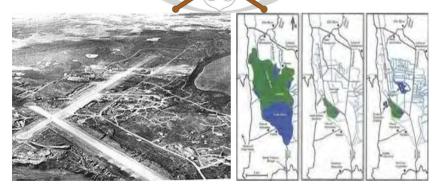
<sup>29)</sup> Ibid.

<sup>30)</sup> Ibid.

미 해군 총사령관 겸 작전사령관인 킹(Ernest J. King) 제독은 북태평양 사령관 플레처(F. J. Fletcher)에게 수송 및 훈련에 적합한 장소를물색하라 지시한 후 콜드 베이(Cold Bay)가 더치 하버(Dutch Harber)나또 다른 후보지 코디악(Kodiak)보다 좋은 입지조건임을 확인하였다.

1945년 2월 8일 알타회담에 참석한 미 해군 총사령관 킹(King) 제 독은 소련측에 더치 하버보다 콜드 베이가 더 적합한 장소라 제시하며 자세한 입지조건과 지도상 위치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소련측은 동의하였다.

콜드 베이는 지난 1944년 12월까지 미 육군이 머물던 곳이어서 어느 정도 군용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2,500여 명이란 많은 병사를 훈련시키고 250척의 선박과 항공기를 수용할 장소로도 적합하였다. 게다가 이곳엔 민간 주민이 거의 살지 않아 보안에도 유리하였다. 게다가 콜드 베이는 거센 학교 학을 수 있는 해안 시설과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어 훈련에도 점합했다.



훈련장으로 쓰인 콜드 베이 전경(왼쪽)과 미육군 기지 조감도(오른쪽)

출처 : Richard A. Russell, Project Hula, p. 12

알타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미 해군 총사령관 킹 제독은 1945년 2월 중순 정식으로 소련에 대한 군사협력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이 협력 사업 프로그램을 '훌라 프로젝트(Project Hula)'라 명명하고 소련의 대

일전 참전에 대비한 소련 병사의 미군 함정 및 군용장비 적응훈련 및 수송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착수하였다. 우선적으로 킹 제독은 그동안 폐쇄되었던 미 육군 주둔시설인 콜드 베이의 랜들 요새(Fort Randall) 를 복원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책임장교와 참모진을 파견하였다. 이 에 맞춰 소련 측 훈련병이 속속 도착하여 4월 1일부터 한 달여 간격으 로 훈련을 받았다. 31)

미국과 소련은 훈련받은 병사와 선박을 소련 측에 인계하는 방식에 서도 합의점을 찾아 나갔다. 처음에는 소련 측이 제안한 유럽에서 북미 로 되돌아가는 화물상선을 이용해 소비에트 군사요원을 미국 동부해안 에서 대륙을 지나 서부해안의 콜드 베이(Cold Bay)로 이동하는 방법. 혹은 미국 측이 선박 3척을 보내 수송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여러 대안이 논의되다가 마침내 민소 양측은 무기대여법에 따라 군수물자가 제공되는 경로, 즉 미국 서부 하나에서 소련 극동으로 수송하고 되돌아 가는 소련측 화물상선의 이동경로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32)

미 해군측은 훌라 프로젝트를 담당할 특별부대로 해군 제3294 부대 (Naval Detachment No. 3294)를 창설하였다. 1945년 3월 7일 부대 장으로 맥스웰(William S. Maxwell)이 임명되었다. 그는 부임지로 떠 나기 전 워싱턴 소재 미해군 선박국(U.S. Navy of Ships)에 러시아어 통역원을 증원하고 이송될 모든 선박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마칠 것 이며 모든 장비가 효용성을 갖춘 후 콜드 베이를 떠날 수 있도록 보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945년 3월 19일 콜드 베이에 도착한 맥스웰 부대장은 병력을 점검 하고 랜들 요새의 부족한 부대시설을 확충해 나갔다. 주거지, 학습실, 영화관, 라디오실, 소프트볼 운동장, 라디오와 레이더실습장 등이 조성 되었고 공학(engineering). 사격. 소해. 피해응급법(damage control).

<sup>31)</sup> Richard A. Russell, *Project Hula*, p. 10.

<sup>32)</sup> *Ibid.*, p. 10-11.

상륙정 조정 등 다양한 교육을 위한 교구재를 마련하였다. 맥스웰의 지휘 아래 미해군과 해안경비대 요원 694명, 해병 47명 그리고 미육군 605명이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1,500명의 요원이 육군에서 해군으로 대체되었다. 33)

1945년 3월 23일 소비에트 병사들이 소련 화물상선을 타고 처음으로 입항하였다. 제1진 소련군 훈련요원들은 책임사령관과 참모장교 23명 그리고 참모별 부관 각각 3명씩 총 163명의 장교와 병사 그리고 통역원들로 구성되었다. 제1진 훈련요원들은 1945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5척의 화물상선에 각각 약 500명씩 나눠 타고 콜드 베이에 도착하였다. 5척의 화물상선은 4월 10일에서 14일 사이 5일 동안 매일 1척씩도착해 총 2,358명을 이송하였다. 소련 측 훈련요원들은 별도의 질문 없이 미국 측 교관의 지도 아래 훈련에 임했다.

제1진 소련 병사들은 1,350명의 위해군 요원과 함께 제16 소해정사단(the 16th Minesweeper Dryision)과 제2 구잠정사단(the 2nd Submarine Chaser Division)으로 편성되었다. 4월 11일 소련 해군소장 포포프(Б. Д. Попов)가 증기선 세바스토폴을 끌고 와 콜드 베이에서 훈련받는 소련군 부대를 지휘하였다. 이 부대는 소련 해군선단 소속의 제5 독립부대(the 5th Independent Detachment of Soviet Navy Ships)로 편성되었다.

'훌라 프로젝트'의 개념과 운용

개념 (Project Hula)	미군에 의한 소련군의 미 함정 군용장비 적응 훈련 및 수송 프로젝트
기간	1945년 봄 4월 ~ 초가을 9월
미국 : 해군 특별파견부대 3294부대 남당 소련 : 12,000명, 함정 149척	

<sup>33)</sup> Ibid., p. 16.

1945년 4월 16일 마침내 훈련이 시작되었다. 소비에트 군사요원과 장교 220명과 1.895명의 병사들은 선박별 임무와 선박 내 개별 임무를 부여받았다. 소비에트 훈련 요원들은 매우 진지하게 훈련에 입했다 34)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어 장벽이 있어 전문 기술 용어에 대한 이해와 전 달이 싶지 않았다. 게다가 라디오, 레이더, 소나, 선박추진동력 등 신 형 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미국측이 준비한 장비에도 문제가 있었다. 훌라 프로젝트 담당 부대장인 맥스웰이 미해군 선박국에 요청했던 장비와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학습이 지연되었다. 게다가 보조소해정(Auxiliary Motor Minesweeper, YMS)과 구잠정의 목재부분이 거친 바다에 파손되어 200km 떨어진 더치 하버까지 이동한 후 수리해야 했으므로 훈련 공백



〈지도 3〉 소련의 대일전 참전 직전 미소일의 태평양 해상의 세력 범위

출처: Thomas E. Griess(ed.). Atlas for the Second World War. Asia and the Pacific, Wayne, New Jersey: Avery Publishing Group Inc., 1985, p. 46.

<sup>34)</sup> Richard A. Russell. Project Hula, p. 16.

<sup>35)</sup> Ibid., p. 12, 13-16.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군은 훈련시킨 소비에트 병사와 소해정, 호위함, 구잠정 등 다종의 함정들을 소련에 인계하였다. 제1진으로 훈련받은 소비에트 군사요원과 해병이 함정과 함께 귀국하였다. 5월 28일소해정 3척, YMS 5척, 5월 30일소해정 3척, 구잠정 6척 그리고 6월 7일소해정 3척과 구잠정 7척이 이송되었다.

1945년 5월 7일 제2진으로 100명의 소비에트 요원과 장교 800명의 병사들이 들어와 2개 조로 나뉘어 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30척의 대형 상륙정(LCI(L))을 타고 콜드 베이 해상에서 훈련에 임하였다. 해상훈련은 제1조가 15일간, 그리고 제2조가 9일간 훈련을 받았다. 제2조는 6월 11일 소해정 2척, LCI(L) 4척, 구잠정 6척과 함께 귀환하였는데, 함정 승무원들은 7월 말까지 추가 훈련을 받은 후 별도 귀국하였다. 36)

한편 30척의 초계호위함(patrol frigates) 역시 훈련받은 병사들과 함께 귀국하였다. 이 호위함은 독무장한 타코마급(Tacoma)으로 규모가 크며, 값비싼 선박인데 프로젝트 홀라에 투입된 것이다.

소련 해군 제10 호위함사단 소속 소비에트 장병 572명이 1945년 6월 12일 소비에트 증기선 펠릭스 제르쥔스키(Феликс Джерзински ѝ)를 타고 콜드 베이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6월 15일에는 소비에트 장병 570명이 증기선 차이코프스키(Чайковский)를 타고 도착해 곧 바로 훈련에 임했다. 함정 훈련을 위해 미해군은 알류산 열도의 우니마크(Unimark) 섬을 지나 열도 북단을 항해했다. 소해정이나 구잠정 등소형 선박의 경우 아다크(Adak)나 애투(Attu)에 임시 정박하여 휴식을 취한 후 항해 훈련을 이어갔다. 37)

이러한 방식으로 훌라 프로젝트는 교육 훈련된 병사 12,000명(장교 750명, 사병 11,250명)을 7월 31일까지 그리고 함정 149척 등 무기장비는 8월 25일까지 소련에 인계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sup>38)</sup> 이중 함정

<sup>36)</sup> Richard A. Russell, Project Hula, p. 19-21.

<sup>37)</sup> *Ibid.* 

<sup>38)</sup> Ibid., p. 18, 28,

은 초계호위함(PF) 28척, 소해정(AM) 24척, 대형 상륙정(LCI(L)) 30척. 보조 소해정(YMS) 31척. 구잠정(SC) 32척 그리고 부공작장(floating workshops, YR) 4척 등으로 전력 증강에 긴요한 제원들이었다.

훌라 프로젝트의 성과는 소련군이 대일전에 참전하면서 수행한 역할 에서 알 수 있다. 홀라 프로젝트의 소련측 책임 부대장이었던 포포프는 미국측 부대장 맥스웰에게 훈련받은 상륙정이 쿠릴열도 점령 작전에 투입되었고. 또 다른 함정 역시 한반도 북부지역과 사할린 남부에서 대 일전을 수행할 때 투입되었다고 전했다. 어느 정도의 전과를 올렸는지 는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5척의 상륙정이 쿠릴열도의 슑슈 (Shumshu, Simushir)를 공격할 때 일본 해안포 공격을 받아 침몰하 기도 하였다. 소련군은 대일전 참전 중 1.567명의 군사상자를 내면서 일본측 피해 규모인 1.018명을 넘어섰다. 매우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희생이 컸지만 훜라 프로젝트로 혼란은 병사와 함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여전히 추가적인 규명을 필요로 한다.

# 4. 나오는 말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소련을 침공해 들어가자 미국은 무기대여 법을 소련에도 적용하여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소 련의 군사협력은 '공동의 적' 파시스트를 상대해야 하는 전쟁을 통하여 더욱 기밀해진 셈이다.

전쟁 기간 미국이 연합국에 원조한 분량은 막대하였다. 무기대여법 에 따라 미국이 제공한 비용은 총 501만 불에 이르는데. 소련에게는 전 체의 22%인 113만 달러의 군수물자가 지원되었다. 영국 다음으로 많은 분량의 군수물자와 장비가 지급된 것이다. 영국은 군수지원 받은 대가 로 자국 내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등 미국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었다. 그러나 소련은 군사기지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영국에 군수물자와 장비를 지원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했지 만 소련에서는 그러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는 후일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종전 전후 시기에 미국이 요청한 군사기지 사용에 대한 거부와 맞물려 불화의 씨가 되었다.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면서 미소간 콜드 베이(Cold Bay)에서 진행한 협력사업은 그 이전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훌라프로젝트의 경우 단순히 군수물자와 장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소련 병사를 미국에 불러들여 제공될 함정 등 군장비를 운용할 능력을습득시켜 준 사업으로 확대된 특징이 있다. 미해군 특별파견 부대인 제3294부대는 1945년 봄 4월에서 초가을 9월까지, 즉 종전 이후까지 소련군 12,000명과 함정 149척 등 군사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적응훈련시킨 후 소련군에 복귀시켰다. 교육로 미소간 군사협력 사업은 전례없는 소련군 장비적응훈련까지 필체진 아심찬 프로젝트였다.

미국으로서는 추축국 독일과 일본을 패퇴시키는 데 소련을 끌어들임으로써 자신들이 직접 참전하여 흘릴 피의 대가를 벌충하였다. 소련으로서도 국망 위기의 사태를 맞아 미국 등 연합국의 협력을 받아 성공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전후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미소 양국은 갈등관계를 빚으며 체제 진영 간의 냉전으로 대립하였다. 그와 연관되어 양국 군사협력의 정점인 프로젝트 홀라는 상당기간 동안 잊혀진 역사였다. 공동의 적을 두고 협력했던 양국이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갈등의 대상이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원고투고일: 2017. 10. 11, 심시수정일: 2017. 11. 22, 게재확정일: 2017. 11. 23.]

주제어: 제2차세계대전, 미소 군사협력, 소련의 대일전 참전, 무기대여법, 마일포스트 프로그램. 훌라 프로젝트

# 〈참 고 문 헌〉

#### 논 문

- 이주천 "전쟁 초기 루스벨트의 대소 무기대여 정책(1941-1942) -제1차 소비에트의정서를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제5호 (1997).
- Лаптеб А Н., Союзн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 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проблемы ленп-лиза Писсерт ация 2005 г., (2016.04.19.), knigi link/russia-history.

#### 저 서

- Coakley Robert W., Leighton Richard M., United States Army in World War II. The War Department, Global Logistics 1940-1943.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9.
- Dawson Raymond H. The Decision to Aid Russia. 1941.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59.
- Herring Jr. G. C., Aid to Russia, 1941-1946: Strategy, Diplomacy, the Origin of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3.
- Jones Robert Huhn, The Reads to Russia: United States lend-lease to the Soviet Uni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69.
- Kimball Warren F. The Most Unsordid Act: Lend-Lease. 1939–1941.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9.
- Loren A., Russia's Life-Saver: Lend-Lease Aid to the U.S.S.R in World War II. Weeks Lexington Books, 2010.

- Russell Richard A. Project Hula Soviet-American Cooperation in the War Against Japan. No. 4. The US Navy in the Modern World Series. Washington: Naval Historical Center Department of the Navy, 2003.
- Vail Motter T. H.. The Middle East Theater. The Persian Corridor and Aid to Russia.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9.
- Wilson Theodore A. "In Aid of American's interests: The Provision of Lend-Lease to the Soviet Union. 1941-1945." Soviet-U.S. Relations 1933-1942.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9.
- Бережной С. С. Флот СССР. Корабли и суда лендлиза Спра вочник. M. : Avito.ru, 1994
- Борисов А. Ю., СПА и СССР. Союзники в годы войны 1941— 1945, M., 1983.
-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Краткая история М., 1970.
- Вознесенский Н., Внешняя экономика СССР в период Отеч 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М.: Госполиздат. 1948.
- Израэлян В. Л., Антигитлеровская коалиция: Дипломатич еск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ССР, США и Англии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41—1945. М., 1985.
- Комаров М. П., Ленд-Лиз для военног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C*ССР*, М.: Морское наследие. 2014.
- Сиполс В. Я.. На пути к великой победе: Советская дипл оматия. 1941—1945. М. 1985.

#### 편집서

- Griess T E (ed.). Atlas for the Second World War. Asia and the Pacific. Wayne. New Jersey: Avery Publishing Group Inc., 1985.
- Мини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а м 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периода Великой оте 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Том II Тегеранска я конференци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трех союзных держ ав - СССР. США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28 ноября - 1 д екабря 1943 г.) С 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М: Издате 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78.



<Abstract>

# US-Soviets Military Cooperation regarding the Soviet Union's participation in Counter-Japanese War during World War II

- Focused on the role of 'Lend-lease Act' and 'Project Hula' -

Sim, Heon-Yong

Unlike the generalization of US—Soviets conflicts during the period of the Cold War, they have maintained the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s during the period of World War II. Especiall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US and the Soviets developed mutual cooperation efforts against the common enemy fascist Germany and Japanese militarism. The partnership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s began in earnest when the US Lend—lease Act was extended to the Soviets after the Germany invasion of Poland and Czech Republic in September 1939. In June 1941, when Germany attacked Soviet Union and in December 1941, Japan attacked US respectively, the partnership of US—Soviets has been more strengthened.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of US-Soviets cooperation during the World War II in context of the participation of Soviet army in anti-Japanese War and the 'Lend-lease Act'. The United States has called for the Soviets to participate in the war against Japan during a series of wartime talks. Compensation for war participation of Soviet Union was military support and in the recovery of territory and the expansion of influence that had been lost.

This article analyzed in relation to the historical facts how the exchange of views between the leaders of two countries and the changes in military strategy of the two countries had been developed due to changes in the war situation, this area has not been highlighted in domestic academic circles.

In particular, I have been interested in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US-Soviets, which was deepened during the preparation of the list of additional logistical support requested by the Soviet Union after their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war against Japan. The 5th Moscow protocol, named as Milepost program, not only provided military supplies and equipment, but also extended training Soviets soldiers to operate advanced weapons, equipment, and warships.

This secret cooperation project, called 'project Hula', demonstrates the extent to which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gainst the common enemy has reached.

However, in the Cold War era, which was established immediately after World War II, the military cooperation of US-Soviet was no longer developed and the project which had been carried out was also secretly buried.

Keywords: WWII, US-Soviets Military Cooperation. Soviet Union's participation in anti-Japanese War, Lend-lease Act, Milepost program, project Hula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257–286 https://doi.org/10.29212/mh.2017..105.25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군의 군사전략과 전후 국제질서 구상\*

유영휘\*\*

- 1 서 론
- 2. 카이로 회담 당시 연합국의 군사전략
- 3. 카이로 회담 당시 연합국의 전후 체제 구상
- 4. 카이로 선언문의 도출
- 5. 결 론

#### 1. 서 론

카이로 회담(Cairo Conference)은 한국인들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카이로 회담의 결과물인 '카이로 선언'(Cairo Communiqué)은 태평양과 중국에서 일본이 '불법 점령한

<sup>\*</sup> 이 연구는 필자가 제43차 국제군사사학회(the 43<sup>rd</sup> International Congress of Military History, 2017.9. 4-8, 카메룬 개최)에서 발표한 영문 에세이 "The Allies' Military Strategies and Plans for the Post-War Structure at the Cairo Conference of 1943"를 수정 · 보완하여 완성한 논문이다.

<sup>\*\*</sup>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지역'을 회복하고,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이는 한국인들과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노예상태'(enslavement)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free and independent)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¹) 카이로 선언은 포츠담 선언에서 재확인되었고, 종전 후 일본에 의해 수용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과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 카이로 선언에 대해 다수의 한국, 미국, 중국의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들의 세부적인 연구 주제는 다양한 편이나 누가 한국독립 조항을 주도했는가에 관한 논의는 계속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신용하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주요 목표로제시되는 과정에 있어서 장제스의 역할을 강조하고, 독립의 시기에 대한 모호성은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정병준은 대만 측의 자료를 근거로 한국 목가 경이 이슈가 카이로 회담 이전부터 중국 국민당 측에게 중요한 안건의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3) 이는 중국(국민당) 측의 전통적인 해석이기도 한데, 1950년대에 주일본중화민국 대사였던 홀린턴 통(Holington K. Tong)은 한국 이슈가 독립된 사항으로 논의된 것이 전적으로 장제스의 공적이라고 주장하였다. 4) 호추안후이(Ho Chuanhui), 인유안준(Yin Yuanjun), 류샤오위엔(Liu Xiaoyuan) 등 중국 국민당을 연구한 중국계 학자들도 큰 틀에

<sup>1) &</sup>quot;Final Text of the Communiqué",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448-449. (이하)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는 FRUS로표기)

<sup>2)</sup> 신용하, "열강의 한국 남북분단 및 신탁통치 정책과 백범 김구의 노선(1943-45)", 『백범과 민족운동연구」3집(2005), 17.

<sup>3)</sup> 정병준, "카이로회담의 한국 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의 작성과정", 『역사 비평』107호(2014), 327,340.

<sup>4)</sup>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1954), 364~365.

서 비슷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5)

그러나, 카이로 선언의 식민지 독립 조항의 미국 주도성을 강조한 일 련의 연구자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행정부의 국무부 국제경제 자문위원이었던 허버트 페슈 (Herbert Feis)는 카이로 선언이 미국이 주도하는 동안 중국은 그것을 환영하는 수동적 입장이었다고 평가하였다. 6) 이 주장의 연장선에서 정 일화는 카이로 선언에 '한국 독립' 주장이 들어가는 과정에 루스벨트와 그의 참모 해리 홉킨스(Harry Hopkins)의 역할을 강조해 미국 주도성 에 힘을 실은 바 있다. 7) 최근에는 최영호가 카이로 선언은 준비에서 발표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주도하였고. 영국과 중국이 동조하였으며. 소련이 암묵적으로 승인함으로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8)

이러한 주장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임에도 두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 연구들은 카이로 선언의 주도성 문제에 치중하 여 논의를 카이로 회담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물인 선언문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 회담을 개최하게 된 연합국의 군사작전과 국 제정치적 측면에서의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연구들은 연합군을 형성한 열강들이 동아시아 식민 지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일정 부분 전제하고 있다. 물 론 이들 국가들은 카이로 선언과 같은 일련의 전시 협정문을 통해 식민 지 국가들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서는 이 선언문이 미 국. 영국. 중국 같은 회담의 당사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 첫 번째 공통점에서 도출된 문제가 다시 한 번 제기된

<sup>5)</sup> 胡春惠、『韓國獨立運動在中國』、中華民國史料研究中心、1976; 殷燕軍、『日中講和の 研究-戦後日中関係の原点」、柏書房、2007; Liu Xiaoyuan、"Sino-American Diplomacy over Korea during World War II",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1 (1992).

<sup>6)</sup> Herbert Feis, Churchill Roosevelt Stalin: The War They Waged and the Peace They Sough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251.

<sup>7)</sup> 정일화,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 선언』, 서울: 선한약속, 2010, 476-510.

<sup>8)</sup> 최영호.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영토해양연구』 5집(2013), 59.

다. 즉, 이러한 해석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 요소이면서 동시에 강대국들의 군사전략, 국제정치적 전략이 조율된 결과물인 이 선언문의 이중적 성격의 한쪽 면만이 부각되는 것이다.

전시 회담의 당사자들은 어떠한 큰 그림 속에서 회담을 기획했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장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합의된 선언문으로 표현되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찾아 졌을 때 그동안 막연히 전제되었던 카이로 회담과 선언문의 중요성이 종합적으로 이해될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2장과 3장에서 회담 당사자들이 그렸던 군사정책과 국제정치 전략의 측면에서 왜 카이로 회담이 필요했는지 설명하고, 4장에서는 그들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어떻게 선언문 안에서 종합되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이는 카이로 선언이 당시 많은 식민지인들에게 희망을 준 이유와 그 희망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하리라 기때되다.

#### 2. 카이로 회담 당시 연합국의 군사전략

카이로 회담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전시 작전 조율이라는 당면한 목표를 가진 군사전략 회담이었다. 1943년 연합국이 회담 준비를 시작할 무렵 전황은 연합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1942년 8월부터 10월사이의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영국의 버나드 로 몽고메리(Bernard Law Montgomery) 장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후,같은 해 11월 미국,영국,자유 프랑스 연합군은 모로코에 상륙하였으며 1943년 5월에는 튀니지를 점령함으로서 북아프리카 전역은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는 연합국의 허스키 작전(Operation Huskey)으로 이어져서 이해 7월부터 유럽 서남부에서 영국과 미국이주도한 연합군이 남부 이탈리아를 침공하여 지중해 전선을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된다. 유럽 동부전선에서는 1943년 2월 소련군이 스탈린그라 드 전투에서 독일군에 승리한 이후 수세에서 공세로 태세를 전환하였 으며, 같은 해 7~8월에 있었던 쿠르스크 전투에서 소련군이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을 개시함으로 동유럽의 독일군 전선이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태평양 전선도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 해군 이 승리한 이후 일본의 공세가 꺾인 상황이었고. 1943년부터는 체스터 니미츠(Chester W. Nimitz) 제독의 주도하에 태평양 도서들에 대한 도약작전이 시작되었다. 이제 연합군의 승리가 조금씩 가시권에 들어 온 듯하였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S. Churchill)은 그의 회고록에서 "알라메인 전투부터. 나폴리 전투의 종식과 이탈리아 진주까지 우리(연 합국)의 연합작전은 매우 잘 관리되고 성공적인 작업"이라면서 긍정적 인 평가를 내렸다. 9) 그러나 동일한 아유로 그 이후 연합국들 사이에 군사전략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승을 등고 견해차가 나타난 것을 안타깝 게 회고하였다. 10) 당시 연합국, 특히 영국과 미국 사이에는 겉으로 보 이는 견고한 동맹의 표면 아래 몇 가지 이슈를 둘러싼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였다

우선. 제3차 워싱턴 회담(The Third Washington Conference. 1943.5)과 퀘벡 회담(the Quebec Conference)에서 영미 정상은 오버 로드 작전(Operation Overlord)의 전개를 확정하였는데. 1943년 7월 부터 연합군의 이탈리아 침공이 시작되면서 양자 중 어느 곳에 더 중요 성을 두어야 할지 혼선이 생겼다. 7월 10일에 이탈리아의 시실리 섬 침 공이 시작되었고. 25일에는 무솔리니가 실각하였으며. 9월 3일에는 연 합군과 이탈리아 사이에 휴전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곧 독일군이 개입 해 이탈리아 북부 주요 지점을 장악함으로서 지중해 전선에 교착상태

<sup>9)</sup> Winston Churchill, The History of Second World War (5vols, Boston: Houghton Muffin, 1951), V. 291.

<sup>10)</sup> Ibid.

가 전개되었다. 이 상황 속에서 미국과 영국 어느 나라도 지중해 전선 유지와 서유럽 제2전선의 성립이라는 합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특정 작전에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의구심을 펼치지 못했다. 영국 군부에서 지중해 전선이 독일군의 함을 빼고, 다른 전선으로 투입될 군대를 붙잡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미국 쪽에서는 영국이지중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서쪽으로부터 침공을 늦춘다는 의구심이 표출되었다.11) 영국이 그런 의도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이슈는 격한 논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지중해에서 소규모 작전 수행을 위해 오버로드 작전이 몇 주간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카이로와 테헤란 회담에서 실제로 제기된바 있었다. 이 논쟁은 카이로와 테헤란 회담을 거치며 연합군 사이에 북서유럽에서 주공(主攻)이 행해지고 지중해 방면 공격이 조공(助攻)이된다는 합의가 이뤄진 후에야 일다라된 수 있었다.12)

또한 연합군의 이탈리아 참공으로 처유럽과 지중해 양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이 생겼게 때문에 이 경우 누가 지휘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였다. 1943년 11월 초부터 루스벨트와 대통령 참모들 쪽에서 오버로드 작전의 최고사령관이 지중해 작전 또한 지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루스벨트는 조지 마셜 (George C. Marshall) 장군에게 그 역할을 맡기길 바라고 있었다. 13) 그러나 처칠은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우선 오버로드 작전과 지중해 전선 지휘권을 한명의 미군 총사령관에게 맡기는 것은 "동맹국 사이에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동등성의원칙"에 맞지 않았다. 처칠은 이러한 원칙의 준수 없이 진정한 동맹이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두 번째로, 신설될 최고사령관직은 양

<sup>11)</sup> Richard M, Leighton, "Overlord versus the Mediterranean at the Cairo-Teheran Conferences", Kent Roberts Greenfield, ed., *Command Decisions* (United State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59), 255.

<sup>12)</sup> Ibid., 255-256.

<sup>13)</sup> Churchill. The History of Second World War. V. 271.

국 정부가 구성한 합동참모본부(Combined Chiefs of Staff) 위에 존 재하게 되어, 미군은 미국 대통령이, 영국은 수상이 군의 움직임을 통 제하는 헌법적 통제에 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14) 이런 이유로 그 는 워싱턴에 파견된 영국 측 합동참모본부 대표인 존 딜(Sir John Dill) 장군을 통해 미국의 주장에 대한 영국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 하였다. 15) 이에 대해 미국 측 합동참모본부 대표인 윌리엄 레이히 (William Leahy) 제독은 "그것이 수상의 의견이라면, 더 이상 말할 것 이 없다"라고 말은 했으나 개인적으로는 난색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 보좌관 홉킨스는 좀 더 명확하게 영국의 입장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딜 장군에게 표명하였다 16) 이렇게 영국과 미국 간에 군사전략 적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양국의 지도자들은 1943년 말로 추진 중인 소련과의 회담 이전에 작전들 사이의 우선순위와 지휘질서 수립 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당시 영국과 미국은 전 유럽적 혹은 전 아시아적 차원에서 통 합작전을 수행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소련 및 중국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군사전략 회담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양국은 유럽 전쟁의 승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될 대일본전의 합동작전 수립을 위해 소련 및 중국과 이전과 다른 고차원 적인 군사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꼈다. 1943년 8월에 개최된 퀘벡 회담에서 루스벨트와 처칠은 우선 이탈리아를 추축국에서 이탈시 키고. 그 후 프랑스를 침공한다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그 시기를 잠정적 으로 1944년 5월 1일로 잡았다. 17) 본래 양국 정상은 제2차 세계대전의

<sup>14) &</sup>quot;Prime Minister to Field-Marshal Dill" (8 Nov 43) in Churchill, The History of Second World War, V, 271.

<sup>15)</sup> Ibid.

<sup>16)</sup> Ibid. 271-272.

<sup>17)</sup> Office, U.S. Secretary, Office of the Combined Chiefs of Staff, Quadrant Conference, August 1943: Papers and Minutes of Meetings (Joint History Office, 1943), 91-106.

진행 방향을 잡은 이 회담에 스탈린을 초청하려 했다. 그들은 서유럽에서의 군사작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동유럽 전선에서 소련군의 작전과 유기적으로 연동시킬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스탈린은 러시아 전선의 긴박한 상황을 이유로 일단 이를 거절하였다. [18] 그러나 소련의 냉담한 반응과 상관없이 오버로드 작전이 구체화될수록 미국과영국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대화와 접촉의 빈도를 높여갔다. [19] 1943년 중반 서방 연합국들이 직면한 유럽 양방향에서의 유기적인 연합 공세의 필요성은 소련과의 적극적인 대화의지로 표현되었다.

또한 대독일 전쟁의 끝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면서 연합군은 본격적으로 전개될 대일본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는 중국 국민당 정부와의 협력 필요성을 높였다. 이미 1941년 말부터 일본과 교전 상태였던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선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영국 또한 기존의 액증과 관계에 변화가 불가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미 태평양에서는 영업방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군대가 일본군과 접전 중인 상황이었고, 퀘벡 회담에서도 대일본전 이슈가 당면 과제로서 다뤄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 1943년 8월 31일, 처칠은 퀘벡 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영국군이인도전선과 인도양에서 일본에 대항하는 기본적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20)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영국의 이해관계 보호와 그 책무의수행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처칠은 영미 연합군을 지상, 해상, 공중에서 지휘할 총사령관으로 루이스 마우드

<sup>18)</sup> Diane K. Dewaters, *The World War II Conferences in Washington, D.C. and Quebec City: Franklin D. Roosevelt and Winston S. Churchill*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8), 115.

<sup>19) &</sup>quot;Prime Minister to Premier Stalin" (25 Sep 43) in Churchill, *The History of Second World War*, V, 272.

<sup>20) &</sup>quot;Text of Premier Churchill's Address", The Evening Citizen, Ottawa (31 Aug 1943) (접속날짜 2017년 7월 9일), https://news.google.com/newspapers?id=JvouAAAAIBAJ&sjid=8dsFAAAAIBAJ&pg=3918%2C5496828.

배튼(Lord Louis Mountbatten)을 임명하면서 이것이 영국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임을 밝혔다. 그리고 마운드배튼은 "장제스 총통과 지속적인 협조하에 활동하게 될 것"이었다 21)

물론 영국의 전시 지도자들이 아시아 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함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협력대상은 여전히 미국이었다. 회담 준비가 진행되던 1943년 10월에도 영국은 중국이 아닌 미국과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을 패퇴시킬 전반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22) 영국이 이 시기에 중국 지도자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은, 이러한 기존의 대외기조에 비교했을 때 분명 새로운 입장의 전환이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종합적인 군사작전의 필요성이 도출되는 과정과 맥을 같이 하였다.

결과적으로 루스벨트가 추진하고 처칠이 동의한 4대 강대국의 군사 전략 회담은 소련의 완고한 거부로 발되었고, 결국 미국·영국·중 국 정상이 모인 카이로 회담과 교육 영국 · 소련 정상이 모인 테헤란 회담이 별개로 개최되었다. 그럼에도 연합국 사이의 군사전략 조율의 필요성은 이 회담들을 관통하는 중요한 공통 주제였다. 그러나 막상 회 담이 시작되자 앞서 설명된 군사적 이슈들 중 오버로드 작전과 관련된 두 가지 주제는 대일본 전쟁을 위한 소련 및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이슈 에 묻혀 버렸다. 퀘벡 회담에서 오버로드 작전의 큰 틀이 잡혔기 때문 에 처음 두 가지 이슈는 처칠의 표현을 빌리자면 궁극적으로 '강조점'의 차이였던 반면, 소련 및 중국과의 협력 문제는 전후체계 구상이라는 본 질적인 '원칙'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sup>23)</sup>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sup>21)</sup> Ibid.

<sup>22) &</sup>quot;President Roosevelt to Prime Minister" (22 Oct 43) in Churchill, The History of Second World War, V. 276.

<sup>23)</sup> Churchill. The History of Second World War. V. 291.

## 3. 카이로 회담 당시 연합국의 전후 체제 구상

카이로 회담 개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무렵, 미국과 영국은 유럽 전선에서의 완전한 승리와 대일본전 수행을 위해 소련 및 중국과 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 새로운 협력의 필요는 일차적으로 군사적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미국과 영국이 각각 보인 이 국가들과의 차등적인 협력의 수준은 그들이 구상하고 있던 전 후 국제질서 구상과 맞물려 있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련 및 중국과 적극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력을 기대하였는데, 이는 일정부분 그의 국제신탁통치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구상은 미국의 국제적 책임을 강조한 우드로 윌슨의 이상주의까지 그 연원을 거출러 올라갈 수 있으며, 루스벨트는 1920년 대 말에 이미 유럽 국가들의 석면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표출한 바 있다. 24) 하지만 그의 구성이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것은 제2차세계대전을 겪으며 전후 신질서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였다. 특히 1943년 1월 카사블랑카 회담을 통해 미국, 영국, 자유 프랑스 대표들이 일본을 포함한 추축국의 '무조건 항복'을 전쟁의 목표로 정한 이후루스벨트는 향후 패전국들이 상실할 식민지 지역의 처리 방안을 구체화 하게 되었다. 25) 루스벨트의 구상은 유럽 열강이 해외 식민지를 경영하던 기존의 제국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 루스벨트는 유럽 열강들의 옛 식민지 회복시도가 세계대전이 종식된후 또 다른 국지적 전쟁들을 야기할 가능성을 직시하였다. 26) 그는 카

<sup>24)</sup> 루스벨트의 신탁통치 구상의 기원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John J. Sebrega, "The Anticolonial Policies of Franklin D. Roosevelt: A Reappraisal",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1, no. 1 (1996), 65-84; 이주천, "루스벨트 행정부의 신탁통치 구상과 대한정책". "미국사연구」8집(1998), 224-225.

<sup>25)</sup> Brian Farrell, "Symbol of Paradox: The Casablanca Conference 1943", Canadian Journal of History 18 (1993), 21-40.

사블랑카 회담 당시 "프랑스인들, 영국인들, 네덜란드인들의 단시안적 인 욕심이 없었더라면" 미국인들이 태평양에서 죽어가지 않았을 것이 라면서. "우리가 그들이 온전히 다시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해야 하는 가?"라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27)

루스벨트가 구상한 전후 국제질서는 대서양 헌장(The Atlantic Charter, 1941, 8)에서 그 방향성이 제시된 바 있다. 대서양 헌장 제1 조에서 미국과 영국 정상은 양국이 "영토나 기타 어떤 세력 확장도 추 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식민주의로의 복귀를 부정하였고. 제3조에 서는 "주권과 자치정부를 강제적으로 빼앗겼던 이들에게 그것을 회복 시킬 것"을 천명하여 식민지 지역의 궁극적인 독립을 지지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8조에서는 "좀 더 광범위하고 항구적 인 일반 안보 체제의 수립"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전후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과 같은 국제지구 유리과 그것을 통한 신질서 유지를 염두에 둔 표현이었다. 28) 이러한 국제질서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강대국의 협력을 전제하고 있다. 루스벨트는 새로운 국제지구가 윌 슨 식의 이상주의(Wilsonian Idealism)에 경도되지 않기 위해 강대국 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옛 식민통치 가 종식된 후 토착 세력들 간의 주도권 다툼 및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 충돌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미국, 영국, 중국, 소 련 등의 협력으로 지지되는 국제 질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29) 이 계 획에 따르면 식민지 지역들은 이들 국가의 합의에 의한 신탁통치 기간을

<sup>26)</sup> Sebrega, "The Anticolonial Policies of Franklin D. Roosevelt", 66.

<sup>27)</sup> Elliott Roosevelt, As He Saw It (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1946), 114-115.

<sup>28)</sup> Samuel Rosenman, ed., Public Papers and Addresses of Franklin D. Roosevelt. vol.10 (1938-1950), 314. (접속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www.americanhistory.or.kr/book/link/d-19412.htm.

<sup>29)</sup> John Lewis Gaddis,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1941-1947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 24,

거쳐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때 독립을 얻게 될 것이 었다.

따라서 루스벨트 행정부는 영국뿐 아니라 소련 및 중국와의 대화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상술된 것처럼 스탈린은 서방국가들의 카이로 회 담에 제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스탈린도 회담의 필요성 자 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1943년 7~8월에는 쿠르스크에서 독일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30) 그리고 독일의 하계 대공세가 끝난 이후 에도 스탈린은 매일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스크바로 직접 전신 송부가 가능한 테헤란을 회의 장소로 주장하였다.31) 그럮에도 이 후 루스벨트가 보인 태도는 그가 소련과의 대화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두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루스벨트는 11월에 있는 미국의회 회기 동안 법안에 대해 승인 혹은 개봉을 표명한 실제 문서(physical document)를 의회에 10일 내에 보낼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하는 법 률조항을 스탈린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자신의 제안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루스벨트는 자신도 미국 정부에 대해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beg) 하였으며, 스탈린은 러시아에서 오는 데 600km 밖에 걸리지 않지만, 자신은 미국에서 6000km로나 여행해야 하지 않 느냐는 감정적인 호소까지 병행하였다. 32) 스탈린은 이러한 요청을 다 시 한 번 무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벨트는 소련과의 대화 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다. 루스벨트는 스탈린에게서 명확한 답변을 아직 듣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전보를 보내 그가 못 온다면 대신 외무 장관 뱌체슬라프 몰로토프(Vvacheslav Molotov)라도 카이로로 보내

<sup>30)</sup> Geoffrey Roberts, Stalin's Wars: From World War to Cold War, 1939-195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6), 176-177.

<sup>31) &</sup>quot;Marshal Stalin to President Roosevelt" (19 Oct 43), FRUS, 33,

<sup>32) &</sup>quot;President Roosevelt to Prime Minister" (21 Oct 43) in Churchill, *The History of Second World War*, V, 274–275.

#### 달라고 요청하였다 33)

루스벨트는 소련뿐 아니라 중국도 아시아에서 일본이 사라진 공백을 메울 4번째 강대국으로 대하려 했다. 처칠이 냉소적으로 묘사한 것처 럼 미국인들의 눈에 이미 중국은 "세계열강들 중 하나"로 보이고 있었 고. 그 지도자 장제스는 "'새로운 아시아'의 챔피언"으로 여겨지고 있었 다. 34) 처칠도 인정했듯이 장제스는 강력한 반공주의자였고. 일본의 침 략으로부터 가장 오랫동안 중국을 방어한 인물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런 이유로 미국 정가에서는 그가 전후 네 번째 열강의 수뇌가 될 것이 라는 믿음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35) 루스벨트의 전폭적인 지지로 중 국은 1942년 1월 제1차 워싱턴 회담(The First Washington Conference) 에 참석하여 4대 강대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연합선언' (Declaration by United Nations)에 서명할 수 있었다. 36) 미국은 또한 같은 해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 · 영 · 소 및 무용과 회담에 모스크바 주재 중국대 사 푸빙챙(Fu Bingchang)을 출대하고 그바 선언에 서명할 수 있도 록 배려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1943년 6월 30일 루스벨트는 장제스 에게 전보를 보내 그해 가을에 회담을 개최하자고 직접 제안하기에 이 르렀다. 37) 그리고 상술한 것처럼 스탈린이 중국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 하자. 미 · 영 · 중 · 소의 회담을 카이로와 테헤란 회담으로 분리해서까 지 중국 지도자와의 회담을 추진하였다.38)

영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전후체제 구상을 큰 틀에서 수

<sup>33) &</sup>quot;President Roosevelt to Prime Minister" (27 Oct 43) in Churchill, The History of Second World War, V. 279.

<sup>34)</sup> Churchill, The History of Second World War, V, 290.

<sup>35)</sup> Ibid.

<sup>36)</sup> Ma Xiaohua, The Sino-American Alliance during World War II and the Lifting of the Chinese Exclusion Acts (London: Routledge, 2003), 203-204.

<sup>37) &</sup>quot;President Roosevelt to Generalissimo Chiang" (30 Jun 43), FRUS, 13,

<sup>38)</sup> 스탈린은 아직 일본과 전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접촉하는 것에 부담을 느 꼈을 것으로 추측된다. Churchill, The History of Second World War. V. 284.

용하였다. 그러나 국제신탁통치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식민지를 독립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영국이 보유한 식민지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39) 영국 외무장관 앤소니 이든(Anthony Eden)은 루스벨 트가 전후 질서를 구상하고 있는 과정을 "다이너마이트 공을 가지고 하 는 곡예"로 평가절하하면서. 루스벨트가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특 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40) 영국은 특히 루스벨트가 내비치던 반식민주의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예를 들어. 처칠은 '대서양헌장'에서 루스벨트가 제시한 민족자결권에 공식적으로는 동의했지만. 같은 해 9월의 연설에서는 그 의미를 의도 적으로 축소하였다. 그는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정부의 형태를 결정할 권리"(the right of all peoples to choose the form of government under which they will live)를 규정한 제3조 는 유럽 내 독일 점령지에 한정되는 것이지, 영제국을 이루는 국가들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41) 다음 장에서 살펴 볼 것처럼. 양 국의 견해 차이는 카이로 회담 준비 과정뿐 아니라 선언문 작성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도 소련과 중국을 전후 체계 수립의 주요 구성원으로 바라본 점에서는 동일했다. 공산주의와 스탈린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처칠도 소련이 대독일전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생각할 때 그들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퀘벡회담 이후로는 영미 정상 간의 주요 군사작전 관련 결정사항을 소련에

<sup>39)</sup> Cordell Hull, *The Memoirs of Cordell Hull* (2vols,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48) II, 1597.

<sup>40)</sup> Anthony Eden, *The Reckoning: the Memoirs of Anthony Eden, Earl of Avon* (Boston: Houghton Mifflin, 1965), 433.

<sup>41)</sup> Neta Crawford, Argument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Ethics, Decolonization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297.

제공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42) 그러나 이것이 전후 신질서 속에서 소련 과 중국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영미 양국 간 에 합의가 이뤄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미국과 달리 영국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과 전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한 것은 영미 양국 간의 의견 일치와 긴밀한 공조였다. 그 래서 1943년 10월 말. 루스벨트가 소련 대표를 카이로 회담에 초청한 것을 알게 된 처칠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이탈리아 전선과 오버로드 전장에 참여하지 않을 소련군의 대표를 논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부당하며 영어를 유창하게 말 할 수 있는 소련군 고위 지휘관이 없으므로 회담이 방해받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그가 진정 두려워 한 것은 향후 영국과 미국 사이의 모든 회담에 소련이 관 여하여 양국의 소통이 방해받는 상황이었다. 43) 며칠 후 처칠은 미국과 의 공조관계를 고려해 마지못해 루쓰벨트의 제안을 수용했지만, 이 경 우에도 영미 양국 회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몰로토프가 회담 첫날이 아닌 마지막 날에 도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44)

영국이 소련에 대하여 보였던 태도는 또 다른 강대국 후보인 중국에 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처칠은 루스벨트와 달리 일본과의 전쟁 상황. 국공(國共)내전 등을 고려할 때 국민당 정부가 다른 열강에 비해 세계 대전에서 맡아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 다.45) 영미 간의 협력을 전쟁진행 및 국제질서 구상에 가장 중요한 축

<sup>42)</sup> Office, U.S. Secretary, Quadrant Conference, August 1943, 388–389.

<sup>43) &</sup>quot;Former Naval Person to President Roosevelt" (27 Oct 43) in Churchill. The History of Second World War, V, 279-280.

<sup>44)</sup> 결과적으로 몰로토프의 카이로 회담 참석문제는 루스벨트가 장제스를 초청하자 스탈린이 소련 대표단 파견을 취소함으로 일단락되었다. "Prime Minister to President Roosevelt" (12 Nov 43) in Churchill. The History of Second World War, V. 284.

<sup>45)</sup> Herbert Feis. The China Tangle: The American Effort in China from Pearl Harbor to the Marshall Miss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3), 209-210.

으로 생각했던 영국의 기존 입장에서는 카이로 회담에 장제스가 등장한 것이 그리 반가운 요소는 아니었다. 처칠의 우려대로 실제로 회담이 시작되자, "그들(중국 대표단)의 등장은 불가피하게 그들의 존재를 우리(영국과 미국)의 논의 속으로 끌어들였다." 카이로 회담에서 처칠에게 중국 관련 이슈는 영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외 관계인 "영국과 미국 관리들의 담화"를 "슬프게도… 분산시키는" 요소에 가까웠다. 그것은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에 비하면 "길고, 복잡하고, 중요하지 않은" 종속변수에 불과해 보였다. 46)

중국이 전후 세계 질서 속에서 행할 역할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대일본전쟁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둘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중국은 버마전선에서 일본을 패퇴시키기 위해 연합군이 "(중국의) 지상 작전과 동시에 상륙작전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처칠이 보기에 "인도 중국 전신에 대해 과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루스벨트는 "몇 달 안에 빨길 맛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시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47) 그러나 유럽전선에서의 작전을 다른 모든 전역의작전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보았던 영국은 중국이 과도히 상륙함을 요구해 서유럽과 지중해의 군사작전에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하였다. 그래서 처칠은 중국군의 지상 작전을 영국 해군의 상륙작전으로 지원해 달라는 장제스의 요구를 거절하고 함선 몇 척을 지원하는 선에서 연합국의 의무를 마치려 했다. 48)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카이로 회담은 오래된 파트너인 영국뿐 아니라 국제신탁통치를 통한 전후 세계질서를 같이 정립해 나갈 주요 국가인 중국과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행사였다. 그러나 카이로 회담에서 영국은 스탈린을 만나기전 여러 군사적, 국제정치적 이슈에 대한 영미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에 더 큰 중요성을 두고 있었다. 카이로 회담

<sup>46)</sup> Churchill, The History of Second World War, V, 282, 289.

<sup>47)</sup> Ibid., 289-290.

<sup>48)</sup> Ibid., 290,

과정에서 영국·중국 정상회담은 사적인 친교 모임에 가까웠던 반면. 미국 · 중국 회담에서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의 초안이 잡혔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전혀 뜻밖의 결과는 아니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카이로 선언의 내용은 전후 국제질서 수립의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과 식민지 독립을 바라보는 영미 양국의 견해차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 4 카이로 선언무의 도출

1943년 12월 1일에 공식 발표된 카이로 선언의 내용은 크게 보면 대 일본전에 대한 연합국의 의자 표명 기리고 전후 영토 처분문제에 대한 공동의 합의 사항으로 나눠지다. 그리고 영토 조항은 다시 태평양 도 서, 중국, 한국 관련 조항으로 나눠 볼 수 있다 49) 대부분의 협정문이 그러듯이. 카이로 선언문의 내용도 상이한 입장을 가진 각국의 공동인 식의 최대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회담 당사국들의 상이한 군사전 략과 국제정치적 구상들이 고려되었을 때. 선언문 협의 과정 속에서 나 온 각국의 주장과 그것들이 조율된 선언문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가 이 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일본전 관련 조항에서 "세 연합국은 그들의 잔혹한 적

<sup>49)</sup> 국내 학자 장박진의 경우 카이로 선언 내 영토 조항이 태평양 도서, 중국, 한국 관련 조항 외에 '폭력과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지역'을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고 있다고 주장한다.(장박진. "카이로선언의 기초와 한반도 독립 조항의 의미-전후 단순 분리 독립의 기원", 『동북아역사논총』54호(2016), 250) 그러나 필자는 중국 과 한국 관련 조항 사이에 있는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모든 다른 영토 에서도 축출될 것이다"(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라는 이 문구가 특정 지역을 대 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과, 이 구절의 '폭력', '탐욕', '약탈'과 같은 표현이 한국의 상황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들에게 해상과 육지와 그리고 영공을 통해 끊임없는 압박을 가한다는 그들의 결의를 표명"(The Three Great Allies expressed their resolve to bring unrelenting pressure against their brutal enemies by sea, land, and air) 하면서, "세 연합국이 일본의 침략을 억제하 고 처벌하기 위해 이 전쟁을 치루고 있음"(The Three Great Allies are fighting this war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을 천명하였다. 50) 이러한 문구들은 일차적으로 대일본전에 임 하는 연합군의 굳은 의지와 전쟁의 목표를 표명하는 수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담 준비과정에서 노출된 오버로드 작전과 대일 본전 사이의 군사적 우선순위를 둘러싼 연합국들 간의 이견을 고려하 면. 이 문구가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 수뇌부들이 대일본전의 중요성 에 대해 공감하는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또 한 버마 전선에서 상륙작전의 시시와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영국, 중 국 사이에 나타난 의견의 불일계는 이 선언문에 표명된 전면적 대일전 이라는 범위와 일본의 완전한 항복이라는 목적이 세 강대국 사이에 합 의된 최소한의 공동인식이었음을 부각시킨다.

세 연합국은 영토조항 중 중국관련 조항에서 만주, 대만, 평후제도 (The Pescadores)<sup>51)</sup>를 열거하며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영토를... 중화민국에 반환하는 것"(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hall be restored to the Republic of China)을 전쟁의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sup>52)</sup> 이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대일본전을 담당하며 수많은 인적, 물적 희생을 감당한 중국이 승전의 대가로 회복할 지역에 대한 예시이다. 그러

<sup>50) &</sup>quot;Final Text of the Communiqué", FRUS, 448. 이 장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문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국문 인용 외에 영어 원문 또한 소개하도록 하겠다.

<sup>51)</sup> 대만 섬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대만 해협 상의 군도를 말함.

<sup>52) &</sup>quot;Final Text of the Communiqué", FRUS, 448.

나 전후 수립될 국제질서 속의 중국의 위상에 대한 연합국 사이의 이 격을 고려해 보면, 중국의 국제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합의의 정도를 반영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외무차관 알렉산더 캐 도저(Alexander Cadogan)은 11월 26일에 카이로 선언의 최종문구 를 다듬는 과정에서 일본의 다른 점령 지역과 달리 만주 대만 평후 제도를 중국에 귀속하도록 명시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미국 초안 에 있는 "이 지역들이... 당연히 중화민국으로 반환된다"(the territory... will of course be returned to the Republic of China)는 구절을 단순히 일본의 영토 포기를 규정하는 수준으로 낮추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53)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영국의 기존 입장을 반영하는 그 의 주장은 다른 국가들에 의해 거부되었고. 앞서 본 것처럼 실제 선언 문 속에는 중국의 이익이 반영된 문구가 들어갔다. 미국, 영국 뿐 아니 라.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의 중의에 의한 국제질서라는 미국의 구상에 대해 이견이 존재했음에요. 영국은 궁극적으로 대일본전에서 중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지불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한국 독립 관련조항도 연합국들이 군사전략과 전후체제 구상에서 보인 입장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그 의의와 한계가 좀 더 분명히 이해될 수 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처음 만난 11월 23일에 누가 한국 독립 논의를 주도했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사실 카이로 회담 이전부터 한국의 독립은 미국과 중국의 전후 신질서 구상에서 일정한 크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3년 3월 27일 영국 외무장관 이든을 만난 자리에서 전후 아시아 식민지 처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만주와 대만은 중국에게 돌려주되, 한국

<sup>53)</sup>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廳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附政治問題會商經過",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一對日抗戰時期第三編戰時外交(三)』,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531-532.(장박진, "카이로 선언의 기초와 한반도 독립조항의 의미", 266에서 재인용)

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이 참여하는 국제 신탁통치를 통해 독립시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54) 즉, 미국의 전후체계 구상 속에서 이미 한반도는 일본 패망이라는 목적 달성 후 신탁통치를 거쳐 독립될 지역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중일전쟁에서 수세에 몰려 있다가 진주만 기습 이후 추축국에 전쟁을 선포함으로 연합국의 일원이 되었고, 이후 제1차 워싱턴 회의(1942)에 참여해'국제연합선언'을 발표하고, 모스크바 외무장관 회담에도 참여하여 4개국 선언에 서명하는 등 세계열강 중 하나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그 연장선에서 중국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행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찰스 돕스(Charles M. Dobbs)가 평가했듯이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의독립은 전후 지역패권 회복전략의 일부분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55)

물론 루스벨트의 국제 신략통회라는 포괄적 해법이 적용될 여러 지역 중 하나에 불과하던 한반도가 카이로 화담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지는 데 있어 장제스의 역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1월 23일에 있었던 미국·중국 회담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타이와 인도네시아 등 여러 식민지 지역의 미래를 거론하자, 그것에 더하여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은 장제스였다. 56) 또한 이날 있었던 양 정상의 대화내용이 일본에 대한 압박(pressure), 억제와 처벌(restrain and punish)이라는 강력한 군사적 용어로 표명되고, 한국의 '독립'(independence)이라는 명시적 언어에 담기는 데는 미 대통령 특별

<sup>54) &</sup>quot;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Secretary of State" (27 Mar 43), FRUS: Diplomatic Papers, The British Commonwealth, Eastern Europe, the Far East, Volume III, 37.

<sup>55)</sup> Charles M. Dobbs, *The Unwanted Symbol: American Foreign Policy, The Cold War and Korea: 1945~1950* (Kent: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81), 203.

<sup>56) &</sup>quot;Roosevelt-Chiang dinner meeting, 8 p.m" (Chinese Summary Record), FRUS, 324.

보좌관인 홉킨스의 역할도 있었다. 57) 또한 홉킨스는 태평양 도서, 만 주, 대만과 같은 문단에서 한국을 언급하였지만, 중국 관련 문단과 구 별되 별도의 문단에 한국 독립 조항을 위치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루스 벨트 대통령이었다. 58) 최영호는 한국이 만주나 대만과 같이 중국에 반 화될 영토가 아니라 전후에 독립될 지역이기 때문에 루스벨트가 이를 독립된 문단에서 다루려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59) 이렇게 카이로 회 담에서 한국 독립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적절한 용어를 통해 다른 내용과 구별된 조항으로 선언문에 들어가게 된 과정에는 여러 역사적 인물의 역할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이 수행했던 각각의 역할은 분명 각국이 구상하고 있던 군사전략과 전후 국제질서에 관한 입장 속 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는 한국 독립조항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한 접 근방식이다. 미국과 중국이 큰 통에서 한국의 독립을 중시하고 지지할 이유가 있었던 반면, 영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무관심하였으 며, 더 나아가 루스벨트의 국제신탁통치를 통한 식민지 처리 방안이 자 국 식민지가 산재한 아프리카, 아시아에 적용되는 것에는 민감한 반응 을 보였다. 이미 퀘벡 회담에서 이든은 미국 측이 국제신탁통치안을 설 명하면서 사용하는 '독립'이라는 용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60) 이런 입장의 연장선에서 카이로 회담 당시 외무차관 캐도건은 영국 정부가 한국 문제에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 다는 이유로, 한반도 문제에 연합국이 항구적인 결정이 내리는 것을 최 대한 지역시키려 하였다.61)

<sup>57) &</sup>quot;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é, With Amendments by the President's Special Assistant (Hopkins)", FURS, 1943, 401-402,

<sup>58) &</sup>quot;Revised 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é". FURS. 1943, 403.

<sup>59)</sup> 최영호.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73.

<sup>60)</sup> Hull, The Memoirs of Cordell Hull, II, 1237.

<sup>61)</sup> 秦孝儀 主編。"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廳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附 政治問題會商經過". 531-532.

미국 · 중국 정상의 회담 이후 홉킨스 보좌관은 "우리는 일본에 의한 한국인들의 비참한 노예상태를 기억하고 일본 패망 후 가능한 가장 이 른 시기에 이 나라가 자유 독립국이 되도록 결의하였다"(We are mindful of the treacherous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by Japan, and are determined that that country,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after the downfall of Japan, shall become a free and independent country)라는 초안 문구를 마련한 바 있다.62) 이는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미국과 중국 정상 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5일 양국의 합의가 담긴 초 안을 받은 영국은 자국의 전후 국제질서 구상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을 가했다. 예를 들어. 홉킨스의 초안에 있던 "일본에 의 한 한국인의 비참한 노예 상태"는 단순한 "한국인의 노예 상태"(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로 바뀌어. 노예 상태의 정도 에 대한 묘사와 그 가해 주체가 자리지 모호성이 더해졌다. 한국의 독 립시기 또한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속 변하였다. 당시 미국 관리들 은 한국의 신탁통치를 1951년 정도에 종결할 계획을 논의 중이었고 홉 킨스는 이를 반영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라는 표현을 썼다. 63)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국의 독립에 더 긴 신탁통치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느낀 루스벨트에 의해 "적절한 시기 에"(at the proper moment)로 이 문구가 수정되었고.<sup>64)</sup> 식민지 독립 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영국대표단이 다시 한 번 "적절한 절차를 거

<sup>62) &</sup>quot;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é, With Amendments by the President's Special Assistant (Hopkins)", FURS, 401-402.

<sup>63)</sup> C. L. Hoag,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War Policy and the First Year of Occupation, 1941~1946, Unpublished Draft Manuscript Produced under the Auspices of the OCMH (Department of Army, 1970), 339; "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é, With Amendments by the President's Special Assistant (Hopkins)", FURS, 401-402.

<sup>64) &</sup>quot;Revised 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é", FRUS, 402-403.

쳐"(in due course)로 더 모호하게 바꾸었다. 65)

이런 점에서 보면 카이로 선언에 담긴 대일본전에 대한 연합국의 결 의 태평양 도서 및 중국 관련 영토 조정 조항, 그리고 한국의 독립 관 련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 졌던 세 연합국이 공유했던 인식과 이해관계의 최대치의 표현이었다. 이런 점에서 연합국의 상이한 군사전략과 국제질서 구상이 충돌하고. 조율되고, 합의되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카이로 선언문의 정치적 함 의의 해석을 심화하며, 특히 한국을 포함한 식민지들의 독립 시점과 방 식에 대한 불완전한 문구가 탄생한 근원적인 원인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5. 결 론

1943년 중반 연합국은 오버로트 작전의 세부사항에 합의하고 더 나 아가 대일본전의 작전 계획을 조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카이로 회담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전시작전 회의의 성격 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군사전략적 요 소들은 각국의 전후 국제질서 구상과 맞물리면서 갈등을 일으켰다. 미 국이 국제 신탁통치 구상 속에서 소련 및 중국을 대등한 열강으로 대하 려 한 반면. 영국은 강력한 영미 동맹에 기초하여 이들 국가들을 다루 려 하였다. 또한 미국의 국제신탁통치 구상은 궁극적으로 식민지의 독 립을 전제하는 것이었지만. 영국은 자국 식민지에 끼칠 영향을 두려워

<sup>65) &</sup>quot;British Draft of the Communiqué", FRUS, 403. 영국 측 수정안에서는 한국 관련 부분뿐 아니라 식민지 영토조정 부분에서도 "일본이 점령한 태평양 도 서"(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have been occupied by the Japanese) 로 포괄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일본이 점령한 도서"(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로 한정하여 외세에 의해 점령 된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했다.

하여 식민지 독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국제무대에 복귀한 중국은 지역적 패권을 회복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의 전후 처리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 하였다.

이렇게 상이한 입장을 가진 연합국들은 카이로 회담을 통해 대일본 전에 군사적 중요성을 다시 부여하고, 중국을 이 전쟁의 중요한 파트너 로 인정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일본 점령지역에 자유와 독립을 부여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카이로 선 언문은 전면적인 대일본전의 승리 이후 태평양 도서와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본국 귀속과 한국의 독립을 약속함으로서 많은 국가들에게 중 요한 의미를 갖는 무서가 될 수 있었다.

카이로 선언의 군사전략적, 국제정치적 의미의 종합적 고찰은 이 선언이 식민지인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게 된 이유뿐 아니라 그희망이 불완전했던 이유를 이해하는 대도 중요하다. 각국의 군사적, 국제정치적 이해관계가 조율된 공통분모안 선언문은 열강의 입장 차이만큼이나 모호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고, 식민지 독립의 세부 방식에 대한 선언문 내용의 불명확성은 향후 이 지역 국가들이 겪을 불완전한 독립의 원인이 되었다.

카이로 선언은 그 자체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 요소이면서 동시에 강대국들의 군사전략, 국제정치적 전략들이 조율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누가' 한국 및 동아시아의 미래의 결정과정을 주도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첫 번째 측면을 강조하였지만, "이 지역의 미래가 '어떻게' 조정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이 선언문의 이중적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우리의 이해를 보완해 줄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7. 9. 29, 심시수정일: 2017. 11. 22, 게재확정일: 2017. 11. 23.]

주제어: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 신탁통치, 민족자결, 한국 독립, 연합군, 군사전략, 전후 국제질서

#### 〈참고문헌〉

#### 1차 연구사료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British Commonwealth. Eastern Europe, the Far East.
-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Secretary of State" (27 Mar 4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 "President Roosevelt to Generalissimo Chiang" (30 Jun 43)
- "Marshal Stalin to President Roosevelt" (19 Oct 43)
- "Roosevelt-Chiang dinner meeting, & p.m" (Chinese Summary Record)
- "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é. With Amendments by the President's Special Assistant (Hopkins)"
- "Revised 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é"
- "British Draft of the Communiqué"
- "Final Text of the Communiqué"
- Office, U.S. Secretary, Office of the Combined Chiefs of Staff. Quadrant Conference, August 1943: Papers and Minutes of Meetings (Joint History Office, 1943)

Winston Churchill. The History of Second World War (5vols. Boston: Houghton Muffin. 1951)

- "Prime Minister to Premier Stalin" (25 Sep 43)
- "President Roosevelt to Prime Minister" (21 Oct 43)
- "President Roosevelt to Prime Minister" (22 Oct 43)
- "Former Naval Person to President Roosevelt" (27 Oct 43)
- "President Roosevelt to Prime Minister" (27 Oct 43)
- "Prime Minister to Field-Marshal Dill" (8 Nov 43)
- "Prime Minister to President Roosevelt" (12 Nov 43)

"Text of Premier Churchill's Address", The Evening Citizen, Ottawa (31 Aug 1943) (접속날짜 2017년 7월 9일), https://news.google.com/newspapers?id=JvouAAAAIBAJ&sjid=8dsFAAAAIBAJ&pg=3918%2C5496828.

#### 2차 연구사료

- 신용하, "열강의 한국 남북분단 및 신탁통치 정책과 백범 김구의 노선(1943-45)".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3집(2005):7-43
- 장박진, "카이로선언의 기초와 한반도 독립 조항의 의미-전후 단순 분리 독립의 기원". 『동북아역사논총』 54호(2016):247-289
- 정병준, "카이로회담의 한국 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의 작성과정", 『역사비평』107호(2014) 307-347
- 정일화,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 선언』, 서울: 선한약속, 2010
- 최영호,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영토해양연구』 5집(2013): 56-85
- Crawford, Neta, Argument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Ethics, Decolonization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Dewaters, Diane K., The World War II Conferences in Washington, D.C. and Quebec City: Franklin D. Roosevelt and Winston S. Churchill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8)
- Dobbs, Charles M., The Unwanted Symbol: American Foreign Policy, The Cold War and Korea: 1945~1950 (Kent: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81)
- Eden, Anthony, The Reckoning; the Memoirs of Anthony Eden, Earl of Avon (Boston: Houghton Mifflin, 1965)

- Farrell, Brian, "Symbol of Paradox: The Casablanca Conference 1943". Canadian Journal of History 18 (1993):21-40
- Feis, Herbert, The China Tangle: The American Effort in China from Pearl Harbor to the Marshall Miss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3)
- . Churchill Roosevelt Stalin: The War They Waged and the Peace They Sough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Gaddis, John Lewis,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1941-1947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
- Hoag, C. L.,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War Policy and the First Year of Occupation, 1941~1946. Unpublished Draft Manuscript Produced under the Auspices of the OCMH Department of Army, 1970)
- Cordell, The Memoirs of Cordell Hull (2vols. New Hull. York: Macmillan Company, 1948)
- Oliver, Robert T.,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1954)
- Leighton, Richard M., "Overlord versus the Mediterranean at the Cairo-Teheran Conferences". Kent Roberts Greenfield, ed., Command Decisions (United State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59)
- Liu Xiaoyuan. "Sino-American Diplomacy over Korea during World War II".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1 (1992):223-64
- Ma Xiaohua. The Sino-American Alliance during World War II and the Lifting of the Chinese Exclusion Acts (London: Routledge, 2003)

- Roberts, Geoffrey, Stalin's Wars: From World War to Cold War. 1939-195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6)
- Roosevelt, Elliott, As He Saw It (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1946)
- Rosenman. Samuel. ed.. Public Papers and Addresses of Franklin D. Roosevelt. vol.10 (1938-1950), 314, (접속 날짜 2017년 9월 25일). http://www.americanhistory.or.kr/book/link/d-19412.htm
- Sebrega, John J., "The Anticolonial Policies of Franklin D. Roosevelt: A Reappraisal".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1, no. 1 (1996):65-84
- 殷燕軍、『日中講和の研究―戦後日中関係の原点』、柏書房、2007
-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廳工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 開羅會議日誌附一政治問題會商經過"。『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一對日抗戰時期第三編戰時外交(三),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 史委員會. 1981
- 胡春惠.『韓國獨立運動在中國』中華民國史料研究中心. 1976

<Abstract>

# The Design of the Allies' Military Strategies and the Post-War Structure at the Cairo Conference of 1943

Yoon, Young-Hwi

For many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Cairo Conference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At the Conference, leaders of the allied nations pledged to accede the occupied territory from Japan to China and grant the independence of Korea 'in due course'. The Cairo Declaration was reconfirmed at the Potsdam Declaration of 1945 and accepted by the Japanese after the war.

The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Declaration' itself or its effects on the destiny of the Fast Asian countries. However, the allies' motivations for holding the conference, which underlay much of the Declaration, have not been a frequent theme of research. Many researchers have engaged in 'circular logic'; that is, they have emphasized the Declaration, assuming the Cairo Conference was held to discuss the destiny of several areas in East Asia.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ocuments concerning the process of Conference's preparation offer a more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its historical meaning, which the Declaration cannot fully demonstrate by itself. Firstly, heads of nations at Cairo in 1943 needed to establish a new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There was a disagreement over the Chinese role in the post-war structure between the two Western leaders. The meaning of a passage in the Declaration, stating '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hall be restored', could be fully understood by considering these leaders' political intentions. The passage was prepared after the allies reconciled their ideas over this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

Moreover, due importance should be given to the military strategic aspects

of the Cairo Conference. In late 1943, the allied forces were laying plans for the recapture of Burma, while they had diverse opinions about the day on which an operation commenced and the extent of British military intervention on the Burmese front. They also showed different views over the Soviets' participation in future military operations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Thus, the passage 'The Three Great Allies expressed their resolve to bring unrelenting pressure against their brutal enemies by sea, land, and air' expressed the greatest common factor among the three allied forces rather than a rhetorical comment.

In this sense, through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three great powers' motivations in terms of international-political and military purposes at the Conference,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Declaration can be explained more comprehensively.

Keywords: the Cairo Conference, the Cairo Communiqué, Trusteeship, Self-determination, the Korean Independence, Military Strategy, the Post-war Structur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287–315 https://doi.org/10.29212/mh.2017..105.28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한국전쟁기 상해지역 '항미원조(抗美援朝)' 운동의 실상과 특수성\*

- '항미'(抗美)와 '원조'(援朝) 사이에서 -

김태윤\*\*

- 1 머리말
- 2.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 항미원조운동의 시작
- 3. 시사선전(时事宣传)운동을 통한 '공미증(恐美症)· 친미증(親美症)' 극복
- 4. 대중동원운동을 통해 얻은 중국의 경제적 안정
- 5. 맺음말

## 1. 머리말

현재 한국사학계에서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연구는 개별주제 내에서도 여러 다른 이론이 존재할 만큼 그 스펙트럼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 한국전쟁(The Korean War), 중국의 입장에

<sup>\*</sup> 본고는 동북아역사재단의 2016년도 연구 용역 과제 지원으로 작성하였다. 과제번호 "동북아 2016-한중-기획-7-1".

<sup>\*\*</sup>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서 본 항미원조전쟁(抗美援輔戰爭), 북한과 남한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까지 그 수도 상당하다. 하지만, 중국에서 진행된 '항미원조운동'(抗美援韩運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하다.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과 후방 지원 등의 부분에서 항미원조운동1)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학계에서는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항미원조운동은 '미국의 침략에 대항하고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돕는다'는 기치아래 중국 내에서 진행된 대중운동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북한 전시지원운동이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중국내부의 정치·경제 안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축적된 한국 측의 연구도 이러한 경향 속에서 진행되어오고 있다. 한국학계는 항미원조운동의 성격을 큰 틀에서 주로 중국 내부에 미친영향이나 중국 내부의 상황에 집중하여 연구하고 있다. 연구가 많지는않으나 구체적인 분석 틀이나 소재, 시기구분, 인과 관계적인 부분에서 각 연구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항미원조운동의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 지역인 '상해'로 한정지어 살펴보면, 우선 상해시 시사선전 유동을 분석한 毕晓敏의 연구3)가 있고, 대중동원에 초점을 맞춘 张励

<sup>1)</sup> 중국은 1950년 항미원조(抗美援朝) 보가위국(保家衛國)-"미국에 항거해 북한을 돕고, 국가를 위하고 집을 보호하자는 뜻"을 내세워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중국은 참전당시 조선을 돕자는 취지로 항미원조운동을 진행하였다.

<sup>2)</sup> 김옥준, "중국 '항미원조운동'의 대내적 성격과 의의", 『중국학논총』23(2007), 한 국중국문화학회; 손해룡, "1950년대 "항미원조운동" 중 나타난 한반도 인식", 『중국현대문학회, 이세은, "한국전쟁 시기 中共의 지식인·학생의 대중동원: '抗美援朝運動'과 북경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11), 傳展, "抗美援朝運動期 중국공산당의 한국 이미지 만들기: 인민일보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12), 정다운, "한국전쟁 시기 중국 동북지역의 항미원조운동과 내셔널리즘—길림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석사학위논문(2015)

<sup>3)</sup> 毕晓敏、"上海抗美援朝运动时期的时事宣传"、『海青年管理干部学完学推』(2013)

의 연구<sup>4)</sup>가 있다. 이들 논문은 한국전쟁기 중국의 정치경제적 분위기를 항미원조운동의 틀에서 살펴보았다. 彭媛의 연구는 항미원조시기은행을 분석하여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살핀 연구인데, 항미원조운동의 캠패인적 성격 외에 경제적 측면에 집중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다.<sup>5)</sup> 하지만 이 연구들은 항미원조운동의 개별적 성격만을 분석하였다. 특히 대중운동과 선전운동을 각각 독립적인 운동으로 분석하였고, '상해'에서 왜 대규모의 항미원조운동이 발현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들을 염두에 두고 북·중관계의 맥락 속에서 항 미원조운동이 가졌던 목적과 실상을 살펴보고자한다. '항미'와 '원조'라는 단어의 내적의미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며 두 단어 중 더 무게가 실렸던 쪽을 분석하여 항미원조운동의 실상을 확인해 볼 것이다. 분석 지역은 상해에 한정하였다. 지역을 살해로 설정한 이유는 오랜 시간 프랑스등 서구의 조계지였기 때문이다. 상해에는 서구 자본주의·자유주의적 사상이 다른 중국의 도시보다 더 깊게 침투해 있었다. 상해는 1930년 대부터 이미 서구 문물이 많이 들어와 있던 곳이었으며 많은 미국영화들이 상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친미적인 성향이 많이 드리워져 있는지역이었다. 때문에 상해지역은 다른 중국 국내의 지역보다 '친미'를 빼내려는 모습, 즉 '항미'적인 면이 더 극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라고 상정하였다. 실제로 상해지역은 북한의 『로동신문』에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했을 정도로 항미원조운동이 강하게 일어난 지역이기도 했다.6)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항미원조운동의 전개과정을 애국주의 운동.

<sup>4)</sup> 张励,"抗美援朝运动中上海的群众动员",『历史回溯』(2006)

<sup>5)</sup> 彭媛,"简析抗美援朝战争对上海外商银行的影响",『重庆科技学院学报(社会科学版)』(2012)

<sup>6) &</sup>quot;상해의 항미원조운동 고조", 『로동신문』(1951년 3월 31일), "항미 원조운동을 일 층 강화하라! (상해 각신문의 론평)", 『로동신문』(1951년 4년 3일), "위대한 새중국 (5), 5억만 인민이 우리와 같이 싸우고 있다(상해)", 『로동신문』(1951년 12월 27일)

무기헌납운동, 애국증산 절약운동의 세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7) 하지만 본고에서는 첫 번째 단계를 시사선전운동 단계, 두세번째 단계를 묶어서 대중동원운동의 단계로 구분하여 보고자 한다. 이렇게 구분 한 이유는 우선 무기 헌납운동과 애국증산 절약운동 모두 대중 동원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얻고자 했던 성격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고, 시사선 전운동은 대중동원운동을 시작하기 전, 항미원조운동 같은 대규모동원 유동이 가능하도록 대중들을 고무한 사상적 교육단계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아직까지 한국학계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은 상해당안관 (上海檔案館)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였다. 8) 우선 시사선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시 시사선전의 전반적인 보고사항을 다룬 문건인 『中共上海市各區委群衆團體宣傳部關於当前時事宣傳教育工作報告』를 참고 하였고, 대중동원에 관해서는 방직노동조합의 보고 문건인 『中共上海市委政策研究室關於各區交流美援朝愛國捐獻周查材料』과 『中國紡織工會上海市委員會關於抗美褒執疑動的初步總結』를 주로 참조하였다. 언급한 사료은 모두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있는 자료이다. 이 외에 상해지역의 각종 항미원조운동공회9)들이 올렸던 "항미원조운동보고문건"을 정리해 편찬한 자료집 『上海工人抗美援朝运动专辑(上海工运资料)』10)을 주로 참고하여 상해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앙이 각 구에게 내린 지시서와 같은 경우 중앙당안관(中央檔案館)의 사료도 함께 참고하였다.

<sup>7)</sup> 첫 번째는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까지로 주로 반 사회주의적 요소를 제거하는 애국주의 운동, 두 번째 단계는 1951년 6월부터 1951년 말로서 참전한 중국지원군의 전투기와 중무기 구입을 위한 무기헌납운동, 마지막 단계인 51년 말부터 정전 시까지는 애국중산 절약운동과 참전군인들의 가족들의 생계를 돕기 위한 지원운동인.

<sup>8)</sup> 이 글에서 사용한 상해당안관의 자료들은 모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이 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sup>9)</sup> 한국전쟁당시 상해지역에 항미원조 00공회가 다수 조직되었다. 그 종류는 의료, 방직, 시정, 화학, 전신, 식품, 건축공회 등이다.

<sup>10) 『</sup>上海工人抗美援朝运动专辑(上海工运资料)』,上海總工會調查研究室編(1951)

부족한 사실관계나 당시 여론을 보충해주는 신문자료로는 『人民日报』와 『文汇报』를 참조하였다. 『人民日报』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일반적으로 발간되는 신문과는 다르게 중국공산당의 정책이나 사상을 대변하는 신문으로 당시 중국공산당의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활용하였다. 『文汇报』는 1950년 상해지역에서 발간되던 민간신문으로,현재는 홍콩에서 발행되고 있다. 일단 지역신문인 점에서 기관지보다는 상해의 이해관계를 더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당시 상해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人民日报』과 비교하여사용하였다. 그리고 항미원조운동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의 공식 간행물인 『로동신문』과 김일성의 주요 연설과 논문을수록한 『김일성 저작집』과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북한관계사료집』11)을활용하였다.

## 2.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 항미원조운동의 시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은 참전을 결정하지 않은 채 김일성과 스탈린이 참전을 요청할 때까지 참전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있어 기존의 연구는 중국이 미국의 참전 전까지는 전쟁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전쟁 개전 후인 1950년 7월 7일 중국은 '동북변방군'을 창설하여 만약을 위한 사전방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대원들을 선발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12)

<sup>11) 『</sup>北韓關係史料集』은 미국국립문서보관소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소장되어 있는 노획문서를 정리하여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것으로, 북한 연구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北韓關係史料集』은 이하『史料集』으로 약칭하고 간행기관(국사편찬위원회)및 간행년도(1982~현재)는 생략한다.

<sup>12)</sup> 선즈화, 『마오쩌뚱 스탈린과 조선전쟁』, 서울: 선인, 2010, 271쪽, 박영실, 『중국인 민지원군과 북·중 관계』, 서울:선인, 2012, 86쪽.

한편으로는 중국 내에서 대중들에게 항미원조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은 4년여에 걸친 국공내전을 막 끝낸 후 1949년 10월 1일 신생 사회주의 중국을 수립한 상황이었다. 당시 대중들의 '전쟁'에 대한 여론은 악화된 상태였으며 경제,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전쟁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중국의 상황이 얼마나 불안했었는지를 설명하자면, 우선 경제적으로는 공장 대다수가 가동을 멈췄으며 철도 또한 오랜 전쟁으로 1/2 가량이 훼손되었다. 자연재해로 인해 농산물 또한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여 상해는 인민정부가 상해시민들이 먹을 쌀을 15일치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인플레이션도 심각해져 중국의 화폐가치는 절하되었고 물가도 폭등하여 시장은 경제 또한 혼란스러웠다. 이때를 틈타자본가들은 불법적인 매점매석으로 시장에 혼란을 가중하였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중국의 다른 서역보다 활발했던 상해의 경우 정부수립한 달 후 물가지수가 100을 기중으로 볼 때 1950년 2월에는 2,097.90으로 폭등하여 약 20배가랑이 뛰었다. 극도로 혼란한 물가는 정상적인 상품유통과 농공업 생산 질서를 무너뜨렸고, 중국의 경제에 극단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13) 이외에도 공업생산 수준도 악화되어 기계공업은 운용될 수 없었고, 토지개혁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1949년 말 마오쩌둥 (毛澤東)은 12월 16일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현재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화를 보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전쟁 전 수준의 경제 회복과 전국의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3년 내지 5년간의 평화로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화정착이다."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sup>13)</sup>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3쪽.

하였다. 14)

이처럼 마오쩌둥이 중국의 평화를 강조한 이유는 사회주의 중국 수립 후에도 완전히 중국전역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광동(廣東), 광서(廣西), 사천(四川), 귀주(貴州), 운남(雲南), 서강(西康), 서장(西藏) 등의 지역은 아직도 국민당이 관할하고 있었다. 신해방구(新解放區)의 기층정부도 공고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정치적으로 불안요소들이 산재해있던 상황이었다. 15) 이 때문에 중국은 '사방으로 출격하지 않겠다(不要四面出擊)'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국내의 정치적 안정과 국민경제회복에 집중하고 있었다 16)

한국전쟁 개전시기만 하더라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적은 국민당이었고, 체제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목표였다. 중국으로서는 인접국인 북한과 남한의 전쟁보다는 국내의 국공내전과 경제·정치재건에 더 치중해야했다. 미군의 참전문제에 대해서는 해지는 선언'<sup>17</sup>'으로 참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정치수뇌부측에서 동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중률이 동의할 것인지의 여부가미지수였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한국전쟁의 참전 결정이 진행되던 중1950년 6월 말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겠다는 결정을 하였고, 타이완에 주둔해 있던 미군의 '7함대'가 타이완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 7함대 대만해협 파견은 중국 국내에 경제적, 사상적 혼란을 야기 하였다. 1950년 6월 28일 북경, 상해, 천진 등의 대도시에서 은행의 현금인출이 줄을 이었고 생필품의 사재기가 시작되었다. 이미 마오쩌

<sup>14) 『</sup>毛澤東與斯大林會談記錄(모택동과 스탈린의 회담 기록)』, 1949년 12월 16일.

<sup>15)</sup>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위의 책 1, 3쪽-4쪽.

<sup>16)</sup>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위의 책 1, 8쪽.

<sup>17) 1950</sup>년 1월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1949~1953)이 발표한 선언으로, 애치슨 선언에서 미국의 극동 방위선(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짜등의 공산화를 저지하기위해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알류산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을 애치슨 라인으로 정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한국과 타이완, 인도차이나 반도는 애치슨 라인에서 제외되었다.

등은 1950년 5월 미군이 38선을 넘을 경우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선인 민군으로 위장하는 형식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었다. 유엔군 즉 자본주의 진영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참전이 확실시 되면서 이러한 지원약속은 구체화되고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다. 게다가 조선인민군이 미군과의 전투에서 중국의 예상을 뒤엎고 연승을 거두면서 승기를 잡 아가자 미군의 승리를 확실하게 저지하기 위한 참전을 하게 되었다. 18) 이처럼 당시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타이완문제로 인한 압박이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정권초기 급진적인 토지개혁과 반혁명운동의 진압 등으 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전략적인 외교 정책 · 대외전쟁 수행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대중운동을 통하여 국민들 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높여야 했다. 그리고 당시 극심했던 인플레이션의 극복과 생산 증가를 위하여 전시경제체제를 부 활시켜 물자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했다. 한편으로 는 국민들의 성금모금으로 인한 경제부활을 모색했는데, 이에 대한 해 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국외적 정책인 '참전'과 국내적 정책인 '대중운동' 이었다

당시 국가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은 해방 후 계속되는 국민당정부와의 이념전쟁에서도 '대중운동'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갔다. 마오쩌둥은 대중들에게 "인민대중의 혁명적 적극성만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연설하며 혁명적 이상주의와 평등주의의 대중운동을 기치로 내걸고, 대중들의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을 강조하였다. 대중운동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연안정풍운동(延安整風運動, 1942년), 정병간정운동(精兵簡政運動, 1943년), 합작사운동(合作社運動, 1942년) 등이 있고, 이러한 경험은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을 승리로 이끄는 배경이 되었다. 19) 이러한

<sup>18)</sup> 김동길·박다정,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및 한국전쟁 초기, 중국의 한국전쟁 과 참전에 대한 태도 변화와 배경", 『역사학보』 225, 2015, 242쪽-247쪽.

<sup>19)</sup> 김옥준, 앞 논문, 203쪽.

대중운동의 효과를 잘 알고 있던 마오쩌둥은 직면한 국내외적 불안감을 항미원조운동이라는 대중운동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국공산당 중앙은 1950년 10월 26일 전국에 항미원조 시사선 전진행에 관련한 내용을 지시한 후 항미원조총회의 지도하에 1950년 11월 전국적으로 운동을 전개했다. 1951년 1월 "북한 난민을 구제해야 한다. 특히 식량, 솜옷, 의복이나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국인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sup>20)</sup> 상해지역에서 항미원조운동의 문서가 많이 발견되는 이유 또한 이곳에 의복이나 옷감을 생산하는 방직공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중동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항미원조운동을 홍보하고 애국심을 자극하는 '선전공작'<sup>21)</sup>을 시작하였다. 우선 대중들이 왜 미국을 원수로 삼아야하는지, 왜 중국인민이 뭉쳐서 미국을 조선에서 물리쳐야하는지를 대중에게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상해시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사선전활동을 벌였고, 이것이항미원조운동에서 애국증신운동(愛國增產運動)으로, 3반·5반 운동(三反·五反運動)<sup>22)</sup>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한국전쟁 당시 항미원조운동은 시사선전운동과 생산운동이 세트를 이루며 진행되어갔다. 이하에서는 시사선전운동과 생산운동인 대중동원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sup>20)</sup>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412쪽.

<sup>21)</sup> 특정한 사상적 노선(路線)이나 파당적(派黨的) 의도에 따라서 대중의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주려는 정보나 이론. 선전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이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다. 정치선전·상업선전·종교선전·사상선전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sup>22)</sup> 항미원조운동과 이후 진행된 삼반오반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三木 毅, "新中国 における三反,五反運動と運動下の財経工作", 『室蘭工業大学研究報告』(1955):173-183 에서 가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 3. 시사선전(时事宣传)운동을 통한 '공미증(恐美症) · 친미증(親美症)' 극복

항미원조운동이 한국전쟁 과정에서 북한으로 많은 지원을 한 점은 사실이지만, 중국내부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항미원조운동은 신생중국 이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도 역할을 하였다. 우선 시사선전(时事宣传)운 동은 북한 측의 입장에서 보면, 선전을 통해 인민군으로의 지원을 높여 많은 수의 지원군이 북한으로 출병하는 것이 도움이 된 운동이다. 하지 만, 실상을 살펴보면, 항미원조 시사선전운동에서 '원조(接朝)'를 주제 로 한 운동은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사선전의 각각 방법과 그 효과를 통해서 시사선전운동이 중국의 국가 재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국공산당은 참전을 결정한 후 1950년 10월 26일 각 중앙국, 분국, 군구, 성시 당위원회에「關於在全國進行時事宣傳的指示」(전국 시사선전 진행에 관한 지시, 이하『지시』)를 발표하였다.

미군이 조선 침략을 확대하고 직접적으로 대만을 침략해, 우리의 안전을 심하게 위협하고 있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미국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 각지에서 시사선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sup>23)</sup>

고 언급하면서 6항의 지시를 작성하였다. 첫 단락부터 미국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주를 이루는 만큼 당시 항미원조운동은

<sup>23) 1.</sup> 선전의 기본내용 2가지, 2. 조선의 형세와 중국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마땅한 설명, 3. 미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마땅한 설명, 4. 각 기관, 단체, 학교, 공장과 군대 내부의 선전방식은 토론을 위주로 한다. 5. 모든 선전에 있어서는 국가 기밀로 지켜야하고, 스파이를 조심해야한다. 6. 본 건은 응당 간부와 선전공작원에서 빠르게 세부사항을 전달하고 각지 군중토론중의 주요 상황보고를 보고하길 희망한다. 「中共中央關於在全國進行時事宣傳的指示」, 1950년 10월 26일, 中央檔案館提供.

친미(親美), 공미(恐美)<sup>24)</sup>를 타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미국을 '종이호랑이'라고 칭하는 등, 대중에게 미세하게나마 남아있는 친미(親美)에 대한 사상을 소멸하고자 하였다. 상해시는 중공중앙의 지시에 맞춰「關於開展時事宣傳的指示」(시사선전 전개에 관한 지시)를 보내고 전시에 곧 깊이 전면적으로 시사선전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각 당위원회의 중심임무임을 알렸다. 또한 1950년 12월 5일 전시(全市)각계 인민은 제 1차 항미원조대표회의(抗美援朝代表會議)를 개시하고각 지역 운동현황에 대해 보고했는데,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항미원조분회주석(上海抗美援朝分會主席) 유장성(刘长胜)이 보고하였다. 다른한편으로는 항미원조운동에 대한 시민의 동원을 확대하고, 시민에게호소하였으며, 상해 내에서 항미원조운동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sup>25)</sup>

앞서 언급한 듯이 항미원조윤동, 들이 시사선전운동에서는 '원조(援朝)'보다는 '항미(抗美)'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었다. 상해시위원회가 항미(抗美)에 대해 강조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상해는 프랑스와 각국의 공공조계지로 서방 국제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만큼 미국에 대하여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상해 지식인들 사이에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모습은 본받아야할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이었다. 게다가 일부 사람은 미국에 반기를 드는 항미원조운동에 대하여 "중국의 착오"라고 표현하는 모습도 있었다. 26) 1950년 당시 상해 발간 신문이었던 『文汇报』(문회보)27)의 기사에서 미국에 대해 좋은 인상으로 표현하는 기사들이 다수 등장하기도한다. 28) 항미원조운동을 진행해야하고, 사회주의를 공고히 해야 하는

<sup>24)</sup> 미국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상태나 분위기.

<sup>25)</sup> 毕晓敏,"上海抗美援朝运动时期的时事宣传","海青年管理干部学完学推』(2013):1零.

<sup>26)</sup> 毕晓敏, 위 논문, 2쪽.

<sup>27) 『</sup>文汇报』는 1950년대 상해지역에서 발간되던 신문이다. 때문에 인민일보를 참고 하는 것보다 상해의 실상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중공과 시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친미(親美), 숭미(崇美)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이하 소개하는 시사선전 운동 대부분에서 선전의 목적이 '원조(接朝)'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항미(抗美)를 중심으로 이어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해의 재중국교육공상해시위원회(在中國教育工會上海市委員會-이하교육공회)의 1950년 12월 28일의 보고를 보면, 10월부터 진행된 교육분야에 있어서 항미원조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미국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학습하게 하여 항미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교육공회는 항미원조 초기단계의 성과로 시사학습의 강화된점과 대중이 미국을 원수로 여기는 애국 정서가 격발(激發)한점, 미국을 원수로 여김에 따라 해야 하는 각종 구체적 행동을 규정하여 초기항미원조운동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29) 교육공회에서는 각 대학, 소학교, 학교학 등을 대상으로 시위운동 또한전개했는데, 교육의 대상을 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부터 청년, 대중을 모두 교육의 대상을 삼고 있었다. 시사선전을 진행함과 동시에 당의지에 따라 교육범위를 넓히는 것이 교육공회의 유동목표였다 30)

교육계에서 시사선전이 구미(仇美)에 대한 반감고조와 애국에 대한 '교육'을 중점으로 이루어졌다면, 신문 등 각종 매체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항미'정신을 선전하였다. 우선 신문사에서는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 자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구미·항미원조에 대한 공동성명'을 게 재하면서 선전 운동을 진행하였다. 『人民日报』의 경우 11월 7일자 신문31)에 청화대학, 북경대학 등의 직원의 "공동성명"을 실었다. 서명인

<sup>28) &</sup>quot;怎樣认识美國", 『文汇报』(1950년 11월 6일)

<sup>29) 『</sup>中共上海市各區委群衆團體宣傳部關於当前時事宣傳教育工作報告』,上海檔案館 소 장자료、31쪽.

<sup>30) 『</sup>中共上海市各區委群衆團體宣傳部關於当前時事宣傳教育工作報告』,上海檔案館 全 장자료、32쪽-33쪽.

<sup>31) &</sup>quot;北京鐵道學院等院校教職員工分別發表的擁護"聯合宣言』的宣言",『人民日报』(1950년 11월 7일)

모두의 이름을 담고 있었고, 저명인사들 모두가 참여한 성명발표와 지식인·저명인사 등의 이름이 나열된 신문지면은 대중들을 향한 심리적선전효과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또한『文汇报』32)의 경우에는 신문 1면에 반 이상의 지면을 활용하여 서명인들의 이름을 소개했다. 이러한 공동서명을 통한 선전은 대중들에게 '소속감'을 이끌어내 '미국을축출하겠다고 다짐하는 공동서명 무리'에 참여하고 싶게 하는 심리를자극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교육공회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는데, 교육공위 보고서를 살펴보면 항미원조 시위에 참여한 대학교직원과, 소학교직원 등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대중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시사선전운동은 매체와 교육을 통한 선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이 참여하는 거리시위로 까지 이어졌다. 1950년 12월 5일, 6일 상해 각 지역의 인민들은 (항학원동 보기위국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전시의 노동자, 점원, 학생, 학료종사자와 상공업자들까지 약 500만 여명의 참가하는 집회와 시위를 거행하였다. 또한 상해시 내의 30여 개 각 구에서 항미원조 대표회의를 열고 〈중국인민 세계평화보위 및 미국침략반대위원회〉 각 구 지회를 설치하여 시위를 진행해 나갔다. 33) 이 시위의 슬로건은 위원회의 이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침략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51년 2월에는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한다는 정책이 발표되었고, 이에 반대하여 "미국의 일본무장 반대"의 슬로건을 추가하여 애국시위를 벌였다. 1951년에는 상해뿐만 아니라 중국 전국적으로 "5.1대시위"의 바람이 불어 약 2억 명의 군중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5월 1일 시위(국제노동절 시위)는 그 규모만큼이나준비단계에서부터 시위원회가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시위에 참여하는 범위는 농·공·상·학생·청년·부녀를 가리지 않았고, 시(市), 구(區).

<sup>32) &</sup>quot;聯合宣言", 『文汇报』(1950년 11월 06일)

<sup>33)</sup> 上海市地方志辦公室(상해시지방지판공실) -上海抗美援朝运动(접속날짜 2017년 10월 3일), http://www.shtong.gov.cn.

향(鄕) 각단위에 주비회(籌備會)를 설립하여 항미원조 상해분회를 도와 시위를 진행하게 하였다. 또한 전국의 인민단위에서 소조회의를 통해 전 국민을 동원하여 중국 내의 제국주의를 소멸하고 미국과 국민당잔 재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4) 이러한 대규모 시위에서도 역시시위 슬로건은 "반혁명 고조의 진압"이었는데, 여기에서 '반혁명적인 것'의 의미는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뜻이다. 즉 5.1대 시위도 사상적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이다.

당시 진행되었던 시사선전 운동 중에 '항미'의 성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최고로 역량 있는 선전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규탄(糾彈)'을 통한 연설선전 방식이었다. 선전의 방식 중에서도 '연설'은 군중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좋은 선전방식이다. 상해시에서는 시작성의 교육단계가 마무리 되던 시기각 공회로부터 교육을 받은 인민들어 작각의 지역에서 크고 작은 비판회, 규탄회를 열어 '연설'을 통한 선전운동을 진행하였다. 한국전쟁시기이러한 규탄회는 8,000여 회에 달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로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당한 피해를 감정을 실어 호소하는 형식으로 규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卢湾区(노만구)에서 열린 제1차 거리주민 좌담회에서는 미국의 '2.6'비행기 폭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참가했다. 주민 당금산(唐金山)은 자신이 겪은 '2.6'비행기 폭격 당시의 상황을 울부짖으며 이야기했다.

'2.6'폭격이 있었을 때, 나는 내 옆집 사람이 미국의 폭격으로 인해 순식간에 손, 발, 전신이 사분오열(四分五裂)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 문짝에는 피가 튀었고, 배수구의 물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우리는 미국을 타도해야만 하고, 우리는 그들의 근육을 뽑고, 피부를 벗겨야 한다. 35)

<sup>34) 『</sup>中共上海市委郊岡工作委員會宣傳部及市郊各區委宣傳部關於慶祝國慶・情况報告和總結』,上海檔案館 소장자료,1951,1至.

<sup>35)</sup> 毕晓敏, 위 논문, 2쪽, 재인용.

또한 제람교구(提篮桥区)에서 열린 시민 규탄대회에서 한 노부인은 미국을 몹시 증오하며 목이 멘 채 연설하였다.

미국 병사가 여자들을 강간했으며, 나의 두 딸은 수치스러움에 자살하였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고조된 상황에서의 연설을 이어졌고, 연설은 기존의 시사선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조선을 도와주자(원조)"의 내용이 아닌 "원수미국을 증오하며, 미국은 축출해야 할 대상(항미)"이 라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선전방식은 "피와 눈물"의 선전 방식 으로 군중이 각성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고,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확대시키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적개심은 곧 중국공산당과 중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발전하였다.

## 4. 대중동원운동을 통해 얻은 중국의 경제적 안정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에서의 대중운동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 시사선전운동이 1950년대 초 중국에 만연했던 사상적인 혼란을 잠재우는 수단이었다면, 대중동원운동은 최악의 경제상황을 타 개하는 해결책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중국의 대중동 원운동을 통해 얻은 원조는 모금액을 지원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제 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국이 부족한 국고에서 지원하기는 힘 든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은 주로 현물이나 각종 생필품 등을 북한에 지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필품과 현물의 생산은 당시 중국의 대중동원 의 방식이었던 '할당량 달성', '목표치 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군 중들은 '항미원조 보가위국'이라는 목표아래 다른 때보다 열심히 동원 되어 노동하였고, 그 결과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면서도 경제의 안정성 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이 경제성장의 결과를 이루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항미원조운동 중 '대중동원' 방면에서 효시라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대만공격이후에 발기한 1950년 7월 21일 "미국의 대만·조선침략 반대운동 주간"이다. 이 운동은 주로 대만해방과 미국을 반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것은 미국의 대만공격이 곧 중국전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36) 하지만, 이 시기까지만 해도 중국은 대대적인 대중운동과 참전은 생각하지 않았고, 대중들에게도 대만공격에 대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어진일을 감당하라는 지침만을 내린 상태였다. 실제로 1951년 중국방직노동조합상해시위원회(中國紡織工會上海市委員會)보고37)에서도 1950년 11월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은 한국전쟁에 관심이 없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 있다.

상해시는 1950년 중국인민지원군의 '항미원조전쟁' 참전이 결정되자, 상해시총공회(上海市總工會)를 설치하였다. 상해시총공회에서는 각 산 업별, 기관별로 공회를 따로 두어 각각 항미원조운동을 진행했고, 시기 별로 보고문건을 총공회에 제출하게 하였다. 38)

하지만, 미국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한국군이 38선을 돌파하자, 중국 내부에서는 참전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대대적인 대중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950년 12월 28일 중국공산당은 『인민일보』를 통해 공장, 기관, 학교, 단체 미국 제국주의의 죄악(罪惡)을 호소하고 친미(親美), 숭미(崇美), 공미(恐美)의 사상을 비판하면

<sup>36) 『</sup>周恩來文選(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1954, 54쪽-58쪽.

<sup>37)『</sup>中國紡織工會上海市委員會關於抗美援朝運動的初步總結』,上海檔案館 소장자료,1951.1至-9至.

<sup>38)</sup> 당시 상해시총공회 산하의 기관들은 신문출판인쇄공회, 의무공회(항미원조조직수 술의무대공작대),방직공회, 시정공회, 재정금융공회, 화학공회, 전신공회, 식품공회, 점원공회, 민항공회 등이 있었다.『上海工人抗美援朝运动专辑(上海工运资料》』, 上海總工會調查研究室編, 1951, 2쪽.

서 공장 노동자들이 애국주의 생산경쟁을 전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장노동자들이 애국주의 생산경쟁을 전개하여 심양(瀋陽)의 9만 노동자들이 참가하였고, 공업부분에서 16개의 공장이 이미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대도시의 학생, 교수는 애국주의운동을 벌이고, 북경(北京), 천진(天津), 상해(上海), 무한(武漢), 남경(南京), 심양(瀋陽)의 상공업계 종사자들이 애국시위와 경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투기를 하지 않으며 물가를 안정하고 적극적인 세금납부에 대하여 맹세하고 애국시위에 참여하였다. 39)

위의 사설은 1950년 12월 28일자 『人民日报』의 일부이다. 시사선전 운동 시기의 사설이기 때문에 "구미(仇美), 비미(鄙美), 멸미(蔑美)"의 사상적 내용이 더 강조되어있지만, "물가안정", "공장들의 생산목표치 초과달성", "생산경쟁" 등의 일정정도의 대중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중동원을 독려하고 있음 또한 살 수 있다.

이후 더 본격적인 생산력 증가와 기분, 모금, 절약 등의 대중동원은 1951년 6월 1일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가 '애국선서, 비행기와 대포헌 납 및 참전군인가족우대에 관한 호소"(이하 6.1호소)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6.1호소 이후 전국 모든 기관,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전 개된 무기헌납운동은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성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바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이 없을 경우 기일을 정해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여 이를 증산을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그렇지만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대부분의 개인과 기업은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40)

1951년 당시 상해시위원회 정책연구실(中共上海市委政策研究室)의 보고서 중 방직공장의 사례를 보면, 방직노동조합 상해시위원회 또한

<sup>39)&</sup>quot;继续扩大与深入抗美援朝保家卫国运动",『人民日报』(1950년 12월 28일)

<sup>40)</sup> 김옥준, 앞 논문, 213쪽.

후자의 방식을 선택했다. 6.1호소에 응하여 총 15대의 전투기를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기간을 정하여 1차 생산 목표량을 정하고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애국증산 기부운동은 각 공장, 개인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고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도 해 놓았지만, 실체를 살펴보면 중공의 강제적인 감시 아래에서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각자가 설정한 1차 생산 목표량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사조가 투입되어 목표량 미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보통의 경우 생산 당사자들의 불성실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조사조(調查組)는 여러 가지의 대안책을 내놓아야 했다. 41)

또한 각 기관, 지역, 개인 사이의 경쟁심도 동원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중국인민 항미원조총회〉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수도지역 각계 기관과 인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딴, 항공기를 헌납했고 각지역과 현·성·시·구의 이름을 딴 한납열기도 이어졌다. 또한 북경(北京), 천진(天津), 무한(武漢) 심장(武場)과 같은 대도시들은 30대의전투기 헌납을 약속하는 등 도시와 도시간 그리고 개인과 개인간의 '경쟁'으로 인해 더욱 뜨거워졌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1일~3일 혹은 5일~6일분의 임금을 기부해야했고, 상여금과 휴가비 또한 헌납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듯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노동자 개개인이 힘들어졌기때문에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무상으로 초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지역·공장·개인에게 부여된 '할당량'은 초등학교 학생의 용돈까지 헌납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헌납부담은 초등학교 학생부터 노인까지, 노동자에서 예술인에 이르기 까지 전 시민, 전국민에게 적용되었다. 42〉

<sup>41) 『</sup>中共上海市委政策研究室關於各區委抗美援朝愛國捐獻調査材料』,上海檔案館 소장 자료, 1쪽-9쪽.

<sup>42)</sup>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67쪽.

이렇게 반강제적인 동원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중공 중앙은 주기적으로 무기헌납운동이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대중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43) 하지만, 이러한 격려의 숨은 뜻을 살펴보면 더 많은 생산량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아직 성과가 없는 지역에 대한 질책을 담고 있기도 한 것이었다. 44) 앞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시 상해대중동원운동은 전시경제체제 구조 하에서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증산경쟁운동이었지만, 실제로는 당의 감시 아래 반강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해의 산업노동자는 경제 생산 활동을 전개하여 증산 절약 방식으로서 기부 활동을 진행했고, 상해의 공·상계인사는 운영을 개선하고 판로를 넓혀 수입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대중동원을 통한, 기부·무기헌납운동은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능력을 강화시켰다. 이는 전쟁 중에 있던 북한에도 경제적 지원이 학부 전기었지만, 중국으로서도 국내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이바지한 경기였다. 당장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대결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였고, 실제로 중국군의 군사력도 강화되었기 때문이다.45)

중국의 항미원조운동은 중국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북한에게 '혈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북한이 중국인민지원군 이외의 항미원조운동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1년 2월 중국의 신화일보기자와 김일성의 대담을 보면.

물음 : 지금 중국에서 광범히 전개되고있는 중국인민의 항미원조보가위국운동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sup>43) &</sup>quot;偉大的抗美援朝運動", 『人民日报』(1951년 10월 1일)

<sup>44) &</sup>quot;加强党对爱国公约运动的领导", 『人民日报』(1951년 8월 8일)

<sup>45)</sup> 중국의 국방력이 증대했다는 직접적인 사료는 없지만, 1951년 10월 25일 중국인 민 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진운(陳云)이 〈경제 공작과 재정공작에 관한 보고〉에서 "항미원조의 헌납 운동은 직접적으로 국방력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가의 재정을 지원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답: 중국인민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광범하게 전개하고 있는 항미원조보가위국 운동은 조선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근 5억의 인구를 가진 형제적중국인민이 조선인만을 지지하여주는 한 우리는 어떠한 침략세력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인민의 항미원조보가위국운 동은 조선인민의 해방 투쟁에서 뿐 아니라... 조선인민은 중국인민의 항미원 조보가위국운동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 있으며... 46)(밑줄강조 필자)

이렇게 항미원조운동에 대한 감사표시를 하고 있었다. 또한 항미원조운동을 통해서 중국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이 파병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장 전투를 치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병력을 지원하는 이 운동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비록 중국 국내의 정치, 경제 안정과 연관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소련이 공식적인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중국에서 지원된 원조와 지원군은 북한이 전투를 치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내용은 정전협정체결 즈음에 김일성이 한 방송연설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지적하여야 할 것은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원군부대들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여준 중국인민의 항미원조운동입니다. 숭고한 국제주의정신과 형제적우의로 충만된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은... 조선인민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입니다. 47)(밑줄 강조필자)

이와 동시에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지원을 "프로레탈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원조라고 생각했으며, 중국이라는 거대한 후방은 북한 인민들에게 격려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내부 자료를 통해봤을 때,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패배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판단하고 있었다. <sup>48)</sup> 물론 북한 내부 자료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

<sup>46)</sup> 김일성, "중국 인민의 항미원조보가위국운동", 『김일성 저작집』 6, 1951, 302쪽. 47) 김일성. "중국인민의 항미 원조운동", 『김일성 저작집』 7, 1953, 531쪽-532쪽.

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북한 자료에서는 중국의 5억 인 민이 도와준 항미원조운동은 "조선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인 중에 하나 였다.

반면, 중국 내적으로 시사선전 운동과 동시에 항미원조 대중동원운동을 평가하자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의 안정이 최우선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항미원조운동에 대한 중국 측의 종합적인 평가는 1951년 10월 25일 전국 정치협상회의 제1기 3차 회의에서 팽진(彭真,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 부주석)이 발표한〈일년이 되는 전국인민 항미원조보가위국 운동과 금후공작에 대한보고 보고〉(报告—年来全国人民抗美援朝保家卫国运动的情况和今后的工作)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중국인민은 항미원조운동을 통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중국에서 행한 침략활동의 영향과 경제적 침략의 잔재를 실숙하게 소통하였고..... 애국공약운동은 각계각 층의 인민들을 단결하게 함으로써, 국방건설·토지개혁·반혁명 진압·농공업생산 증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9

중국공산당은 이처럼 항미원조운동을 활용하여 간접적인 경제성장을 얻었고, 국가 재건의 기반을 공고하게 하였다.

시사선전에서는 혈맹인 조선을 돕자는 슬로건 보다 공미를 타도하고 항미정신을 증가시키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당시 중국에 남아있던 친국민당적인 사상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내부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상해에서 항미원조운 동의 경제적인 결과를 보면, 1952년 5월 31일까지 마감된 전시 기부는 상해에서만 8,491억여 위안에 달했다. 이는 전투기 566대의 가격이었고 상해시가 본래 세웠던 목표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이었으며 중

<sup>48) 「</sup>근로자-중국 인민의 항미원조운동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고상한표현」, 「史料集」 56, 177쪽.

<sup>49) 『</sup>报告一年来全国人民抗美援朝保家卫国运动的情况和今后的工作』,在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一届全国委员会第三次会议(1951년 10월 25일)

국전국에서 기부된 3,700대의 전투기 중 15.3%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또한 나아진 경제상황은 북한으로 간 지원군의 유가족의 취업, 자녀입학 등의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도 해결해주었다. 1951년 9월 말에 이르면 모두 6,710명의 유가족이 취업하게 되었고, 10,437명의 유가족 자녀가 학교입학문제를 해결하였다.50)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롤레탈리아적 국제주의에 입각한 사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북·중관계가 성립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항미원조운동의 본질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북·중관계의 성립보다는중국의 대내적인 이해관계가 더 작용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사상적인면에서는 '원조'보다는 '항미'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으며 대중동원운동을 통해서는 국가의 경제를 안정시켰다. 특히 친미적 성향이 강했고,경공업 공장지대였던 상해의 경우 이러한 면이 더 크게 드러난다고 할수 있다.

## 5. 맺음말

동아시아 어느 국가든지 '전쟁특수'를 누리지 않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한국전쟁 때 미군의 후방기지로서 얻은 전쟁특수로 경제재건에 성공하였고, 한국의 경우에는 베트남전에 파병하여 제5개년 경제개발에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하였다. 중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특수를 누린 국가 중하나이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경제적인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중국이 한국전쟁을 통해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알려진 바가 적다. 또한 현재 중국여론은 "조선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라는 손해뿐인 참전이

<sup>50)</sup> 张励,"抗美援朝运动中上海的群众动员",『历史回溯』,2006,35쪽.

었다는 여론이 만연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평가 이전에 국공 내전이 끝난 1950년 신생중화인민공화국에 산적해있던 정치·경제· 사회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항미원조운동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던 중국이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는 수단은 '전시경제체제의 부활을 이용한 대중동원'이었다. 이미 이전부터 대중동원으로 여러 난국을 이겨낸 마오쩌둥은 항미원조라는 대외적인 슬로건 아래 국내 대중동원 운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국민당 자유주의 진영의 사상을 제거하기 위해 시사선전운동을 통해 의식을 개조하고, 각성한 군중이 자발적으로 대중동원운동, 애국공약운동에 참여하게 독려하였다.

항미원조운동은 물론 북한에게도 도움을 준 동원운동이었지만, 하지만 실제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시작성은 중국공산당의 사상적 기반을 다지는 수단이었다. 항미원조유통이라는 명목 하에 대중에게 '철저한 사상적 교육'을 감행한 것이었다. 대중동원운동도 마찬가지이다. 대중동원을 통한 무기헌납운동과 애국공약운동은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나아가 전시경제체제하에서 애국심을 기반으로한 절약운동, 증산운동은 이들의 경제력 또한 급상승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한국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의 파병과 항미원조운동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중국공산당이 실시한 이 두 정책은 그 지향점부터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결론도 다르게 도출될 수 있기때문이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상호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표면적으로 보통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일제시기에서부터 이어져 혈맹(血盟)관계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로 인해, 공산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 중국이 항미원조운동을 진행하고 중국인민지원군을 보냈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의 항미원조운동을 북·중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인민지원군 파병에서는 분명히 중국과 북한 사이의 원조관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중국본토 내에서 행해진 항미원조운동은 북·중관계의 맥락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엄연히 항미원조의 명제하에 진행된 운동이었지만, 그 초점은 '원조'보다는 '항미'에 크게 맞춰져있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상해에서 나타난 항미원조운동의 양상을 분석하였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상해의 항미원조운동의 모습과 중국의 여타다른 대도시의 모습이 서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비교연구가 가능한 다른 지역의 항미원조운동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연구에서보다 더욱 입체적인 항미원조운동의 모습을 파악할 수있을 것이라 생각한다.51)

[원고투고일: 2017, 10, 3, 심사수정일: 2017, 11, 22, 게재확정일: 2017, 11, 23,]

주제어: 상해, 항미원조운동, 항미원조전쟁, 시사선전운동, 대중동원운동, 북·중관계, 한국전쟁

<sup>51)</sup>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서울:역사비평사, 2010, 290쪽.

## 〈참 고 문 헌〉

### 1. 자 료

로동신문

김일성 저작집

人民日报

文汇报

國史編纂委員會, 1982~2007, 『北韓關係史料集』, 國史編纂委員會.

『中共上海市各區委群衆團體宣傳部關於当前時事宣傳教育工作報告』,上海檔案館.

『中共上海市委郊岡工作委員會宣傳部及市郊各區委宣傳部關於慶祝國慶. 情况報告和總結』,1951年,上海檔案館.

『中共上海市委政策研究室關於各區委抗美援和愛國捐獻調查材料』,上海檔案館.

『中國紡織工會上海市委員會關於抗美援期運動的初步總結』,上海檔案館, 1951

『上海工人抗美援朝运动专辑(上海工运资料)』,上海總工會調査研究室編, 1951

『中共中央關於在全國進行時事宣傳的指示』,中央檔案館,1950.10.26

### 2 단행본

-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서울:역사 비평사, 2010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周恩來文選(下卷)』, 北京 : 人民出版社, 1954

#### 3. 논 문

- 김옥준, "중국 '항미원조운동'의 대내적 성격과 의의", 『중국학논총』 23(2007):201-226, http:// uci.or.kr /G704-000855.2007.. 23.017
- 손해룡, "1950년대 "항미원조운동" 중 나타난 한반도 인식", 『중국현대 문학』59(2011):155 189, http://uci.or.kr/G704 050355.2011..59.004
- 이세은, "한국전쟁 시기 中共의 지식인 학생의 대중동원 : '抗美援朝 運動'과 북경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완범, "6·25전쟁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중국에 미친 영향", 『군사』 62(2007):177-211, http://uci.or.kr/G704-001528.2007..63.002
- 전혼, "抗美援朝運動期 중국공산당의 한국 이미지 만들기: 인민일보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12)
- 정다운, "한국전쟁 시기 중국 동북지역의 항미원조운동과 내셔널리즘— 길림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 공 석사학위논문(2015)
- 三木 毅, "新中国における三反、五反運動と運動下の財経工作", 『室蘭工業大学研究報告』(1955):173-183, http://iss.ndl.go.jp/books/R100000002-I000000023014-00

- 沈志华, "中苏援助与朝鲜战后经济重建", 『炎黄春秋』6(2011):1-12 张 励, "抗美援朝运动中上海的群众动员", 『历史回溯』(2006):33-36, 10.14019/j.cnki.cn31-1856/k.2006.03.011
- 毕晓敏,"上海抗美援朝运动时期的时事宣传",『海青年管理干部学完学推』 (2013):57-60
- 彭 媛, "简析抗美援朝战争对上海外商银行的影响", 『重庆科技学院学报』 (2012), 10.19406/j.cnki.cqkjxyxbskb.2012.13.022

### 4. 웹 사이트

上海市地方志辦公室(상해시지방지판공실) -上海抗美援朝运动www.shtong.gov.cn.



<Abstract>

The Hidden Side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Slogan for 'Counter America and Assist N. Korea' Movements in the area of Shanghai in China

- A Border Line between 'Resistance to America' and 'Assistance to N. Korea' -

Kim. Tae-Yo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China had to undergo another war of Chinese Civil war in 1945 amid the atmosphere of the Cold War. For this reason, from 1945 to 1950 when the Korean War began, China was in an ideolog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and it needed a major event to change the atmosphere of China. Amid this situation the Korean War began. F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participating in an ideological war that was taking place outside the mainland China was to help a brother nation from the internationalist point of view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resolve a chaotic atmosphere in China. Eventually, the Korean War became a means by which China could resolve the turmoil by means of the "mass mobilization using the revival of the wartime economic system". Mao Zedong, who had already overcome many difficulties by means of the mobilization of the people from the past, started the domestic mass mobilization campaign under the external slogan of 'Counter America and Assist N. Korea'. First of all, in order to eliminate the ideology of the Kuomintang, the Nationalist Party of the liberalist camp, it renovated the consciousness through the current affairs propaganda campaign and encouraged the awakened crowds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mass mobilization movement and the patriotic commitment campaign.

As a result, the 'Resist America and Assist N. Korea Movement was a mobilization movement that gave North Korea the assistance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but, in terms of actual benefits and losses, the current affairs propaganda was a means to solidify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the name of 'Resist America and Assist N. Korea Movement', China carried out a 'thorough ideological education for the general mass of a newly independent country and such initiative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evaluated to have been successful. The same was true of the mass mobilization movement. The weapons contribution movement and the patriotic commitment campaign through the mass mobilization l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military forces of the Chinese People's Army. Furthermore, the saving campaign and the production increase campaign based on patriotism under the wartime economic system also sent their economic power soaring.

A state—to—state relationship proceeds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economic issues. On the surfac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as been known to be a blood alliance dating back to the time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China carried out the "Resist America and Assist N. Korea Movement" and sent the Chinese Voluntary Army to North Korea simply in order to protect the communist camp for the benefit of the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China also tried to help North Korea by going out of its way to organize the 'Resist America and Assist N. Korea Movement in order to sort out its domestic turbulent conditions and to solve the economic problems. At the same time, the Koreans in the Yanbian area, who thought of North Korea as their "motherland" and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North Korean War, supporte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out of their patriotism, but these people in an ethnic minority in China did so because they wanted to be duly recognized as Chinese citizens.

Keywords: Shanghai(上海), Resist America and Assist N. Korea Movement (抗美援朝運動), Resist America and Assist N. Korea War(抗美援朝戰争), Propaganda Movement(時事宣傳運動), public mobilization Movement(大衆動員運動),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The Korean WAR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317–360 https://doi.org/10.29212/mh.2017..105.31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의 '船所' 연구\*

송은일\*\*

- 1. 머리말
- 2.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선소의 연원과 설치시기
- 3.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선소의 위치와 입지 조건
- 4.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수군진 선소 및 읍 선소의 운영과 시설
- 5.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시대 전국에 양항의 군사요해지에는 많은 船所)들이 존재했다. 선소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군선의 건조·수리,<sup>2)</sup> 정박처<sup>3)</sup> 그

<sup>\*</sup>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957).

<sup>\*\*</sup>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연구실장

<sup>1)</sup> 선소는 시기에 따라 船倉(艙, 滄, 廠), 待變亭, 御變亭, 戰船所 등으로 별칭되었다.

<sup>2) 『</sup>태종실록』권25, 태종 13년 3월 계묘; 『세조실록』권27, 세조 8년 2월 기미; 『인조 실록』권31. 인조 13년 1월 기미.

<sup>3) 『</sup>태조실록』권3. 태조 2년 4월 신유;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5월 22일 계묘.

리고 수군 보급품의 보관·지급하는 공간이었다. 4) 아울러 조운선·상 선의 정박·점검·수리도 함께 이루어졌다. 5) 또한 바닷길의 무사함을 비는 祭儀의 공간이자 6) 浦口로서 상업 활동이 활발했다. 7) 이러한 선소 는 조선시대 수군력, 수군활동, 수군사, 해양문화 등 연구에 매우 중요 한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껏 선소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군선을 중심으로 개별 선박에 대한 연구,8) 조선업과 조선술에 대한 연구9) 등은 있지만, 정작 그러한 것들을 태동시켰던 선소연구는 매우 미흡하다.10)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 全羅左道水軍節度使營(이하 전라좌수영이라고 함) 관할지역 모든 선소를 정리하여 시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모든 선소가 설치된 연원·시기를 정리한다. 선소들이 들어서기에 이른 역사적 배경을 정리하고, 선소의 설치연원·시기와 수군진 설치, 수가방안체제의 변화와 관련성을 밝힌다.

<sup>4)</sup> 조선후기 읍지류의 연해 군현조나 고지도의 선소 등에 선소창이나 선창이라고 나타 난 것 등은 모두 선소와 관련된 창고로 생각된다. 이곳에는 선소를 별칭으로 선창 이라고 표기해 놓은 경우도 있다.

<sup>5) 『</sup>성종실록』권62, 성종 6년 12월 병자; 『정조실록』권27, 정조 13년 윤5월 정미.

<sup>6) 『</sup>태종실록』권36, 태종 18년 8월 갑신; 『일성록』 정조 18년 10월 12일 병신.

<sup>7)</sup> 金鉉丘, 「조선후기 造船業과 造船術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 81, 1998. 239쪽.

<sup>8)</sup> 金在瑾,『朝鮮王朝軍船研究』,韓國文化研究所,1976;『韓國船舶史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1984;『우리 배의 歷史』,서울大學校出版部,1991;『韓國의 배』,서울大學校出版部,1994;『續韓國船舶史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1994.

<sup>9)</sup> 姜萬吉,「李朝造船史」,『韓國文化史大系』 III,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68; 『朝鮮 時代 商工業史研究』, 한길사, 1981; 金鉉丘, 앞의 논문.

<sup>10)</sup>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수많은 선소가 존재했었지만 이들 중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순천도호부선소(현 여수선소) 1개소에 불과하다.(변동명, 「조선시기의 여천선소 유적」, 「海洋文化研究」 창간호, 2008) 이 연구는 선소에 대한 사례연구의 좋은 예라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개별 사례연구라는 점 때문에 조선시대 水營단위 또는 지방단위의 선소를 조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선소의 입지조건과 같은 중요한 부분을 다루지 않는 점도 한계이다. 본 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합지역 선소 전반을 다룬다.

둘째, 각 선소의 위치와 입지조건 등을 현장답사와 조사 그리고 문헌과 고지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알아본다. 셋째,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선 소의 운영에 대해 조직, 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전라좌수영 관할 선소는 물론이고 조선시대 전국에 산재했던 선소를 이해하고, 후속연구에 선행연구로 기능하길 기대한다. 이 글을 전개하기 전 미리 언급해두고자 하는 것은 전라좌수영이라는 광범위한 지역 선소의 자료를 수집·정리·분석하다보니 정치·사회·군사적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향후 연구에서 진행될 것이다.

# 2.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선소의 연원과 설치시기

조선시대 전라죄수영 관합기역 선소는 관할 수군진과 고을에 설치되었다. 본 글은 전라죄수영 관합지역을 연구범위로 하기 때문에 우선 그 관합 범위부터 알아보고 관합지역 선소의 연원과 설치시기 등을 정리한다.

전라좌수영은 1479년(성종 10)에 설치되고, 예하에 蛇渡僉節制使鎮, 會 寧浦(현 장흥군) · 達梁(현 해남군) · 呂島(현 고흥군) · 馬島(현 강진군) · 鉢浦(현 고흥군) · 突山浦(현 여수시)萬戸鎮 등을 두었다. 11) 당시 수군방어체 제는 진관체제였기 때문에 전라좌수영 소속 각 수군진 만으로 진관조직에 편제되었다. 전라좌수영은 1522년(중종 17)에 변화되었다. 全羅右道水軍節度使營(이하 전라우수영이라고 함) 가리포첨절제사진이 설치되고, 좌수영 소속이었던 마도 · 달랑만호진이 전라우수영으로 이속되고, 돌산만호진은 혁파되고 순천부의 지상군에 편제되는 한편 防踏僉節制使鎮이 설치되었다. 결국 전라좌수영은 예하에 사도 · 방답첨절제사진 등 巨鎮 2개, 회령

<sup>11)『</sup>經國大典』兵典.

포·여도·녹도·발포 등 만호진 4개를 두었다.

16세기 중엽, 진관체제가 제승방략 체제로 바뀌면서<sup>12)</sup> 전라좌수영은 관할 수군진뿐만 아니라 연해지역 각 읍에 수군기지를 설치하여 수군 훈련과 군선관리 등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기존의 수군진 이외에 순천 부·보성군·낙안군·광양현·흥양현(현 고흥군)·장흥부까지 관할지역이 확대되었다. 일례로 1587년(선조 20) 전라좌수사 李薦이 관할지역의 왜 구수색을 위해 휘하 수군진은 물론이고 순천·낙안·보성·흥양 등 연해 읍까지 소집명령을 내렸던 것은<sup>13)</sup> 그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전라좌수영은 임진왜란 직전에 관할 회령포만호진과 장흥부가 전라 우수영 관할로 이관되었다가 임진왜란후 다시 복귀되었고, 1611년(광해 진 3년)에 순천부의 지상군에 편제되었던 돌산만호진이 다시 權管이 지 휘하는 수군진으로 복구되어 古突山權管鎭이 되었다. 이후 일부 수군 진이 우수영 관할로 이관되었다가 복귀되는 변화는 있었지만, 대체로 광해군대 편제가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었다.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휘하 수군진과 관할 고을을 정리하면 다음 포와 같다.

번호	營·鎭·邑	현 위치	선소 유·무
1	전라좌수영 본영	여수시 군자동	9
2	사도첨절제사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9
3	방답첨절제사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del>П</del>
4	회령포만호진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del>П</del>
5	녹도만호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유

〈표 1〉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 邑・鎭

<sup>12)</sup> 許善道,「制勝方略 研究(下)」,『震檀學報』37, 1974. 16쪽. 제승방략체제 성립 은 을묘왜변에 기인한다.

<sup>13) 『</sup>선조실록』권21, 선조 20년 6월 기미. 전라좌수사 李薦은 소집명령 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순천부사 성응길과 보성·낙안·흥양·광양 등의 수령들에게 매를 때렸는데, 보성군수가 사망했다. 이는 보성 등지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이었음을 입증한다.

번호	營·鎭·邑	현 위치	선소 유·무
6	발포만호진	고흥군 도화면 내발리	유
7	여도만호진	고흥군 점암면 여호리	유
8	고돌산권관진	여수시 회양면 용주리	೪
9	순천도호부	여수시 · 순천시 일원	я Я
10	장흥도호부	장흥군 일원	೧
11	보성군	보성군 일원	<del>П</del>
12	낙안군	순천시 낙안면 일원 보성군 벌교읍 일원	я
13	광양현	광양시 일원	ਜ
14	흥양현	고흥군 일원	ਜ

위 표와 같이 수군진에는 기본적으로 선소가 설치되었고, 읍 단위에는 읍수군이 설치되어 전선을 건조 정박하는 등의 장소로 선소가 들어서게 되었다. 제승방략이 시행되었던 1555년 경에 전라좌수영 관할지역의 선소는 대략 14개소 정도로 이는 『고지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선소의 연원과 설치시기를 알아본다.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 선소의 연원과 설치시기는 수군의 정박처, 수군진의 설치, 수군방어체제 변화와 관계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보는 가운데 각 선소의 연원과 설치시기 등을 밝혀본다. 14)

① 전라좌수영 본영 선소의 연원 및 설치시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본영 선소는 전라좌수영이 설치된 1479년(성종 10) 경에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판 단된다. 그러나 전라좌수영은 현 여수에 존재했었던 內禮浦萬戸鎭에서 연

<sup>14)</sup> 전라좌수영 관할 선소의 설치시기는 대부분 수군진의 설치시기와 같다고 할 수 있 기 때문에 수군진의 설치시기를 알아보는 것으로 그것을 가늠하고자 한다. 다만 일부 예외의 경우가 있을 경우는 수군진 설치시기와 함께 부설 선소 설치시기도 함께 밝혀볼 것이다.

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내례포만호진은 1423년(세종 5)에 전라감사가 進禮梁의 군선을 현 여수시 군자동 일대의 내례포로 옮겨 정박시킬 것을 건의하여 현 여수시 상암동 일원에 존치했던 진례만호 진의 군선을 옮기면서 설치되었다. 15) 이 내례포만호진은 1478년(성종 9) 왜구침입이 많은 남해안 지역에 主鎭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순찰사 李克培의 건의로 다음 해에 水軍節度使鎭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전라좌 수영이다. 16) 이후 전라좌수영은 전라우수영에서 수군과 營衙吏 등을 일부 이속받아 주진으로서 면모를 갖추었다.

이를 보면 전라좌수영 본영 선소는 전라좌수영이 설치되기 이전 진 례만호진의 군선을 내례포로 옮겨진 1423년(세종 5) 경에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선소에는 특별한 정박시설물은 갖추어지지 않았고, 군선을 메어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석주 정도를 세워놓음으로써 정박처로서 선소의 기능을 유지하였다고 짐작된다. 17) 세종대에 각 포에 있던 군선이 관리되지 못해 훼손되었으며, 정상 군선이라도 바다에 띄워 놓아 정박시키지 않고 해안 언덕위에 높이 매달아 놓았다는 기록은 그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18)

② 사도첨절제사진(이하 사도진이라고 함)에 부설되었던 선소를 살펴본다. 사도진은 조선전기 軍翼道體制에서 전라좌도 수군을 관장하던 여도만호진의 군선 일부가 사도로 옮겨지면서 그 기반이 되었는데 그시기는 1427년(세종 9) 경이었다. 지형상 여도보다는 외양에 있어 외적을 미리 방어할 수 있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적고, 수심이 깊어서 군선

<sup>15)『</sup>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1월 계묘. 내례포가 경상우수영 관하의 평산포만호진 (남해)과 마주하여 봉화나 鼓角으로 연락하여 합동으로 외적방어 편리했기 때문이 었다.

<sup>16) 『</sup>성종실록』 권100. 성종 10년 정월 계해.

<sup>17)</sup> 전라좌수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湖左水營誌』(奎, 古 9920-3, 1847년)의 기록에 의하면 군선의 계류처인 船滄을 만들기 전에 전선을 메어놓기 위하여 5개의 석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up>18) 『</sup>세종실록』 권116, 세종 29년 4월 신축.

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등 군사요해처였기 때문에 군사지휘관이 계청하여 설치되었다. [9] 그러나 당시 사도는 군선과 수군만이 있었을 뿐, 수군진으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이 때 사도에는 군선을 정박하고 건조·수리하는 선소를 정해 놓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했었던 사도에 수군진이 설치된 것은 1466년(세조 12)이었다. 20)

③ 방답첨절제사진(이하 방답진이라고 함) 선소의 설치시기를 살펴본다. 이 수군진이 설치되게 이른 배경에는 왜구침입의 해로 요충지라는 점에서 돌산도가 우선 부각되었다. 21) 1488년(성종 19) 돌산도에 국둔전이 설치되어 한 해에 적어도 7~8백석, 많으면 1천석의 식량이 생산되어 돌산도의 방어가 중시되었다. 돌산도 국둔전의 식량은 순천 · 광양 · 낙안 · 흥양 등 주변지역의 환곡으로 운영될 정도였으며, 22) 군사 · 경제적 목적에서 돌산도 방어는 중요하였다. 돌산도 방답에 수군진이 들어서게 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으며, 그 시기는 1522년 (중종 17) 경이었다. 23) 이렇게 방답에 수군진이 설치되었다면 이 시기선소도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방답진은 전라좌수영의 최전방으로 왜구의 주요통로이자 해 로상의 군사요충지였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방답진의 위치로 판단해보 면, 수군진 설치 이전에도 수군활동이 활발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유사시 군선이 정박할 선소가 있었을 것이다.

<sup>19) 『</sup>세종실록』권37, 세종 9년 7월 갑오.

<sup>20)</sup> 송은일, 「조선전기 고흥지역 水軍鎭의 설치와 水軍의 동향」, 『歷史學研究』 65, 2016. 47~48쪽 주) 41.

<sup>21) 『</sup>성종실록』권134, 성종 12년 10월 갑신; 권197, 17년 11월 계해; 권217, 19년 6월 갑오; 『선조실록』 권121, 선조 33년 정월 계유;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 7월 계유.

<sup>22) 『</sup>중종실록』권44, 중종 20년 5월 임술; 권88, 33년 9월 경자; 邊東明,「朝鮮時代 突山島 防踏鎭의 설치와 그 구조」, 『韓國史學報』27, 2007, 18~19쪽.

<sup>23) 『</sup>신증동국여지승람』 40, 순천도호부 관방 방답진조. 방답진의 창설시기를 1523년 (중종 18)이라고 되어 있지만 1522년(중종 17)에 방답진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변동명, 앞의 논문, 2007, 20~21쪽 ).

- ④ 회령포만호진(이하 회령포진이라고 함)은 현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일대에 정착하기까지 전 몇 차례 移鎮하였다. 회령포진은 1422년 (세종 4) 장흥의 회령포에, 24) 1425년(세종 7) 이전에 召麻浦에, 1425년(세종 7)에 이 소마포가 조수가 물러가면 군선 출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周浦로, 1432년(세종 14) 이후 揮羅浦에, 뒤이어 扇子島로 이동하였다. 25) 회령포진의 이동에 따라 선소도 이동하였을 것이다. 외적 방어를 위한 전진 배치라는 점과 육지에서 흘러온 토사의 축적, 조수간만의 큰 차이로 인한 선소기능 저하 등으로 회령포진은 여러차례 이동했다.
- ⑤ 1406년(태종)에 처음 기록에 등장한 녹도만호진(이하 녹도진이라고 함)은 조선초기 수군증강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건국직후 태조는 즉위교서에선 수군을 보호 육성할 뜻을 밝히고 전함을 수리하고 건조하는 등의 일을 막장하는 리水色이라는 관직을 두었다. 이후 태조대 잦은 왜구침입에 대중하여 전라ㆍ경상ㆍ양광 3도에 각각절제사를 파견하고 경기좌ㆍ우도의 수군보절제사를 임명하여 군선을 거느리고 왜구들을 토벌케 하였다. 1397년(태조 6) 각도의 연해 거점 15개 처에 鎭을 설치하여 각도병마도절제사를 폐지하고 각 진에 첨절제사를 두어 인근지역의 병마를 통솔케 하는 병제개혁을 단행하였다. 1398년(태조 7)에는 만호ㆍ천호ㆍ백호 등 수군직의 품계를 정비하였다.26)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수군관련 군제변화에서 녹도진은 늦어도 수군진의 품계가 정해졌었던 1398년에는 이미 설진되었을 것이다.
- ⑥ 발포만호진(이하 발포진이라고 함)은 1439년(세종 21) 설치되었는데. 이는 所診浦(소홀포만호진)가 방수에 어려움이 있자 1439년에 발포

<sup>24)</sup> 이 때 수군진의 명호가 회령포로 붙여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곳은 현재 보성군 회 천면 일워이었다고 회자되고 있다.

<sup>25) 『</sup>세종실록』권18, 세종 4년 11월 을해; 권27, 7년 2월 을축; 『장흥도호부지도』(奎 10443), 全羅左道長興府會寧浦鎮誌古蹟.

<sup>26) 『</sup>태조실록』권1, 태조 원년 7월 정미; 권3, 2년 3월 갑자; 권11, 6년 5월 임신; 권14, 7년 윤5월 16일신묘.

로 이박시켰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그런데 군선부터 발포로 이박 시켜 놓고 이후에 지휘관인 만호를 배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발포진 에 선소가 들어선 것은 1439년 이전에서 가까운 시기였다.<sup>27)</sup>

- ① 1425년(세종 7) 경에 설치되었던 여도만호진(이하 여도진이라고함)은 전라좌도의 수군을 관장하던 도만호진이었다. 이곳에 도만호진이설진된 것은 좌도의 중심이면서 내항 안쪽에 위치에 있어 외적으로부터 쉽게 관망되지 않는 이점을 가진 군사요해지로 도만호가 순환하면서 방어하기가 편리했기 때문이었다. 28) 여도진은 이후 왜구에 대한 조선의 적극적인 방어정책과 수군지휘체계의 변화 등에 밀려 외항에 있었던 사도지역으로 그 지휘권을 내주고 만호진으로 강등되었다. 여도진의 선소는 여도진이 설치되었던 1425년으로 판단된다.
- ⑧ 고돌산권관진(이하 고돌산진이라고 함)은 돌산진으로부터 연원한다. 1418년(태종 18) 전 황해도 관찰과 金文發의 졸기에 처음 기록된돌산진은 김문발이 수군만호로 활약했던 1394년(태조 3)과 연결시켜 1394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29) 돌산진은 이름으로 보면, 돌산도가 연상되지만, 진이 설치된 지역은 장생(성)포였다. 이곳이 돌산진으로 불려진 것은 돌산현 주민들이 고려말 왜구를 피해 현 여수시 안산동 일대로 옮겨오면서 옛 지명인 돌산을 그대로 불러포구를 돌산포로, 수군진 명호를 돌산진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고려말 왜구를 피해 다른 군현으로 옮겨간 고을의 경우, 이전 고을 명호를 그대로 사용한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다. 30)

<sup>27) 『</sup>세종실록』권83, 세종 20년 10월 을해; 권85, 세종 21년 4월 무자. 召訖浦에서 발포로 군선이 이동한 시기는 소홀포만호의 활동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시기와 발 포가 만호진으로 인증된 시기를 통해 1438년 10월에서 1439년 4월로 짐작된다.

<sup>28) 『</sup>세종실록』권27, 세종 7년 2월 을축.

<sup>29) 『</sup>태조실록』권5, 태조 3년 3월 병진; 『태종실록』권35, 태종 18년 4월 갑신.

<sup>30)</sup> 邊東明,「突山鎭과 古突山鎭」,『歷史學報』198, 2008, 6~9쪽. 전라도 섬에 설치되었던 고을 중에 왜구를 피해 주현인 나주의 내륙으로 옮겨간 입해현, 장산현 그리고 영암군으로 옮겨간 진도현, 흑산도에서 나주로 옮겨간 영산현을 등이 예전의 명호를 그대로 따랐다.

원래 장생포지역은 고려말 수군지휘관 유탁이 왜구를 물리쳤던 군사 요충지였으며, 조선시대 소나무를 배양하는 의송지였기 때문에 조선 건국 후 수군진이 설치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선소의 연원은 柳濯의 사례와 연관시켜 고려말 또는 그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이 선소는 뒤에 장생포에 들어서는 순천부선소(현 여수선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 도 있다. 돌산진 선소에 대한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전라도 감사가 병조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左道의 內禮와 突山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양포의 군선이 모여서 머무르기가 불편하고, 순천부 長省浦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突山萬戸의 군선 4척은 龍門浦에 이박시키고, 그 용문포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都萬戸의 군선은 좌도의 중앙인 呂島에 이박시켜, 도만호가 순환하면서 방어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31)

1425년(세종 7) 순천부 장성후에 서우르고 있던 돌산만호 군선을 龍 文浦(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로 옮겨간 상황을 보여준다. 이를 보면 돌산진이 용문포로 이거함에 따라 돌산진 선소도 그곳으로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은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 선소에 대한 설치시기를 정리했다. 추가로 전라좌수영 관할 읍에 존재했었던 선소의 설치시기 등을 정리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라좌수영 관할 읍에 존재했었던 선소의 설치는 조선전기 군사방어체제의 변화에 따른 읍수군의 설치와 관계된다. 따라서 자료의 한계가 있지만, 군사방어체제의 변화과정에서 전라좌수영 관할 읍의 선소 설치시기를 정리해 본다.

1457년(세조 3)이후 국방체제의 근간이 된 진관체제는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을 전후하여 제승방략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해양방어체체도 변화되었다. 진관체제 하에서 수군은 행정구역과 관련 없이 연해 요

<sup>31) 『</sup>세종실록』권27, 세종 7년 2월 을축.

해지에 설치된 수군진을 묶어 진관조직으로 편제하였다. 그러나 제승 방략체제에서 수군진만이 아닌 연해지역 즉 수군진이 존재했었던 읍은 물론이고 주진의 인근 읍까지도 수군이 창설되어 수군절도사(이하 수사 라고 함) 관할 하에 두고 수군훈련과 군선관리 등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읍에 읍수군이 창설되었고 읍수군이 주둔할 수 있으면서 도 군선을 건조하고 계류시킬 수 있는 장소로 선소가 들어섰다. 이 시 기 전라좌수영 관할하로 편입된 순천도호부·장흥도호부·보성군·낙 안군·흥양현·광양현 등지에 선소가 들어섰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삼가 진으로 돌아가는 일을 아룁니다. … 본영에 소속된 수군은 다섯 고을로써 순천은 원래의 책임 수량과 더 만드는 수량을 아울러 전선 10척, 흥양이 10척, 보성이 8척, 광양이 4척 낙안의 3척 등은 벌써 다 만들었으나 허다한 사부와 격군들을 일시에 보충할 수 없어서 이들을 일제히 돌아오게 할 수 없으므로 순천 5척, 광양 2척, 흥양 5척, 보상 4척, 녹아 2척만을 먼저 검색하고 독려하여 거느리고 이달 1월 17일 거제 방 한산도 진중으로 향하여 출발하오며 정비되지 못한 전선들을 뒤따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오라고 전령하였거니와 … 만력 22년 1월 10일 32)

위 기록은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 관할 읍에서 건조한 전선(판옥선) 일부에 객군과 사부를 갖추어 한산진으로 보내겠다는 내용 등이다. 당시 전라좌수영 관할 읍은 순천도호부·보성군·낙안군·흥양현·광양현 등이었다. 전라좌수영 관할 소속이었던 장흥도호부는 1522년(중종 17) 이후 임진왜란 이전까지 잠시 전라우수영에 배속되었기 때문에위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하튼 당시 전라좌수영 관할 5개 읍은 전라좌수사의 명에 의해 전선 건조 척수 할당량을 배정받고 그 일을 착수하여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전선은 판옥

<sup>32) 『</sup>이충무공전서』 권4, 장계3, 還陳狀.

선으로 조선 수군의 주력전함이었다. 그 길이만 해도 30~40m이다. 그러므로 이 전선을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건조하고 무장설비까지 갖춘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며, 이 일을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1척도 아니고 적게는 4척에서 많게는 10척의 전선을 각읍 단위로 건조한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전선을 건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전라좌수영 관할 읍에는 이미 전선을 건조할 수 있는 선소가 설치되었다고 해석된다. 이는 다음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아침에 공무를 마친 뒤 녹도로 기는데 황숙도도 동행하였다. 먼저 '興躝婚所에 이르러 배와 집물을 몸소 점검하고는 그 길로 녹도로 갔다.<sup>33)</sup>

임진왜란 직전 전라좌수사 이순천이 관할 수군진과 읍의 전비 상태를 점검하며, 전라좌수영을 출발하여 10여 일 동안 흥양지역의 수군진과 읍수군 그리고 여수 돌신도 방답진 등을 점검하였다. 34) 그 과정에서 이순신은 '興陽戰船所'에 들러 전선과 무기류 그리고 수군들이 사용하는 집물들을 점검하였다. 흥양전선소는 선창, 선소 또는 전선소 등으로 불리어지는 선소를 말하는 것으로, 흥양에 선소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전라좌수영 관할 선소들이 이 시기보다 상당히 앞선 시기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남치근으로 하여금 전선 7~8척을 거느리고... 바닷길과 여러 섬들을 지나면서 살피게 하는데 바다를 순찰할 적에 거쳐 가는 바 수영 및 전선을 보유한 각 '읍(관)'의 수령과 각 진포의 첨사·만호 등이 각기 전선을 거느리고 길을 가리켜 주면서 함께 순행토록... 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sup>35)</sup>

<sup>33) 『</sup>난중일기』 1592년 2월 22일.

<sup>34) 『</sup>난중일기』 1592년 1월 3일; 2월 22일; 25일; 26일.

<sup>35) 『</sup>명종실록』 권25. 명종 14년 5월 기묘.

주사대장 남치근이 아뢰기를 "각 읍(관)과 각 진포의 전선을 보유한 곳이 모두 유명무실합니다. 단지 형체만 갖추었을 뿐 평상시에 수리와 보수를 잘 하지 않고서 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기고 맙니다.<sup>36)</sup>

위 사료는 을묘왜변(1555년, 명종 10년) 이후 방어시설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각 읍(관)에서 판옥선 등을 보유하였음을 보여준다. 각 읍에서 판옥선을 보유하였다면, 전함이 계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의 다름아닌 것으로 이 시기 각 읍 단위에 이미 선소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3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승방략체제가 시행되었다고 생각되는 1555년(명종 10) 경에 전라좌수영 관할 각 읍 단위에 선소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순천도호부 선소의 설치시기를 살펴본다. 순천도호부 선소가 자리하였던 장생포는 고려 말부터 군선이 정박하여 왜구를 물리쳤던 지역이고, 조선조기에 불산진과 부설 선소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이곳에 순천부 선소가 들어섰다면, 고려말 수군 정박처를 돌산진 선소가 이어받고, 돌선진 선소가 화양면 용주리로 이동한 후 그곳에 순천도호부 선소가 들어섰다고 판단된다. 즉 순천도호부 선소의 연원은 여말선초로 소급될 수 있다.

## 3.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선소의 위치와 입지 조건

다음으로 전라좌수영 관할 지역 선소의 위치와 지형의 특징을 고지도와 현장답사를 통해 비교·분석한다. 우선 전라좌수영 본영 선소를 비롯한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 선소의 위치와 입지를 살펴본다. 38)

전라좌수영 본영 선소는 자료에 의하면 전라좌수영(현 여수시 군자

<sup>36) 『</sup>명종실록』권25. 명종 14년 5월 무술.

<sup>37)</sup> 변동명, 앞의 논문, 2008, 248~254쪽,

<sup>38)</sup>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선소 및 읍선소의 위치는 뒤에 <그림 1>을 참조하기 바람.

동·중앙동 일원) 남쪽 성문 바로 앞쪽 일원이다. (39) 이곳은 현재 여수시 중앙동 580번지 부근으로 생각되며, 이 주변은 현재에도 선박의 입출항이 많고 여객선터미널이 있을 정도의 양항의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또한, 동쪽편에 낮은 산이 있어 외해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지형이다. 전라좌수영 일원 중에서도 가장 은폐가 잘되는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 선소 위치로 보인다.

사도진 선소는 고지도에 의하면 남쪽 성문 좌측 일원이다. 현재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도진 남문이 있었던 곳에서 좌측 편으로 진행하다 보면 마을 주차장이 나타나는데 그곳이 예전에 군선 등을 계류시켰던 굴강이었다고 한다. 증언과 고지도에 그려진 선소의 위치를 종합해 보면 사도진 선소는 현재 금사리 758-17번지 일원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외해에서 진입할 때 蛙島라는 섬이 있어 사도진 중에서도 가장 윤폐가 잘된다.

방답진 선소는 19세 후반에 간행된 '순천방답진지도』(奎 10510)와 「호남연해형평도」중 여수연해 지도에 나타난다. 방답진 서쪽 성벽 근처에 '船所' 또는 '船倉'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바로 아래에 굴강이 그려져 있어 그곳이 선소였음을 보여준다. 이곳은 방답진성 서문 밖 서외리(현 여수시 돌산읍) 일대로 현재에도 선소와 관련된 굴강유적이 있다. 방답진 선소는 특이하게도 서문 일대에 위치하며, 외해에서 진입하려면 쏠통과 임진끝이라는 지명이 있는 야산을 우측으로 감아 돌아야 한다. 역시 외부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 요해지이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방답진 남문 밖에 선소가 위치에 있었다고도 한다.

회령포진 선소는 『장흥부회령포진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0) 회령진 남문 밖 우측에 선소가 표기되어 있고, 정박해 있는 군선이 그 려져 있어 그곳이 선소임이 확실하다. 현재 이곳은 고지도상에 선소의 위치가 남문 앞 우측이라는 점과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봤을 때 현 장흥군 회진면사무소와 회진항 일원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포구로 외

<sup>39) 『</sup>여수근해도』(1700년 圖, 호암미술관 소장); 『湖左水營誌』(奎, 古 9920-3, 1847년).

<sup>40) 『</sup>장흥도호부지도』(奎10443).

해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현재에도 항구로 사용되는 등 양항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녹도진 선소의 위치는 『흥앙현녹도진지도』등에 잘 나타나 있다.41) 녹도진(현 고흥군 도양면 비봉리 일원) 남문 밖 우측에 선창이라고 명 기되어 있고 그곳에 건물 1채와 석축으로 쌓은 굴강이 그려져 있어 이 곳이 선소임을 알려준다. 선소의 현재 위치는 고지도와 주민들의 증언 을 종합하면 현재 비봉리 2242번지 일원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비봉산 서남쪽 바로 아래로 외해에서는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요해지이다.

발포진 선소는 『흥양현발포진지도』를 통해 대략 파악할 수 있다. 42) 지도에서 발포진(현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일원) 남문 밖 우측에 선소가 표기되어 있고, 그 아래에 石墩이라 명기되어 있는 석축과 그 안에 군선이 정박되어 있어 이곳 일원이 선소임이 분명하다. 현재 위치는 현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입구에 석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고지도상과 이곳이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주민들이 그곳이 예전에 군선의 정박처였다고 한 것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현 발포리 484번지 일원이 선소 터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 선소는 수덕산 우측의 남쪽 가장자리가 가로막고 있어 내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여도진 선소(현 고흥군 점암면 여호리)는 고지도에 의하면 여도진 북문 앞 우측 편이다. 43) 현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선소의 위치가 여도 진의 북문 앞이었다는 점, 지도에서 선소 앞에 원주도가 있었다는 점, 마을 뒤쪽 서북에 바다로 불쑥 튀어나온 야즈막한 밭 인근이 예전에 굴 강이었다는 주민의 증언 등을 고려해 보면, 현 여호리 150번지 일원이 선소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선소는 다른 선소와 달리 북문 앞에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며, 선소 주변에는 원주도가 외호하고 있어 외해에서는 전혀 감지할 수 없다.

고돌산진 선소는 고지도에 의하면 고돌산진 남문 앞쪽 우측이다. 선

<sup>41) 『</sup>흥양현녹도진지도』(奎10454).

<sup>42) 『</sup>흥양현발포진지도』(奎10455).

<sup>43) 『</sup>흥양현여도진지도』(奎10457).

소의 현 위치는 지도에서 위치, 현 마을 앞 주차장이 예전에 굴강이었다는 주민의 증언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595번지 일원이 선소로 생각한다. 이곳은 외항에서 진입하다보면 마을 뒷산 동쪽 가장자리가 가로막고 있어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전라좌수영 관할 읍 선소의 위치와 입지를 정리한다. 순천 부 선소는 『여지도서』,44)『호좌수영지』,45)『신증승평지』46)등에 보인다. 장생포가 순천부 전선이 정박하는 곳이라거나, 순천부로부터 장성(생)포는 동쪽 60리이고, 순천부 선소가 전라좌수영 본영에서 수로로 20리, 육로로 15리라는 표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선소는 1972년 현 여수시 시전동 일원이라 알려졌으며, 임진왜란 직전 거북선(순천거북선) 건조 장소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1974년 12월 전라남도 기념물 제14호로 지정되었다. 그 후 문헌조사와 몇 차례 발굴조사등으로<sup>47)</sup> 1995년 국가 사적 제392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여수선소로 불리는 이 선소의 의치를 살펴보면, 외해에서 여수시 돌산도와 화양반도 사이로 들어오는 남쪽 초입부에서 북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장생포 일원이다. 현재 장생포 일원은 도시화 사업으로 인한 매립공사로 많은 포구가 육지화되어 있지만, 매립 이전만 해도 현선소 위치에서도 1km 이상 북쪽으로 따라 올라가야 육지였다. 현 쌍봉초등학교 앞 근처까지 포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지도나 일제 강점기 때 지적도로도 확인된다. 따라서 기왕의 선소는 현 선소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옛 포구의 대부분이 선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선소 중심지는 현 여수선소 내 굴강으로 판단된다.

선소의 중심지 굴강 일원은 외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입하는 장생 포 초입부 동쪽 언저리이다. 이곳은 외해에서는 물론이고 굴강 인근까 지 근접해서도 감지할 수 없지만, 이곳에서는 외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천혜의 군사요새지이다. 그리고 장생포는 선재를 구할 수 있는 국영 宜

<sup>44) 『</sup>여지도서』 전라도 순천부 지도 및 산천 장생포.

<sup>45) 『</sup>湖左水營誌』(奎, 古 9920-3, 1847년) 路程.

<sup>46)『</sup>新增昇平志』路程.

<sup>47)</sup> 社團法人麗川文化院、『麗川市郷土文化資料集』、 진남문화인쇄사、1993、

松地가 존재했었으며 부근에 전라좌수영 본영이 위치해 있었다.48)

장흥도호부 선소는 『장흥읍지』49)에 따르면 부 치소 동쪽으로 30리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다.50) 1872년도에 제작된 『장흥부지도』에 海倉 건물이 부 치소에서 30리로 표기되어 있고, 바로 앞 우측으로 군기고 와 굴강의 그림, 전선과 군선·사후선이 각각 1척씩 그려져 있어51) 해 창은 선소와 동일한 장소임을 알 수 있다.52) 『장흥부지도』의 해창 주변을 보면 해창에서 북쪽으로 沙村마을이 있고, 마을 앞에는 裝載島, 동쪽 해변 즉 得糧劑에서 내륙쪽으로 향하는 좌측해변으로 水門浦, 揮里53) 그리고 栗浦가 나타난다. 이를 현재 지명과 비교하면 거의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선소는 현재 장흥군 안양면 해창 일대이며,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장흥도호부 선소는 장흥군과 고흥군 사이에 있는 득량만 중간의 득량도 앞 서쪽방향의 포구이다. 포구 입구에는 장재도가 가로막고 있어 좌우의 협수로를 통해서 포구 안쪽으로 간입할 수 있다. 장흥도호부 선소는 포구 안쪽에 있는 해창마을 일원이다. 이곳은 천혜의 군사요새지이며, 부근에 회령포수군진이 있었다.

보성군 선소는 자료에 의하면 2곳이었다. 1871년 찬술된 『보성군읍 지』(奎 12175)<sup>54)</sup>에 선소가 郡 동쪽 35리에, 1872년 그려진 『전라도보 성군지도』(奎 10504)<sup>55)</sup>에 읍으로부터 50리에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선소의 위치에 대한 기록이 차이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

<sup>48) 『</sup>세종실록』권121. 세종 30년 8월 경신.

<sup>49) 『</sup>장흥읍지』(奎12175).

<sup>50) 1872</sup>년도에 그려진 『장흥부지도』에 해창 건물이 그려져 있는 곳이 부의 치소로 부터 30리라고 되어 있고 이곳 앞에는 바로 앞 우측으로 군기고와 굴강형식의 그림에 전선과 군선·사후선이 각각 1척씩 그려져 있어 이시기 해창은 곧 선소와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sup>51) 『</sup>장흥부지도』(奎10439).

<sup>52)</sup> 현장조사에 따르면 현재 장흥부 선소는 장흥군 관산읍 죽청리 산 26-1번지 앞 해 변일대에도 있었다고 한다.

<sup>53)</sup> 고지도에서 휘리는 현 회천면 일원, 삽내라고도 함.

<sup>54) 『</sup>보성군읍지』(奎12175).

<sup>55) 『</sup>전라도보성군지도』(奎10504).

데 또 다른 『보성군읍지』(奎 10806) $^{56}$ )를 살펴보면 "선소는 군 동쪽 35리에 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기록이 있어 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57}$ ) 이를 토대로 본다면 선소가 읍으로부터 동쪽 35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邑 50리로 옮겨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선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라도보성군지도』에 나타난 선소의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소는 득량만과 접해있는 오봉산 아래 해변쪽에 표시되어 있다. 이 부근에서 선소를 찾는다면 현재도 지명을 선소로 사용하고 있는 선소마을 밖엔 없다. 이는 이 선소마을이 현재에도 배를 정박시켰을 법한 굴강의 흔적이 있고, 예전에 이 곳에 수군이 주둔했었고 배를 정박시키던 장소와 무기를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다는 마을주민의 증언 등에서 입증된다.58)

선소는 득량만 입구에서 북쪽 내륙으로 진입하다 보면 동쪽에서 바다 쪽으로 이어진 오봉산 줄기 언저리를 좌측으로 감아 돌면 그 안쪽에 선소가 있다. 이곳 역시 외부에 쉽게 들러나지 않는다.

낙안군 선소는 『낙안읍지』(1786년, 1871년)에 군 남 25리, 『전라도 낙안군지도』(1871년)에 관에서 30리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1786년과 1871년도에 편찬된 『낙안읍지』에 나타난 선소 관련 내용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전자의 읍지 내용을 후자가 그대로 전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읍 치소로부터 25리에 있었던 낙안군 선소가 1871년에 읍남쪽 30리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낙안읍지』와 『전라도낙안군지도』에나타난 선소의 위치는 5리의 차이가 있다.

두 선소의 위치를 살펴보려 하는데, 읍치소에서 25리 떨어진 선소는 관련 기록과 전승이 없어 그 위치를 찾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읍 치소 에서 30리 떨어진 선소만을 밝혀보는데, 이는 『전라도낙안군지도』를

<sup>56) 『</sup>보성군읍지』(奎10806).

<sup>57)</sup> 이 자료는 1871년 찬술하였다고 하는 『보성군읍지』(奎12175) 선소조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이 읍지에서 선소가 없다고 기록한 것은 1895년 갑오개혁 때 수군 이 혁파되면서 선소가 폐지되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1871~1872년 사이에 선소가 읍 35리에서 군 50리로 이전하여 기왕에 선소가 폐지된 사실을 언급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sup>58)</sup> 선소의 현 위치는 전남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632번지 일대 선소마을이다.

토대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선소가 위치한 곳은 진석마을 이고, 이곳은 읍 치소에서 30리 떨어진 곳이다. 이를 통해 진석마을에 선소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곳은 현재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진석마을로 포구 입구이다. 마을 주민에 의하면 예전에 '船所' 또는 '船 首'라고 불려졌고, 수군이 주둔했었으며, 배를 건조하였고, 무기창고 등이 있었다고 한다. 59) 이를 종합해 보면 진석마을 선소는 1871년 이 전에 설치되었던 선소로 보인다.

이 선소는 보성군 벌교읍 남쪽에 위치한 포구 입구이다. 포구는 진입하기 직전 현 장도와 지주도가 동서로 각각 가로막고 있어 포구 안쪽은 확인이 쉽지 않다. 선소 주변에는 제석산 줄기가 있어 선소를 외호하고 있다. 선소의 위치가 이러하기 때문에 외해에서는 관측이 거의 불가하여 좋은 군사적 입지조건을 가지며, 근처에 선재를 구할 수 있는 국영의송지였던 장도가 있다. 60)

흥양현 선소는 『흥양지』(1750 1765년) 와61) 『신증흥양지』(1871년) 에 현 남쪽 40리, 『흥양현지토』(1871년) 62)에 현 치소로부터 35리라 표기되어 있다. 읍지와 고지도를 비교해보면 5리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고지도에 흥양 선소에 도달하는 길은 두 갈래로 되어 있어 현 치소에서 곧장 선소를 가면 35리이나 인근 발포진으로 가는 길을 거쳐서선소로 가면 40리 정도이다. 이는 발포진에서 선소촌 즉 선소까지 거리가 5리라고 명기되어 있는 『흥양현발포진지도』63)에서 확인된다. 즉읍지와 고지도에서 5리의 거리차이는 선소위치가 달라서가 아니라 기록자의 주관적 기록 때문이다. 그렇다면 흥양현 선소는 어디인가?

『흥양현지도』에서 흥양 선소는 서쪽의 유주산과 동쪽의 수덕산 사이 포구 초입부이다. 현재 이곳은 도화면 덕흥삼거리와 해안 방조제 부근 하도나루터 사이로 추정되다. 주민증언에 예전에 배를 건조 수리 하고

<sup>59)</sup> 진석마을은 현재 평범한 해변가 마을이지만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이곳에 상당한 크기의 상선들이 정박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sup>60) 『</sup>세종실록』권121, 세종 30년 8월 경신.

<sup>61) 『</sup>흥양지』(상백 古 915. 14 H483, 1759~1765년).

<sup>62) 『</sup>전라좌도흥양현지도』(奎10472).

<sup>63) 『</sup>흥양현발포진지도』(奎10455).

계류시키는 굴강 형태가 있었는데 매립공사와 도로공사 등으로 없어졌으며, 굴강 뒤 육지면에는 무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건물도 2~3채 정도 있었다는 현 덕흥리 711번지 일원이 선소였다고 한다. 주변에 국영 소나무 배양지였던 유주산이 있으며, 발포수군진이 있다. 64)

광양현 선소는 『광양읍지』(奎 17435, 1759년) 창고조, 『광양읍지』(奎 12175, 1871년) 창고조, 『광양읍지』(奎 12181, 1895년) 창고조, 『광양읍지』(奎 10744, 1899년) 창고조, 김정호의 『대동지지』,65) 『광양현지도』(1871년) 등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는 선소창이 현 치소로부터 동쪽으로 50리에 있다고 하였다. 선소창은 선소에 있는 부속건물이기66) 때문에 선소의 위치를 알려준다. 『광양현지도』에 선소는 동쪽 편에는 茂積山이 있고 남쪽으로는 망덕산이 가로 막고 있는 포구입구이다. 즉 섬진강 하구에서 포구 쪽으로 진행하다 무적산 남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선소이다. 선소라는 지명, 주변에 군장터·선소창터·선창등의 지명, 고지도와 일차, 양 선소 터라는 주민증언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곳은 광양현 선소가 분명하다. 선소는 섬진강 쪽에서는위치를 가늠하기 쉽지 않고 인근에 국영 船材長養地處인 백운산이 있어67) 선재를 구하기가 매우 쉬운 곳이었다.

# 4.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수군진 선소 및 읍 선소의 운영과 시설

선소는 군선의 정박, 건조·수리 기능이 중요했기 때문에 각 선소에 배치되었던 군선과 승선인원, 재원조달, 선재조달, 잡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관련 기록이 희소하여 정리가 쉽지 않다. 최

<sup>64) 『</sup>세종실록』권121, 세종 30년 8월 경신.

<sup>65)『</sup>大東地志』光陽. 창고조에는 "船所倉東五十里"라고 되어 있다.

<sup>66) 『</sup>광양현지도』(奎10500).

<sup>67) 『</sup>숙종실록』권24 숙종 18년 2월 계사.

대한 유관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하여 대략적이지만,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 선소의 운영 형태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을 밝혀볼 수 있다. 이에 관찬사료나 지지류 등에서 선소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 선소 운영을 정리해 본다.

(표 2) 전라좌수영 본영선소 군선척수 및 승선인원

1분류	척 수	선장	기 패 관	포도관	H기사	사 부	사 수	포수	화 포 장	사공	선 직	나마에	사 격 군	타공	요수	정수	계	전거
전선	3																	
병선	5																	8 4 5071
귀선	1																	『속대전』 1746
사후선	11																	1740
계																		
1전선	1		2	2	1	15	,	<b>24</b>	10	80	1	144	0				207	
2전선	1		2	2	1	15		24	10	8	1	120					183	
3전선	1	1	2	2	1	15		24	10	8	1	108					172	FARIHOTI (0)
4귀선	1	1	2	2	1	15		24	10	8	3	96	5				160	『순천부읍지』 <sup>68)</sup> 1787
병선																		1101
사후선																		
계																	722	
전선	4																	
병선	5																	『만기요람』
사후선	11																	1808
계																		
1전선	1		2	2	1	15		24	10	8	1	144					207	
2전선	1		2	2	1	15		24	10	8	1	120					183	
3전선	1	1	2	2	1	15		24	10	8	1	108					1782	『호좌수영지』 <sup>69)</sup>
4귀선	1	1	2	2	1	10	24		10	8	1	90					150	1815
병선	5	5	5		5	50			5			155					230	
사후선	11											66					66	
계																	1,008	

<sup>68) 『</sup>순천부읍지』(奎 17434, 1787 撰) 軍額.

<sup>69) 『</sup>호좌수영지』(1815년 刊. 해군사과학교소장).

1분류	척 수	선장	기 패 관	포도관	훈모	사부	사 수	포수	화 포 장	사공	선 직	능成군	사 격 군	타공	요수	정수	계	전거
前營 吳字1호	1		2	2	1	15		24	10	8	1	144					207	
1병선	1	1	1		1	10		10	1	1		30					55	
2병선		1	1		1	10		10	1	1		30					55	
1사후선										1		5					6	
2사후선 3사후선										1		5					6	
4사후선										1		5					6	
5사후선										1		5					6	
숙자1호	1		2	2	1	15		24	8	10	1	120					183	F=T  A CHT  70)
병선	1	1	1		1	10		10	1	1		30					55	『호좌수영지』 <sup>70)</sup>
1사후선 2사후선	1									1		5					6	1847
숙자6호	1	1	2	2	1	15		24	10	8	1	108					172	
병선	1	1	1	_	1	10		10	1	1		30					55	
1사후선	1									1		5					6	
2사후선	1_									1		5					6	
숙자2호 (거북선)	1	1	2	2	1	15		24	10	8	1	96					160	
병선		1	1		1	10		10		Th	W A		0				55	
1사후선								7	-		N.	- 5	7				6	
2사후선								7	1	1	13	5					6	
계 1전선	1										9/						1,063 207	
10년 1병선	1																55	
_ 1 8 <sup>1</sup> 년 2병선	1																55	
1사후선	1																6	
2사후선	1																6	
3사후선	1																6	
4사후선	1																6	
5사후선	1																6	『호남읍지』 순천
2전선	1																183	호좌수영영지급
병선	1																55	사례
사후선	2																12	1872
3전선	1																172	
해골선	1																55	
사후선	2																12	
4전선	1																155	
병선	1																55	
사후선	2																12	
계																	0	

<sup>70) 『</sup>호좌수영지』(1847년 刊, 奎 古9920-3).

1분류	척 수	선 장	기 패 관	포도관	훈 모	사 부	사 수	포수	화 포 장	사 공	선 직	- - - - - - - - - - - - - - - - - - -	사 격 군	타공	요 수	정수	계	전거
전선	3																	
거북선	1																	『증보문헌비고』
해골선	1	7	60	8	9		105	146	40		4	673		24	8	8	1,092	권120병고12
방선	4																	주사 조선
사후선	11																	1908
계																	1,092	

⟨표 2-1⟩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선소 군선척수 및 승선인원

	1분류		척 수	선 장	기 패 관	포 도 관	훈모	사 부	사 수	포 수	화 포 장	사공	선 직	등 대 단	사 격 군	타공	요수	정수	계	전 거	비 고
사	전 선		2																	『속대	
사 도 진	병 선		2																	「속대 전』, 「만기 요람」	
	사후선	!	4																	'만기	
계																				교님	
사	전 선		1					`	8		-@		1	1							舟師
사 도 진	병 선		2	1	3	2	2			V.									8	「신증흥	230
	사후선	!	2						F	- 7		1	_	7						양지』	명
계										R		V		$\mathcal{L}$					23871)		
방	전 선		2									2		5						『속	
방 답 진	병 선		2																	「속 대전」, 「만기 요람」	
	사후선	!	4																	[만기	
계																				요담』	
	1전선		1		2	2	1	15		24	10		1	108		2	2	2	169		
방	2전선		1	1	2	2	1	15		24	15		1	108		2	2	2	175	PULFL	
방 답 진	1병선		2	2	2		2	20		22	2	2		60					112	"방답 진책』 72)	
진	1협선		2												12				12	72)	
	2협선		2												12				12		
계																			480		
방	1전선		1	1	3	2	2	25		34	11					1073			88		
방 답 진	2전선		1	2	3	2	2	25		34	11					1075			89	『방답 진지』 74)	
계																			177	, , ,	

<sup>71) 238</sup>명은 주사를 포함한 인원임.

<sup>72) 『</sup>湖南鎭誌』(奎 12188),「防路鎭鎭誌及事例幷錄成冊」. 1872년 편찬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湖南邑誌』를 영인한 『읍 4(全羅道1),韓國文學文獻研究所 編, 1983, 亞細 亞文化史에 수록된「防路鎭鎭誌及事例」.

<sup>73)</sup> 舵工의 숫자는 선직을 포함한 것임.

<sup>74) 1872</sup>년 편찬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湖南邑誌』를 영인한 『읍 4(全羅道1], 韓國文 學文獻研究所 編, 1983, 亞細亞文化史에 수록된 「防踏鎖鎖誌及事例」.

	1분류	척 수	선 장	기 패 관	포도관	한내	사 부	사수	포수	화 포 장	사공	선 직	구 고 교	사 격 군	타공	요수	정수	계	전 거	비고
회	전 선 병 선	1																	『속대	
령	병 선	1																	전』,	-
포 진	사후선	2																	『만기	
계																			요람』	
회	열자전선	1			2		15		24	10			108		976)			168	『장흥	
령	방선	1	1				10		10	1			42		1			65	읍지 <sub>]</sub> ,	
포	1사후선	1											5		1			6	『장흥	
진	2사후선	1											5		1			6	부회령진	
계																		368	지도,,77)	
녹	전 선	1																	『속대	
토	병 선	1																	전』,	
진	사후선	2																	『만기	
계																			요람』	
녹	전선	1																	『신증	舟師
모	병선	1	1	3	2	2												8	흥양지』	230
진	사후선	2					,	8		- 6			01						78)	명
계								~	7	Š	R							23879)		
발포	전 선 병 선	1						7	-				2							
진	병 선	1							1		1								『속대	
	사후선	2								2	2		5						전』	
계	71 14	_																		
발포	귀 선	1																	POLZI	
진	병 선 사후선	2																	『만기	-
계	시우신																		요람』	$\dashv$
	전 선	1																		内台
발포	변 병 선	1	1	6	6	6												19	『신증	<del>角</del> 館 330
진	사후선	2		U	0	0												17	흥양지』	명
계	시우신																	34981)	80)	0
	전 선	1																547-17	『속대	
여도	병 선	1																	전』,	$\vdash$
진	사후선	2																	"만기	
계		_																	요람』	$\Box$

<sup>75)</sup> 舵工의 숫자는 선직을 포함한 것임.

<sup>76)</sup> 舵工의 숫자는 요수와 정수가 포함된 것임.

<sup>77) 『</sup>장흥읍지』(奎 12175, 1871년 撰) 회령포 ; 『장흥부회령진지도』(규 10443, 1871년 圖).

<sup>78) 『</sup>신증흥양지』(奎 10804, 1758년 撰) 船所.

<sup>79) 238</sup>명은 주사를 포함한 인원임.

<sup>80) 『</sup>신증흥양지』(奎 10804, 1758년 撰) 船所.

<sup>81) 350</sup>명은 주사를 포함한 인원임.

	1분류	척 수	선 장	기 패 관	포도관	훈 도	사 부	사수	포수	화 포 장	사공	선 직	능로군	사 격 군	타 공	요수	정수	계	전 거	비고
여도 진	전 선 병 선 사후선	1 1 2	1	3	2	2												8	「신증 흥양지』 82)	舟師 238 명
계																		24683)	02)	
7.5	전 선	1																	『속대	
고돌 산진	병 선	1																	전』,	
22	사후선	2																	『만기	
계																			요람』	
	열자전선	1		2	2	1	15		24	10			108		10			172		
고돌	장자병선	1	1	1		1	10		10	1			30		1			55	r=++	
산진	1사후선	1											6					6	『호남 읍지』 <sup>84)</sup>	
	2사후선	1											6					6	급시니아	
계																		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좌수영 본영 선소는 『속대전』이 편찬되었던 1746년(영조 22) 전성 3척 · 병선 5척 · 귀선 1척 · 사후선 11척, 『순천부읍지』가 편찬되었던 1781년(정조 11) 경에 전선(판옥선) 3척에 거북선 1척, 1808년(순조 8) 경 정철 4척 · 병선 5척 · 사후선 11척, 1815년(순조 15) 경 전선 3척 · 거북선 1척 · 병선 5척 · 사후선 11척, 1847년(헌종 13) 경 전선 3척 · 거북선 1척 · 병선 5척 · 사후선 11척, 1872년(고종 9) 경 전선 4척 · 병선 4척 · 사후선 11척 · 해골선 1척, 1908년 경전선 3척 · 거북선 1척 · 방선 4척 · 사후선 11척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서 1787년 경 전라좌수영 본영에서 보유하고 있던 군선 중 병선과 사후선이 보이지 않는 것은 1746년과 1815년 경 군선 착수를 토대로 한다면 기록의 누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전라좌수영 본영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군선 척수는 전선(거북선 포함) 4척, 병선 5척, 사후선 11척 등 도합 20여 척 내외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1847년 경부터 전선의 명칭이 前營吳字 등으로 변경된 것이나 1872년 경부터

<sup>82) 『</sup>신증흥양지』(奎 10804, 1758년 撰) 船所.

<sup>83) 246</sup>명은 주사를 포함한 인원임.

<sup>84) 『</sup>호남읍지』(奎 12175, 1872년 撰) 순천, 古突山鎭鎭誌及事例.

해골선 또는 방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일선 수군진 운영은 물론이고 부설 선소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 선소들은 속대전이 편찬되었던 1746년(영조 22) 경부터 군제개편으로 수군진이 폐지될 때까지 전선ㆍ병선ㆍ사후선을 포함하여 많게는 8여 척, 적게는 4척의 군선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답진선소나 회령포진선소의 경우 다른 수군진 선소와는 달리 협선이나 방선을 보유ㆍ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발포진 선소는 여타 수군진 선소에서는 없는 거북선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돌산진선소의 경우 여타 수군진선소에서 나타나지 않은 列字戰船과 張字兵船이라는 명칭의 군선을 보유ㆍ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당시 수군진과 부설 선소 운영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운영되었던 군선의 청우 처음 건조한 뒤에 3년과 6년째에 두 번 改槊을 하여 9년을 사용했다. 이를 위해 선소는 수많은 船材가 필요했다. 선재는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의송지나 선재처에서 조달했 는데, 전라좌수영 관할 지역에는 의송지가 36여 곳,860 선재처가 10여 곳이 넘게 있었다.870 실제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좌수영 관할 지역의 선재는 누가 관리하였으며 어떻게 조달하였을까.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전라좌수영 관할 지역 선재는 전라좌수사 총괄하에 각 수군진의 만호·첨사와 각 고을의 수령이 관리하고, 그 아래 금송도감→금송감관→산직의 체계로 관리가 이루어졌다. 88) 선재는 각 수군진 선소나 읍선소에서 필요할 경우 전라좌수사에게 벌목허가를

<sup>85) 『</sup>續大典』兵典; 金在瑾, 『우리배의 歷史』, 서울大學校出版部, 1991, 116쪽. 이것은 1747년(영조 22)경 전라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sup>86) 『</sup>萬機要覽』 財用編 5 松政 各道封山.

<sup>87)「</sup>湖南島嶼圖」중 興陽·順天地圖(1840년경 제작,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金井昊編『全南의 옛 地圖』, 社團法人 鄕土文化振興院, 1994. 118쪽; 122쪽.

<sup>88)</sup> 송은일,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의 軍船 木材 관리와 조달」, 『海洋文化研究』 4, 2010. 136쪽.

요청하고, 전라좌수사는 상부기관에 벌목 요청을 한 후 그 승인이 떨어지면 관문에 의거 벌목을 시행하였다. 이 벌목의 통솔자는 수군진의 경우 일반 군관, 전선 제작을 전담하였던 監造戰船軍兵出納軍官<sup>89)</sup>, 읍선소의 경우 전선대장 등으로 보인다. 이들은 군선 제작기술자였던 耳匠등을 대동하여 벌목작업을 한 후 선재를 선소까지 운반하는 작업까지책임졌다.<sup>90)</sup> 선재가 선소로 운반되면 이장 등에 의해 가공되어 군선으로 거듭났다

수군진 선소의 관리는 수군진 최고지휘관의 책임 하에 우후나 교수 등이 현장에서 책임졌다. 이들의 책임 하에 상당한 인원이 수군진 선소에서 활동하였는데, 군선을 지휘하는 선장, 수군훈련을 담당한 기패관, 수군의 규율이나 위반사실을 적발·단속하였던 포도관, 교육을 담당하는 訓導등과 射夫·射手·砲手·火砲匠·船直<sup>91</sup>)·能權軍<sup>92</sup>)·沙格軍<sup>93</sup>)·舵工<sup>94</sup>)· 繞水<sup>95</sup>)· 椗水<sup>96</sup>)·舞上<sup>97</sup>)

수군진 선소별로 활동하였던 일원을 일별해 보면 전라좌수영 본영선 소는 『순천부읍지』가 편찬되었던 1787년 경에는 722명, 1815년 1,008명, 1847년 1,063명, 1871년 1,058명, 1908년 1092명으로 나타난다. 본영 선소의 인원은 1815년 경에 이전보다 약 300여 명이 증가한 후 그 상

<sup>89) 1591</sup>년 임진왜란 직전 이순신은 나대용을 監造戰船軍兵出納軍官에 임명하였다 (『선조실록』 권206 선조 39년 12월 24일 무오). 이 직책은 전선을 전문적으로 제 작하는 등의 역할 한 것으로 보인다.

<sup>90)</sup> 송은일, 앞의 논문, 2010, 147쪽.

<sup>91)</sup> 선직은 배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숙종실록』 권40 숙종 30년 12월 28일 갑오).

<sup>92)</sup> 능로군은 노를 젖는 수군이다(「備邊司謄錄」 84책 영조 4년 7월 24일[음]).

<sup>93)</sup> 사격군은 노를 젖는 수군이다(세종대황기념사업회·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3, 2001, 13쪽).

<sup>94)</sup> 타공은 군선의 키를 조작하는 수군이라고 생각한다.

<sup>95)</sup> 요수는 돛을 조작하는 수군이라고 생각한다.

<sup>96)</sup> 정수는 선수에서 닻을 조작하는 수군이라고 생각한다.

<sup>97)</sup> 무상은 닻 물레를 조작하는 수군이라고 생각한다.

<sup>98)</sup> 이장은 군선을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목수라고 생각한다(송은일, 앞의 논문[2010], 141~142쪽).

태가 군제개편으로 수군진이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선소은 1758년부터 군제개편으로 수군진이 폐지될 때까지 사도진 선소 238여 명. 방답진선소 480여 명. 회령포진 선소 245여 명. 녹도진선소 238여 명. 발포진선소 349여 명. 여도진선 소 246여 명. 고돌산진선소 239여 명의 인원이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회령포·녹도·발포·여도진 선소는 만호진 선소였기 때문에 첨 절제사진 선소인 방답진 선소나 수군절도사영 선소인 전라좌수영 본영 선소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사도진 선소의 경우, 첨절제사진 선소임 에도 이원이 만호진 선소와 유사하며, 고돌산진 선소는 권관진 선소임 에도 만호진 선소와 그 인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사도진 선소의 인 원이 적은 것은 사도진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곳 은 성문이 오래되어 무너지거나 혹은 이민 사라질 정도의 상태였다고 한다.99) 사도진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다. 아마 그 같은 상황에서 사도전이 저진이면서도 만호진과 거의 동일 한 수준의 인원이 배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고돌산진 선소의 경우 만호진 선소와 유사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수군진이 만호진과 위상이 유사하였음을 말한다. 이는 고돌산진이 여 타 만호진과 동일하게 한척씩의 전선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전투시 편제에서 여도진이나 회령포진과 동일하게 초관의 위계를 지니고 있었 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100)

그런데 이상의 공식 인원 모두가 항상 각 수군진 선소에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감조전선군병출납군관, 선장, 기패관, 포도관, 훈도, 선직 등 필수요원을 제외하면 수군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포수나 능로군 등의 일부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당시 수군이 서류상에도 제대로 채워두지를 않아 유사시에 대비할 수 없음을

<sup>99) 1895</sup>년(고종 32) 무렵 편찬된 『蛇渡鎭誌及事例成冊』(『湖南鎭誌』[奎12188])에는 사도진성 및 그 성문은 지어진지 오래되어 무너지거나 사라진 상태였다고 한다. 100) 『湖左水營誌』(奎, 古 9920-3, 1847년) 司哨,

말하고, 봄·가을에 실시된 정기 수조에 인원이 모자라 인근 주민을 동원하는 일이 많아서 그 폐단이 지적되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101)

각 수군진 선소에는 상당수의 공공시설물이 있었다. 전라좌수영 본 영 선소를 보면 남문 밖 좌측에는 船倉·舟汁庫·耳匠廳이, 우측에는 沙工廳·射夫廳 등이 있었다. 102) 선창이나 주즙고는 수군 관련 武具類를 보관하며, 이장청은 군선건조와 군선 목수 및 선재 등을 관리하고, 사공청·사부청은 사공과 사부를 관리하였다. 건물들 주변에는 군선을 계류시키거나 수리할 수 있는 굴강이 있었다.

전라좌수영 본영 선소에서 특이점은 내례포장이다. 내례포장은 고지도에서 굴강과 남문 사이에 있다.103) 이곳에 장시가 언제 設場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명호가 내례포라면 아마 전라좌수영이 들어서기전 내례포진이 있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하여튼 전라좌수영 선소에 장시가 설장된 점으로 이곳에 생각될동의 공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도진 선소에는 명호를 할 수 없는 건물 2채가 있었다. 이 건물의 용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선소와 관련된 창고 시설 등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건물 아래에는 군선을 정박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굴강이 존재하였다. 104)

방답진 선소에는 고지도에 선소라고 명기된 곳에 撫劍亭·汁物庫· 水軍器 3채의 건물이 그려져 있다.<sup>105)</sup> 무검정은 수군들이 무기를 손 질·보관하거나 때로는 군사훈련 등을 관장하던 곳으로, 즙물고는 군 량미를 비롯한 각종 집물 등을 저장하던 창고, 수군기는 수군에 필요한 군기·갑옷 등을 저장했던 장소로 판단된다.

<sup>101) 『</sup>비변사등록』 31冊 숙종 1년 을묘 2월 4일 三南巡撫使齎去應行節目.

<sup>102) 『</sup>湖左水營誌』(1815년 刊. 해군시관학교소장); 『湖左水營誌』(奎. 古 9920-3. 1847년)

<sup>103) 『</sup>순천부지도』(奎10511). 굴강의 현재 위치는 여수시 중앙동 로터리에서 전라좌수 영성 내에 있는 망해루 사이 일대로 비정된다.

<sup>104) 『</sup>흥양사도진지도』(奎10441).

<sup>105) 『</sup>순천방답진지도』(奎10510).

회령포진 선소는 『장흥부회령지지도』를 보면<sup>106)</sup> 선소에 건물 1채가 그려져 있다. 이 건물의 용도는 선소와 관련된 업무를 보거나 집물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생각한다. 건물 아래쪽에 石墩이라 표기되어 군선 이 정박되어 있다. 이 석돈은 정박한 군선을 외부로부터 감추려는 목적 으로 돌을 바다에 던져 수면 높이와 같게 만든 구조물로서<sup>107)</sup> 굴강과 유사한 것이다.

녹도진 선소는 『흥양현녹도진지도』를 보면<sup>108)</sup> 선창에 건물 1채가 그려져 있는데,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인다. 건물 아래쪽에 석축으로 쌓아진 굴강과 정박된 군선이 있다. 발포진 선소는 『흥양현발포진지도』를 보면<sup>109)</sup> 선소에 건물 1채가 그려져 있다. 명호가 없어 사용 용도를 알 수 없으나 선소업무를 보거나 무구류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보인다. 건물 앞 우측에 굴강과 유사한 石墩이 있다. 여도진 선소는 『흥양현여도진지도』를 보면<sup>110)</sup> 선소에 건물 1채가 고려져 있어 창고로 보이며, 건물 아래쪽에 군선이 정박되어 있는데 굴강이다.

고돌산진 선소는 『순천고동산전자도를 보면<sup>1111</sup>)船倉汁物庫 1채가 그려져 있어 물건을 보관하거나 업무를 보던 장소로 보인다. 건물 우측 반대편에 군선이 정박하는 굴강이 있었다. 특이한 점은 건물의 위치인 데 여타 선소의 경우 대부분 굴강주변에 건물이 있는 데 반해 이곳의 건물은 굴강과 상당히 떨어진 반대편에 그려져 있다. 지형적 특성 때문 으로 판단된다.

이상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선소의 운영과 시설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은 전라좌수영 관할 읍 선소에서 대해서 알아본다.

<sup>106) 『</sup>장흥부회령진지도』(奎10443).

<sup>107) 『</sup>중종실록』 권104, 중종 39년 9월 임술.

<sup>108) 『</sup>흥양현녹도진지도』(奎10454).

<sup>109) 『</sup>흥양현발포진지도』(奎10455).

<sup>110) 『</sup>흥양현여도진지도』(奎10457).

<sup>111) 『</sup>흥양현발포진지도』(奎10493).

⟨₩	3>	전라좌수영	과학	음선소	군선천수	민	승선인원
ν.	2/	나이시 다	ᆣᆯ			ᆽ	$\alpha = 2$

<u>t</u>	분류	착 수	전 선 대 장	선장	기 패 관	포도관	는 문 문	사부	화 포 장	화 포 수	타공	사공	무상	요수	정수	나마이	격 군	선직	계	전거	비고
순	전선	1																			
_ 천	병선	1																		FACUTI	
부	사후선	2																		『속대전』	
계																					
1.51	전선	1																			
순천	방선	1																		rntaioat	
부	사후선	2																		「만기요람」	
계																					
순	전선	1																			
천	병선	1	1	1	1	2		30		11						146			47	『순천부읍지』112)	
부	사후선	2																		· 군신구급시』(12)	
계																			192	1	
장	전 선	1																			
흥 부	병 선	1																		「속대전」,	
부	사후선	2							1	2		Q			01					「만기요람」	
계												M									
T.	전 선	1	1		2	2	1	20	10	20	2		X	1,	73	108		1	37		
장 ㅎ	방 선	1		1	1		1	10	1	10	4		1			30			14		
흥 부	1사후선	1									1		2		6	5			6	「장흥부읍지」113)	
	2사후선	1							_		1					5			6		
계																			63		
보	전 선	1																			
성 군	병선	1										_								「속대전」,	
	사후선	2																		「만기요람」	
계	전 선	1																			
보	전 선 병 선	1	1	1	3	2	2	30	11	30		8					130	1	51		
성 군	사후선	2															12		12	『보성군읍지』114)	
계	시구간																12		63		
낙	전선	1																	0.0		
년 안	병선	1																		『속대전』,	
군	사후선	2																		'만기요람,	
<u></u> 계		_																			
낙	전선	1																			
안	병선	1	1																	ELIONATIC 115)	
군	사후선	3	1																	「낙안군지도」115)	
계																					

<sup>112) 『</sup>순천부읍지』(奎17434) 軍額.

<sup>113) 『</sup>장흥부읍지』(奎10804) 水軍將卒都敎.

<sup>114) 『</sup>보성군읍지』(奎12175) 關防.

<u>t</u>	분류	척 수	전선대장	선장	기 패 관	포도관	HIN	산부	화 포 장	화 포 수	타공	사공	무상	요수	정수	나이내다	격군	선직	계	전거	비고
광		1																			
양		1																		『속대전』,	
현		2																		「만기요람」	
계																					
71	전선	1																			
광 양 현	방선	1	1	1	3	2	2	30	10	34						138			221	『광양현읍지』116)	
2	사후선	2															12		12		
계																			0		
광	전선	1	1	1	3		2	30	10	34						138		1	81		
양	방선	1		1	٥			30	10	34						138		'	81	F701-10T1 117)	
현	사후선	2															12		12	「광양군읍지」 <sup>117)</sup>	
계																			0		
흥	전선	1																			
양	병선	1												_	1					『속대전』,	
현	사후선	2							1			ED.	10	S	7					「만기요람」	
계									5		7				2						
흥	전선	1									1	1	7								
양	병선	1	1	1	3	2	2	30	1	34	12	~			6	138	10		84	『신증흥양지』 <sup>118)</sup>	
현	사후선	1																			
계																			244		
흥	전선	1																			타공
· 양 현	방선	1																		『흥양현사례종시	타공 10명은 선직포함
	사후선	2																	12	직정가성책 119)	
계																			242		

위 표와 같이 읍 선소에는 군선이 많게는 5척, 적게는 3척 정도가 상 시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읍 선소에 배치되었던 군선 역시 수군진 선

<sup>115) 『</sup>낙안군지도』(奎10499). 김정호가 편찬한 『호남의 옛 지도』의 호남도서 중 낙안 지도에서는 4척의 군선이 그려져 있는데(김정호 편, 『호남의 옛 지도』, 119쪽) 이를 보면 기왕에 낙안군선소에는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sup>116) 『</sup>광양현읍지』(奎17435) 軍額.

<sup>117) 『</sup>광양군읍지』(奎12181) 軍額.

<sup>118) 『</sup>신증흥양지』(奎10804) 船所.

<sup>119) 『</sup>興陽縣事例從時直定價成冊』(奎12181, 1895년 撰).

소의 군선과 같이 新造와 개삭·보수 등이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양의 선재들이 필요했다. 선재의 관리 및 조달 등에 대해서는 앞의 수군진 선소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읍 선소를 관리하는 현장책임자는 戰船代將으로 판단된다. 이는 위표와 같이 선소 관련 직책 가운데 전선대장이 맨 앞에 나타나며, 고을 선소에 보관 중이던 비상시 양곡을 대장이 마음대로 나눠줘 문제가 발생하였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120] 또한, 임진왜란 직전 전라좌수사이순신이 순천도호부에 해역을 수색하도록 명하자 이를 어긴 순천부의代將, 色東, 都訓導 등을 추궁한 사례, [121] 보성군수가 약속기한을 어기자 이순신이 대장을 문죄한 사례[121] 등은 전선대장이 선소의 현장책임자임을 입증한다. 전선대장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면서도 舟楫에 익숙한사람으로 선발되었으며, 선소에서 출입하고 보관하는 군수물자 등 현장에서 운영하는 제반 임무를 받았다.

각 읍 선소의 현장책임자인 조선대간 위하에 防船將, 旗牌官·捕盜官·훈도·사부·화포장·포수·타공·사공·무상·요수·정수·능로군·이장 등이 있었다. 각 읍 선소별로 활동하였던 인원을 일별해 보면, 순천부 선소 192명, 장흥부 선소 239명, 보성군 선소 231명, 광양현 선소 233명, 흥양현 선소 244명 등이다. 또한, 각 읍 선소에는 東가 근무하였다. 임진왜란 직전 자료에 순천대장·도훈도와 함께 처벌받았던 색리, 124) 흥양현에 보이는 船所色, 125) 광양현의 舟師色·兵船色126) 같은 존재이다. 사천현 선소에 두어졌다는 軍器監官, 127) 광양현

<sup>120) 『</sup>비변사등록』49책, 숙종 21년 6월 24일. 沿海列邑大同儲置米.

<sup>121) 『</sup>난중일기』 1592년 3월 20일(경진).

<sup>122) 『</sup>난중일기』 1592년 2월 5일(경인).

<sup>123) 『</sup>비변사등록』31冊, 숙종 1년 2월 4일. 三南巡撫使齎去應行節目.

<sup>124) 『</sup>난중일기』 1592년 3월 20일(경진).

<sup>125) 『</sup>興陽縣事例從時直定價成冊』(計12181, 1895년 撰) 船所色.

<sup>126) 『</sup>光陽縣各所事例冊』(1850년) 舟師色·兵船色 441~443쪽.

<sup>127)</sup> 金鉉丘, 「조선후기 造船溝과 造船浦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81, 1998. 241~243쪽.

선소에 있었다는 군기감관과 船倉監官<sup>128)</sup> 등도 각 읍 선소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순천부 선소의 경우 16명씩 번갈아가면서 근무하였다는 船直,<sup>129)</sup> 광양현 선소에 30명이나 배정되었다는 汲水船直<sup>130)</sup> 등도 각 읍 선소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공식 인원은 선소의 상근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선대장이나 군기감관 등 필수 요원을 제외하면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사·포수나 능로군과 같은 군졸들은 보통 문서상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이들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가 훈련이나 유사시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되며, 水操時 수군이 동원되지 않아 주민들을 동원하였다 는 사실을 통해 그나마도 제대로 동원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31)

각 읍선소의 상근자는 워 표와 같이 전함의 승선인원 중 간부급 요원인 전선대장(1인)·방선장(1) 기패관(3인)·포도관(2인)·훈도(2인)등과 함께 군기감관(1인)·선차관관(1인)·선소색(1인)·주사색(1인)·병선색(1인)등을 합한 대략 14여 명과 순천부 선소에서 16명이 번갈아근무하였다는 선직 전체, 광양현 선소에 30여 명이 배정되었다는 급수선직 등을 더하면 각 읍 선소는 20~60여 명까지 상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읍 선소는 각 읍 관할이었다. 운영은 원칙적으로 각 읍 수령의 권한이자 임무였다. 선소의 현장책임자인 전선대장을 선발하는 일부터 행정실무직인 東 등 그리고 현장에서 선소를 관리 운영하는 핵심요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32] 선소의 수군(능로군·사수·포수)을 충원하고, 유사시에 이들을 동원하거나 훈련하는 일도 각 읍 수령의 몫이었

<sup>128) 『</sup>光陽縣各所事例冊』 兵船色 443쪽.

<sup>129)『</sup>新增昇平誌』上 船隻 戰船 夾註.

<sup>130) 『</sup>光陽縣各所事例冊』 兵船色 449.

<sup>131) 『</sup>備邊司謄錄』31冊,今종 1년 2월 4일. 三南巡撫使齎去應行節目.

<sup>132) 『</sup>光陽縣各所事例冊』 兵船色 443쪽. 광양현 사례이지만 그 외 전라좌수영 관할 읍 선소도 동일하였다고 판단된다.

다.<sup>133)</sup> 선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나 각종 물자도 각 읍 수령의 책임 아래 마련되었다. 전함 건조와 보수·개삭, 각종 군사장비, 군량미나 각종 부식의 보급과 비축, 각종 祭儀 집행과 비용, 선소의 준설 등 선소에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 읍에서 부담했었다.<sup>134)</sup> 이 중 군선건조를 위한 재원은 읍 재정에서 강구되었지만 나머지는 읍 주민들의 부담이었으며,<sup>135)</sup> 주민들의 불만은 높았다. 鎭村과 船村이 때로는 합하거나 분리해서 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송이 끊이지 않았던 사실은 그 같은 사정을 대변한다.<sup>136)</sup>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각 읍 선소의 업무와 운영은 각 읍에서 모든 부분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군사관련 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군사부분은 각 읍의 수령보다 전라좌수영의 전라좌수사에게 권한이 있었다. 예를 들면 현장책임자인 전선대장의 근무평점, 선소에 소재한 수군기의 검열, 수군의 지휘 훈련 등이 그것이다.(37) 요컨대 각 읍 선소의 평상시 운영은 읍 수령이 주도하였지만 군사훈련이나 유사시에는 전라좌수사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했다.(138)

이와 같은 전라좌수영 관할 읍 선소에는 상당수의 공공시설물이 있었다. 순천부 선소에는 군선을 계류시키거나 수리할 수 있는 구조물인 굴강이 있었고, 품뭇간도 존재했었다. 대체로 공공건물이 1~4채 있었

<sup>133) 『</sup>光陽縣各所事例冊』 兵船色 441~442쪽.

<sup>134) 『</sup>光陽縣各所事例冊』舟師色·兵船色.

<sup>135) 『</sup>光陽縣各房都重記」(奎. 古 4259-71) 工房 및 本倉條.

<sup>136) 『</sup>船鎭兩村分洞節目』(奎. 古 4236-40) 丙子 10월 船村.

<sup>137)</sup> 임진왜란 직전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흥양선소를 방문하여 배와 집물을 점검한 사례에서 알 수 있다(『난중일기』 1592년 2월 22일). 이와 관련하여 순천부선소의 것으로 생각되는 『船所水軍器反閱冊』에는 선소에서 관리하던 무기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담당 군기감관의 수결과 마지막에 수사의 수결이 있어(趙成都 외『李忠武公遺蹟地 船所 文獻考證報告書』, 15쪽) 당시 각 읍선소의 군사적인 권한은 전라좌수사가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船所水軍器反閱冊』에 대해서는 변동명,「여천선소유적[순천선소]의 조선후기 고문서 '船所水軍器反閱冊'」『해양문화연구』 3, 2009를 참조하기 바람.

<sup>138)</sup> 변동명, 앞의 논문, 2008, 263~271쪽 참조.

다. 139) 건물은 水軍器(각종 무구류 보관)·船所倉(군량을 비롯하여 각종 代物 보관)·募軍倉(모군을 위해 마련된 건물) 등이며,140) 그 외 이름없는 건물은 행정업무를 위한 사무소로 짐작된다. 순천부 선소에는 공공시설물 외에 석보장이란 장시가 있다. 장시는 『순천부읍지』(1792~1800년)를 통해 확인되므로 1792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순천부 선소에 장시가 설장된 점은 상업활동을 의미한다. 장흥부선소의 경우, 『장흥부지도』에 군기고 건물 1채가 있다. 선소가 해창과동일 장소였기 때문에 무구류를 보관하였던 군기고 주변에 해창 관련건물 4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1) 군기고 아래로는 선소의 상징구조물인 굴강이 있다.

보성군 선소는 『보성군지도』142)에 건물 3채가 있는데, 수군기·선소창·모군창 등으로 판단되며, 정박한 선박을 통해 굴강을 짐작할 수 있다. 낙안군 선소는 『낙안군지도』143)에 선소창·화약고·수군기고 등건물 3채가 있다. 건물 동쪽에 굴강으로 짐작되는 공간이 있고, 장시가설장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곡물을 선적하는 잡부, 출항을 감독하는 인원 등의 왕래가 잦았던 상당히 번화한 항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흥양현 선소는 『흥양현지도』144)에 건물 3채와 정박된 군선이 있다. 광양현선소는 『광양현지도』145)에 건물이 2~3채 그려져 있다. 건물 2채가 그려져 있는 것은 선소창과 선소진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3채가 그려져 있는 것은 명호가 없다. 후자는 순천부 선소와 같이 수군기·선소창·

<sup>139)</sup> 순천부선소에 1채의 건물이 그려져 있는 것과(『여지도』[18세기 중반 圖); 『지승』 [18세기 후반 圖]), 3~4채의 건물이 그려져 있는 고지도가 있다(『순천부지도』 [규10511]; 金井昊 編. 『전남의 옛地圖』, 122쪽).

<sup>140) 『</sup>순천부지도』(奎10511); 『光陽縣各所事例冊』 兵船色. 449쪽. 광양현은 선창모군 30명. 군기모군 60명이었다.

<sup>141) 『</sup>장흥부지도』(奎10439).

<sup>142) 『</sup>보성군지도』(奎10504).

<sup>143) 『</sup>낙안군지도』(奎10499).

<sup>144) 『</sup>흥양현지도』(奎10472).

<sup>145) 『</sup>광양현지도』(奎10500).

모군창으로 판단된다. 광양현 선소의 공공건물 명호에서 특징은 船所 鎭인데, 이 명호는 다른 선소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146] 한편 광양현 선소에는 이러한 건물 외에 굴강이 있었다. 선소창 동쪽에 군선이 정박 해 있는 모습이 그것이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 선소의 연원과 설치시기를 비롯하여 위치와 입지조건 및 운영과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문을 요약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할까 한다.

전라좌수영관할 수군진 선소는 대부분 강 수군진이 설치되었던 시기나 그 이전 즈음에 설치되었으며 그 서기는 태조대에서 중종대에 걸쳐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면 옵션소의 설치와 연원은 조선전기군사방어체제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1457년(세조 3) 때부터 국방체제의 근간이 되어 온 진관체체가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을 전후한 시기에 제승방략이란 새로운 제도로 바뀜에 따라 해양방어체제에적잖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기왕의 진관체제하에서 수군은 행정구역과 관련시키지 않고 연해에 설치된 수군진만을 묶어 진관조직으로 편제하였다. 그런데 제승방략체제하에서는 수군진만이 아닌 연해지역읍은 물론이고 主鎭의 인근 읍까지도 수군을 창설하여 수군절도사 관할 하에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읍에 읍수군이 창설되었고 읍수군이 주문할 수 있으면서도 군선을 건조 계류시킬 수 있는 장소로 선소가들어셨던 것이다.

<sup>146)</sup> 이 船所鎭이라는 명호는 선소창과 같이 건물이 명호로 표시한 것 같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이 건물의 명호인지 아니면 광양현 선소를 선소진으로 명기한 것인지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수군진 선소의 위치는 대부분이 수군진의 남쪽 성문 바로 앞에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방답진 선소와 여도진 선소의 경우 각각 서쪽 성문 밖과 북쪽 성문 밖에 위치에 있어서 독특했다. 읍선소의 위치를 보면, 순천부선소 현 여수시 신기동 일원, 장흥부선소 현 장흥군 안량면 해창리 일원, 보성군선소 현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선소마을 일원, 낙안군선소 현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진석마을, 흥양현선소 현 고흥군 도화면 덕흥리 일원, 광양현선소 현 광양면 진월리 일원 등에 위치에 있었다.

각 선소의 입지조건을 종합해보면 수군진 선소의 경우 수군진 일원에서도 가장 은폐가 잘되면서도 양항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에 선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각 읍선소는 우선 포구 입구에 위치에 있어 내륙이나 외해에서 접근성이 좋으면서, 주변 산 언저리나 섬 등이 가로막고있어 밖으로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 일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다음으로 읍 선소가 위치에 있는 곳의 지근지리에는 대부분 수군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것은 구군진과 각을 선소가 유사시에 유기적인관계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셋째, 각 선소가 위치한 곳이나 주변 가까운 곳에는 국가에서 소나무를 배양하는 선재처가 있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전라좌수영 관할 선소는 요해지이면서도 접급성이 양호하며 나아가선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두루 갖춘 곳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선소의 운영을 보면 수군진선소의 경우 수군진 최고지휘관의 책임하에 그 아래 직책인 우후나 교수 또는 감조전선군병출납군관 등이 현장책임을 맡았다. 이들의 책임하에 군선을 지휘하는 선장을 비롯하여수군들의 훈련을 담당하였다고 생각되는 기패관, 수군들의 규율이나위반사실을 적발·단속하였던 포도관, 교육을 담당하는 훈도 그리고사부·사수·포수·화포장·선직·능노군·사격군·타공·요수·정수·무상 등 다양한 직책의 인원이 활동하였다. 읍선소의 경우 전선대

장을 비롯하여 방선장·기패관·포도관·훈도·군기감관·선창감관· 사부·화포장·포수·타공·사공·무상·요수·정수·능로군 등이 포 진되어 있었다.

그런데 선소에서 활동했었던 인원은 모두 상근자는 아니었다. 우후 나 교수 또는 감조전선군병출납군관, 대장을 비롯하여 방선장·기패 관·포도관·훈도 등 필수 요원들만이 상근자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인원이 활동하였던 수군진 선소는 수군진 관할이었다. 따라 서 수군진 선소의 업무와 운영은 모두 각 수군진에서 담당하였고 그 최 고 책임자는 수군진의 지휘관이었다. 반면 읍선소는 각 읍 관할이었다.



때문에 그 운영 또한 원칙적으로 읍 수령의 권한이자 임무였다. 그런데 읍수군에서 군사와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서 예외였다. 이 군사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의 수령보다는 전라좌수영의 전라좌수사 권한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운영되었던 각 수군진선소와 읍선소에는 船倉·舟汁庫·水軍器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이 상당수 존재했었다.

선소 연구에 대한 향후 과제는 우선 선소에 대한 문제를 정치·사회·군사적 변화와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선소와 관련된 연구는 인접국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향후 선소연구는 그러한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적용할필요가 있다. 셋째,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고고학이나 문화콘텐츠학과 연계하여 고찰하고 그것의 활용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이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소관련 유적지에 대한 조사 및 보존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연급하고 싶다. 현재 선소 유적은 개발 등으로 인해 그 흔적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선소 유적지 조사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조사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사 결과는 지역별·시기별·水營별 등으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고투고일: 2017. 10. 7, 심시수정일: 2017. 11. 17, 게재확정일: 2017. 11. 21.]

주제어: 전라좌수영, 선소, 조선시대, 군선, 임진왜란, 진관체제, 제승방략

## 〈참고문헌〉

#### 문헌자료

『광양현읍지』, 『광양현지도』, 『난중일기』, 『대동지지』, 『만기요람』, 『명종실록』, 『보성군읍지』, 『비변사등록』, 『선조실록』, 『성종실록』, 『세종실록』, 『숙종실록』, 『순천방답진지도』, 『순천부읍지』, 『승정원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신증승평지』, 『신증흥양지』, 『여지도서』, 『이충무공전서』, 『일성록』, 『장흥부지도』, 『장흥읍지』, 『장흥부회령진지도』, 『전라도보성군지도』, 『전라좌도흥양현지도』, 『정조실록』, 『태조실록』, 『태종실록』, 『화남읍지』, 『호남진지』, 『호좌수영지』, 『흥양하고, 『흥양현역도진지도』, 『흥양현박포진지도』, 『흥양현사도진지도』, 『흥양현역도진지도』,

#### 저 서

姜萬吉, 『李朝造船史』, 『韓國文化史大系』 II,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 구소, 1968

金在瑾、『朝鮮王朝軍船研究』、 서울:韓國文化研究所、1976

金在瑾,『韓國船舶史研究』, 서울:서울大學校出版部, 1984

金在瑾、『우리 배의 歴史』、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1991

金在瑾,『續韓國船舶史研究』, 서울:서울大學校出版部, 1994

社團法人麗川文化院,『麗川市鄕土文化資料集』, 여수: 진남문화인쇄사, 1993

#### 논 문

- 金鉉丘, "조선후기 造船業과 造船術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81 (1998):239
- 邊東明, "朝鮮特代 突山島 防踏鎭의 설치와 그 구조", 『韓國史學報』 27(2007):18-19 http://uci.or.kr/G704-000690.2007..27.009
- 邊東明, "조선시대의 突山鎭과 古突山鎭", 『歷史學報』198(2008): 6-9 http://uci.kci.go.kr/G704-000356.2008..198.004
- 송은일,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의 軍船 木材 관리와 조달」" 『海洋文化研究』 4(2010):136
- 송은일, "조선전기 고흥지역 水軍鎭외 설치와 水軍의 동향", 『歷史學研』 65(2016):47-48 http://uci.kci.go.ku/G704-001257.2016..64.001
- 許善道. "制勝方略 研究(下)". 『震檀學報』 37(1974):16

<Abstract>

A Study on 'Seonso', which means the place for building warships, within the Jurisdiction of JeollaJwasuyeong in the Joseon Era

Song, Eun-Il

The seenso in naval post within the jurisdiction of Jeolla Jwasuyeong were mostly established when or before each navel post was set up. That is, they were mostly established between the reign of King Taejo and King Jungjong. The installation and origin of Eup Seonso were deeply connected to the changing military defense system of Joseon during the former half of its history. The Jingwan system, which had been the basis of national defense system since 1457년(thir year of King Sejo's rule), was replaced with the new system of Jeseungbeng around Eulmyowaebyeon (tenth year of King Myeongjong's rule), which brought considerable changes to the maritime defense system. The naval forces grouped together only the naval posts along the coast and organized them into Jingwan under the old Jingwan system, connecting them to no administrative districts. Under the system of Jeseungbangyrak, however, they built the naval forces in the Eups along the coast and even near Jujin as well as the naval posts and put them under the jurisdiction of naval forces Jeoldosa. As a result, Eupsugun was created in each Eup, and Seonso were established at places where the Eupsugun could be stationed and warships could be built and moored.

Most of naval post Seonso were located right in front of the south gates of naval posts with two exceptions: Bangdapjin and Yeodojin Seonso lied outside the south and north gates, respectively, thus holding a unique position. Eup Seonsos were scattered around the region with Suncheonbu Seonso in Shingi-dong of current Yeosu City, Jangheungbu Seonso in Haechang-ri, Anryang-myeon of current Jangheung-kun, Boseonggun

Seonso in Seonso Village, Obong-ri, Deukryang-myeon of current Boseong-kun, Nakamgun Seonso in Jinseok Village, Jangyang-ri, Beolgyo-eup of current Boseong-kun, Heungyanghyeon Seonso in Deokheung-ri, Dohwa-myeon of current Goheung-kun, and Gwangjanghyeon Seonso in Jinwol-ri, Jinwol-myeon of current Gwangyang-kun.

Each Seonso was located in a point of strategic importance not exposed to the distant sea or outside

As for the operation of Seonseo, the supreme commander of naval post was in charge of naval post Seonso with his subordinates including Uhu. Gyosu, and Gamjojeonseonchulnapgungwan taking the field responsibilities. Under their supervision, a good number of people were active at the Seonsos. Eup Seonsos were taken care of by the captain that was followed by Bangseonjang, Gipaegwan, Podogwan, Hundo, Gungigamgwan, Seonchanggamgwan, Sabu, Hwapojang, Post, Tagong, Sagong, Musang, Yosu, Jeongsu, and Neungrogus, A.

Not all of them were regular employees since only the essential members including Bangseonjang, Gipaegwan, Podogwan, and Hundo as well as the captain were regular employees.

Eup Seonso where those members were active were under the jurisdiction of concerned Eups, which means that their operation was in principle the right and duty of Eup heads. Each Eup took care of a lot of work and covered all the aspects of operation with the exception of military affairs. which were under the authority of Jeolla Jwasusa of Jeolla Jwasuyeong rather than the Eup heads.

There were many public facilities including Seonchang, Jujeupgo, and Sugungi at each of those naval post Seonsos and Eup Seonso that were operated in those ways.

Keywords: JeollaJwasuyeong, Seonso, Joseon dynasty, warship, Japaness Invasion of Korea in 1592, Jingwan system(Kind of homeland defending system), Jeseungbangyrak(Kind of mobilization system)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361–388 https://doi.org/10.29212/mh.2017..105.36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고려초기의 영토의식과 국경 분쟁

신안식\*

- 1. 머리말
- 2. 영토의식과 성곽 축조
- 3. 국경 분쟁과 '강동 6주'가. 1차 여요전쟁과 국경 분쟁나 '강동 6주'
- 4 맺음말

### 1. 머리말

고려전기에는 국도 개경 이북의 양계(兩界) 지역에 대한 성곽 축조가 꾸준하게 이루어졌다.<sup>1)</sup> 성곽 축조의 목적은 양계 지역의 군사적 운용

<sup>\*</sup>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sup>1)</sup> 고려전기 북방지역의 성곽 축조에 주목한 연구성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尹武炳, 「高麗北界地理考(上)」, 「歷史學報』4, 1953; 尹武炳, 「高麗北界地理考(下)」, 「歷史學報』5, 1953; 李基白, 「高麗 太祖 時의 鎭에 대하여」, 「歷史學報』10, 1958 (『高麗兵制史研究」—潮閣, 1968, 재수록); 李基白, 「高麗의 北進政策과 鎭城」, 「東洋學」7, 1977; 姜性文, 「高麗初期의 北界開拓에 대한 研究」, 『白山學報』27, 1983; 김명철, 「고려시기 성의 위치와 년대에 대한 고증」, 『조선고고연구』, 과학백 과사전출판사, 1992; 李在範, 「麗遼戰爭과 高麗의 防禦體系」, 『韓國軍事史研究』

뿐만 아니라 고려의 국경(國境)<sup>2)</sup> 즉, 왕조적 영토의식을 구현해 나가는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 국경은 국가 대 국가의 영토 주권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경계선이다. 고려의 국경 관념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에는 관방(關防) 설치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1033년(덕종2)에 축조된 '고려장성(高麗長城)'이었다.<sup>3)</sup> 이는 고려초기부터<sup>4)</sup> 형성된 영토의식의 실천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숙종대 이후 동북 지역의 영토를 확대하는 데에도 작용하였다. 따라서 고려의 국경 획정은 개국이후 압록강(鴨綠江)을 사이에 둔 북방정책과 치열한 대외적 투쟁의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 건국 이후 태조 왕건은 신라와 후백제를 무너트리며 고려왕조의 영역적 기틀을 세웠지만 북방의 국경을 획정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契丹)의 강성과 여진(女真)의 존재가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후백제와의 오랜 전투로 있하여 북방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도 작용하였다. 고려왕조가 북방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318년(태조 원년) 태조 왕건이 즉위하면서 평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5) 표방하면서부터였고, 919년(태조 2년)에 개경 정도(定都)가 이루어지면서 거의 동시에 서경(西京)과 더불어

<sup>3, 1999;</sup> 申安湜, 「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歷史教育」 89, 2004; 申安湜, 「고려시대 兩界의 성곽과 그 특징」, 「軍史」 66, 2008.

<sup>2) 「</sup>고려사」에서 보면, '國境'은 나라의 地境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였다. 후삼국 통일이전 고려왕조의 군사적인 행동 방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후백제 와의 대결을 위한 남방전선이고, 둘째는 북방 개척을 위한 북방전선이었다(李基白,「高麗 太祖 時의 鎭」,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32쪽). 때문에 고려초기의 국경인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었지만, 이 글에서의 '國境'은 주로 북방 민족과의 '영토 경계'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sup>3) 『</sup>고려사』 권5. 세가5. 덕종 2년 8월 무오. "命平章事柳韶 創置北境關城"

<sup>4)</sup> 이 글에서 사용하는 '고려초기'는 고려왕조의 지배체제가 정비되는 성종대(981~997)까지로 설정하였다. 특히 993년(성종 12) 고려와 거란의 1차 전쟁은 고려왕조의 북방 영토의식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sup>5) 『</sup>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원년 9월 병신, "論群臣日 平壤古都荒廢雖久 基 址尚存 而荆棘滋茂 蕃人遊獵於其閒因 而侵掠邊邑 爲害大矣 宜徙民實之 以固藩屏 爲百世之利 遂爲大都護 遺堂弟式廉 廣評侍郎列評 守之"

양경제(兩京制)가 실시된 때로부터가 아닌가 한다. 6) 이것은 또한 고려왕조의 적극적인 북방 영토의식의 표출로도 이해할 수 있다. 고려초기의 국경 획정 과정에는 거란과의 마찰이 불가피하였다. 특히 993년(성종 12) 윤10월, 서희(徐熙)와 거란 장수 소손녕(蕭遜寧)과의 강화회담은7)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서북 지역의 국경이 획정되는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고려 국경에 대한 연구 성과는 꾸준하게 이루어진 편이었고,8) 중국의 역사왜곡에 맞선 대외관계사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려전기의 북방 영토 경계에 있어서 압록강 유역의 실효적 지배가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관심이9) 여전히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려초기의 국경 획정 과정을 우선왕조적 북방 영토의식의 전개과정과 그 구현으로서의 북방 성곽 축조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거분의 경기 취임 때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고려와 기관의 국경 분쟁과 '강동 6주(江東六州)'의 실체를 통해 고려초기 국경 확정의 의의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10)

<sup>6)</sup> 신안식, 「고려시대의 三京과 國都」, 『한국중세사연구』 39, 2014, 7~11쪽.

<sup>7) 『</sup>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윤10월.

<sup>8)</sup> 고려전기 영토의식에 주목한 연구성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池內宏,「高麗成宗朝に於ける女眞及び契丹との關係」,「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5, 1918; 尹武炳,「高麗北界地理考(上)」,「歷史學報」4, 1953; 尹武炳,「高麗北界地理考(下)」,「歷史學報」5, 1953; 金九鎮,「公嶮鎮과 先春續碑」,「白山學報」21, 1976; 李基東,「新羅下代의 浿江鎮一高麗王朝의 成立과 關聯하여」,「韓國學報」6, 1976; 李基白,「高麗의 北進政策과 鎭城」,「東洋學」7, 1977; 金光洙、「高麗前期 對女眞交涉과 北方開拓問題」,「東洋學」7, 1977; 姜性文,「高麗前期의 北界開拓에 대한研究」,「白山學報」27, 1983; 方東仁,「韓國의 國境劃定研究」,一潮閣, 1997; 申安湜、「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歷史教育」89, 2004; 신안식,「高麗前期의 兩界制와 '邊境'」,「한국중세사연구」18, 2005; 김순자,「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북방사논총」11, 2006; 李美智,「고려 성종대 地界劃定의성립과 그 외교적 의미」,「한국중세사연구」24, 2008; 신안식,「고려전기의 북방영토의식과 이민족 인식」,「한국중세사연구」50, 2017.

<sup>9)</sup> 김순자, 앞의 논문, 2006; 李美智, 앞의 논문, 2008.

<sup>10)</sup> 필자는 최근에 고려왕조의 북방 영토의식에 관한 논문을 집필한 적이 있었는데 (「고려전기의 북방 영토의식과 이민족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이는

## 2. 영토의식과 성곽 축조

고려초기의 국경 획정 과정은 개국이후부터 꾸준하게 형성된 왕조적 북방 영토의식이 크게 좌우하였고, 태조대의 북방지역에 대한 잦은 순행(巡幸)에서도<sup>11)</sup> 찾아볼 수 있다. 이를 고려후기의 이제현은 "우리 태조께서는 왕위에 오른 후에 김부(金傳)가 아직 귀순하지 않았고, 견훤이 포로가 되지 않았는데도 자주 서도(西都)에 행차하여 친히 북방의 변경에 순수하였다. 그 의도 또한 동명왕(東明王)의 옛 영토를 내 집의 대대로 전해지는 전통[靑氈]으로 알아 반드시 취하여 차지하려 하였으니, 어찌 다만 계림(鷄林)을 취하고 압록강만을 칠[操鷄時鴨] 뿐이었겠는가?"라고<sup>12)</sup> 하였다. 이런 점은 고려왕조의 고구려 역사계승의식을 통한 보다 확대된 북방 영토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사실들은 『고려사』지리지에도 반영되어<sup>13)</sup> 었다.

고려전기의 영토의식을 통한 고려 '天下觀'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고려초기의 영토의식을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 글은 그 보완적 측면이 있다.

11)	태주대의	북방지역에	대하	巡幸	기시륵	저리해	보며	다으라 2	가다

	北界	西京			
3년	3년 是歳 王 巡北界而還		4년 10월	壬申 幸西京	史
11년	1년 是歲 巡幸北界		5년	幸西京 新置官府員吏 始築在城	史
15년 7월	辛卯 親征一牟山城 遣正胤武 巡北邊	史	8년 3월	幸西京	史
				癸未 幸西京 親行齋祭 巡歷州鎮	史
* 契丹滅渤海(태조 8년 12월) → 節			12년 4월	幸西京 歷巡州鎮	史
			13년 5월	壬辰 幸西京	史
* 🖽 🗕	由 _ 『그러나 - 러1 - H7나 • 2 - H조1 • 2		13년 12월	庚寅 幸西京 創置學校	史
* 史 → 『고려사』 권1, 세가1·2, 태조1·2 節 →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4년 11월	辛亥 幸西京 親行齋祭 歷巡州鎭	史
			17년 정월	甲辰 幸西京 歷巡北鎮	史
			18년 9월	甲午 幸西京 歴巡黃・海州	史

<sup>12) 「</sup>고려사절요」 권1, 태조 26년 5월, "我太祖即位之後 金傅未賓 甄萱未虜 而屢幸西 都 親巡北鄙 其意亦以東明舊壤爲吾家青氈 必席卷而有之 豈止操雞摶鴨而已哉"

<sup>13) 「</sup>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序, "我海東三面阻海 — 隅連陸 輻員之廣 幾於萬里 高麗太祖興於高句麗之地 降羅滅濟 定都開京 三韓之地歸于一統… 其四履西北 自 唐以來 以鴨綠爲限 而東北則以先春嶺爲界 盖西北所至 不及高句麗 而東北過之"

고려초기의 북방 영토의식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무엇보다 압록강 연안이었다. 압록강 연안이 고려의 북방 영토의식에 포괄된 것은 관념적인 것과 실제적인 지배의 의미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압록강 연안이 고려의 실제적인 지배권으로 들어온 것은 성종 12년 거란의 1차 침략 및 이로 인한 서희와 거란 장수 소손녕과의 강화회담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가—① 우리나라의 군현(郡縣)은 도적(圖籍)에 나타난 것이 대략만 있고 자세하지 못하여 상고할 수 없었다. [후삼국] 통일 이후에 비로소 고려도(高麗圖)가 생겼으나 누가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산맥을 살펴보면, 백두(白頭로 부터 구불구불 내려오다가 철령(鐵嶺)에 이르러 별안간 솟아올라 풍악(楓岳)이 되었고, 거기서 중중첩첩하여 태백산(太白山)·소백산(小伯山)·죽령(竹嶺)·계립(鷄立)·집하령(河嶺)·주양산(趨陽山)이 되었다. 중대(中臺)는 운봉(雲峰)으로 뻗쳤는데 '사리(世野)와 지축(地軸)이 여기에 이르러 다시 바다를 지나 남쪽으로 '자치 않고, 청숙한 기운이 서려 뭉쳤기 때문에 산이 지극히 높아서 다른 산은 이만큼 크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등의 서쪽으로 흐르는 물길은 살수(薩水)·패강(頂江)·벽란(碧瀾)·임 진(臨津)·한강(漢江)·웅진(熊津)인데 모두 서해로 들어가고, 그 등마루 동쪽으로 흐르는 물길 중에서 기야진(伽耶津)만이 남쪽으로 흘러갈 뿐이다. 원기(元氣)가 회하여 뭉치고, 산이 끝나면 물길이 앞을 둘렀으니, 그 풍기(風氣)의 구분된 지역과 군현의 경계를 이 그림만 들추면 모두 볼 수 있다.14

이 내용은 1396년(조선 태조 5)에 이첨(李詹)이 고려초기에 그려진 '고려 지도[高麗圖]'를 본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이 지도의 존재유무 혹은 사실유무를 지금으로선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통해 그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려초기 영토의 주축이 백두산으로부터 설정된 것은 왕조적 영토의식의 정통성과 그 이해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등의 서쪽으로 흐르는 물길은 살수·패강·벽란·임진·한강·웅진인데 모두 서해로 들어가고, 그 등마루 동쪽으로 흐르는 물길 중에서 가야진만이 남쪽으로 흘러갈 뿐이다."라고 하여, 큰 강줄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려 서북 지역의 중요한 기준이었던 압록강이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압록강에 대한 문제는 고려 성립으로부터 대외적 마찰 특히, 거란과의 영토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기준이었다. 따라서 위의 고려 지도는 광종대 청천강 이북 지역에 성곽이 구축되기 이전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에 비해 압록강을 포함한 고려의 북방 영토의식을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가—② 먼저 닭鷄]을 잡고 뒤에 오려 襲 글 것이라고 한 것은 왕 시중[태조왕겐]이 나라를 얻은 뒤에 만져 계림(사라)을 얻고 뒤에 압록강을 되찾는다 는 뜻이다. 15)
  - ③ 우리나라가 삼한(三韓)을 통일한 이래로 47년인데, 병사들은 여전히 편안히 잠들지 못하고 군량은 아직도 소모됨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서북쪽으로 오랑캐들과 이웃하고 있어서 방어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상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헐탄(馬歇難)을 경계로 삼은 것은 태조의 뜻이었으며, 압록강[鴨江] 가의 석성(石城)을 경계로 삼은 것은 대조(大朝)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간청하건대, 요충지를 선택하셔서 경계를 정하시고,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는 병사들을 선발하셔서 국경을 지키는 데에 충당하십시오. 또 그 중에서 2~3명의 편장(偏將)을 뽑아서 그들을 통솔하게 하시면, 곧 중앙의 군시들은 다시 수자리를 서는 노고를 면할 것이며, 꼴과 군량을 급히 실어 나르는 비용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16)

<sup>15) 『</sup>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무편년, "先操雞 後搏鴨者 王侍中 御國之後 先得雞林 後收鴨綠之意也"

<sup>16) 『</sup>고려사절요』 권2, 성종 원년 6월, "我國家統三以來四十七年 士卒未得安枕 糧餉 未免糜費者 以西北鄰於戎状而防戍之所多也 願聖上以此爲念 以馬歇灘爲界 太祖之 志也 鴨江邊石城爲界 大朝之所定也 乞擇要害 以定疆域 選土人能射御者 充其防戍 又選其中二三偏將 以統領之 則京軍免更戍之勞 芻粟省飛輓之費"

④ 서희가 국서(國書)를 받들고 거란의 군영으로 가서 소손녕과 더불어 동등한 예로 대하면서 조금도 굽힘이 없었다. 소손녕이 마음속으로 기이하게 여기면서 서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신라(新羅)의 땅에서 일어났으니, 고구려의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도 너희들이 침범하여 갉아먹고 있다..."라고 하였다. 서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이니, 그렇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高麗)라 하고 평양(平壤)에 도읍을 정한 것입니다. 토지의 경계를 논하자고 한다면, 상국(上國, 거란)의 동경(東京)도 모두 우리의 영역에 있는 것이 되는데, 어찌 침식하였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또 압록강(鴨綠江) 안팎도 역시 우리의 영역 안쪽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를 도적질하여 기거하면서 완악하고 교활하게 변덕을 부리므로 길이 막혀 통하지 못함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심하니, 조빙이 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17)

사료 가—②의 내용은 고려의 영토의식이 확립되기 이전의 사실을 설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8) 이에 의하면, 고려의 영토가 신라와 구고구려의 영역까지를 포괄하였고, 불방인 영역적 경계지역으로 압록강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른 고려의 왕조적 북방 영토의식의 출발이자 구현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였고, 이후 국경 분쟁에서 고려왕조의 명분이 되었다. 사료 가—③에서는 982년(성종 원년) 최승로에 의해 제시된 '시무(時務) 28조'의 일부로서 고려의 북방 경계지역에 대한 견해가제시되어 있다. 그 근거 지역으로 마헐탄(馬歇灘)과 석성(石城)이 거론된 것은 이 두 지역의 위치 여부가 고려초기의 국경을 이해할 수 있는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sup>17) 「</sup>고려사결요」 권2, 성종 12년 윤10월, "熙奉國書 如丹營 與遜寧抗禮 不小屈 遜寧 心異之 語熙日 汝國興新羅地 高句麗之地 我所有也 而汝侵蝕之... 熙日 非也 我國 即高勾麗之舊也 故號高麗 都平壤 若論地界 上國之東京 皆在我境 何得謂之侵蝕乎且鴨綠江內外 亦我境內 今 女真盜據其間 頑黠變詐 道途梗澁 甚於涉海 朝聘之不 通女真之故也..."

<sup>18)</sup> 이 설화는 '王昌瑾의 고사'이며 그 자체가 태조 왕건의 성장 및 차후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내용 또한 당대보다는 후대인들의 인식의 소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 설화에서 나타나는 역사인식은 고 려시대 전시기에 걸쳐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헐탄의 위치는 일찍이 압록강으로 비정되었다가 이후 청천강일 것이라는 견해들이 제시되었고,19) 후자의 견해가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형편이다. 그런데 태조대의 성곽분포가 청천강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마헐탄과 청천강을 연관시킨<sup>20)</sup>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가—②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조대의 국경 인식이 청천강으로 고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고려초기의 국경 인식에서도 압록강이 중요한 지역적 근거로 상정되고 있었다.

석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위원진(威遠鎭)은 현종 20년에 유소를 보내 옛 석성[古石城]을 수리하여 이를 설치하였고, 진(鎭)은 흥화진(興化鎭)의 서북에 있다."라는<sup>21)</sup> 것과 운중도 역참(雲中道 站驛) 중에 석성 [평로진(平虜鎭)]이<sup>22)</sup> 확인되는 등의 사례가 있다. 평로진은 북계 지역이긴 하지만 동북쪽에 가까운 지역이었고, 위원진은 압록강 유역의 의주(義州)와 가까운 지역이었다. 막물 석성이 고려와 거란의 영역적경계였음을 고려하면 위원진이 어나었을까 한다.<sup>23)</sup>

<sup>19)</sup> 李基白 등, 앞의 책, 1968, 79쪽. 즉, 馬歇灘을 압록강 중류로 비정한 것은 池內 宏(앞의 논문, 1918, 8~9쪽) · 金庠基(『高麗時代史』, 서울대출판부, 1985, 65쪽) · 朴賢緒(「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1974, 258쪽) 등이고, 청천강으로 비정한 것은 尹武炳(앞의 논문, 1953, 48~49쪽) · 李丙燾(「韓國史」 中世篇, 震檀學會, 1961, 58쪽) · 姜性文(앞의 논문, 1983, 35~37쪽) · 서성호(「고려 태조대 대(對)거란 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 34, 1999, 36쪽) 등이다.

<sup>20)</sup> 尹武炳, 앞의 논문, 1953, 48~49쪽.

<sup>21) 『</sup>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北界 安北大都護府 寧州, 威遠鎮, "顯宗二十年 遣柳 韶 修古石城 置之 鎮在興化鎮西北"

<sup>22) 「</sup>고려사」 권82, 지36, 博2, 站驛, 雲中道, "掌四十三 長壽【西京】通德·善田·金川【慈州】長梨·長歡·豐歲【連州】蘇民·新定·通路【鐵州】 圓林【延州】永安【青塞】石城·櫻谷·平寧【平蘆】寬洞【成州】密田·咸德【順州】安德·安洞·德林【博州】牽牛·淄潭·寬川【寧遠】臨洞【樹德】清澗【陽嵓】新豐【撫州】雲谷·東山·泰來【孟州】寬化·石牛【渭州】葦溪·安泰【泰州】問平·沙川·豐川【延州】玉兒·雲畔【雲州】玉關·梓田【昌州】長林【成州】興德【殷州】"

<sup>23)</sup> 압록강가의 石城이 주목받는 이유는 '大朝'가 누구를 지칭한 것이냐는 문제인데, 이는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고려의 북방 영토의식 형성에 시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이를 중국(혹은 거란)·고려 경종(혹은 성종) 등으로 보기도 한다(李基白 등,『崔承老上書文研究』, 一潮閣, 1993, 79~80쪽). 大朝를 어느

한편 사료 가—③에서 마혈탄 혹은 석성이 거란의 남방 경계선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마혈탄과 압록강가의 석성'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마혈탄과 압록강이 전혀 다른 명칭이었는지도 의문이다. <sup>24)</sup> 이런 문제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고려초기 거란과의 관계에서 여진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최승로의주장은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고려와 거란의 국경 인식에서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었던 지역이라는 점 등이다. 사료 가—④의 내용이그러한 실례가 될 것이다. 즉 거란의 1차 침략에 대한 고려의 대응 과정에서 두 나라의 영토의식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도 고려가 구고구려의 영역을 계승했음을 강조하였고, 그 중심적인 축을 압록강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압록강을 기준으로 한 국경 개념을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로 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은 고려가 고구려 역사계승을 강조하면 할수록, 고려의 영역을 언제들지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나라를 압박할 정도의 강력한 거란은 고려의 국경 관념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점들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양국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에서 보면, 고려초기에는 서북면 지역에 대한 적

쪽으로 인식하든 간에 石城이 고려 국경의 근거였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고려사」 등에서 발견되는 大朝라는 용어는 事大의 대상을 주로 지칭한 것이었고, 石城이라는 용어 역시 고려의 다른 지명 혹은 성곽 명칭과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大朝를 거란으로 추정하면 성종 즉위 무렵부터 거란을 大朝라고 할 수 있는 정세였는지가 문제이겠고, 또한 태조대로부터 이루어진 거란에 대한 인식 및 송나라와의 관계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고려성종'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하였다(「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歷史教育」 89, 2004, 77쪽). '大朝'를 자신의 나라로 높여 부른 사례에는 성종 12년 윤 10월의 소손녕이 자신의 나라 거란을 '大朝'라고 한 것이 있다(「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유10월. "遜寧聲言 大朝 旣已奄有高句麗舊地").

<sup>24)</sup> 압록강은 '마자수(馬訾水)'라고도(『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북계, 義州) 불려 마헐탄과 비슷한 용어로 파악되고, 청천강은 주로 '살수(薩水)'로(『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安北大都護府) 불려 왔기 때문에 압록강과는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극적인 국경 인식에 비해, 동북면 지역의 국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특히『고려사』지리지 서문에서는 "서북은 당(唐) 이래로 압록(鴨綠)을 한계로 삼았고, 동북은 선춘령(先春嶺)을 경계로 삼았다. 무릇 서북은 그 이르는 곳이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은 그것을 넘어섰다."라고<sup>25)</sup> 하여, 서북 국경의 접점이 압록 강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동북 국경은 1108년(예종 3) 윤관의 9성 건설<sup>26)</sup> 이후로 설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동북 국경에 대한 문제는 예종대 윤관의 여진정벌 이전까지는 서북 국경에 비해 적극적으로 거론되지 못했다. 이러한 고려전기의 영토 문제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그역사적 대강을 이해할 수 있다.

가-⑤ 고려는, 남쪽은 요해(遼南)로 막히고 서쪽은 요수(遼水)와 맞닿았고 북쪽은 옛 거란 땅과 연속되고 동쪽을 금 라리의 맞닿았다... 옛적에는 봉경(封境)이 동서는 2천여 리, 남북은 1,500여 리었는데(藍封境 東西二千餘里 南北一千五百餘里), 자금은 이미 상대와 백재를 합병하여 동북쪽은 조금 넓어졌지만 그 서북쪽은 거란과 연속되었다. 옛적에는 대요(大遼)와 경계를 했었는데 [昔以大遼爲界], 뒤에 대요의 침략을 받게 되어 내원성(來遠城)을 쌓아요새로 삼았다. 그러나 이것은 압록강을 믿고 요새로 한 것이다... 고려에서는 이 강물이 가장 크다... 이로써 전고에는 일찍이 이 강을 믿어 요새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래서 고려가 물러 들어가 압록강의 동쪽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27)

이 내용은 1123년(인종 원년)에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긍의 『고려도경』 중에서 고려의 강역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고려의

<sup>25) 『</sup>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序, "西北 自唐以來 以鴨綠爲限 而東北則以先春嶺爲 界 盖西北所至不及高句麗 而東北過之"

<sup>26) 『</sup>고려사』 권12. 세가12. 예종1. 예종 3년 3월.

<sup>27) 『</sup>고려도경』 권3, 성읍, 封境, "高麗 南隔遼海 西距遼水 北接契丹舊地 東距大金 ··· 舊封境 東西二千餘里 南北一千五百餘里 今旣幷新羅百濟 東北稍廣 其西北與 契丹接連 昔以大遼爲界 後爲所侵迫 乃築來遠城 以爲阻固 然亦恃鴨綠以爲險也 ··· 高麗之中 此水最大 ··· 以此知前古未嘗恃此水以爲固 此高麗所以退保鴨綠之東歟"

서북 지역에 대한 것은 자세한 반면, 동북 지역에 대한 것은 그렇지가 못하였다. 28) 그런데 동서의 길이가 2,000여 리라는 것은 '고려장성(高麗長城)'이 1,000여 리였다는 29) 것과 차이가 난다. 거리상으로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동북 국경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윤관의 9성 지역 혹은 공험진의 선춘령까지를 아우른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 또한 앞서 『고려사』지리지 서문에서 "그 사방의 경계가 서북은당나라 이후 압록강을 한계로 하였고, 동북은 선춘령으로 경계를 삼으니, 대체로 서북은 고구려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동북은 이에서 지났다."라는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의 영토의식은 1101년(숙종 6) 고려의 지형을 참조하여 만들었다는 화폐 '은병(銀瓶)',30) 1107년(의종 2)에 발견된 '고려지도 (高麗地圖)',31) 공민왕 때의 지도,32) 그리고 앞서 조선초기 이첨이 보았다는 '고려도(高麗圖)'33) 등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것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고, 나면 자려초기부터 꾸준하게 구축한 양계 지역의 성곽 축조를 통해 그 대장을 파악할 수 있다

<sup>28)</sup> 서궁이 고려의 지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자세한 고려 지도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고려는 遼東에 있어서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와서 바칠 수 있는 候甸近服 같지 않기 때문에 圖籍의 작성은 더욱 어렵다."라고(『고려도경』, 서문) 고충을 털어놓은 것에서 확인할수 있다.

<sup>29) 『</sup>고려사절요』 권4, 덕종 2년 8월, "平章事柳韶 創置北境關防 起自西海濱古國內城 界鴨綠江入海處 東跨威遠興化靜州寧海寧德寧朔雲州安水清塞平虜寧遠定戎孟 州朔州等十三城 抵耀德靜邊和州等三城 東傅于海 延袤千餘里 以石為城 高厚各二十五尺"

<sup>30) 『</sup>고려사』 권79, 지33, 식화2, 화폐, 숙종 6년 4월, "是年 亦用銀瓶爲貨 其制 以銀 一斤爲之 像本國地形 俗名闊口"

<sup>31) 『</sup>고려사』 권17, 세가17, 의종1, 의종 2년 10월 정묘, "以其書 及柳公植家藏高麗地 圖 附宋商彭寅 以獻檜"

<sup>32) 『</sup>고려사』 권114, 열전27, 諸臣, 羅興儒傳, "撰中原及本國地圖 敍開闢以來帝王興廢疆理離合之迹 曰好古博雅君子覽之 胸臆閒一天地也 遂進于王 王見而嘉之"

<sup>33) 『</sup>동문선』 권92, 序, 「三國圖後序(李詹)」, "本朝那縣 載於圖籍者 略而不詳 無以考驗也 統合以後 始有高麗圖 未知出於誰手也"

(표 1)<sup>34)</sup> 고려전기 양계 지역의 성곽 축조

역도	±		0.7.5	
시기	흥교도	흥화도	운중도	삭방도
태조대 (918 <sub>-</sub> 943)	龍岡縣 咸從縣 鎮國城 安定鎮 永淸鎮 安北府 肅州 平原郡		雪南縣(撫州) 成州 安水鎮(連州) 興德鎮 朝楊冀連州) 馬山 連州城 順州 陽岳鎮 大安州(慈州) 殷州	
정종대 (945 <sub>~</sub> 949)	德昌鎮(博州) 通德鎮 (肅州) 博州		鐵甕(猛州) 德城鎮(渭州)	
광종대 (949 ~ 975)		濕忍(嘉州) 寧朔鎮 泰州 信都 嘉州 安戎鎮	威比鎮雪州 撫州 安朔鎮 (延州) 樂安郡(渭州) 雲州	長平鎖 和州 高州 博平鎖
경종대 (975 ~ 981)			淸塞鎭	
성종대 (981 ~ 997)		表興鎮歸化鎮郭州龜州安義鎮 愛仏鎮 靈州 宣州	樹憲績猛州	隘守鎖 文州
목종대 (997 ~ 1009)		德州 嘉州 光尺縣 寡州	平臺鎖 威化鎮	永豊鎮 鎭冥縣 金壤縣 龍津鎮 翼嶺縣 登州
현종대 (1009 1031)		德州 龍州 鐵州 安義鎮 永平鎮 威遠鎮 定戎鎮 麟州 寧德鎮	淸塞鎭	長州 金選縣 雲林鎮 宜州 耀德鎮 霜陰縣 顯德鎮 龍津鎭城 高州
덕종대 (1031 1034)		朔州 靜州鎮		
덕종 2년 (고려장성)		威遠鎮 興化鎮 静州 寧海 ◆ 寧德鎮 寧朔鎮 定戎鎮 朔州	雲州 安水鎮 淸塞鎮 平虜鎮 寧遠鎮 孟州	耀德鎮 靜邊鎮 和州
정종대 (1034 1046)			寧遠鎮 平虜鎮	長州 定州 元興鎮永興鎮
문종대 (1046 ~ 1083)		寧朔鎮 龍州	<b>渭州</b>	德州 元興鎮

<sup>34)</sup> 이 표는 『고려사』 권82, 지36, 병2, 城堡條와 『고려사』 권83, 지37, 병3, 주현군, 北界·東界條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는 추정하기 어려운 것을 표시한 것이다.

《표 1〉은 북계·동계에 구축된 성곽들을 흥교도(興郊道)·흥화도(興化道)·운중도(雲中道)·삭방도(朔方道) 지역 등 역도(驛道)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35) 태조대 즉, 고려 성립기에는 청천강을 중심으로 한 흥교도와 운중도 지역에 성곽들이 주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흥화도 지역의 성곽이 축조되기 이전까지는 운중도와 청천강 이남의 흥교도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평안북도를 에워싸는 형세로 성곽을 축조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광종대의 흥화도 지역이 개척되면서부터 흥화도 — 운중도 — 삭방도 지역으로 이어지는 성곽 구축이 진전되었고, 성종대 이후 거란과의 3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르면서 양계 지역의 성곽들이 좀 더 공고하게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전기의 성곽 구축이 덕종 2년 '고려장성' 축조의36) 결실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양계의 성곽체제는 지방제도의 정비과정을 통한 양계제의 안정과<sup>37)</sup> 덕종 2년 '고려장성'의 축조로 일타 청라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장성'의 축조는 대외적으로 북방 영토의성의 균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고려의 북방 지역이 선의 개념으로 형성될 수 있는<sup>38)</sup>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고려장성'의 구축은 대외적 경계선을 의미하기 이전에 고려와 이민족(異民族)을 구분하는 천하관(天下觀)의 상징성을<sup>39)</sup> 의미하고 있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는 곧 1107년(예종 2) 여진을 정벌한 지역에 9성을 구축하여<sup>40)</sup> 동북면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토대였던 것이다. 따라서 양계의 성곽구축은 대내외적으로 고려의 국방력과 왕조의 위상을 확고히할 수 있는 상징성을 담고 있었을 뿐만 아

<sup>35)</sup> 북계·동계에 구축된 성곽들을 흥교도·흥화도·운중도·삭방도의 驛道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은 전적으로 양계 성곽체제의 지리적 위치를 쉽게 설명해 보려는 필자의 편리성에 따른 것이다.

<sup>36) 『</sup>고려사』 권5, 덕종 2년 8월, "命平章事柳韶 創置北境關城"

<sup>37)</sup> 邊太燮,「高麗兩界의 支配組織」,『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sup>38)</sup> 李在範, 앞의 논문, 1999, 99~100쪽.

<sup>39)</sup> 신안식, 앞의 논문, 2017, 95~100쪽.

<sup>40)『</sup>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東界, "睿宗二年 以平章事尹瓘爲元帥 知樞密院事吳 延龍副之 率兵擊逐女真 置九城 立碑于公嶮鎮之先春嶺 以爲界"

니라, 고려전기 거란(요) — 여진(금) 등 북방세력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자존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고려 성립으로부터 왕조적 북방 영토의식의 중심에 항상 압록강의 관념이 상시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었다. 물론 압록강을 경계로 하는 북방 영토의식은 관념적으로만 있었 던 것이 아니라 성곽 축조를 통해 구체적인 군사적 실천 방안과 함께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국경 분쟁과 '강동 6주'

고려초기의 국경은 앞서 최종로와 신무책에서 언급된 마혈탄과 석성 지역으로 관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성종은 즉위 이후 북방 지역의 방어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983년(성종 2)에는 청천강 이남지역의 순주(順州)·은주(殷州)·숙주(肅州)·자주(慈州) 등에 방어사(防禦使)를 설치했는데, 41) 방어사는 931년(태조 14)에 안북부(安北府)를 설치한 이후 성종 2년에 영주 안북대도호부(寧州安北大都護府)로의 변동과 관계되었을 것이다. 이들 지역은 흥교도와 운중도 지역에 위치하였고, 서북부 지역에서 서경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에 위치하였다. 또한 984년(성종 3)에는 압록강 유역에 관성(關城)을 설치하려다가 여진의 반발로 실패한 적도 있었고, 42) 991년(성종 10)에는 압록강 밖의 여진을 축출하기도43) 하였다. 이런 가운데 성종 12년 제1차

<sup>41) 『</sup>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북계, 安北大都護府 寧州. 방어사는 군사적 행정단위 가 되며(李基白, 「高麗 地方制度의 整備와 州縣軍의 成立」, 『高麗兵制史研究』, 1981. 194쪽). 970년(광종 21)에 청천강 이북지역인 泰州에도 설치된 적이 있었다.

<sup>42) 『</sup>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3년, "命刑官御事李謙宜 城鴨綠江岸 以爲關城 女眞以 兵遏之 虜謙宜而去 軍潰不克城 還者三之一"

<sup>43) 『</sup>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0년 10월, "逐鴨綠江外女眞於白頭山外 居之"

여요(麗遼) 전쟁은 고려의 북방 영토의식의 전환점이 되었다.

#### 가. 1차 여요전쟁과 국경 분쟁

거란의 1차 침입에 대한 고려와 거란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표 2〉 와 같다.

〈표 2〉 1차 여요전쟁에 대한 고려와 거란의 입장<sup>44〉</sup>

고려			거란		
대응 전략	② 항복론: 군대를 인솔하여 투항. ③ 할지론: ③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 거란에게 주고, 황주(黃州)~절령(田嶺)까지를 국경으로 삼자는 주장. ④ 성종 수용. ⑤ 항전론: ③ 서희 - 거란의 침략 의도는 광종 때 쌓은 가주(嘉州)와 송성(松城)의 탈취 목적, 적과 대적한 이후에 전략 분의. ⑥ 이지백 - 거란의 침략 명분을 확인하여, 신명에게 고한 연후에 항자이나화의냐 하는 문제는 오직 주상에 결정할 문제. ⑥ 성종 수용.	침략명분	① 거란이 고구려의 옛 영토를 영유. 고려가 자신의 국경 침탈[侵奪疆界]. ② 고려가 거란에 귀순치 않았음. ③ 고려가 백성을 돌보지 않으므로 천벌 을 주러 온 것임.		
강화 전략	<ul> <li>②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 → ③ 평양에 도읍.</li> <li>⑥ 거란의 동경(東京)과 압록강 안팎도 고려 경내.</li> <li>⑩ 거란에 조빙하지 못한 것은 여진 때문. 여진을 쫓고 우리의 옛 땅을 돌려주어 성보(城堡)를 쌓고 도로를 통하면 조빙할 것임.</li> <li>⑩ 고려의 뜻을 거란 임금이 접수하기 바람.</li> </ul>	강화 전략			
성과	<ul> <li>砂 성종은 방양유를 예폐사(禮幣使)로 삼아 거란에 보내 친선의 뜻을 표시하기로 결정.</li> <li>砂 ① 서희는 소손녕과 약속하기를 여진을 소탕하고 옛 땅을 회복한 연후에 국교를 통하기로 함. ○ 이제 압록강 이남을 회 복했을 뿐, 금후 압록강 너머까지 수복한 이후 조빙할 것을 주장.</li> <li>砂 압강도 구당사(鴨江渡句當使) 파견</li> </ul>	성과	⑦ 거란 임금으로부터 정전하라는 회답. ⑧ ① 사신 왕래를 위해 요충지에 성지(城池) 구축. ⑥ 거란은 압록강 서리(西里)에 5개의 성을 수축. ⑥ 고려는 안북부(安北府)에서 압록강 동쪽까지 280리 사이에 축성. 역부(役夫)를 보내어 같은 시기에 착수함.		

<sup>44)</sup> 이 표는 『고려사』 권94, 열전7, 徐熙傳;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2월;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윤10월·13년 2월 등의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거란이 1차 침입을 감행했을 때 우선 고려의 '국경[강계(疆界)] 침탈'을 명분으로 내세웠다(〈표 2〉—①). 이때의 국경은 거란이 설정한 고려와의 접경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란이 설정한 국경이 과연 어디였을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 중의 하나가 거란이 고려를 신라의후예로 여긴 것인데, 이럴 경우 고려의 영토는 대동강 이남으로 축소될것이다. 또 다른 하나가 거란의 침략 원인에 대한 서희의 인식에서도드러나는데, 그는 광종이 점령하여 쌓은 가주(嘉州)와 송성(松城)을 빼앗기 위해서였다고 하였다(〈표 2〉—④—⑤). 이 두 가지 사항은 모두 청천강이남 지역을 염두에 둔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의자료가 주목된다.

- 나—① 이에 앞서 거란이 여진을 칠 때 우리나라 영토를 거쳐 갔으므로... 거란 군대가 곧 자기네 국경으로 처들어오나 구원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국은 그것이 허위인 것으로 의심하고 즉시 구원하지 않았다. 그 후 과연 거란군이 쳐들어와서 많은 여진혹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여 갔다. 당시에 죽기를 모면한 여진족이 본국의 회창(懷昌)·위화(威化)·광화(光化) 지경까지 도망하여 왔는데 거란군이 그들을 추격하여 잡아가면서 우리 수비병을 불러서 말하기를 여진족이 늘 자기네 변방에 와서 침략하였기 때문에 지금 벌써 복수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거란은 요해(遼海) 밖에 위치해 있고 우리와의 사이에 두 강이 막혀 있어 그와 상통할 길이 없을뿐더러... 45)
- 나-② 압록강 바깥에 거주하는 여진족을 백두산 너머로 쫓아내어 그곳에서 살게 하였다.  $^{46)}$

사료 나—①에서 "거란이 여진을 칠 때 우리나라 영토를 거쳐 갔으므로[契丹伐女真 路由我境]" "본국의 회창·위화·광화 지경[本國懷昌·

<sup>45) 『</sup>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4년 5월, "先是 契丹伐女真 路由我境… 言契丹兵將至 其境 本國猶疑虛僞 未即救援 契丹果至 殺掠甚眾 餘族遁逃 入于本國懷昌威化· 光化之境 契丹兵追捕 呼我戍卒言 女真每寇盗我邊鄙 今已復讎 整兵而回… 况契丹 介居遼海之外 復有二河之阻 無路可從…"

<sup>46) 『</sup>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0년 10월, "逐鴨綠江外女眞於白頭山外 居之"

威化·光化之境" "거란은 요해(遼海) 밖에 위치해 있고 우리와의 사이에 두 강이 막혀 있어[契丹 介居遼海之外 復有二河之阻]" 등은 985년 (성종 4)을 전후해서 고려에서 설정한 거란과의 국경을 엿볼 수 있게한다. 회창[미상]·위화[鎭, 운주(雲州)]·광화[鎭, 태주(泰州)] 등은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에 위치하였고, 이들 지역으로 도망친 여진족을 쫓아 거란군이 고려의 경계를 경유했다는 것은 곧 압록강을 넘어 왔다는 뜻일뿐더러 우리 군사에게 양해를 구한 것도 압록강 이남이 고려 영토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거란이 요해(遼海) 밖에 있고 험한 두 하천으로 막혀 있었다는 것은 압록강 넘어 요해까지 고려의 영토로 설정했다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이 지역은 아마 여진족이 살고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 한다(〈표 2〉一郎〉). 사료 나—②에서는 고려의 군사가 압록강 밖으로 진출하여 그곳에 거주하던 여진족을 축출하여 백두산 밖에 살게 했음을 있는 있다. 이 때 거란에서의 항의나고려에서의 양해를 구한 사실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은 고려와 거란 사이에 있던 여진을 두 나라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북방 영토의식 또한 압록강밖으로까지 넓혀져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성종 12년 거란의 1차 침입에 대한 고려 조정의 전략으로 '항복론(降服論)과 할지론(割地論)'(〈표 2〉-⑦・⑪)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이를 수용하려던 성종의 소극적인 태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성종 12년 5월에 거란의 침략이 있을 거라는 여진의 정보를 믿지 않았고, 47) 그 해 8월 여진에 의해 거란군이 쳐들어왔다는 정보를 받고서야 전쟁 준비에 착수하는48) 등 대륙 정세에 대한 첩보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고려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려 조정의 소극적인

<sup>47) 『</sup>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2년 5월, "西北界女眞報 契丹謀舉兵來侵 朝議謂其紿 我 不以爲備"

<sup>48) 『</sup>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2년 8월, "是月 女眞復報契丹兵至 始知事急 分遣諸道兵馬齊正使"

태도는 앞서 〈표 1〉에서 성종 때까지의 양계 성곽 구축 및 사료 나—② 와 같이 적극적인 북방정책 등을 통해서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희는 거란 침략의 원인을 가주(嘉州)와 송성(松城) 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보았고 적극적인 항전을 요구하였다(〈표 2〉— ⑮—⑤). 이렇게 고려 조정의 상황 파악에 혼란을 준 것은 무엇보다 거 란의 침략 형태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다는 첩보가 성종 12년 5월에 있었고, 8월에서야 고려 국경을 넘었다고 하였으며, 윤10월이 되어서야 봉산군 (蓬山郡, 龜州)을 공격하는 49) 등 상당히 느슨한 형태의 진군을 보여주고 있었다. 80만 대군의 위용을 앞세우면서도 적극적인 전투보다는 항복만을 요구하는 거란의 태도에는 분명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고려 또한 3군을 동원했지만 50) 거란과의 적극적인 전투를 한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거란의 참학 명분은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종식시키고 고려와 국교를 맺으려는 의도가 분명했고, 고려는 북방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란의 군사적 공세를 기회로여진을 제압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이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 과정에서 양자의 입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전쟁을 종식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한편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종 12년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 회담에서는 양국의 국경을 획정하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서희가 돌아오자마자 성종은 방양유를 예폐사로 삼아 거란에 보내 친선의 뜻을 표시하기로 결정하였다(〈표 2〉—④). 이에 비해 서희는 "제가 소손녕과 약속하기를 여진을 소탕하고 옛 땅을 회복한 연후에 국교를 통하기로 하였는데, 지금은 겨우 강 이쪽 땅을

<sup>49) 『</sup>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2년 윤10월 정해, "幸西京 進次安北府 聞契丹蕭遜寧 攻破蓬山郡 不得進乃還 遺徐熙請和 遜寧罷兵"

<sup>50) 『</sup>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2년 10월, "以侍中朴良柔爲上軍使 內史侍郎徐熙爲中軍使 門下侍郎崔亮爲下軍使 軍于北界 以禦契丹"

회복했을 뿐이므로 금후 강 저편의 땅까지 회수될 때를 기다려서 국교를 통하여도 늦지 않습니다."라고(〈표 2〉一⑪) 했지만, 성종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994년(성종 13) 소손녕의 편지에서<sup>51)</sup> 압록강을 중심으로 강동(江東)과 강서(江西)를 구분하여 양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타협안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고려에서 '압강도구당사(鴨江渡句當使)'를 파견하였고,<sup>52)</sup> 성종 13·14·15년에 각각 성곽 축조의<sup>53)</sup> 결실을 가져왔다고 하겠다.

결국 성종은 압록강 이남을 수용하는 북방 영토의식을 가졌던 것에 비해, 서희는 압록강을 초월하는 확대된 북방 영토의식을 보여주었다. 물론 양자의 북방 영토의식을 소극적 혹은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고려왕조의 전통적인 북방 영토의식을 관철시키려는 선희의 적극적인 국경론은 높이 살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강동 6주'

성종 12년 거란과의 강화과정에서 고려가 획득한 것은 무엇보다 압록강 유역으로의 진출을 공식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왕조적 북방 영토의식의 정체성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경 구축의 안정적인 지역적 기반을 확보한 셈이었다. 이를 일반적으로 '강동

<sup>51) 「</sup>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2월, "蕭孫寧致書曰 近奉宣命 但以彼國信好早通境土相接 雖以小事大 固有規儀 而原始要終 須存悠久 若不設於預備 慮中阻於使人遂與彼國相議 便於要衝路陌 創築城池者 尋准宣命 自便斟酌 擬於鴨江西里 創築五城 取三月初 擬到築城處 下手修築 伏請 大王預先指揮 從安北府 至鴨江東 計二百八十里 踏行穩便田地 酌量地里遠近 并令築城 發遣役夫 同時下手 其合築城數 早與回報 所貴 交通車馬 長開貢覲之途 永奉朝廷 自協安康之計"

<sup>52) 『</sup>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以李承乾爲鴨江渡勾當使 尋遣河拱辰代之"

<sup>53) 『</sup>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命平章事徐熙 率兵攻逐女眞 城長興・歸化二鎭 及郭・龜二州"; 『고려사』 권82, 지36, 병2, 城堡, 성종 14년, "命徐熙 帥兵深入女 眞 城安義・興化二鎭";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5년, "是歳 徐熙城官・孟二州"

6주(江東六州)'의 획득이라고 명명되어 왔다. 하지만 '강동 6주'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현종 때의 일이다. 즉 1010년(현종 원년) 거란의 2차 침입 이후 현종 3년 6월에 형부시랑 전공지(田拱之)를 거란에 보내 현종의 친조(親朝)가 불가능함을 알렸을 때, 거란에서 '흥화진(興化鎭)·통주(通州)·용주(龍州)·철주(鐵州)·곽주(郭州)·구주(龜州)' 등 6성을 취하겠다고54)통고한 사실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6성을 사이에 두고 거란은 반환을 요구하는 사신을 파견하거나,55)통주56)·흥화 진57)·용주58)등을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서희가 성종의 명령을 받고쌓은 성은 성종 13년에 '장흥진(長興鎭)·귀화진(歸化鎭)·곽주·구주',59) 성종 14년에 '안의진(安義鎭)·흥화진',60)성종 15년에 '선주(宣州)·맹주(孟州)'61)등 8개의 성이었다. 또한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에서 '강동 6주'가 실제 논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62)물론 거란이 요구한 '강동 6성'은 북계 지역의 요중시라를 참에서 강동 지역의 포괄성을 지닌 상징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역권진다.

제1차 여요전쟁에서 고려가 획득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록강을 기준으로 강동(江東)과 강서(江西)의 영역적 구분으로 합축할 수 있을 것이

<sup>54) 『</sup>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3년 6월 갑자, "遣刑部侍郎田拱之 如契丹 夏季 間候 且告王病 不能親朝 丹主怒 詔取興化·通州·龍州·鐵州·郭州·龜州等六城"

<sup>55) 『</sup>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4년 3월 무신·7월 무신, 5년 9월 병신, 6년 4월 경신·9월 갑인.

<sup>56) 『</sup>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5년 10월 기미, 6년 1월 갑진 · 9월 기미.

<sup>57) 『</sup>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6년 1월 계묘.

<sup>58) 『</sup>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6년 3월 기해.

<sup>59) 『</sup>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sup>60) 『</sup>고려사』 권82, 지36, 병2, 성보, 성종 14년.

<sup>61) 『</sup>고려사절요』 권2, 성종 15년.

<sup>62)</sup> 김순자, 앞의 논문, 2006, 254쪽. 강화회담의 성과를 '강동 6주'의 확보로 설정하는 것은 그 결과를 스스로 축소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란의 '강동 6성' 반환 요구가 '강동 6주'에 대한 관심으로 표명되었는데, 이는 예종대 윤관의 9城 개척 및 반환 문제와 더불어 명명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6주를 『요사』에서는 '여진 6개 부락의 땅'이라고(『요사』 권88, 열전18, 耶律資種, "… 初 高麗內屬 取 女直六部地以賜…") 하여 여진 땅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 그와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 나-③ 소손녕이 글을 보내 이르기를, "요즈음 받든 우리 황제의 명령에 말씀하시길, '다만 고려와는 좋은 우호관계가 일찍부터 통하였고 국경이 서로 맞닿았다. 비록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김에 진실로 합당한 규범과 의례가 있지만. 그 처음과 끝을 살펴보다면 모름지기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남겨야 한다 만약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신 길이 도중에 막힐까 걱정이다. 따라서 고려와 서로 상의하여 길의 요충지에 성곽과 해자를 쌓아 만들도록 하라 '고 하셨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고 스스로 생각해보니. 압록강 서쪽 [鴨江西里]에 5개의 성을 쌓아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여 3월 초에 축성할 곳으로 가서 성 쌓는 공시를 착수할까 합니다. 심가 청컨대 대왕(大王)께서도 미리 지시하여 안북부(安北府)로부터 압록갓 동쪽[鴨汀東]에 이르기까지 총 280리 사이에 적당한 지역을 답사하고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리게 하시고, 아울러 성을 쌓을 일꾼들을 보내 우리와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명령하여 주시며, 쌓을 생일 수가 도한 몇 개인지 빨리 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것은 거마(車馬) 2가며 통함으로써 길이 조공(朝貢)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과 영원히 우리 조정을 받들어 스스로 편안할 수 있는 계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63)
  - ④ 고려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본국(本國)의 지리도(地理圖)를 바쳤다.64)

사료 나—③에서는 성종 12년 윤10월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거란이 제기한 안북부로부터 압록강동쪽 280리까지 축성하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였을까? 앞서 살펴보았던 서희의 성곽 축조와 〈표 1〉에서 보듯이, 성종대 이후 흥화도 지역의 성곽 축조 역시 여기에 준해서 이루어졌고, 『신증동국여지승람』

<sup>63) 「</sup>고려사」 권3, 세기3, 성종 13년 2월, "蕭孫寧致書曰 近奉宣命 但以彼國信好早通 境土相接 雖以小事大 固有規儀 而原始要終 須存悠久 若不設於預備 慮中阻於使人 遂與彼國相議 便於要衝路陌 創築城池者 尋准宣命 自便斟酌 擬於鴨江西里 創築五 城 取三月初 擬到築城處 下手修築 伏請 大王預先指揮 從安北府 至鴨江東 計二百 八十里 踏行穩便田地 酌量地里遠近 幷令築城 發遣役夫 同時下手 其合築城數 早 與回報 所貴 交通車馬 長開貢覲之途 永奉朝廷 自協安康之計"

<sup>64) 『</sup>요사』 권14, 본기14, 성종5, 성종[통화] 20년 7월 신축, "高麗遣使來進本國地理圖"

권53, 평안도조를 참고하면 안북부로부터 '강동 6주'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 범위에 포함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거란이 설치하려던 압록강 서쪽 5개 성이 어디였을까도 관심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거란이 압록강 밖에 성곽을 쌓았다는 것이고, 이는 곧 양국의 국경이 압록강을 중심으로 강동(江東)과 강서(江西)로 구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에서도 합의된 일부로 여겨지며, 성종의 예폐사 파견에서도 양국의 양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런데 강화회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희의 의도에는 고려와 거란 사이에 있었던 여진족을 축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2〉— ④·⑥). 물론 여진족 축출이 어디까지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성종 10년 압록강 밖의 여진족을 축출하여 백두산밖에 살게 했다는(나—②) 사례가 있었다. 여진족을 축출한다는 것은 고려의 북방 안정에 중요한 관건이었지만, 거란의 요구를 수용한 성종의선택으로 압록강 이남에만 그치고 말았다. 이를 토대로 고려에서는 '고려 지도[本國地理圖]'를 그렸던 것으로 확인된다(나—④). 이 고려 지도는 1002년(목종 5) 고려에서 거란에 바친 것으로 되어 있었고, 거란 조정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결과적인 면에서 보며, 압록강 유역을 확보한 것은 현종대의 2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할 수 있었던 토대였고, 덕종대 '고려장성'을 구축하여 고려의 북방 지역을 확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따라서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강동 6주'로 상징화하는 것보다는 여진족 축출에 이어 압록강 유역으로의 실질적 진출을 통한 국경 획정의 의의를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4. 맺음 말

지금까지 고려초기의 국경 획정과정을 고려초기의 북방 영토의식 및 고려와 거란의 국경 분쟁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고려의 국경 획정에는 개국이후부터 꾸준하게 형성된 왕조적 북방 영토의식이 크게 좌우하였고, 그 중심적인 관심에 압록강이 있었다. 압록강 연안이 고려의 북방 영토의식에 포괄된 것은 관념적인 것과 실제적인 지배의 의미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현하는 방식은 성곽 축조를 통한 구체적인 장악 방안과 함께 양계(兩界)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고려초기의 북방 영토의식은 최승로의 시무책에서 언급된 마헐탄과 압록강가의 석성으로 관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헐탄이 어디였는 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압록강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고려 성립으로부터 왕조적 북방 영토의식의 중심에 압록강의 관념이 상시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시설하는 것이다. 압록강 유역이 고려의 실제적인 지배권으로 들어온 것은 성종 12년 거란의 1차 침입 및 이로 인한 서희와 거란장수 소손녕과의 강화회담 결과로부터 이루어졌다.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에서는 양국의 국경을 획정하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강화회담 이후 성종은 예폐사를 거란에 보내 친선의 뜻을 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성종 13년 소손녕의 편지에서 압록강을 중심으로 강동(江東)과 강서(江西)를 구분하여 양국의지배권을 인정하는 타협안이 제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종 12년 거란과의 강화과정에서 고려가 획득한 것은 무엇보다 압록강 유역으로의 진출을 공식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왕조적 북방 영토의식의 정체성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경 획정의 안정적인 지역기반을 확보한 셈이었다. 이 점 또한 현종대의 2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할 수 있었던 토대였고, 덕종대 '고려장성'을 구축하여 고려의 북방 지역을 확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한편 성종 12년 강화회담의 의의를 일반적으로 '강동 6주'의 획득이라고 명명되어 왔다. 하지만 '강동 6주'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현종때의 일이다. 그리고 강화회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려 정부의 의도에는 고려와 거란 사이에 있었던 여진족을 축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진족 축출이 어디까지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은 고려의 북방 안정에 중요한 관건이었다. 따라서 고려와 거란의 강화회담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강동 6주'로 상징화하는 것보다는 여진족 축출에 이어 압록강 유역으로의 진출을통한 국경 획정의 의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제1차 여요전쟁을 계기로 해서 드러난 고려왕조 내부의 북방 영토의식을 소극적 혹은 적극적 추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고려왕조의 전통적인 북방 영토의식을 관 철시키려 했던 관료 서희의 적극적인 국경론은 높이 살만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투고일: 2017. 9. 28, 심시수정일: 2017. 11. 19, 게재확정일: 2017. 11. 21.]

주제어: 북방 영토의식, 국경분쟁, 압록강, 거란, 여진, 강동, 강서, 강동 6주, 고려지도, 고려장성

### 〈참 고 문 헌〉

- 姜性文, "高麗初期의 北界開拓에 대한 研究", 『白山學報』27(1983)
- 金光洙, "高麗前期 對女真交涉과 北方開拓問題", 『東洋學』7(1977)
- 金九鎮, "公嶮鎮과 先春嶺碑", 『白山學報』21(1976)
- 金庠基, 『高麗時代史』,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5
- 김명철, "고려시기 성의 위치와 년대에 대한 고증", 『조선고고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2
- 김순자,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 『북방사논총』 11(2006)
- 사賢緒, "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4·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4
- 方東仁, 『韓國의 國境劃定研究』, 1997
- 邊太燮, "高麗兩界의 支配組織", 『高麗政治制度史研究』, 서울: 一潮閣, 1971
- 서성호, "고려 태조대 대(對)거란 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 34(1999)
- 申安湜, "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歷史教育』89(2004), http://uci.or.kr/G704-000198,2004,89,004
- 신안식, "高麗前期의 兩界制와 '邊境'", 『한국중세사연구』 18(2005), http://uci.or.kr/G704-001262,2005..18.005
- 申安湜, "고려시대 兩界의 성곽과 그 특징", 『軍史』66(2008), http://uci.or.kr/G704-001528,2008..66,005
- 신안식, "고려시대의 三京과 國都", 『한국중세사연구』39(2014), http://uci.or kr/G704-001262 2014 39 001

신안식, "고려전기의 북방 영토의식과 이민족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0(2017)

尹武炳. "高麗北界地理考(上)". 『歷史學報』4(1953)

尹武炳. "高麗北界地理考(下)", 『歷史學報』5(1953)

李基東, "新羅下代의 浿江鎭―高麗王朝의 成立과 關聯하여", 『韓國學報』 6(1976)

李基白, "高麗 太祖 時의 鎭에 대하여", 『歷史學報』 10(1958)

李基白, "高麗 太祖 時의 鎭", 『高麗兵制史研究』, 서울: 一潮閣, 1968

李基白, "高麗의 北進政策과 鎮城", 『東洋學』 7(1977)

李基白 등,『崔承老上書文研究』, 서울: 一潮閣, 1993

李基白, "高麗 地方制度의 整備2 外縣軍의 成立", 『高麗兵制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1

李美智, "고려 성종대 地界劃定의 성립과 그 외교적 의미", 『한국중세 사연구』24(2008), http://uci.or.kr/G704-001262,2008,.24,008

李丙燾,『韓國史』中世篇, 서울: 震檀學會, 1961

李在範, "麗遼戰爭과 高麗의 防禦體系", 『韓國軍事史研究』3(1999)

池内宏, "高麗成宗朝に於ける女眞及び契丹との關係",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5(1918)

<Abstract>

# The Awareness of Territory and Border Dispute of the Early Stage of Goryeo Dynasty

Shin, An-Sik

The Demarcation of Goryeo territory was largely determined with dynastical awareness of northern territory which had been steadily formed since foundation of nation, and the central interest was based on the Yalu river. The point that Yalu coast was included in northern territorial awareness had a regular difference in respect of ideological and actual significance of domination. The way of realizing this was actualized through the institutional strategy of Yanggae(兩界) along with the concrete domination through construction of fortress. Northern territorial awareness during the early Goryeo can be said to have been conceptualized with Maheoltan(馬歇難) and Seokseong(石城) of Yalu coast, mentioned in ChoiSeungro's Simuchaek. It can be controversial whether Maheoltan was located, however concrete mention of Yalu river implies that the concept of Yalu river was regularly operated in the center of dynastical northern territorial awareness since foundation of Goryeo. The point when Yalu coast was entered in the actual domination of Goryeo was due to the 1st invasion of Khitan during Seongjong's reign 12th year and the result of reconciliation conference between SeoHee and SoSonnyeong, the admiral of Khitan. It is determined that Ganghwa conference between Seo Hee and So Sonnyeong did not made a clear conclusion of demarcating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a compromise to acknowledge domination of the two countries was made by dividing into Gangdong(江東) and Gangseo(江西) based on Yalu river.

The point that Goryeo acquired in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with Khitan during the 12th year of Seongjong's reign was above all regularization of advance into Yalu riverside. This not only realized identity of dynastical northern territorial awareness, but also secured stable regional base of border demarcation externally. This also was the basis to overcome two invasions of Khitan during Hyunjong's reign, which contributed to firmness of norther region of Goryeo by constructing 'Goryeojangseong' during the reign of Deokjong.

On the other hand, the significance of reconciliation conference during the 12th year of Seongjong's reign was generally named as acquisition of 'Gangdong 6-ju'. However, the point when 'Gangdong 6-ju' became the focus of attention was during Hyunjong. Also, the intention of Goryeo's royal court in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conference implied the securement of justification of driving out the tribe of Yeojin between Goryeo and Khitan, Of course, it is not clear the scope of drive out of the tribe of Yeojin, realization of this was an important issue of northern stabilization of Goryeo. Accordingly, the researcher considers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border demarcation through advance into Yalu riverside next to drive out of Yeojin, rather than symbolizing the output of reconciliation conference between Goryeo and Khitan as 'Gangdong 6-ju'.

Keywords: northern territory awareness, border dispute, Yalu River, Khitan, Yeojin, Gangdong, Gangseo, Gangdong 6-ju, Map of Goryeo, Goryeojangseong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389-400 https://doi.org/10.29212/mh.2017..105.38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 평]

# 한러 군사관계의 체계적 이해

심헌용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1917~1948)』(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 -

기광서\*

한반도와 러시아의 관계는 러시아가 한반도에 접경 지역이 된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긴밀하게 전체되었다. 구한말에서 일제 식민지 그리고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는 우리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고 많은 관련 기록을 양산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대한반도 군사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다른 역사 기록에 비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심헌용 박사가 쓴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1917~1948)』(2016)은 군사적 견지와 실제에서 한·소관계를 통찰적으로 살핀 저술로 꼽힌다. 이 연구서는 사회주의 혁명 이래 지속된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있다. 전반부는 소비에트러시아가 외국의 간섭과 내전을 이겨내고 민족해방세력과 수행한 공동전선을 다루었고, 후반부는 1930년대 이후 동북아 국제질서의 전후 구상과 연동하여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을 살피고 있다. 다만 본 주제 관련 서술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혁명 관련 내용과 비군사적인 부문에 할애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소련의 대한

<sup>\*</sup>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반도 군사정책이 구체성이 결여된 사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이미 출간한 바 있는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 (2002)와 『한러 군사관계사』(2007)를 발전시켜 군사정책을 중심으로 저술한 것이다. 이 두 저술이 근대 시기 러시아의 대외팽창의 군사적 동기와 군사전략의 측면에서, 그리고 한러관계에서 군사부문의 갈등과 협력을 다루었다면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1917~1948)』은 소련의 군사정책이 한반도의 식민지 피압박 민족의 해방과 한국 독립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였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시간적 범위는 1917~1948년으로 소련의 형성과 북한의 건국 시기에 해당된다.

이 책은 당시의 귀중한 풍부한 사진 자료를 곁들여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이해력을 높이는 데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저자가 책의 편집에 크게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저술은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10월 혁명 이후 소련 성립까지의 군사정책으로서 식민지 해방과 독립을 추가한 한인 독립운동 세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제2장은 민족사결권에 입각하여 소비에트한인이 민족해방운동을 추구한 방식으로서 자치운동을 고찰하였다. 제3장은 1930년 대소련의 대극동 군사정책과 강제 이주 한인들의 참전 문제를 다루었고, 제4장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대일전 참전을 전후한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검토하였다. 제5장은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와 북한군 건설과정에서의 소련의 역할에 할애하고 있다.

이 책이 서술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파트너는 한반도 내에 있는 권력과 특정세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련에 거주하는 한인세력 또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지향성이 한반도의 이해와 맞물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 혁명 이후 한인 무장세력과 소련

책의 첫 부분은 주로 볼셰비키 혁명에 할애되었는데, 여기서 러시아 거주 한인의 동향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볼셰비키 혁명 직전인 1917년 5월 연해주 한인사회에서도 전러한인대표자대회가 열려 전러한 족회중앙총회를 구성하였다. 이는 한인사회단체가 최초로 구성한 중앙 집행기관이었다. 하지만 이 모임에 참가하지 않은 이동휘, 김알렉산드라, 박애 등 사회주의계 인사들은 하바롭스크에서 볼셰비키운동에 대한 한인 항일부대의 참여를 논의하고 러시아내 한인들이 참여하는 무장부대 양성을 독려하였다. 이때 한인 적위병 부대가 조직되어 볼셰비키 혁명과 연결되었다.

러시아혁명 후 서방국가들은 혁명을 좌절시키고자 무력개입을 단행하였다. 이 상황에서 저자가 보여주고자 한 대목은 볼셰비키 혁명 직후 극동의 한인상황과 일본의 간첩이었다. 1920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한 일본군은 독립의 근거지인 신한촌을 파괴하는 '4월 참변'을 일으켰다. 한인 지도자 최재형, 김이직 등을 비롯한 많은 한인 인사들이학살당하였다. '4월 참변'이 전해지면서 국내외 동포들과 러시아인들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되고 러일전쟁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독립전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지만!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다. 다만 저자는 일본 제19사단이 두만강 대안의 소련군 및 항일독립군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고, 1920년 6월 봉오동, 10월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이래 독립군 토벌에 집중한 점을 살폈다. 극동시베리아를 포함해 내전에서 소비에트러시아의 승리가 굳어지자연합국 대부분은 1920년 1월 경 철수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잔류하였다.

<sup>1)</sup> 반병률「일제초기 독립운동노선논쟁-급진론과 완진론: 초기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제5권 제2호, 2006, 123쪽.

러시아공산당은 일본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1920년 4월 바이 칼 인근 지역에 극동공화국을 수립했다. 극동시베리아를 일본 침략군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완충국을 설립하여 대응한 것이다. 극동공화 국은 지역 정세를 감안하여 소비에트 체제가 아닌 부르주아공화국 형 태를 취했다. 그렇다면 그 속에 존속하던 한인의 처지는 어떠했을까? 저자는 극동공화국의 불완전한 자율성은 자유시 참변에도 영향을 주었 다고 한다. 즉. 이 사건은 코민테른 명령에 따라 한인무장세력이 소련 적군 편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인무 장세력의 독립전쟁 가능성은 점차 퇴색되어 갔다는 것이다. 이후 러시 아에 잔류한 한인독립군 부대는 고려혁명군이란 명칭으로 소비에트 적 군 제5군단으로 편입되고. 고려특립연대로 하바롭스크 지역에 배치되 어 러시아군 편제 하에 존립하였다. 또 다른 의용군부대는 한국의용군 사회를 결성해 적군과 군사협정을 맺고 백위군 토벌에 참여했다. 이 부 대는 공로를 인정받아 적군 특별보병대대로 개편되었으나 일본군 퇴각 이후 완전히 무장해제하였다. 이로써 러시아령 한인 독립군의 독자적 인 군사활동은 백위군 토벌과 일본군 퇴각 이후인 1922년 10월 이후 적군에 흡수 내지 자체 소멸됨으로써 막을 내렸다.

저자는 모스크바지도부와 독립운동세력의 관계에 대해 무심히 취급하지는 않았다. 1919년 7월 한인사회당은 코민테른에 가입한 후 러시아로부터 400만 루블의 재정 지원을 받았고, 상해임시정부는 한형권을 특사로 파견하여 소비에트러시아와 대한민국임시정부 간의 비밀군사협정이 맺어졌다. 대일 한로 공수동맹으로 불린 협정문은 러시아의 한국독립 지원, 러시아의 지휘를 받는 독립군대 설치, 러시아의 무기 공급등을 규정하였다.

이 책은 모스크바 지원 자금이 한국 혁명운동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사용 관할권 문제로 공산 계열과 민족주의 세력 간 불신과 적의를 낳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리 관계

는 독립전쟁 노선의 유지와 통일전선 이념이 공통분모를 찾을 때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한인독립운동 세력 내부의 분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의 협력 사업은 가능하지 않았다.

1920년대 초 소비에트 권력은 극동지역 거주 한인, 중국인 등 소수 민족들을 예비혁명군이 아닌 지역소비에트화 정책에 적극 참여시킬 포 섭대상으로 삼았다. 러시아한인들은 한명세를 중심으로 한인자치체 건설 구상을 하였지만 러시아 한인들이 자치지역을 얻어 견고한 한인사회를 형성할 경우 정보계통이나 스파이, 방첩대 등을 의미하는 '제5열'지대로서 일본 첩보국의 영향력 속에 놓일 수도 있다는 러시아측의 우려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84쪽). 이 책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지만 1937년 스탈린에 의한 한인 강제이주의 원인이 이미 예정된 셈이다.

고려인 학자 보리스 박의 입장을 수용하여 저자는 1921년 6월 자유시 사변에 대해서 코민테른의 학자를 기부하고 일시 무장해제와 부대 재편성을 거부한 대한의용군계 유격대원들이 자유시 수비대와 고려혁명군과 유혈충돌하면서 큰 희생을 당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2) 희생당한 대한의용군계 한인 유격대원들은 극동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였고, 식민지 조선의 해방을 위해 일본 본토에 이르기까지 무장투쟁을 전개하려던 세력들은 무장해제를 시도한 소비에트 권력을 이해할 수없었다는 것이다. 소련의 영향하에 있던 이르쿠츠계 한인공산당은 자유시 사변과 같은 비극적 사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저자가 러시아연방 국가문서보관소( $\Gamma A P \Phi$ )에서 발굴한 모스크바한인노동자동맹의 정관은 노동자동맹의 주요 활동목적으로 "한인 노동민족의 정신적 힘이 자유로이 발전되고, 성립될 독립 조선사회주의 공화국의 형성(образование независимой Корейск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을 위해... 한인노동자동맹

<sup>2)</sup> Б. Д. Пак, Корейцы в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1917 конец 30-х годов). М., Иркутск, С-Петербург, 1995, с. 72-93.

을 결성함에 있다"3)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관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수용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대다수 한인들이 무국적 자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계급원칙에 따른 조직은 민족원칙에 따른 조직에 비해 다수 한인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1924년 당시 한인협회가 민족인민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14만 7천명의 한인 중 14만 명이 극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중 70%가 무국적 망명자들이었다. 한인 사회단체가 민족 원칙에서 전국조직으로 결성된다면 한민족을 한데 묶어 민족정책을 펴기에 적합할 것이었다. 1924년 6월 재소한인연합회(Союз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는 한인노동자단체 회원의 전민족화, 단체 조직의 전국화를 목표로 재편하여 출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보아소련 성립 직후 러시아가 한인 단체 조직에서 계급성보다도 민족적 접근을 우선한 것이며, 소련의 조작되어 전체이 단선적으로 표출되지 않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2차 세계대전기 소련과 한인, 한반도

소연방은 성립 이후 시베리아에서 철병한 일본과 별다른 외교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1937년 8월 21일 소련은 적성국 일본의 신민이자 자국 내 소수민족인 극동지역의 한인을 국경 내 안보 위협요소로 간주하여 집단 이주시킴으로써 안정을 취하고자 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이조치는 가히 '인종말살(ethroide)'라 불릴 정도로 폭압적이었으며, 소비에트 사회가 지향한 민주집중제적 합리성은 아예 작동되지도 않았다 (108쪽). 위에서 언급한 한인이 '제5열 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

<sup>3)</sup> ГАРФ(러시아연방 국가문서보관소). Ф. 1318. Оп. 1. Д. 1204. л. 2.

다 현실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1930년대 후반 소·일간의 충돌은 저자가 제2차 세계대전과 연결한 매개점이었다. 중일전쟁 이후 소련은 만주 국경에서 일본과 군사적 대 치에 있었고, 양측은 1938년 7~8월 하산호에서 사단급 전투를 벌였다. 소련은 일본군이 오래 전부터 장고봉을 차지하려 하산호 전투를 기획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함경북도 나남에 주둔한 조선군 제19사단 병력이 개입되었다. 장고봉을 빼앗긴 소련군은 항공기 130대를 동원해두만강 접경 조선 지역인 경흥, 증산, 고성의 거점과 철도까지 폭격하였다. 승부를 가리지 못한 하산호 전투는 러일전쟁 이래 일본이 처음으로 열강과 치른 사단급 전투였다. 저자는 하산호 전투 과정의 묘사를통해 한반도 근방 지역에서 소일간의 군사적 충돌을 확인코자 하였다. 이와 함께 1939년 5~8월 할힌골에서 소일간의 대규모 충돌에 관한 서술이 이어졌다.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소련군은 일본에 대참패를 안겼다. 할힌골 전투에서 소련 작군의 학자한 군사력을 경험한 일본은 1940년 7월 소련에 일소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하였지만, 대신에 양국은 이듬해 4월 소일중립조약(蘇日中立條約)을 맺었다.

이 책이 주목하는 특징적인 지점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소비에트한 인의 참전 양상이다. 1941년 6월 독일이 독소불가침조약을 파기하고 공격해 오자 수천 명의 소비에트 한인들도 예외 없이 참전을 청원하였다. 많은 참전 신청서들이 거부되었는데, 이는 소련 권력기관이 한인을 불신하고 그들의 법적 권리와 이해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받이들여졌다. 고려인은 소련 정규군인 노농적군(PKKA) 소속 군인으로 소집될 대상이 아니었기에 후방 노동전선과 산업전선에서 노무인력으로 동원되었다. 그러나 전선에도 372명이 직접 참전하여, 참전자 중 195명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고 127명이 생환하였다고 한다. 전선에 간개인들은 조사기관의 실수나 자신의 민족 적(籍)을 숨기거나, 타인을 대신해서 나섰던 경우들이었다고 한다. 한인 참전자 가운데 민 알렉산

드르(Min Aleksandr P.)는 혁혁한 전공을 세워 '소련 영웅' 칭호와 레 닌훈장을 받았다. 저자는 전선에 투입된 소비에트 한인에는 남녀 구분이 없었고, 한인 여성들도 의사, 간호사, 문화활동가 그리고 노동자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한인들이 직접 전투원으로 참전하는 경우는 적었더라도 많은 이들이 후방에서 "노무부대원으로 노역함으로써 전쟁 수행에 일조한 것은 또 다른 전선에서 적에 대한 승리를 보증한 공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138쪽)고 쓰고 있다. 소련당국의 차별적 취급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소련 거주 한인의 참전 공로를 제대로 부각한 것이다.

# 한반도 진출 구상과 실제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기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는 다국적 신탁통치를 통해 특정 국가의 독점적 영향을 배제하는 방침을 1순위로 정했다. 이에 대해 이 책은 당시 소련의대한정책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서 "식민지 한반도가 일본처럼 대적 군사활동을 수행할 직접적 대상도 아니었고 식민지민족해방과 연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혹은 조선공산당과의 접촉 내지 연합활동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154쪽)으로 보았다. 이 견해는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지만 그렇다고 소련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따른다.4)

스탈린은 전세가 전환될 조짐을 보인 1942년 8월 처음으로 대일전 참전 의사를 표명하였다. 소련은 대일전 참전을 두고 미국과 줄다리기

<sup>4)</sup> 해당 시기 소련이 조선쪽 여러 세력과 연계 활동이 부재했다하더라도 이들의 동향을 주시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은 향후 한반도 개입에 대한 준비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외교를 구사하여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후 빼앗긴 영토와 이권을 되찾고자 하였다. 참전 조건으로 "소련은 최대한의 군수물자와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했으며 영토적 이해를 관철시켰다"(170쪽)는 다소 논쟁적<sup>5)</sup>일 수는 있지만 진실에 부합한다고 본다.

저자는 소련의 전후 한반도 구상은 미국의 대일정책 일반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국제신탁통치 입장에 따라 일정 기간 탁치를 거친 후 독립을 허용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중에 이 입장이 변하게 된이유를 미리 살펴보기는 쉽지 않다.

일본에게 선전포고 한 소련군은 1945년 8월 9일부터 북한지역에서 전투를 치루면서 각 도시에 진주하였다. 김일성의 항일유격대는 직접 참전하지 않았고 나중에야 귀국하였다. 이미 미국, 영국 등은 항일유격대에 대한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다(200쪽). 다만 저자는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부연하지 않았다. 구시아 자료에 따르면, 항일유격대 가운데 조선공작단에 배속된 인원은 60명 정도였다.6)

소련의 대외 군사원조의 활동은 다양하였는데, 소련제 군사장비 및 무기에 대한 지원, 외국군 간부 및 군사전문가 양성, 군사기술 협력, 군사작전 계획 수립 및 전시 공동보조, 참전을 통한 직접 지도 등이 있 었다. 이는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저자는 해방 후 소련군이 북한 통치체제 정비와 더불어 북한 무력 건설을 지원 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 가운데 무력기관 형성은 김일성의 적 극적인 요청에 소련측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저자는 군사고문단이 정치장교로서 활약한 것을 강조하는데, "단순 히 군사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장교로서 두 국가의 군사현안을 직

<sup>5)</sup> 스탈린은 미·영과 협의 당시 참전 조건을 모두 획득한 것은 아니었다. 뤼순, 대련 항의 조차 등은 중국과 협의 사항이었고, 가장 관심이 많았던 홋카이도 분할 통 치 요구도 실현되지 못했다.

<sup>6)</sup> ЦАМО(러시아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ф. 2, оп. 19121, д. 2, л. 14.

접 해결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했다는 측면"을 살피고 있다(210쪽). 1946년 8월 소련 정부는 북한으로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제25군에서 장성 3명, 장교 343명을 차출하였다. 1946년 중반 북한에는 보안간부 훈련대대부라는 군대 조직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 조직은 북한의 최초 정규 무력기관으로 인민군의 전신이었는데, 이곳으로 소련 군사고문단이 집중 배치되었다. 소련 군사고문단은 보안간부 훈련대대부 산하의 각 훈련소와 군사학교에 배치되어 신병 훈련과 간부 교육을 지원하였다. 저자는 이를 소련 군사고문단의 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소련군의 철수 후에도 잔류한 군사고문단은 기갑, 포병, 정보 등 북한군의 특수전 수행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지원했다.

소련은 북한의 통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련계 한인들로 당정군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저자는 소련 거주 한인들을 북한 지역에 파견한 것은 소련의 대외 교사를 동의 일환으로 "소비에트 군사고문관 내지 군사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직접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직하는 시스템"이 작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211쪽). 이와 아울러 스탈린이 직접 1946년 5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각각 100명씩의 소련계 한인들을 조선 파견을 위해 선발하도록 하였음을 예시하고 있다

## 몇 가지 문제

이 책은 전반적으로 사료 발굴을 통해 새로운 사실에 접근하기보다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주제에 천착한 연구성과이다. 이 점이 이 저술의 약점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료적 접근 방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분명한 논점 제기와 쟁점 정리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책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책의 구성은 볼셰비키 혁명에서 해방 후 소련군의 북한 주둔 에 이르기까지 시계열적 전개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시기별 로 소련과 한반도의 관계에서 주체간의 상호작용이 잘 드러나고 있지 만 본 주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정리 하는 데 미흡함을 보였다. 독자들은 어떤 저술이든 압축적으로 표현되 는 개념적 정의와 구절로써 이해하기를 원할 것이다.

둘째. 이 책이 1917~1948년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에 관한 것이 지만 정작 이 기간은 한반도에는 온전한 국가가 존속하지 못하던 때였 다. 따라서 군사정책의 대상은 국가가 아닌 독립운동세력, 소련 거주 한인. 일본 그리고 해방 후 북한 등 다양한 대상을 망라할 수밖에 없었 다. 이 때문에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서술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각 시기별 서술에서 관련 정세와 국제관계에 대한 서술이 상 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세고 있게 주제를 파고 드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책이 전반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셋째. 이 책의 구성상 1940년대 전반 김일성 그룹의 소련 체류와 제 88독립보병여단. 그리고 이 부대의 활동에 대한 기술은 반드시 필요했 다고 본다. 김일성 그룹에 대한 서술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는지는 확인 되지 않지만 해방 전후 소련 군사정책의 주요 대상의 하나가 항일유격 대 그룹이었다면 이에 대한 접근과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저자는 소련군의 대북한 통치의 성격을 군정통치로 규정하고 있다. 즉, 소련군의 북한 진주 후 "정치는 형식에서는 민정부를 통한 간접통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정통치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소련이 설치한 민정부로부터 "민정이란 군대의 민간관 련 업무를 일컫는 군사용어이기 때문에 군정과 다를 바 없었다"(203쪽) 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간접통치가 어떻게 군정통치로 규정되는지 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 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자 한다면 엄 밀한 정치이론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 400 | 軍史 第105號(2017, 12)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해당 시기 소련과 한반도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능히 할 수 있다는 데 크게 이의를 달기는 어렵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401-411 https://doi.org/10.29212/mh.2017..105.40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 평]

# 진화론적 관점에서 규명한 전쟁의 원인과 역사

 Azar Gat. "War in Human Civi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오숙은 · 이재만 옮김. 『문명과 전쟁』. 교유서가. 2017) -

최영진\*

Ι

"전쟁은 인간 본성에서 기일하는 것일까? 전쟁의 근본적 뿌리는 과연 인간의 타고난 폭력성, 동족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 행동에 있는 것일 까?"(19쪽) 이스라엘 역사학자 아자르 가트 교수나는 수렵채집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역사를 수놓은 전쟁을 비교분석하면서 전쟁 에 대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고 있다.

가트 교수가 다루고자 하는 근본적 질문은 흔히 '전쟁의 수수께끼'라 불리는 것이다. 전쟁은 인간의 본성에 연유하는 것일까, 아니면 문화적 발명품인가? 인간의 자연상태를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보았던 홉스 (Thomas Hobbes, 1588~167)가 전자를 대표한다면. 그들을 '우아한 야만인(noble savage)'이라 불렀던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후자를 상징한다. 다윈(Charles R. Darwin. 1809~ 1882)

<sup>\*</sup>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sup>1)</sup> 저자 아자 가트(Azar Gat) 교수는 이스라엘 방위군 예비역 대령으로 텔아비브 대 학 석좌교수로서 국가안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군사이론과 군사전략에 대한 세계적 석학으로 "군사사상의 역사: 계몽주의부터 냉전까지」 등이 있다.

의 진화론이 득세한 이후 인간과 동물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침팬지에 대한 관찰조사 연구들은 인 간과 침팬지 사이에 본성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털 없는 원숭이 (Naked Ape)'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루소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들은 전쟁을 농업, 사회계층화, 국가의 등장과 문명의 발전과 직결되 는 문화적 발명품으로 이해한다. 전쟁 없이 살아가는 평화로운 원시부 족의 사례가 그 근거로 제시되어 왔다.

저자의 입장은 평화로운 삶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시적인 수렵채집인들이라 해도 자기들끼리 혹은 다른 집단과 싸워왔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호주 평원에 거주하는 '이상적' 원시집단에 대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들은 "고질적이진 않더라도 치명적인 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62쪽). 원시시대에도 전투 중 죽음이 처망률을 높인 주요 요인이었다. 많은 연구에서 폭력에 의한 사망률이 오늘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싸움이란 나중에 나타난 문화적 발명품이 아니며,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닐지언정 확실히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63쪽)

이러한 진술은 전쟁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을 통합해내는 미덕을 갖고 있다. 싸움을 유발하는 "공격본성이 선천적이기는 한데, 동시에 선택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69쪽). 인간에게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성의 유전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공격성은 으뜸가는 생물학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전술, 그것도 여럿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수단으로서 공격성의 사용 여부는 그 유용성에 따라 결정된다."(66쪽)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거부하는 원시부족과 같은 반증사례를 부인하지않는다. 결국 인간에게 내재한 "치명적 공격성은 타고난 잠재성이며,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든 쉽게 촉발"될 수 있다는 얘기다.(70쪽) 저자는 전쟁의 조건을 진화론에서 찾는다. 다윈 진화론의 핵심은 유

기체들이 자연선택에 의해 맹목적으로 진화해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선택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 이다 자원이 빈약할수록 경쟁은 치열해진다

인간은 왜 싸우는가?에 답한다면 인간 욕망 일반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싸움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그들과 친족의 생존 및 번식의 성공을 좌우하는 유무형의 재화를 얻고 잃는 문제가 싸움의 위험성보다 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쪽)

"자연에서는 희소성과 경쟁이 표준이다."(197쪽) 치열한 경쟁에서 이 기기 위한 선택은 합리적인 국가나 공정한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종종 폭력적인 싸움으로 치닫게 된다. 진화론적 설명의 장점은 치명적이고 낭비적인 행위[전쟁]가 어떻게 생존과 번식의 성공에 이바지하는 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생존경쟁에서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 적자생존 의 철칙이야말로 전쟁과 문명의 호금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수렵채집시대에서 태러리스트가 창궐하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화론적 원리라 주장한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에 비해 더 강력한 전력과 운용능력을 갖 추고 있어야 한다. 지리적 조건과 자원의 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기 마련이다. 주어진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적자생존의 중 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정치체계가 중 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II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인류문명사를 수놓은 전쟁을 분석한다. 전 쟁의 역사는 결속력 있고 더 강력한 집단을 조직할 수 있는 세력이 승 리해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언어능력이 뛰어난 호모사피엔스가 자 신들보다 몸집도 크고 수도 많았던 네안데르탈인을 지구상에 절멸시킨이유도 여기에 있다. 로마공화정은 주변 도시국가들과의 강력한 동맹을 통해 서기전 3세기경 75만병의 시민에 25개 군단을 운영할 수 있었다. 정치적 통합과 결속, 그리고 강력한 동맹체제는 폭력적인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다.

로마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지중해를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발전하는 비밀에는 무엇보다 시민군단과 동맹 병력의 잠재적이고 실질적인 수(數) 에 있었다. 시민권과 확장과 패권적 제국의 팽창이 함께 이루어졌다.

로마의 지배력 확장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군사 인력을 증가시켰다. 하나는 외부 공동체 전체를 로마 시민층으로 통합하는 직접 병합 방식이다. 초기부터 로마는 외부 요소를 포용하는 남다른 개방성을 자랑했다. 두 번째는 패한 정치공동체의 영토 일부를 로마와 라틴 동맹에 양도하게 했다. 이런 땅은 로마인들의 경착지가 되었다. 셋째로 독립된정치적 지위를 보유한 모든 공동체는 로마와의 동맹 조약을 통해 제국의 일원이 되었다. 동맹의 의무는 전쟁이 발생할 경우 명시된 수의 병사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기원전 225년 로마의 패권영역에서 군복무에 동원할 수 있는 남성은 75만에 달했고, 그 가운데 약 3분의 1이 로마 시민이었다. 로마공화정 중기 보통 4개 군단과 그에 상응하는 동맹군 보충병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4-5만 수준이었다. 이는 적령기 로마 시민 4~6명 가운데 한 명에 해당하는 숫자다. 로마가 몇 년씩이고 전쟁을 지속하며 한니발의 군대를 지치게 만들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치체제와 사회시스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스 아테네가 대표적 사례이다. 아테네 시민들은 자비로 무장한 밀집대형의 팔랑크스 (phalanx)로 적과 맞섰다.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만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노예병사를 구성된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할 수 있었다.

17세기 영국은 프랑스에 비해 국력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탁월

한 재정운용을 통해 압도적인 해양 전력을 양성할 수 있었다. 그에 비 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은 엄청난 양의 은이 식민지로부터 유 입되었지만 고질적인 국가부도사태를 극복하지 못했다.

영국은 부유한 시장과 정교한 재정도구를 기반으로 높은 재정 신용 도를 유지했다. 영국의 강력한 대의제 정부가 채무 이행을 확실히 보장 했을 뿐 아니라. 상인계급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이바지하는 전쟁을 위해 더 많은 조세를 기꺼이 납부했다. 국가수입을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융자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이자와 원금을 더 쉽게 지불하고 상환 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스페인의 경우 전비를 왕실 자산이나 국외 자 본에 의존했다. 민간과 군대의 직위를 팔아 군대유지 비용을 감당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수입은 제한되었고 매관매직에 의한 내부적 부정 과 고비용구조는 해결할 수 없었다.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지 못한 나라는 채무불이행 사태를 불러왔다.

자원의 희소성이 경쟁을 부추기는 유언이지만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해 서 분쟁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욕망은 더 많은 것은 요구하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발전할수록 경쟁의 계기는 더욱 늘어나 게 마련이고 분쟁의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된다. 분쟁이 늘어날수록 관료 화된 국가. 유능한 국가의 필요성은 증대한다. 17세기 유럽에서 절대주의 국가의 등장과 근대군대의 형성이 함께 한 이유이다. 전쟁과 군대. 그리 고 국가발전의 순환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이 국가를 만든다."는 익숙한 명제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나왔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은 연쇄반응을 일으키면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특정 집단이 주변 지역을 병합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군대를 양성하게 되며, 주변 집단들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16세기 이탈리아에서 피렌체나 베니치아 같은 도시국가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 던 것도 주변의 프랑스나 스페인. 신성로마제국이 강력한 국가로 등장 했기 때문이다. 19세기 이후 민족국가의 등장과 보편화도 같은 맥락에 서 이해될 수 있다. 스웨덴이나 스위스와 같이 지리적 환경이 특수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변의 정치적 변화에 대응해서 민족국가로의 이행과정을 밝았다.

안보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쟁은 상대적이고 '거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경쟁과 분쟁이라는 현실이 또 다른 경쟁과 분쟁을 낳게 된다. "경쟁은 희소성의 근본 상태에서 자라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자체가 빚어내는 의심, 불안, 권력욕 때문에 스스로를 먹고 자라며 나름의 생명을 갖는다. 수단으로서의 전쟁이 위협과 불안의 상승작용을 통해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02쪽)

## $\mathbf{III}$

진화론의 관점에서 개별 국가 간의 경쟁은 동맹의 확대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세력을 가합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404)이나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BC 3세기) 역시 더 많은 동맹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동맹의 확대는 수적 차원의 문제일 뿐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을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저자가 1, 2차 세계대전에서 자유민주주의 요소보다 '미국 효과'를 중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 개입이나 의사결정과정, 국민적 지지와 헌신 등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생각한다. 그러나 가트 교수는 이러한 생각한 전쟁의 현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강대국이 경쟁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적·물적 역량을 갖고 있었던 미국의 참전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1914년이나 1939년의 시점에서 볼때 전쟁 결과는 결코 예정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20세기 내내 제2강대국과 제3강대국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했던 거대한 권력 집중체로 존재했고, 전 세계의 세력균형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유리하도록 결정적으로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다... 어떤 요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에게 우위를 선사했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어떤 장점이 아니라 무엇보다 미국의 현존 자체였다...미국이 없었더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20세기 대규모 투쟁에서 십중팔구 패했을 것이다.(730-731쪽)

달리 말하면, 독일이나 일본이 규모의 경제에서 밀렸기 때문에 패한 것이지, 체제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중견국 수준의 독 일이 최대 자원 보유국인 미국과 소련으로 구성된 거대한 경제-군사연 합을 이겨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에 비해 어떤 내 재적 우월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러한 시각은 '민주주의 승리론(democratic triumphalism)'의 신화를 해체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존재는 어떤 물 요인의 결과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미국이 탄생하 것은 역사의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의 자유주의를 접붙인 이 가지가 대서양 건너편에서 싹을 띄우고 독립과 더불어 자유주의의 유산을 제도화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경제적-군사적 권력을 단연코 제일 많이 차지하는 나라가 탄생한 것은 역사의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729쪽) 게다가 이 거대한 나 라가 합중국 형태의 단일 국가로 지속된 것도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 2)

<sup>2)</sup>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역사적 분석으로 끝나지 않는다. 만약 전쟁의 승리가 체제적 우월함에서가 아니라 경제규모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가 직면한 거대한 중국이나 새롭게 부상하는 러시아의 존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으로 인 식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통념에도 의 문을 제기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여주었던 권위주의적 발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집권 공산당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대의제적 민주주의로 이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치적으로 강압적이지만 충분히 효율적인 권위주의 체제와 거대한 규모의 개방적 자본주의의 결합이 가능하다면, 세계가 어 떠 도전에 직면할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저자가 언급했듯이 민주주의가 승리를 구가하며 역사의 종언을 외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눈 깜박할 사이에' 세계는 이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Azar Gat. 2010. Victorious and Vulnerable: Why Democracy Won in the 20th Century and How It Is Still Imperiled. Hoover Institution 참조.

전쟁의 결과에 대한 이러한 현실적 분석은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보다 객관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념적 편협함을 제거한다면, 지난 2백년간 전쟁의 감소가 민주주의 체제 덕분이라는 '민주적 평화론 (democratic peace theory)'의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근세 이후 평화의 원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원인인지 묻게 된다.

저자의 답은 명쾌하다. 전쟁이 더 이상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이다. 중세시대까지만 전쟁은 영토와 부, 그리고 명예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창구였다. 농업사회의 특성상 일종의 '제로섬 게임(zero-sumgame)'이 작동했던 것이다. 제한된 재화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나 근대 사회의 지배하고 있는 상업과 교역의 세계는 제로섬 게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과 상업이 생각한 따라 평화에 따른 이익이 급격히증가했다. "평화가 경제적 이익의 중대를 약속하는 산업—상업 세계에서는 자유주의 모델을 현실하합으로써, 특히 대립적 분쟁보다 규칙에얽매이는 협력적 경쟁을 통해 훨씬 많은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767쪽). 칸트가 염원했듯이 무정부 상태, 상호 불안, 전쟁의 악순환을 평화와 협력의 선순환 구조로 바꿨기 때문이다.

## IV.

그렇다고 현대사회가 평화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산업-상업 세계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공간 또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결론 부분에서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적 행위자나 실패국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이유이다. '공포의 균형' 위에 작동했던 핵무기의 평준화도 이들 비합리적 세력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위협의 극대화를 통해 생존을 추구하고 있다. 자유민주

주의가 취약하게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구적 합리성이나 규율 이 작동하지 않는 틈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실패 혹은 불량국가(rogue state) 자체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정치적 파급효과가 커지 않았고 국지적 혼란 정도에서 끝났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미했다. 그렇지만 이들 불량국가들이 핵무 기와 같은 전력을 보유하거나 비재래식 능력을 추구하는 테러 집단의 근거지가 된다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경우 에서처럼 국제적 공조를 통한 회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 기하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위협의 잠재적 원천인 이들을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화 정책과 보상 연장, 나아가 노골적인 뇌물은 그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권할 만하다.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접근법은 특히 무력 위협을 병행하지 않으면 대개 효과가 없다.(840쪽)

민주주의가 확산된다면 막을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러한 생각에 비판 적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바라는 것도. 무조건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확산되면 전쟁이 사라지고 평 화가 올 것이라는 생각 자체는 이러한 근본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설령 민주주의가 진행된다고 해도 예컨대 아랍과 무슬림 국가 들의 호전성이 감소할 것인지는 전혀 명확하지 않다(843쪽).

사실 더욱 '캡슐화된' 대량살상기술이 불량국가나 테러집단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개인과 조직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들이 대량살 상무기를 사용할 확률은 대폭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사용하는 일도 시간문제에 불과할지 모른다고 저자의 경고한다. 오늘날 대량살상무기 의 위협은 주로 급진적 이슬람과 연관되지만, 북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위협의 진짜 심각성은 어떤 '초강력 화난 사람(superempowered angry man)'이나 집단이라도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까? 물리력을 사용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불량국가에 의한 핵무기 보유나 확산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저자의 입장이다. 민주주의의 확산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민주화의 실현이 어려운 정치세력을 현저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홉스적 '전쟁지대'의 불안정한 지역들에서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무력을 사용할 능력과 의향 - 이따금 무력을 사용할 것을 전재하는 - 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840쪽).

# V.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의 전쟁을 예측할 수 있을까? 저자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기술이 추동하는 인류의 빠른 문화적 진화를 만들어낼 새로운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형태들과 패턴들, 그리고 이것들이 인간의 치명적인 폭력에 미칠 영향까지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어떤 대규모 재앙이든 진화과정을 지연시킬 수도, 완전히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는다(853쪽).

물론 특별한 방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예측할 수 없으며 "언제나 고뇌와 당혹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하지만 진화적 관점에서본다면 전쟁 역시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다. 폭력적 경쟁과 분쟁은 자연 전체의 통칙인 것이다.

유기체들은 언제나 자원이 극히 부족한 조건에서, 그들 자신의 증식 과정 탓에 더욱 힘겨워지는 조건에서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인 현실에서 유기체들은 협력 전략과 경쟁 전략, 분쟁 전략에 의지하고 이 전략들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으며, 어떻게 조합할지는 진화 경로에 따라 형성된 유기체들 각각의 특수한 형태에.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의 각 전략의 유용성에 달려 있다.(855쪽)

분쟁은 이러한 진화과정의 선택지로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전쟁(혹 은 분쟁)은 "인간 동기체계 전반의 근간을 이루는 인간 욕구의 대상들 과 동일한 대상들을 얻기 위해 수행해온 것이다."(864쪽) 다만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 추구했다는 점에서 다른 인간 행동과 차이가 있을 뿐이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이 '정치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이며 '진화적'이라는 점이다. 존 키건(John Keegan)이 잘 지적했듯이 전쟁은 사회 전체의 생활방식, 정체성, 종교,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훨씬 넓은 인과적 배열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적이다. 아울러 인 간의 복잡한 메커니즘과 거지서 가문되는 행동성향은 궁극적으로 진화 를 통해서만, 즉 어떤 종류의 내재적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된다는 점에 서 진화적이다. 인간의 행위 동기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 자원경쟁이 되 겠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방식은 진화적이며 문화적일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문제는 "진화과정에서 형성된 인간의 욕구들이 역사 내내. 그리고 근대의 조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전쟁의 동기 가 되어 왔는지를 밝히는 일"과 직결된다.(866쪽) 이런 과정을 통해 저 자가 희망했던 대로 대규모 재앙의 진화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지혜 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스스로 밝혔듯이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다. 인류학, 고고 학, 진화론, 생물학, 경제학까지 아우르는 지적 광대학을 보여준다. 그렇 기 때문에 더욱 도전해야 할 만한 책이다. 이제라도 번역본이 나온 것만 해도 전쟁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축복으로 간주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 연구소 동정

#### 1. 연구소 대외교류 및 활동

- 0 2017년 국제군사사학회 참가
  - 기간/장소: '17. 9. 2.~11.(7박10일) / 카메룬(두알라)
  - 참석인원 : 연구소장, 윤영휘 선임연구원
  - 주요활동

제43차 국제군사사학회 연례총회, 학술회의 대주제 및 세션별 토의 주변국 군사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협력 방안 토의 학술 및 인사교류, 전적지 답사 및 카메룬 특수부대 방문

- 제3차 군사사 연구논문 발표회
  - 일시/장소: '17. 9. 27(주) · 군사관차연구소 세미나실
  - 참석인원 : 50여 명(연구소, 군사사학회, 군 및 일반연구자 등)

15:00~15:10	개회사,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15:10~16:00	제1주제 : 1644년 산해관 전투와 청군의 북경 입성 발표자 : 박민수(서울대 강사) 토론자 : 장정수(고려대 강사)
16:00~16:50	제2주제: 창군기 한국군 정훈의 기획 -정공전범(초안)을 중심으로- 발표자: 김지훈(연세대 박사과정) 토론자: 박성용(인하대 강사)
16:50~17:00	휴식
17:00~17:50	제3주제: 백마고지 전투 재조명 -국군 제9사단의 전투 효율성을 중심으로- 발표자: 나종남(육사 교수) 토론자: 노양규(영남대 교수)
17:50~20:00	사진촬영, 만찬

○ 연구소와 한국보훈학회 간 공동 주최 세미나

- 일시/장소: '17. 10. 25.(수) / 전쟁기념관 2층 문화아카데미 홀

- 참석인원: 75명(연구소, 한국보훈학회, 기타)

- 진행

시 간	세부 내용
14:00~14:15	국민의례, 내빈 소개, 인사말씀
14:20~15:10	<ul> <li>주제 1: 6.25전쟁 수행과 한국군의 전력증강 (연구소 최정준 박사)</li> <li>주제 2: 베트남전쟁 시 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파병과 역할 (연구소 이신재 박사)</li> </ul>
15:10~15:30	● 주제 1 토론: 충북대 안성호 교수 ● 주제 20토론: 돼권파디어 박스 서성원 편집장
15:30~15:45	라과 및 환담
15:45~16:35	<ul> <li>주제 3: 6.25전쟁 참전유공자 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 보훈정책(순천향대 라미경 교수)</li> <li>주제 4: 베트남전쟁 오작교작전의 포상과 보훈 정책 (대덕대 허동욱 교수)</li> </ul>
16:35~17:15	<ul> <li>주제 3 토론 1: 연구소 조성훈 박사 토론 2: 인천대 강석승 교수</li> <li>주제 4 토론 1: 중원대 이현주 교수 토론 2: 경기대 김홍국 교수</li> </ul>
17:15~17:35	청중석(floor) *단상: 사회자 1명, 발표자 4명
17:35~17:50	폐회사, 기념촬영

※ 사회 : 1·2주제(김승기 국방사부장), 3·4주제(신종률 한성대 교수)

#### 414 | 軍史 第105號(2017, 12)

- 2017년 한・일 전사연구 학술회의 참가
  - 기간 / 장소 : 10. 16.(월)~20.(금) / 일본(방위연구소)
  - 참석인원 : 박종상(책임연구원), 심헌용(선임연구원), 전호수(연구원)
  - 주요활동 : 학술회의(발표 및 토론), 방위연구소 및 방위대학 교 방문, 전쟁사 관련 도서 및 자료수집, 전사적지 답사
- 2017년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 수검
  - 기간 / 점검관 : 11. 20.(월)~21.(화) / 국방부 점검관 3명
  - 내용 : 전·평시 임무수행계획 및 태세 발전, 부대 수 및 부대 특성에 부합된 주요업무 추진, 국방부 차원의 검토 및 업무 조정분야, 지원소요
- ㅇ 군사지에 서평 게재(공짜)
  - 게재편수 / 분량 : 2~3편 / 원고지 50매 내외
  - 원고료 : 원고지 1매달 6,000원(기대 30만원)
- ㅇ 군사사 연구논문 발표회(공지)
  - 일정 / 장소 : 매 분기말(3·6·9·12월) / 연구소 회의실
  - 진행 : 논문발표(2~3편), 지정/자유토론, 오찬 ※ 논문발표 희망자는 사전에 군사지 편집간사에게 연락
  - 발표료/토론료 : 예산 범위내(10~20만원)

## 2. **인사이동**: 없음

#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 〈자료기증안내〉

##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 됩니다.

## ◇ 연락처

• 주 소:(은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전 화:(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 〈자료이용안내〉

##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설(저쟁기념관 4층)

## ◇ 이용시간

• 평 일: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www.imhc.mil.kr

• 주요내용: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 신간 도서 소개

내

# 구 분 서부 사하라

#### 지구 사이다 국군의료지원단 증언록 ③

- 이종재 (국제분쟁사부)
- 신국판
- 2017. 9. 27.



서부 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은 지난 1994년 8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약 12년 간 아프리카 서북단 지역에 연 인원 542명이 파병되었습니다. 국군의료지원단은 UN 요원과 현지인 등 5만 8천여 명을 진료

하는 업적을 남기고 완전 철수하였습니다.

욧

이번에 발간되는 증언록 ③은 증언록 ①, ②권에 이어 파병장병들의 증언을 채취함으로써 국군을 대표하여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점을 묻론, 향후 또 다른 의료부대가 파병될 때 참고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춘천지구 전투(수정문), 고 심일소령 공적 확인 최종결과보고서

- 군사편찬연구소
- 신국판
- 2017. 9. 8.



6.25전쟁 초기에 적 전차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진 故심일 소령의 공적은 사실과 다르 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조사, 확인 및 해결을 위해 2016년 9월 20일에 '故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자료 조사, 현장 답사, 증언 청취, 자체 회의, 공청회, 추가조사 등을 통해 故심일 소령이 세운 공적의 실체를 확인 및 검증하였다.

이에 故심일 소령 공적확인 최종결과 보고서와 춘천지구 전투(수정문)을 발간 하여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춘천지구 전투를 재조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 대합니다.

# 『軍史』誌 投稿案內

####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군사제도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외교사·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br/>※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화를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 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요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한다.
-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uci.or.kr /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5호(2017):330-359, http://doi.org/10.12345 / mh.2017..105.1

-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학국연 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제 예 예 하를 참고하기 바람

## 3. 투고 요령

-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군사편찬연구소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 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 (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 6. 문의 / 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02-748-1667(정정모)

• FAX: 02-709-3111

• E-mail: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1

부분개정 2008. 12. 1

부분개정 2009.11.1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 환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구성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 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하다.
-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 제 4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

- 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 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 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하위로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차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 ·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 6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을 원칙으로 한다.

## 제 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 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 8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 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 9 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 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람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부·실장 또는 해당 분야 전공 연구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 켜서는 아니되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 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 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 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 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관계 직원은 조사 및 작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4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생물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가 명백한 경우
-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다. ②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 편집위원장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광서(조선대학교) 김강식(해양대학교) 박점순(충북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손규석(군사편찬연구소)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오영섭(연세대학교) 이 상호(군사편찬연구소) 이한우(서강대학교) 정용욱(서울대학교)

## 🌝 편집간사

정정모(군사편찬연구소)

## 軍 史 2017/12(第105號)

2017년12월8일印刷2017년12월15일發行

發行處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748-1667 FAX: 709-3111

**印刷處** 국군인쇄창 (M17111158)

本誌에 실린 論文内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 Military History

Vol. 105. 2017.12.

Jang, Kwang-Yeol	The Meaning of America's War Influence on ROK-US
	Alliance Changes

Na, Jong-nam A Study on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1952

- Analysis on the 9th ROK Division's Improved Capabili-

ties of combat execution -

Kim, Tae-Hyun The analysis of Kim Ilsung's Strategy during Korean War:

The Tendency of Turning Strategy into Tactics

Yang, Joon-seok The ROK Government's Counter Strategy to the US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1968 Pueblo Incident - Focused on the Fear of Abandonment -

Lyu, Han-su From "August Storm" to "Desert Storm": The U.S. Army's

Research and Adoption of the Soviet Theory of Opera-

tional Art in the Cold War Era

Sim, Heon-Yong US-Soviets Military Cooperation regarding the Soviet

Union's participation in Counter-Japanese War during

World War II

- Focused on the role of 'Lend-lease Act' and 'Project Hula' -

Yoon, Young-Hwi The Design of the Allies' Military Strategies and the Post-

War Structure at the Cairo Conference of 1943

Kim, Tae-Yoon The Hidden Side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Slogan

for 'Counter America and Assist N. Korea' Movements in

the area of Shanghai in China

- A Border Line between 'Resistance to America' and

'Assistance to N. Korea' -

Song, Eun-II A Study on 'Seonso', which means the place for building

warships, within the Jurisdiction of JeollaJwasuyeong in

the Joseon Era

Shin, An-Sik The Awareness of Territory and Border Dispute of the

Early Stage of Goryeo Dynasty

Kee, Kwang-Seo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Korean-Russian Military

Relations

- Sim, Heon-Yong, "Soviet's Military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1917~1948)"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2016) -

Choi, Young-Jin Causes and History of Wars in the perspective of

Darwinism

- Azar Gat, "War in Human Civi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